

---

# 水原學研究

---

創刊號



水原學研究所



## 간행사



| 유병헌 |  
수원학연구소장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시의 문화·예술정책 등 장·단기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제안을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 수원지역 전통문화의 재현, 계승, 계발을 위한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사업을 통하여 전통문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수원학연구소는 지난해 연말부터 몇 차례의 준비 회의를 통해 연구소의 설립 타당성 여부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올해 2월에 연구소 기구 및 임원 후보를 선정하였으며, 3월달에는 관계 원로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구소의 성격 및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님들의 회의를 통해 연구소의 설치운영 규정을 확정하였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 토양 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유지하여 차별화되고 개성있는 문화전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앞으로 전개될 수원학 연구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원학연구』 창간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수원학연구』는 수원학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수원학 어떻게 할 것인가”의 논문 6편과 기획주제인 정조시기의 수원 관련 논문 3편, 일제의 농업침탈과 수원 관련 논문 3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논문집에서는 수원학 관련 주제들 중 역사와 문화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희 수원학연구소는 수원지역 전통문화총서와 같은 학술자료집 간행, 영화역 복원사업과 같은 수원시 문화정책 및 전통문화 축제 연구,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문화교육 사업 등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벌여갈 예정입니다.

비록 작은 결실이지만 이것이 바탕이 되어 더욱 지역문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결과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수원학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여 수원학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평소 수원학에 관심많은 분들의 제언 부탁드립니다.



## 축 사



| 수원시장 |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수원학연구소의 학술 연구활동 성과인 『수원학연구』 창간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제 104만이 넘는 많은 인구와 눈부신 도시 발전으로 거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문화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인 문화예술사업은 외형적 발전에 걸맞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외형적 발전만으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외형적 발전에 맞게 독창적인 문화예술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경쟁력있는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원학연구』 책자의 발간을 통해 유·무형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고 연구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 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수원의 문화, 역사 등 여러 분야의 밀도있는 논의들은 시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문화의 새 지평을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 역사와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앞으로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출범한 수원학연구소에서 발간한 『수원학연구』 창간호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책에 수록된 수원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과 지리적 특수성의 연구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며 그 빛을 더욱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의 결실을 맺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여 주신 수원학연구소 유병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 수원문화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창간호에 수록된 다양한 소재의 방법론들이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 활동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수원학연구』 창간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水原學研究



간행사 • 유병헌 (수원학연구소장) 5  
축 사 • 김용서 (수원시장) 6

### 수원학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 수원학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화시대 경기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 최홍규 9  
수원지역 민족운동사 연구 동향과 과제 • 박 환 47  
수원지역 문학예술연구의 현황과 과제 • 김현선 65  
수원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김준혁 91  
수원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강진갑 119

### 기획 I : 정조시기의 수원

조선후기 현릉원(顯隆園) 원행(園行)과 역참(驛站) • 조병로 133  
현릉원(顯隆園)과 용주사(龍珠寺) • 박천우 187  
현릉원(顯隆園)의 조성과 화성방위체계(華城防衛體系) • 장필기 215

### 기획 II : 일제의 농업침탈과 수원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 • 박수현 237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구성원과 식민지 농업지배 • 김도형 267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운영실태 • 김주용 293

### < 부 록 >

수원학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종합토론 녹취록  
• 최자은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315

### < 회 보 >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345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349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351

## 지방화시대 경기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 특히 조선시대의 수원지방사 연구를 중심으로 —

최 홍 규 (경기대 사학과 교수, 본 연구소 운영위원장)

---

머리말

1. 조선시대의 향촌사회 관련 연구

2. 조선후기 경기지역의 실학과 양명학 연구

3. 신도시 화성 건설과 수원지방사 연구

맺음말 - 과제와 전망

---

### 머 리 말

경기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수 이남과 이북을 아우르는 일대의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 선사시대 이래 역사와 문화 전개에 중심지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근·현대시기 이후 경기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앙문화를 대표하는 수도 서울에 종속화(從屬化)된 면모를 지닌 지역으로 인식하거나,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正體性)이 희박한 고장으로 일반화시키는 타성적인 견해도 없지 않아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의 중심지인서울의 위성지역·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고유성·독자성 면에서 지역적 특성이 담긴 지방사와 지방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타지방에 비

해 취약하고 소홀해 왔다. 이러한 지역적 현상과 부수되어, 지역사와 지역문화 연구를 위한 각 부문의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거나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부수되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담긴 고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열 또한 타지방에 비해 무관심하거나 희박한 현상을 들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나 발상은 근대 이후에 생긴 관념이며, 조선후기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지역은 개성·강화·화성·광주 등 4유수부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 지방 향촌사회는 근기지역으로서의 독특한 공동체적인 생활문화를 형성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경기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산재해 있어, 위로는 중앙의 왕실문화<sup>1)</sup>와 양반 귀족문화에서 아래로는 토착적 농경문화·도시문화에 이르기까지 상층문화와 하층문화가 혼재해 있는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고장이다.<sup>2)</sup>

경기지역의 이러한 사회적·문화적 특성과 양상은 대체로 조선후기사회에 이르러 정착되고 그 특성이 드러났으며, 이는 경기지역이 갖고 있는 공간적(지역적)·인문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태(胚胎)되고 성숙된 역사현상임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서술이나 역사적인 정체성의 탐구는 이러한 문화적 기반과 지역적 풍토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문제되는 현실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지방사 연구의 목표·방향·방법 문제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깊은 반성의 자료로 삼아 연구의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의 시대와 가까이 연결되는 전근대사회인 조선시대는 국가사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유지해 왔던 만큼 지방자치의 전통이나 지방문화를 육성·촉진시킬 수 있는 역사적 조건도 매우 미약한 편이었다. 또 근·현대시기에 수도권 중심의 경제개발정책과 문화정책의 목표 아래 추진된 일련의 근대화 과정은 정치·경제의 중앙집권화정책과 문화·교육·예술의 중앙집중

화로 인한 지방 경시의 풍조와 함께 기층민(基層民)의 역사로서 지방사를 침체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의 시행·정착으로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연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자생력(自生力)의 원천인 자기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체성을 탐색·확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미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전국 각 지역의 향토사가들에 의해 향토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군 단위는 물론 전국 차원의 단체가 조직되면서 지역별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역사학계의 경우도, 기존의 한국사 연구가 중앙사 내지 일반사·국가사 중심, 연대기(年代記) 중심의 이해에 지나치게 치우친 결과, 구체적인 삶의 공간인 지역단위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는 매우 소홀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191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일본의 향토사 연구결과, 1950년대 이후 역사학계의 조류(潮流)로 떠오른 지방사 내지 지역사회론, 1980년대 이후 고조되기 시작한 중국 역사학계의 지방사 연구열, 더욱이 유럽의 경우는 프랑스의 아날(Annales)학과와 영국의 라이스터(Leicester)학과처럼 지방사(Provincial history)의 연구 전통이 일찍부터 역사 연구의 중심 주제와 이론으로 자리잡았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중에서 일본을 하나의 실례로 든다면, 일찍이 1910년대 초 야나기다 쿠니오(柳田國男)가 민속학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향토사 연구를 제창한 이래 대정(大正) 말에서 소화(昭和) 초부터 각급 학교에서 향토교육이 중시되고, 민중 중심의 지역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sup>3)</sup> 그 후 1951년 일본지방사연구협의회가 조직되어 기관지 『지방사연구』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sup>4)</sup>, 그 용어도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로 바뀌어, 중앙학계는 물론 각 지역의 지방사 연구자들에 의한 지역사회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sup>5)</sup> 또 각 지역마다

1) 정조시대에 건설된 신도시 화성의 경우, 13차에 걸친 정기적인 능행차와 1795년(정조 19) 을묘원행 때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계례 행사 등을 통해 중앙의 왕실문화가 지방사회에 상당 부분 전파되고, 향촌민 또한 이를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 최홍규, 「경기지역사의 연구현황과 과제」, 『조선시대지방사연구』, 일조각, 2001, 175쪽.

3) 芳賀登, 『지방문화의 보전』(呂博東, 小林幸夫 공역), 교육과학사, 1985, 107~125쪽.

4) 伊藤好一, 「『지방연구』회고」, 『지방사연구』 245호, 1993, 10.

5) 이계황, 「일본의 '지방사' 연구 논리의 추이」, 『한국 지방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2000, 321~324쪽.

부현지(府縣誌)는 물론 시지(市誌·史)·정지(町誌)·촌지(村誌) 등에는 여러 권으로 관련 항목에 대한 전문적 연구와 함께 충실한 지방 관련 사료집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발행해 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5월 전국 각지의 자생적인 향토사 연구자 또는 운동자들에 의해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가 결성되고, 1989년부터 매년 학술기관지 『향토사연구』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오고 있다. 그 용어도 현재까지 각 지방의 역사·문화 연구를 주도하는 해당 지역 출신 연구자들에 의해 ‘향토사’란 용어를 준용(準用)해 오고 있으며, 근년에 이르러 필자를 포함하여 학계의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지방사’ 또는 ‘지역사’란 용어를 간단없이 사용해 오고 있다. 또 그동안 1970년대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부터 광역단위 지방정부와 시·군 단위 지방정부에 의해 도지(道誌·史), 시·군지(市郡誌·史), 그리고 근년에는 촌락단위의 마을지 등을 활발하게 발간, 관(官)주도의 지방사 연구를 대표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역사학계에 경우도, 일반사적 측면에서 1980년대 이후 단속적이지만 조선 중·후기의 사회적 성격 및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향청·향안·서원·향약 등을 중심으로 지방사회 내의 사족지배체제의 양상·변화에 대한 향촌사회의 연구성과가 크게 주목된 바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 있어서 학계의 조선시대 지방사 인식은 사족지배체제와 같은 특정의 연구 주제나 범위에 구태여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연구 추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지방사 연구가 주로 향토사의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향토사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면, 1990년대 이후는 중앙사·일반사 중심의 역사 인식에서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전공 연구자들에 의한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방법론이 투영된 본격적인 지방사와 지방문화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각 지방사와 지방문화에 대한 연구는 향토애를 바탕으로 한 기왕의 향토사 내지 향토문화 연구의 차원을 넘어, 그 연구의 공간과 인력이 보다 확대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에 의한 학문으로서의 지방사와 지방문화 연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경기지역사, 특히 그 사례로 수원지방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여러 역사현상, 그 중에서도 향촌사회와 학문·사상의 변화, 18세기 말

## 1. 조선시대의 향촌사회 관련 연구

1980년대 말부터 고조되기 시작한 지방사 연구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한국사 연구가 중앙사·전체사·민족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연대기 중심의 이해에 치우친 연구 경향에 대한 일대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오늘의 한국사회와 문화는 중앙 중심의 집권적 사회·문화체제에서 지방 중심의 분권적 형태로 전환되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 연구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거시사(巨視史)에서 미시사적(微視史的) 주제와 방법론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기지역사의 통사는 물론 조선시대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삶의 공간인 지역단위의 공동체사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적인 연구는 매우 소홀히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방증으로는 수원지방사를 비롯한 경기지역사의 경우, 향토사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전공연구자들에 의한 학문으로서의 지방사 연구는 그리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선사시대~고려시대의 경우, 단행본 연구업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근년에 이르러 우장문의 『화성시의 선사문화』(2004)가 비로소 선을 보였다. 조선시대 수원지방을 비롯한 경기지역사와 관련되어 민간차원의 전공 연구자들에 의한 단행본 연구서는 겨우 몇 가지 손꼽힐 정도에 불과하다.

먼저 조선시대의 수원지방사를 중심으로 한 향토사가의 단행본 연구서로는 이제 재의 『수원의 옛 문화』(1995)가 있고, 학문으로서의 지방사 연구를 목표로 전공 연구자들에 의해 저술된 민간차원의 단행본 연구서를 간행 시기별로 살펴보면,

(1)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1995), 『정조의 화성건설』(2001), 『조선시대 지방사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2001), 『조선후기향촌사회연구 정조시대의 화성을 중심으로』(2001), (2)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정조대 역사 문화 재조명』(1995), (3) 이준희, 『조선시대의 한양과 경기』(2001) 등이 주목된다.

그리고 통사적 성격을 지닌 관련기관의 간행물로는 경기도의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1997)와 한신대 국사학과의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2003)가 있으며, 수원지방사 연구의 기본자료인 역대 읍지·지지에 대한 해설과 함께 원문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최홍규 편저의 『수원·화성군읍지』(2001)가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한편 수원지방의 경우, 3·1운동을 중심으로 한 일제 식민지시대의 단행본 연구

서로는,

(1) 홍석창, 『수원지방 3·1운동사』(1981), 『감리교회와 독립운동』(1998), (2) 김선진, 『일제의 학살만행을 고발한다 제암·고주리의 3·1운동』(1983), (3)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2003), (4) 이창식, 『일제강점기 민생기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003) 등이 참고된다. 그리고 수원지방사와 관련된 현대사 연구 자료집으로는 홍석창의 『수원지방 교회사자료집』(1987), 이승언의 『한말 일제하 수원기사 색인집』(1996) 등이 있다.

이상의 단행본 연구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원지방사의 연구는 이 고장이 지닌 역사적 특수성으로 미루어, 시대사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연구의 대상이 주로 조선 후기 정조시대에 건설된 신도시 수원과 화성성역, 그리고 현대시기에는 3·1운동을 비롯한 일제 식민지시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 유의하면서,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역사학계에서 발표되기 시작한 조선 중·후기 향촌사회의 성격과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그 논의를 제한해서 전개한 데 대하여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즉, 향청·향안·향약·서원 등을 중심으로 향촌사회 내의 사족지배체제의 양상·변화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그것인데, 이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변화·운영과 18세기 말 신도시 화성의 도시적 발전은 경기지역사 연구의 주요 소재이자 문제의식을 지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쉽지만 여기에서는 향약·서원과 함께 경기지역의 신도시·집성촌·사족층의 동향에 대한 일련의 연구현황을 항목별로 개괄해 보는 데 그치기로 한다.

### 1) 향약 연구

16세기 이래 사림세력이 등장하여 향촌질서 재편운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놓은 역사적인 성과물의 하나가 향약보급운동과 서원건립 활동이다.

경기지역은 일찍부터 기호사림(畿湖士林)에 의해 향약을 입안 시행한 전통이 있는 고장으로서, 그 중 가장 앞서서 것이 『파주향약(坡州鄉約)』이다. 조선중기의 향약이 지방의 양반인 현족(顯族)을 대상으로 한 향규(鄉規)의 성격이 두드러진 데 대

하여, 임·병 양란 이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신분제와 사회경제적인 변화 속에 사족(士族)들의 지배체제가 크게 동요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된다. 즉, 17세기 초를 전후해서 향약은 내용면에서 양반의 상계(上契)와 상천(常賤)의 하계(下契)가 나타날 정도로 큰 변화를 보였다.<sup>7)</sup>

양란 이후 상하합계는 경기지역의 경우, 1756년(영조 32) 안정복(安鼎福, 1741~1812)이 향리인 광주부~경안면(慶安面) 이리(二里)에서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이리동약(二里洞約)』, 수원 출신의 실학자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이 자신의 향촌사회 내에서 시행을 목적으로 입정한 『향약설(鄉約說)』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8세기 말 성호학과(星湖學派) 내지 근기학과(近畿學派) 실학의 중추(中樞)를 이루는 순암(順菴)과 취석실(醉石室)에 의해 입안된 광주와 수원지방의 향약 이외에도 현재까지 안성과 이천지방에서의 시행을 목적으로 입정된 『죽주향약(竹州鄉約)』과 『소고니가좌동금송계좌목(所古尼可佐洞禁松契座目)』 등이 남아 있다.

이러한 조선후기 경기지역의 향약의 구성과 특성에 대하여 지방사적 시각에서 본격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성과는 최홍규의 「조선후기 수원지방의 향약 - 우하영의 『향약설』을 중심으로」<sup>8)</sup>와 「조선후기 광주와 수원지방의 향약(상, 하) - 안정복의 『이리동약』과 우하영의 『향약설』을 중심으로」<sup>9)</sup>이다. 이 두 논문은 양란 후 광주와 수원에서 각각 양반과 상·천민이 모두 합심하여 난국을 극복하려는 공동체적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선후기 경기지역의 상하합계의 현상을 반영한 대표적인 향약에 대한 분석과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갖는다.

『이리동약』과 『향약설』은 지방사적 측면에서 볼 때 광주와 수원 등 경기지역에서의 시행을 목적으로 사회개혁과 농업진흥을 추구한 18세기 말 중농적인 성호학과 실학자들이 입안한 향약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그리고 광주와 수원 향촌사회의 양상과 문제점, 그리고 당시의 변화된 향촌현실과 향촌민의 요구에 대응하

여 양반 출신의 두 실학자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자신의 향촌사회를 위해 자치적인 인보(隣保)조직을 구상하려 했던가를 살피려 했다는 데 공통적인 특색이 있다.

한편 오환일의 「향약과 마을자치규약」<sup>10)</sup>은 위의 두 논문을 토대로 『이리동약』과 『향약설』을 개괄하면서, 『죽주향약』이 향촌사족 김재익(金載翼, 호 潛湖, 1736~1825)이 현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에서 시행한 향약임을 밝혔다. 아울러 19세기 정부의 금송(禁松)정책에 부응하여 입정된 것이 「소고니가좌동금송계좌목」인데, 이는 1838년(헌종 4) 현 이천시 대월면 가좌리에서 향촌민 스스로가 산림보호조직을 만들어 수령으로부터 처벌권을 위임받아 공회를 통해 자치적으로 운영한 금송계임을 소개하였다.

## 2) 서원 연구

조선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함께 각 지역 향촌사회 내에서 유향소(留鄉所) 복립, 향약보급운동과 함께 크게 주목되는 현상은 서원 건립 활동이다. 서원은 16세기 전반 중앙정계도의 진출과 향촌사회 내에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사림들에 의해 그 설립이 적극 추진 운영되어 왔다. 성균관·향교 등 과거 위주의 관학 교육이 점차 명리만을 좇아 반(反)학문적 부진과 쇠미를 징후를 보이자, 사림세력은 관학 대신 사학(私學)인 서원 건립을 통해 성리학을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향촌질서를 성리학적 윤리로 정착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중기 이래 전국적으로 서원과 사우의 건립수는 경상·전라·충청·평안도 순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그 다섯 번째를 헤아린다.

조선 중·후기의 서원·향교 관련 자료인 『조두록(俎豆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서원등록(書院謄錄)』, 『동유서원총록(東儒書院叢錄)』, 『전고대방(典故大方)』, 『학교등록(學校謄錄)』 등과 연대기, 경기도 각 군현읍지를 종합해 볼 때 조선중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 38개 군현 가운데 모두 47개소의 서원이

10) 『경기도 역사와 문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7.

7) 김용덕, 「향약과 향규」, 『한국사론』 8, 국편, 1981, 222쪽.

8) 『향토사연구』 4,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2 및 최홍규, 『조선후기향촌사회연구』, 일조각, 2001, 230~248쪽.

9) 『기전문화』 5·7,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89·1990.

설립·운영되었다.<sup>11)</sup> 그 중 설립 연대가 확인되는 것으로는 16세기 중엽에서 말기에 설립된 것이 9개소, 17세기에 30개소, 18~19세기에 6개소 등 모두 46개소에 이른다. 또한 국가에서 공인한 사액서원으로는 16세기 중엽에서 말기에 건립된 것이 2개소, 17세기에 27개소, 18~19세기에 12개소 등 모두 41개소임이 확인된다.<sup>12)</sup>

경기지역 내에서 서원 건립운동과 사액이 활기를 띠고 증가를 보인 것은, 17세기 중반 효종·현종대를 지나 흔히 남설기(濫設期)로 일컬어지는 숙종대를 경유하면 서부터였다. 율곡학과 내지 기호학파의 본고장인 경기지역 내의 서원 건립과 사액을 주로 서인계(특히 노론) 인물들을 봉향하는 곳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숙종대에 이르면서 특히 활발한 증가를 보였다. 숙종·경종대의 정권의 부침(浮沈)으로 인한 당파적 이해에 따라 서원 통제책이 시행되고, 영조대 남설에 따른 서원과 사우의 훼손이 강력히 시행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의 경우, 주로 노론계 주요 서원들에 대한 사액배향·복액(復額) 등은 훼손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었음은 특히 주목되는 현상이다.<sup>13)</sup>

한편 17세기 말 이후 서원과 사우의 첩설·남설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 일로에 있었다. 서원 남설기인 전국 서원의 건립수는 327개소, 사액수는 131개소에 이르렀고, 19세기 고종대에 이르면 전국 서원의 총수 903개소, 사액서원 270개소, 총 1,173개소에 달할 만큼 남설현상을 보였다.<sup>14)</sup> 이러한 서원의 역기능적 현상은 조선후기사회에 이룰수록 향촌사회 내에서 심각할 정도로 각종의 폐단을 야기하는 단서가 되었다. 그 결과 영조대 300여 개소의 서원과 사우를 정리한 데 이어 정조·철종대에도 서원 정리에 나섰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세기 후반 대원군의 서원 첩폐 후 존속하게 된 경기지역의 서원과 사우는, 개성 송양서원, 김포 우저서원(牛渚書院, 1648년 건립, 1675년 사액), 용인 심곡서원(深谷書院, 1605년 건립, 1675년 사액), 포천 용연서원, 파주 파산서원(坡山書院, 1568년 건립, 1650년 사액), 과천 사충서원, 여주 강한사(江漢祠), 양성 덕봉서원

(德峯書院, 1695년 건립, 1700 사액), 강화 충렬사, 과천 노강서원(鷺江書院, 1695년 건립, 1697년 사액, 현 의정부시로 이진), 광주 현절사, 고양 기공사(紀功祠, 1836년 건립 및 사액, 현 杏洲書院) 등 모두 12개소였다.<sup>15)</sup>

이처럼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중기에서 후기에 걸쳐 설립 운영된 경기지역의 서원연구는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는 영·호남 및 호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또 크게 주목해 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율곡학과 내지 기호학파를 대표하는 조선전기의 성리학은 물론 후기의 성리학·양명학·실학 등 학문과 사상을 탄생시킨 온상으로서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적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실로 의외의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최홍규의 논문 (1) 「조선시대 양주지방의 서원과 사우」(1999)<sup>16)</sup>를 비롯하여 (2) 「경기지역의 서원 현황과 성향-특히 용인지방과 관련하여」(2000)<sup>17)</sup>, (3) 「경기지역의 서원 건립 추세와 기호학파의 학맥」(2004)<sup>18)</sup> 등은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엉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경기지역의 서원·사우에 대한 최초의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을 줄로 안다.

앞의 논문 (1)~(3)논문들은 그 동안 연구의 관심 밖에 있던 양주와 용인지방을 포함하여 경기지역의 서원·사우에 대한 지방사적 시각이 투영된 선발적인 연구로서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경기지역 중 한수 이남과 이북을 대표하는 기호사림의 근거지로서 서원의 건립·운영이 활발했던 양주와 용인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지역의 서원·사우의 현황·성향·학맥을 탐색하려 한 것은, 연구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 지역 서원에 대한 연구열을 자극하는 데 일정한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뒤이어 조준호의 (1) 「조선후기 석실서원의 위상과 학풍」(1999)<sup>19)</sup>, (2) 「송시열의 도봉서원의 입향논쟁과 그 정치적 성격」(2002)<sup>20)</sup>, 최성환

15) 『전고대방』, 書院鄉祠錄.

16) 최홍규, 『조선후기향촌사회연구』, 일조각, 2001, 249~276쪽.

17) 앞의 책, 277~308쪽 및 『한국의 서원과 학맥연구』, 경기대 소성학술연구원, 2002, 29~58쪽.

18) 『경기지역의 서원』, 경기대 소성학술연구원, 2004, 35~62쪽.

19) 『조선시대사학보』 11, 1999.

20) 『조선시대사학보』 23, 2002.

11) 최홍규, 「경기지역의 서원 건립 추세와 기호학파의 학맥」, 『경기지역의 서원』, 경기대 소성학술연구원, 2004, 39~42쪽.

12) 앞의 책.

13) 최홍규, 「조선시대 양주지방의 서원과 사우」, 『조선후기향촌사회연구』, 일조각, 2001, 참조.

14) 정만조, 「17~18세기의 서원·사우에 대한 시론」, 『조선시대 서원연구』, 141쪽.

의 「조선후기 이재의 학문과 한천정사의 문인교육」<sup>21)</sup>, 정만조의 「경기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사적 특징」(2004)<sup>22)</sup> 등의 논문이 속속 발표되었다. 비록 활발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경기지역 서원에 대한 관심의 폭과 외연(外延)이 보다 확대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중 구만옥의 논문은 18세기 전반 용인 출신의 성리학자 이재(李緯, 1680~1746)를 조선후기 낙론(洛論)의 대표적인 학자로 평가하면서 그가 문인교육을 시행하던 용인 강학처 한천정사(寒泉精舍, 이재의 사후 1802년 ‘한천서원’으로 건립, 사액됨)의 존재와 교학기능을 고찰한 논고이다.

앞의 연구자들이 연구주제로 삼은 도봉서원과 석실서원은 양주지방은 물론 중앙사회에서 활약한 최고의 유교적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경기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또한 근기사립의 향문을 주도하는 향촌사회의 공론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부각시킨 점은 지방사적 관점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 3) 향촌사회의 변화 양상 - 신도시 화성·집성촌·사족층의 동향 연구

조선시대 경기지역 내의 향촌질서와 향촌사회의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는 이 시대 향촌사회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말 정조대의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축조 등과 같이 중앙정부에 의한 이 시대 대(對)지방 특별정책과 사회변동에 직면한 후기사회의 특성과 요인이 향촌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유도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최홍규의 (1) 「정조대의 화성축조와 향촌사회의 변화」<sup>23)</sup>, (2) 「정조대 신도시 화성의 변형과 산업진흥책」<sup>24)</sup>, (3) 「정조대의 대화성 농업진흥정책과 농업생산력 발전 - 특히 수리정책과 농업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sup>25)</sup>, (4) 「취석실 우하영의 향촌사회발

전문 - 정조대 향촌지식인의 대화성관」<sup>26)</sup> 등 일련의 논문은, 정조의 주도하에 국력을 기울여 이음을 통해 계획된 신도시가 건설되고 대대적인 축성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또 행정·군사·산업면에서 각종의 특별정책의 지원으로 공전(空前)의 도시적 발전을 거듭하던 신도시 수원(화성)에 대한 지방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고들이다.

물론 이 논고들은 일차적으로 정조시대의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성역에 대한 구조적 고찰이라는 점에 역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말 수원을 비롯한 광주·과천·안산·시흥·용인·진위 등 인근 열읍민에게 취해진 문·무과 별시의 시행, 장용외영(壯勇外營)의 설치에 따른 군역 감면과 환곡·향곡의 감면 조치, 연로자·빈민에 대한 구휼시책 등 각종의 특혜, 대규모 제언(堤堰)과 둔전의 설치를 통한 농업진흥책, 상공업의 진흥정책, 서울 노량진과 수원 간의 신작로 개설과 역참의 설치 등 중앙정부의 지방정책이 ‘신도시 수원’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켰고, 향촌사회 내에 어떤 문제점을 남겼는가를 폭넓게 고찰하였다. 또한 정해득의 「정조대 수원 이읍과 이후의 변화 양상 - 수원지역 ‘읍지’를 중심으로」<sup>27)</sup>는 조선후기 『수원부읍지』에서 19세기 말 『수원군읍지』를 중심으로 읍치를 옮긴 이후 수원사회의 변화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한편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조선후기의 다양한 변화 중에서 향촌사회의 구조, 그 중에서도 17세기에 새로운 향촌제도가 성립되고, 경기지역 향촌사회 내에서의 집성촌과 사족층에 동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첫번째 시도는 정만조의 논문 「조선시대 용인지역 사족의 동향」<sup>28)</sup>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조선전·후기 용인지역 사족의 동향을, 주로 용인 모현면 지역의 영일정씨·연안이씨·해주오씨, 그리고 인접지역의 용인이씨·우봉이씨·한산이씨 등 사족층의 세거(世居)와 그 인물들의 혼인 및 활동상을 추적해 본 사례연구이다.

먼저 박종기의 「경기 북부지역 중세 군현 특수부락 변화 연구」<sup>29)</sup>는 조선시대 향촌

21) 『역사교육』 77, 역사교육연구회, 2001.

22) 『경기지역의 서원』, 경기대 소성학술연구원, 2004.

23) 『국사관논총』 30, 국편, 1991 및 『조선후기향촌사회연구』, 일조각, 2001.

24) 『경기사학』 2, 경기사학회, 1998 및 앞의 책.

25) 『국사관논총』 89, 국편, 2000 및 앞의 책.

26) 『한국실학연구』 2, 한국실학연구회, 2000 및 앞의 책.

27) 『경기사학』 3, 1999.

28) 『한국학논총』 19,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96.

29) 『북약사론』 8, 국민대 북약사학회, 2001.

사회의 역사적 기반이 되어 준 고려시대에서 조선중기에 이르기까지 경기 북부지역의 군현의 읍치를 비롯하여 특수촌락으로 존재해 온 향(鄕)·소(所)·부곡(部曲)의 위치·입지조건과 변화과정을 지리적 특성과 대비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토대 아래에서 이근호·조준호·이계형의 「경기 북부지역 집성촌의 분포와 입지조건」<sup>30)</sup>에서는 이제까지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동성마을’이나 ‘동족마을’이라는 개념으로는 17세기 이전 이 지역 향촌사회의 사족층을 이해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성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족사회의 성격을 해명하려고 하였다.

한편 지두환의 「조선전기 경기 북부지역의 집성촌과 사족 동향」<sup>31)</sup>은 조선전기 율곡학파를 중심으로 한 기호사림의 근거지였던 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의 집성촌과 향촌의 사족층 동향을 고찰한 논고이다. 이어서 정만조의 (1) 「조선 중·후기 경기 북부지역의 사족 변천과 집성촌의 발달」<sup>32)</sup>과 (2) 「조선후기 경기 북부지방 남인계 가문의 동향」<sup>33)</sup>등 두 편의 논문에서는 경기 북부지역의 사족 변천과 집성촌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를 총괄하면서 한편으로 조선후기 이 지역 남인계 가문의 동향을 정치·사회적 배경과 조응하여 고찰하였다.

경기지역은 일찍이 여말선초 이래 왕족과 양반 집권세력의 지역적 기반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들은 16세기 이래 임·병 양란을 경험하고 사림파의 진출로 세력이 약화된 반면 기호사림의 정계 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새로운 명문가들이 이 지역으로 옮겨와 살면서 집성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경기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영·호남의 경우처럼 향안(鄕案)이나 동계(洞契)를 통한 족적 결합이나 향권에 대한 향촌지배체제를 구축하려는 관심보다는 중앙정계의 정치 권력에 대해 보다 민감한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정만조의 (2)의 논문은 17세기 남인 세력이 서인과의 정쟁에서 패배했거나 일부 중앙에서 관직생활을 하던 남인계 인사들이 생활의 근거지를 이곳에 둔 뒤의 근기남인 가문의 동향을 살펴본 것이다.

30) 앞의 책.

31) 『북악사론』 8, 국민대 북악사학회, 2001.

32) 앞의 책.

33) 『한국학논총』 23,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1.

## 2. 조선후기 경기지역의 실학과 양명학 연구

### 1) 실학 연구

조선중기의 성리학이 파주를 중심으로 한 한수 이북 지역에서 연원한 데 대하여,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풍으로 대두된 현실 중시의 실용과 경제학적 성향을 지닌 실학(實學)은 서울과 남한강 유역의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군(一群)의 진보적인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이들 실학의 유파를 ‘근기학과(近畿學派)’<sup>34)</sup>라는 지방적 특성이 담긴 이름으로 불릴 만큼, 서울 및 경기지역은 실학의 발생·전개에 온상이 되어 왔다. 주로 안산·광주 등 한수 이남 경기지역의 뿌리를 둔 실학은 민족해방 후 일제 식민주의사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분야의 하나였다. 특히 한국 근대화의 시발 문제를 둘러싸고 조선후기 실학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민본적·민족적·근대지향적 성격에 주목하였다.

조선후기 실학의 선구자인 유형원의 학문·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천관우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반계 유형원연구」<sup>35)</sup>가 그것으로, 반계(潘溪)의 저술 『반계수록』의 전제·교선(敎選)·임관·직관·녹제(祿制)·병제 등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연구를 선구적으로 수행하였다. 반계의 실학사상에 대한 관심은 이후 정구복 「반계 유형원의 사회개혁사상」<sup>36)</sup> 등으로 이어졌다. 천관우는 실학 발생에서 본 조선사회의 단면을 천착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여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에 탐구과정에서 실학의 개념, 그리고 근대적 성격을 밝히는 일련의 논고를 발표하였다.<sup>37)</sup>

이 글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실학이 발생·전개하게 된 배경과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히 지방사적 관점에 유의하면서 18세기의 실학을 학문으로 중흥시킨

34) 이우성, 「이조후기 근기학파에 있어서의 정통론의 전개」,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35) 『역사학보』 2·3, 역사학회, 1952 및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36) 『역사학보』 45, 1970.

37) 「조선후기 실학의 개념」, 「조선후기 실학의 개념 재론」, 『한국사의 재발견』, 일조각, 1974 및 「실학개념 성립에 관한 사학사적 고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성호학과(근기학과)와 연암학과(북학과)에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호학과 관련 주요 연구 논문

- ① 최익환, 『실학과와 정다산』, 평양 국립출판사, 1955.
- ② 홍이섭, 『정약용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한국연구원, 1959.
- ③ 이우성, 「이조후기 근기학과에 있어서의 정통론의 전개」,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 ④ 이우성, 「녹암 권철신의 사상과 그 경전 비판」, 『한국의 역사상』.
- ⑤ 한우근, 『성호 이익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50.
- ⑥ 신용하, 「다산 정약용의 정전제 토지개혁사상」, 『김철준박사회갑기념사학논총』, 1984.
- ⑦ 심우준, 『순암 안정복 연구』, 일지사, 1985.
- ⑧ 이을호, 『다산경학사상 연구』, 을유문화사, 1985.
- ⑨ 대우학술총서, 『정다산과 그 시대』, 민음사, 1986.
- ⑩ 조성을, 「정약용의 신분제개혁론」, 『동방학지』 51, 1986.
- ⑪ 박찬승, 「정약용의 정전제론 고찰」, 『역사학보』 110, 1986.
- ⑫ 강만길 외, 『다산의 정치경제사상』, 창작과 비평사, 1990.
- ⑬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 ⑭ 강세구,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연구』, 혜안, 1996.
- ⑮ \_\_\_\_\_, 『성호학통 연구』, 혜안, 1999.
- ⑯ 최홍규, 「취석실 우하영의 향촌사회발전론」, 『조선후기향촌사회연구』, 일조각, 2001.
- ⑰ 이성무, 「성호 이익의 가계와 학통」, 『한국실학연구』 2, 2002.
- ⑱ 신항수, 『이익(1681~1763)의 경·사해석과 현실인식』, 2001,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⑲ 원재린,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형성과 학풍』, 2001,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 (2) 연암학과 관련 주요 연구 논문

- ① 이우성,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 비평사, 1982.
- ② \_\_\_\_\_, 「실학과와 문학과 사회관 - 박연암의 경우」, 『한국의 역사상』.
- ③ 김용덕, 「정유 박제가 연구」, 『조선후기사상사연구』, 을유문화사, 1977.
- ④ 한영우, 「유수원의 신분개혁사상」, 『한국사연구』 8, 1972.
- ⑤ 천관우, 「홍대용의 실학사상」,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 ⑥ 이성무, 「이덕무의 실학사상」, 『향토서울』 31, 1967.
- ⑦ 조 광, 「홍대용의 정치사상 연구」, 『민족문화연구』 14, 1979.
- ⑧ 유봉학, 『연암 일파의 북학사상의 연구』, 일지사, 1995.
- ⑨ 이현창, 「유수원과 박제가의 상업진흥론」, 『한국실학연구』 4, 2002.

먼저 1) 성호학과 중 정약용에 대한 ① 최익환과 ② 홍이섭의 저술은 1950년대 중·후반 각각 북한과 남한에서 이루어진 선구적인 연구 성과물이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성호학과 실학의 완성자로서 옛 광주부 초부방 마현리(현 남양주시 조안면 능대리) 출신이다. 그는 근기학파의 경제치용적·중농적인 학풍과 북학파의 이용후생적인 경향까지 종합 수렴한 일세의 천재적이고 박학다재한 학자·사상가였다. 그는 농업부분의 개혁에 치중하여 여전제(閭田制)와 정전제(井田制)의 토지개혁론을 펼쳤고, 18세기 말 화성축성 때는 정조의 지우를 얻어 그 설계계획과 함께 유형거(游衡車)·거중기(擧重器) 등의 제작을 설계하였다.

앞의 ⑥ 신용하, ⑧ 이을호, ⑨ 대우학술총서, ⑩ 조성을, ⑪ 박찬승, ⑫ 강만길 외 등의 논문들은 정약용의 토지제도·신분제도·경학·정치경제사상 등을 고찰한 것이다. 또 ③, ④ 이우성, ⑤ 한우근, ⑦ 심우준, ⑬, ⑭ 최홍규, ⑮ 강세구, ⑰이성무, ⑱ 신항수, ⑲ 원재린 등의 논문들은 안산·광주를 비롯하여 수원·인천 등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익(李瀾, 호 星湖, 1681~1763)을 대종(大宗)으로 삼는 성호학과 내지 근기학파의 학맥과 실학사상을 심도있게 고찰한 것이다.

성호학과 내지 근기학파의 가장 큰 특색을 이루는 것은 중농적인 학풍으로서, ⑬

최홍규의 우하영(禹夏永, 호 醉石室, 1741~1812,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출신) 연구는 18세기 말 성호학파의 대표적 농학사상가인 우하영의 선진적인 농업개혁론과 상공업·광업 등 진보적인 산업진흥론 등을 지방사적 시각에서 구조적으로 고찰한 저술이다.

한편 앞의 2) 연암학과와 관련한 ① 이우성의 논문은 18세기의 서울이 상업과 수공업이 활기를 띠고 발전하는 가운데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선진 지식인들이 북학파의 이용후생학(利用厚生學)을 성립시킨 배경과 시대조류를 고찰한 것이다. 또 ② 이우성, ③ 김용덕, ④ 한영우, ⑤ 천관우, ⑥ 이성무, ⑦ 조광, ⑧ 유봉학, ⑨ 이현창 등의 논문은 북학파의 영수 박지원을 비롯하여 박제가(朴齊家, 1750~?), 유수원(柳壽垣, 1694~1755),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이덕무(李德懋, 1741~1793) 등 주로 서울 노론가 출신의 북학파 학자들이 주장한 상공업 중심의 부국안민론(富國安民論)·신분제개혁론·문학사상 등을 다양하게 고찰한 것이다.

## 2) 실학사상의 연원과 양명학 연구

근기학파의 실학을 중흥시킨 이익의 당색·학맥 등을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 근기남인을 영도하면서 독특한 학풍을 구현한 허목(許穆, 1595~1682)과 만나게 된다. 허목은 17세기 후반 한국 유학이 예학(禮學)의 단계에서 실학의 단계로 이행되는 데 주춧돌을 마련한 선구적 학자로서, 당시 한성부 창선방(彰善坊)에서 출생하여 향리인 경기도 연천에서 만년을 보내면서 학문을 영위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가계나 학통상으로 소북계에 속했다가 근기남인에 흡수된 인물로는 앞의 허목을 비롯하여 윤휴(尹休, 1617~1680)·유형원(1622~1673)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학문적으로 모두 탈주자학적인 사상 경향을 나타낸 것이 특색이다.

한편 17세기에 들어서면서 파주 출신인 이이의 동향 친우로서 기호학파의 한 기둥을 형성한 성혼(成渾, 1535~1598)의 학통을 잇는 장유(張維, 1587~1638)·최명길(崔鳴吉, 1586~1647)·윤선거(尹宣擧, 1610~1669)·윤증(尹拯, 1629~1714)·박세당(朴世堂, 1629~1703)·최석정(崔錫鼎, 1646~1715) 등 소론계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이의 ‘기발이승지(氣發理乘之)’ 설을 따르면서도 여기에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는 양명학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소론의 양명학에 대한 선구적인 이해와 수용은 16세기 말 서경덕(徐敬德)의 문인 남언경(南彦經, 1528~1594)과 또 그 문인 이요(李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후 이수광(李睟光, 1563~1628)·허균(許筠, 1569~1618) 등을 거쳐 17세기 전반에 시흥지방과 연고가 깊은 장유가 신흘(申訢, 1566~1628)·최명길과 함께 비로소 조선 양명학의 기초를 세웠다. 이후 양명학은 윤휴·박세채(朴世采, 1631~1695)·윤증·박세당 등을 거쳐, 17세기 말 최명길의 손자 최석정을 비롯한 주로 소론계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18세기 초 마침내 정제두(鄭齊斗, 1649~1736)에 의해 집대성되었다.<sup>38)</sup>

먼저 17세기 근기남인 학통의 연원을 이룬 허목에 대한 연구로는, 정옥자 「미수 허목 연구」<sup>39)</sup>, 한영우 「허목의 고학과 역사인식 - 『동사』를 중심으로」<sup>40)</sup>, 정광호 「미수 허목의 고전(古篆)세계」<sup>41)</sup>, 김동건 「미수 허목의 서예관과 고문인식」<sup>42)</sup>, 김길환 「허목의 학문과 사상」<sup>43)</sup>, 금장태 「미수 허목의 사상」<sup>44)</sup>, 고영진 「17세기 후반 근기남인 학자의 사상 - 윤휴·허목·허적을 중심으로」<sup>45)</sup>, 김연중 「『경설』을 통해 본 고학의 성격」<sup>46)</sup>, 신병주 「17세기 중·후반 근기남인 학자의 학풍 - 허목·윤휴·유형원을 중심으로」<sup>47)</sup> 등 적지 않은 논고가 축적되어 있다. 또 미수연구회에서 윤사순 「미수 허목 연구의 어제와 오늘」을 비롯한 6편의 논문을 단행본으로 수록한 『미수연구논집』 창간호(2002. 4)를 간행하였다. 이상으로 허목에 대한 연구는 크게 문학·사상·역사·예술 등 분야에 망라되어 있고, 17세기 중·후반 근기

38) 지두환, 「2. 양명학」, 『한국사』 35, 국편, 1998, 72~73쪽.

39) 『한국사론』 5, 서울대 국사학과, 1979 및 『조선후기지성사』, 일지사, 1991.

40) 『한국학보』 40, 일지사, 1985.

41) 『민족문화』 4, 민족문화추진회, 1979.

42) 『문화전통논집』 창간호, 경성대 향토문화연구소, 1993. 8.

43) 『한국학보』 18, 일지사, 1985.

44) 『퇴계학보』 84, 퇴계학연구원, 1994. 12.

45) 『역사와 현실』 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46) 『도산학보』 5, 도산학회, 1996.

47) 『한국문화』 1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7.

남인 학자의 학풍과 관련하여 윤희·허적·유형원 등 탈성리학적 경향과 대비하여 고찰한 논고도 있다.

17세기 실학사상의 태동이 성리학 일변도의 ‘이론을 위한 이론’과 같은 관념적인 흐름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에서 출발했다면, 이미 오래 전부터 교조적(敎條的) 주자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소론계의 학자 윤희와 박세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윤희에 대한 연구는 한우근의 「백호 윤희 연구」 I·II·III<sup>48)</sup>을 비롯하여 17세기 근기 남인의 학자 중 가장 급진적인 측면에서 반주자학적 성리론을 편 것으로 평가하면서 앞에서 살펴본 허목·허적·유형원 등과 비교 고찰한 논문들이 있다.

만년을 현 의정부시(옛 양주군) 장암동 수락산 기슭에서 은거하며 사색을 영위했던 박세당은 『사변록(思辨錄)』을 통해 고식적인 주자학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또한 농서 『색경(穡經)』을 저술하여 한수 이북 경기지역의 농촌현실에 맞는 농학사상을 전개, 18세기 실학 학풍 수립에 선구를 이루었다. 박세당에 대한 논고로는 이병도 「박서계와 반주자학적 사상」<sup>49)</sup>을 비롯하여 윤사순 「박세당의 실학사상에 관한 연구」<sup>50)</sup>, 「박세당의 실학사상」<sup>51)</sup>, 장숙필 「박세당의 실학적 인간관」<sup>52)</sup>, 박재술 「박세당의 천관」<sup>53)</sup> 등이 있다. 이들 논고에서는 원초 유학정신에 입각하여 그 시대 성리학의 학풍을 강렬히 비판한 박세당의 학문적 태도를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즉, 박세당은 일상·현실적인 실제성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사서(四書)·『모시(毛詩)』·『상서(尙書)』 등 정주(程朱)의 주해를 전면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사문난적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서도 경학(經學)의 측면에서 주자 중심의 성리학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적극적으로 ‘탈성리학’을 꾀한 인물로서 그의 학문적 태도와 선구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탈성리학과 실학의 대두라는 중간 시점에 위치한 양명학은 소론계의 학자 정제두에 의하여 그 사상적 체계가 확립되었

다. 정제두 이후 양명학은 그의 손서(孫婿) 이광명(李匡明)과 신대우(申大羽)에게 전승되어, 이들 가문을 중심으로 200여 년 간에 걸친 이른바 강화학파(江華學派)란 독특한 학맥을 형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학파는 심학(心學)으로서 양지(良知)를 중시하면서 일부 실학과와 제휴하는 경향을 보였다.<sup>54)</sup>

양명학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연구로는 일찍이 정인보에 의해 『양명학연론』<sup>55)</sup>이 선구적으로 이루어진 이후 윤남한의 저술 『조선시대의 양명학연구』<sup>56)</sup>에 이르러 그 연구가 본격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김길환 「양명학과 조선조 양명학의 실제」<sup>57)</sup>, 『한국양명학 연구』<sup>58)</sup>, 유준기 「강화학파의 학맥과 사상적 전개」<sup>59)</sup>, 지두환 「조선후기 양명학의 수용과 전개」<sup>60)</sup>, 김길락 「기호 양명학의 형성과 전개」<sup>61)</sup> 등의 논문과 특히 김교빈의 저술 『양명학과 정제두의 철학사상』<sup>62)</sup>에 의해 정제두의 생애·문제의식·이기론·심성론·사회인식과 실천관의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깊이 연구되었다. 또한 앞의 유준기의 논문은 강화학파의 학맥과 사상 전개에 대한 지방사적 관점이 투영된 논고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이러한 양명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양명학적 실학사상을 펼친 학자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용인 출신의 유희(柳僖, 1773~1837)였다. 일찍이 그는 정동유(鄭東愈)와 신작(申綽)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그의 학문과 사상에는 실학과 양명학의 영향이 짙게 깃들어 있다. 구만옥의 「방편자 유희(1773~1837)의 천문역법론 - 조선후기 소론계 양명학과 자연학의 일단」<sup>63)</sup>은 역리(易理)와 자연과 과학분야에 조예가 깊었던 유희의 천문역법론을 소론계 양명학과 자연학의 특징으로 해명하는 뜻있는 연구성과이다.

54) 최홍규, 「경기지역의 학문과 사상」, 『조선시대지방사연구』, 일조각, 2001, 20~21쪽.

55) 삼성문화재단, 『양명학연론』, 1972.

56) 윤남한, 『조선시대의 양명학연구』, 집문당, 1982.

57) 『한국학보』 21, 일지사, 1980.

58) 『한국양명학연구』, 일지사, 1981.

59) 『국사관논총』 10, 1989.

60) 『국사관논총』 22, 1991.

61) 충남대 교유학연구소, 『기호학파의 실학사상』, 예문서원, 1995.

62) 한길사, 1995.

63) 『한국사연구』 113, 한국사연구회, 2001.

48) 『역사학보』 15·16·19, 1961·1962.

49) 『대동문화연구』 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2.

50) 윤사순, 『한국유학논구』, 현암사, 1980.

51) 『한국의 성리학과 실학』, 열음사, 1987.

52) 한국사상연구회, 『실학의 철학』, 예문서원, 1996.

53) 앞의 책.

이에 덧붙여 17세기 전반에 성리론보다는 실생활에 통하고 실용적인 유학을 탐구하는 각도에서 그 무실(務實)과 박학의 정신이 유형원·이익 등에게 영향을 끼친 이수광의 실학사상 또한 도외시할 수 없다. 윤사순의 「이수광의 무실사상」<sup>64)</sup>은 무실과 박학의 정신이 어우러진 선구적인 저술 『지봉유설(芝峯類說)』을 지은 이수광이 동시대의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이나 예설에 추종하지 않고, 탈성리학적 실학을 선도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 천문학 발전에 신경지를 개척한 김석문(金錫文, 1658~1735)은 은퇴 후 만년을 포천군 가사면 다대곡(多大谷)에서 보내면서 '대곡(大谷)'이란 자신의 아호를 따서 쓸 만큼 포천 향촌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기울였다. 김석문은 저술 『역학24도총해』를 통해, 동양적 우주관의 두 축을 이루는 지정천동설(地靜天動說)과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을 모두 부정하며, 지구자전설(地球自轉說)을 적극 옹호하였다. 역(易)의 이론에서 지구의 자전을 연역해낸 그의 선구적인 우주설은 18세기 홍대용·박지원 등 북학과 실학자들의 천문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큼 조선후기 천문학 이론에 선구를 이루었다.<sup>65)</sup> 김석문의 선진적인 우주설에 대한 연구로는 이용범 「김석문의 지전설과 그 사상적 배경」<sup>66)</sup>을 비롯하여 김용현의 「김석문의 우주설과 그 철학적 성격」<sup>67)</sup>이 주목된다.

끝으로 19세기 실사구시파(實事求是派)의 실학을 이끈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충청도 예산에서 출생했으나, 만년은 과천현 주암리 석포동에 우거하면서 학문을 영위하였다. 김정희에 대한 연구 논저로는 최완수의 『김추사연구초』<sup>68)</sup> 등이 있다.

### 3. 신도시 화성 건설과 수원지방사 연구

조선후기 정조시대의 수원지방에 대한 연구는 이 시대 경기지역사 연구성과 중의

64) 한국사상연구회, 『실학의 철학』, 1996.

65) 최홍규, 「조선후기 경기지역의 실학자와 화성의 실학」, 『정조사상연구』 6, 2003, 33~34쪽.

66) 『진단학보』 34, 1972.

67) 한국사상사연구회, 『실학의 철학』, 예문서원, 1996.

68) 지식산업사, 서울, 1976.

핵심을 이루는 주제의 하나로서, 대체로 정조시대의 1.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성역의 관련 연구, 2. 수원지방의 지방사적 연구 두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성역의 관련 연구

조선시대 전·중기의 수원지방 관련 독립된 지방사적 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양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8세기 말 정조대의 신도시 건설과 화성축조를 둘러싼 일련의 연구성과이다. 수원은 계몽군주 정조가 개혁정치와 문화중흥을 지향하면서 건설한 계획도시인 데다가, 『화성성역의궤』·『원행을묘정리의궤』·『수원부읍지』·『화성지』·『관수만록(觀水漫錄)』·『화영일록(華營日錄)』등 이 시대의 문헌자료가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이 부문의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띤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69)</sup>

먼저 18세기 말 정조시대에 이루어진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축성 관련에 대한 연구성과 중 단행본 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저 서

- ① 최홍규, 『우하영의 실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 ② \_\_\_\_\_,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 ③ \_\_\_\_\_, 『조선후기 향촌사회연구 - 정조시대의 화성을 중심으로』, 일조각, 2001.
- ④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화성 - 정조시대 역사 문화 재조명』, 친구문화사, 1996.
- ⑤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 수원성』, 도서출판 발언, 1996.
- ⑥ 유봉학 외, 『정조시대 화성 신도시의 건설』, 백산서당, 2001.

최홍규의 ①의 저술은 18세기 말 수원 출신의 실학자 우하영의 신도시 건설과 화

69) 최홍규, 「수원지방사의 연구현황과 과제」, 『경기사학』 3, 경기사학회, 1999 및 『조선시대지방사연구』, 일조각, 2001, 211쪽.

성축성론에 관련하여 그 시대적 배경을 상세히 고찰하고 저작 『천일록(千一錄)』과 『관수만록(觀水漫錄)』에 나타난 신도시 건설의 양상·문제점과 함께 그의 실학사상을 구조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②의 저술은 정조의 생애와 업적, 현릉원 천봉과 신도시 화성 건설, 화성성역의 경과와 운영, 화성 성곽의 주요 부대시설, 화성행궁의 건립과 주요 시설물, 정조의 화성 경영과 장용외영, 정조의 화성에 대한 식목과 조경정책, 우하영의 화성축성론, 용릉과 건릉 등 항목으로 나누어 해당 사항을 실증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저술 속에는 신도시 수원 건설과 화성 축성이 정조의 개혁정치와 왕권 강화, 문운 융성을 꾀하려는 깊은 의도와 정치력을 그대로 상징한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③의 저술은 정조시대의 화성을 중심으로 신도시 수원 건설과 화성성역, 우하영의 향촌사회발전론, 그리고 경기지역의 향약·서원 등 향촌사회의 운영 등을 다룬 것이다. 그 중에서 「제1장 정조대 화성축조와 향촌사회의 변화」는 신도시 건설과정과 성곽 축조, 화성행궁의 영건, 유수부로의 승격과 장용외영(壯勇外營) 설치 등 정조의 대(對)화성정책이 왕권강화와 향촌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사실을 지방사적 시각에서 다룬 것이다. 특히 신도시 향촌사회의 변화와 문제점을 이 고장 출신의 실학자 우하영의 『천일록』·『관수만록』 등의 자료를 살펴보고 하였다. 「제2장 정조대 신도시 화성의 변영과 산업진흥책」은 제1장의 논지를 토대로 신도시 변영을 위한 민인모취(民人募聚)정책, 농업과 상공업 등의 산업진흥책을 정조의 민생대책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이다. 「제3장 정조대의 대화성 농업진흥정책과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정조시대의 수리정책과 농업진흥책을 중심으로 수원지방의 농업생산력 발전과 농업생산형태의 변화를 고찰한 논고이다. 국왕의 절대적인 지원하에 농업 기반시설로 축조된 만석거(萬石渠)·만년제(萬年堤)·축만제(祝萬堤) 등 3대 제언과 대유둔(大有屯)·축만제둔 등 25개소의 둔전 경영 등을 통해 당시까지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이 고장을 농업선진지역으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제4장 취석실 우하영의 향촌사회발전론」은 정조의 신도시 건설과 산업진흥정책에 자극된 화성 출신 실학자의 향촌사회 발전을 위한 경륜을 살펴본 것이다. 우하영과 같은 향촌지식인의 견해는 군주권과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책 아래에서

기층사회 향촌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고찰한 것이 특색이다.

④ 유봉학의 저술은 화성성역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정조시대에 이룩된 수원지방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유려한 문장으로 계몽적이고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해명한 뜻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⑤ 김동욱의 저술은 화성 축성을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이라는 시각에서 그 논지를 폈으며, ⑥은 유봉학 「정조의 화성 건설과 산업진흥책」, 김동욱 「18세기 화성의 도시발달과 성곽 축조」, 조성을 「정약용과 화성 건설」 등 3편의 논문을 수록한 공동저술이다.

## (2) 논 문

정조시대 신도시 수원 건설과 화성축성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손정목의 「세계 최고의 계획된 신도시 - 화성」<sup>70)</sup>이란 논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도시사회적 관점에서 18세기 말에 건설된 신도시 화성을 세계적인 계획도시로 평가한 선구적인 논고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후의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성역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는 1990년대 초 최홍규가 지방사적 시각에서 선발적인 논문을 발표한 이후 유봉학 등에 의해 역사적·문화사적 의의를 밝힌 논고들이 계속 발표되었다. 1990년대 초 이후에 발표된 이 분야관련의 주요 논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① 최홍규, 「조선후기 화성 축조와 향촌사회의 제양상 - 정조대 수원지방 문제와 『관수만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0, 1991.
- ② \_\_\_\_\_, 「정조대 화성경영과 장용외영 문제 - 특히 읍민대책과 관련하여」, 『경기사학』 1, 1997.
- ③ \_\_\_\_\_, 「성곽연구 - 화성축성 200주년의 의미」, 『경기향토사연구』 1, 1997.
- ④ \_\_\_\_\_, 「18세기 말 화성지방의 변영과 산업진흥책 - 특히 정조의 민생 대책과 관련하여」, 『경기사학』 2, 1998.
- ⑤ \_\_\_\_\_, 「정조대의 대화성 농업진흥정책과 농업생산력 발전 - 특히 수

70) 손정목,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일지사, 1977.

- 리정책과 농업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9, 국편, 2000.
- ⑥ \_\_\_\_\_, 「정조대 화성에 대한 식목과 조경정책 - 현릉원을 중심으로」, 『정조사상연구』 3, 2000.
- ⑦ \_\_\_\_\_, 「정조의 13차 현릉원원행과 읍민정책」, 『정조사상연구』 4, 2001.
- ⑧ 최홍규, 「『화성성역의궤』의 구성과 역사적 의의」, 『진단학보』 93, 2002.
- ⑨ \_\_\_\_\_, 「정조시대의 활자본 의궤류 편찬 - 『원행읍묘정리의궤』를 중심으로」, 『정조사상연구』 5, 2002.
- ⑩ \_\_\_\_\_, 「화성행궁의 건립·복원과 역사적 의의」, 『정조사상연구』 6, 2003.
- (2) ① 유봉학, 「정조대 정국동향과 화성성역의 추이」, 『규장각』 19, 1996.
- ② \_\_\_\_\_, 「화성성역과 화성의 문화유산」,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박물관, 1998.
- ③ \_\_\_\_\_, 「정조의 화성 건설과 수원의 문화유산 - 200주년 맞은 만석거와 남수문의 훼손」, 『정조사상연구』 1, 1998.
- ④ \_\_\_\_\_, 「정조대 정치론의 추이」, 『경기사학』 3, 1999.
- ⑤ \_\_\_\_\_, 「'화성' 과 '화성행궁' 보존 복원시책의 문제점과 방향」, 『정조사상연구』 6, 2003.
- (3) ① 김동욱, 「화성성역의궤 연구서설」, 『경기대 논문집』 11, 1982.
- ② \_\_\_\_\_, 「수원성곽에서의 벽돌의 활용에 대하여」, 『경기대 논문집』 13, 1983.
- ③ \_\_\_\_\_, 「수원성과 화성행궁」, 수원 화성행궁을 위한 학술발표회, 1989.
- ④ \_\_\_\_\_, 「화성축성에 사용된 자재 운반기구에 대해서」, 『근대를 향한 꿈』, 경기도박물관, 1998.
- ⑤ \_\_\_\_\_, 「『화성성역의궤』의 건축사적 의의」, 『진단학보』 93, 2002.
- (4) 강문식, 「정조대 화성의 방어체제」, 『한국학보』 82, 1996.
- (5) 염정섭, 「정조 후반 수리시설 축조와 동진경영 - 화성성역을 중심으로」, 앞의 책.
- (6) 정승교, 「정조대 읍묘원행의 재정운영과 정리곡 마련」, 앞의 책.
- (7) ① 조병로, 「18세기 화성성역의 물자확보와 운송실태 - 석재·목재 및 철물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1, 1997.

- ② \_\_\_\_\_, 「조선후기 화성성역에서의 물자확보와 부역노동」, 『진단학보』 93, 2002.
- (8) 한영우, 「정조와 화성-화성 건설과 능행의 의미」, 경기도박물관, 1998.
- (9) ① 노영구, 「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1999.
- ② \_\_\_\_\_, 「정조대 화성 축조와 성곽의 특징」, 『18세기연구』 3, 2001.
- ③ \_\_\_\_\_, 「정조대 5위체제 복구시도와 화성 방어체제의 개편」, 『진단학보』 93, 2002.
- (10) ① 정연식,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진단학보』 91, 2001.
- ② \_\_\_\_\_,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역사학보』 169, 2001.
- (11) 성동환, 「현릉원천원과 화성 건설을 통해 본 정조의 풍수지리관」, 『한국사상학』 17, 한국사상학회, 2001.
- (12) 박정혜, 「『화성성역의궤』의 회화사적 고찰」, 『진단학보』 93, 2002.
- ① 이달호, 「화성 축성방략과 성제」 I · II, 『경기사학』 6, 2002 및 『경기사학』 7, 2003.
- ② \_\_\_\_\_, 「화성 건설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 논문, 2003.
- (13) 정해득, 「화성의 수성체제에 대한 일고찰」, 『경기사론』 6 · 7, 2003, 경기대 사학회.
- (14) 허용호, 「화성행궁의 전통연희」, 『정조사상연구』 6, 2003.

여기에서는 (1)-① · ④ · ⑤와 같이 앞의 저서항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거나, 유사한 내용·논점을 지닌 논문들에 대해서도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1)-② · ③ · ⑦은 정조의 신도시 건설·화성 축성·현릉원원행 과정에서 나타난 갖가지 민본주의적 읍민정책과 친위군영인 장용외영의 군제개편·화성주둔, 그리고 수성체제의 강화와 군역 감면조치 등을 살펴보면, 국왕 주도하의 화성경영이 개혁정치·왕권강화·문운용성을 꾀하려 했다는 대 역사적 의의가 있음을 평가하였다.

특히 (1)-⑥은 장현세자의 현릉원천봉과 이읍 직후부터 정조가 힘을 기울여 현릉원과 신도시 화성에서 시행한 식수조경 정책을 다룬 이 분야의 개척적인 논문이다. 이 논문을 통해 봄·가을로 소나무를 비롯한 유실수·연꽃 등의 식목과 재배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조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자연과 문화환경의 조화

를 지향하려 했던 정조의 일관된 정책과 빼어난 안목을 확인할 수 있다. (1)~⑧·⑨는 화성성역의 계획서이자 공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화성성역의궤』와 정조 19년 을묘원행 때의 행사계획서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금속활자로 인간(印刊)했음은 물론 그 내용의 충실성과 체제·규모면에서 조선시대 의궤사의 전범(典範)이 된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 (1)~⑩은 화성성곽과 쌓벽을 이루는 조선시대 최대의 행궁인 화성행궁의 건립과 복원에 즈음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살펴본 것이다.

(2)~①·④는 정조시대의 정치동향을 고찰하면서 화성성역과 관련시켜 연구한 학술적 성과이다. 또한 (2)~②·③·⑤는 화성성역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수원지방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문화사적인 의미와 보존·복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계몽적 관점에서 상세히 서술하였다. (3)~①~⑤는 화성성곽·화성행궁에 대한 건축사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성과로서 건물의 설계·배치는 물론 성재·운반기구·『화성성역의궤』 등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의 연구자로서 돋보이는 연구성과이다.

(4)는 정조시대의 군제개편과 장용외영·군사훈련·수성체제 등 화성방어와 관련시켜 부각했고, (5)는 신도시에서의 만석거·축만제 등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경영 등의 역사적 실상을 화성성역과 관련하여 실증적으로 서술하였다. (6)은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행사를 화성행궁에서 베풀기 위한 을묘원행 때의 재정 운영과 활용 문제 등을 『원행을묘정리의궤』와 연대기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해명한 값진 논고로서 의미를 지닌다.

(7)~①·②는 화성성역 당시의 석재·목재·철물 등의 축성 물자 확보와 포구를 통한 운송실태를 실증적으로 해명하려 했으며, 그 분석 텍스트는 역시 기본자료인 『화성성역의궤』 등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8)은 현릉원천봉과 신도시 화성 건설 후 정조의 능행이 갖고 있는 의미를 문화사적 의미에서 조명한 것으로, 그의 단행본 저서<sup>71)</sup>에 담긴 정조의 을묘원행 때의 장관을 이룬 역사적 장면들과 대비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9)~①·②·③, (10)~①·②, (13)~①·②, (14) 등의 논문은, 화성의 성곽 시설물과 군사제도·무기체제·수성체제 등을 성제사·군제사적 측면에서 서술한 것

이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이르러 젊은 연구자들이 화성축성의 성제사적 의미와 군사적인 화성방어체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아울러 (11)은 현릉원 천봉과 신도시 건설 과정에 나타난 정조의 풍수지리관을 고찰했고, (12) 『화성성역의궤』의 도설에 나타난 회화사적 연구나, (15) 화성행궁의 연회를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도설·내용과 함께 왕실의 궁중연회 등과 대비 고찰하고 있는 것 또한 흥미롭고 신선한 느낌이 든다.

## 2) 수원지방의 지방사적 연구

18세기 말 정조시대의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성역이 중앙 학계와 향토사학계에서 크게 관심의 표적이 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 말부터 고양되기 시작한 향토사 내지 지방사 연구 분위기와 맞물려 수원지방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는 물론 개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연구열도 적지 않게 일어났다. 수원지방의 지방사적 연구를 주도한 것은, 경기지역 중 수원지방에 근거지를 둔 자생적인 민간 향토사 연구단체와 지방사학회, 그리고 이 고장 소재의 대학 사학과 및 대학연구소 등이었다.

수원지방에서는 1986년부터 민간 향토사 연구조직인 기전향토문화연구회가 창립되어 1992년까지 연구지 『기전문화』를 10집까지 발간하였다. 『기전문화』는 향토사가와 전공학자들의 참여하에 경기지역의 역사·지리·인물·지명·민속·전설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였다.<sup>72)</sup> 그 중 조선후기사 부문에서는 최홍규의 「우하영의 실학사상과 저작물」(1집), 「우하영의 관수만록에 대하여」(2집), 「조선후기 광주와 수원지방의 향약」 상·하(5·7집), 「실학자 우하영의 가계와 향촌」(6집), 「우하영의 화성축성방략론」(9집) 등이 주목되었다.

1995년 10월에 창립한 경기사학회는 경기지역 각 대학 역사학 전공교수, 연구소 연구원,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향토사가까지 참여, 지방사를 비롯하여 한국사 및 동·서양사·서양사를 아우르는 지방사학회로 존재해 왔다. 경기사학회에서는 1995년 12월 '수원의 역사와 문화유적'이란 주제하에 창립기념 학술발표회를 개

72) 최홍규, 「경기지역사의 연구현황과 방향」, 『경기사론』 2, 경기대 사학회, 1998 및 『조선시대지방사연구』, 일조각, 2001, 175~176쪽.

71)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최한 이후 학회지 『경기사학』(1997년 창간호~2003년 7호)을 발간해 오고 있다. 수원지방 소재의 사학과가 있는 대학으로는 경기대학교 사학회가 결성되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학회지 『경기사론』(1~6·7호)을 발간해 오면서 지방사 연구에 일조하고 있다.

경기지역 각 지방의 향토사 연구단체를 포괄한다는 협의체를 표방하고 있는 경기도향토사연구협의회(1996년 7월 창립)에서는 연구지 『경기향토사연구』(1997년 창간호~2003년 3호)를 부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직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연구지 『경기향토사학』을 1996년부터 매년 연간으로 꾸준히 간행하였다. 수원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한다는 목표 아래 1995년에 발족된 수원문화사연구회는 1998년 『수원문화사연구』 창간호를 낸 이후 2003년까지 제6호를 발간하였다.

한편 1995년에 사회단체로 창립된 정조사상연구회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학술발표회와 함께 연구지 『정조사상연구』(1998년 창간호~2003년 6호)를 간행하면서 정조와 화성에 대한 학술적 현양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이상의 경기지역 지방사 연구단체와 사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연구지를 토대로 이미 앞에서 검토한 신도시 화성과 화성성역 관련 논고를 제외한 조선후기 수원지방사 관련 주요 연구 논문을 필자별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① 최홍규, 「경기지역사의 연구현황과 방향」, 『경기사론』 2, 경기대 사학회, 1998.
- ② \_\_\_\_\_, 「수원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경기사학』 3, 경기사학회, 1999.
- ③ \_\_\_\_\_, 「수원지방의 역사적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화」, 『경기사학』 4, 2000.
- ④ \_\_\_\_\_, 「조선후기 수원지방의 읍지」, 『경기향토사연구』 2, 1998.
- ⑤ \_\_\_\_\_, 「경기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군 활동 - 특히 수원지방과 관련하여」, 『경기사론』 1, 1997.
- (2) 조성을, 「경기지역의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경기사학』 3, 1999.
- (3) ① 정해득, 「정조대 수원읍과 이후의 변화양상 - 수원지역 '읍지' 를 중심으로」, 『경기사학』 3, 1999.

- ② \_\_\_\_\_, 「조선후기 영전의 건립과 그 의미」, 『경기사학』 6, 2002.
- ③ \_\_\_\_\_, 「정조 어진의 도사(圖寫)와 화령전 건립」,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 한신대 출판부, 2003.
- (4) 김문식, 「정조의 화성 궤리사 경영」, 『정조사상연구』 4, 정조사상연구회, 2001.
- (5) 정형지, 「정조대의 진흥정책」, 『정조사상연구』 4.
- (6) 이정일, 「조선후기 수원지역의 장시 연구 -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6, 2002.
- (7) 홍낙기, 「용주사 및 용릉의 문양 소고」, 『수원문화사연구』 1, 1998.
- (8) ① 박현순, 「수원지역 서원의 건립 주체와 제향인물고」, 『수원문화사연구』 2, 1998.
- ② \_\_\_\_\_, 「유계의 정치활동과 역사서술」, 『수원문화사연구』 5, 2002.
- (9) 김준혁, 「화산 용주사의 창건과 불교계의 위상」, 『경기향토사연구』 3, 경기향토사 연구협의회, 2002.
- (10) 이민식, 「화성시의 금석문」, 『경기사학』 7, 2003.

(1)-①, ②와 (2)는 지방사로서 경기지역사와 수원지방사의 연구현황과 과제를 연구사적으로 조명한 글이다. (1)-①은 향토사와 향토문화의 의미, 향토사 연구의 현황, 향토사 연구의 문제점, 과제와 방향을 서술하였다. (1)-②는 연구주체에 따른 지방사 연구, 민간 연구단체와 대학의 지방사 연구, 시대별 연구현황, 과제와 방향 등 수원지방사의 연구사를 지방사적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2)는 경기지역사 연구의 자료와 연구의 현황, 그리고 연구의 과제를 개괄하였다. 이러한 지방사의 연구사적 현황과 과제를 통해 학문으로서의 경기지역사와 수원지방사가 지향해야 할 연구방법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③은 선사시대에서 근·현대시기에 이르는 수원지방의 역사적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화과정을 연대기 자료와 읍지·지지를 종합 검토, 실증적으로 고찰한 논고이다. 오늘의 수원이 18세기 말 정조시대에 읍치를 옮겨 신도시로 건설되었던 만큼 특히 조선후기의 수원지방사에 핵심을 두어 역사적 변천상을 살펴본 것이다.

지리지의 내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그 문제점까지 해명하려 하였다. 특히 오늘의 수원지방은 삼국시대 이래 1914년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기

준으로 볼 때 대체로 수원부(군)와 남양부(군)으로 분립되어 왔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수원부(군) 관련의 지지·읍지와 남양부(군) 관련의 지지·읍지로 나누어 서술하면서 조선전기 『세종실록』지리지에서 19세기 말 『수원군읍지』와 『남양군읍지』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체재·특징을 상세히 분석 소개하였다. 따라서 수원지방사 연구자들에게 조선후기 지방지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가능케 하도록 유념했다는 데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1)~⑤는 19세기 말 수원지방을 비롯한 경기지역의 동학과 동학농민전쟁의 실상을 탐구한 선발적인 논문이다. 이 논문은 사회변동기로 특징짓는 19세기 말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의 동학과 동학 농민전쟁기의 역사를 지방사는 물론 전체사의 새로운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체계화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공백을 면치 못했던 조선말기 이 고장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고,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동학과 동학농민군 활동의 사례를 통해 지방사를 복원하고, 그 내용과 특성을 최초로 부각시키려 했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1)~④는 『삼국사기』 지리지 이후 조선 전·후기의 수원지방 관련 읍지와 (3)~①은 18세기 말 정조시대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수원지방의 읍지 분석을 통해 신읍지를 건설하던 시기와 그 이후 수원지방의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탐구한 것이다. (3)~②, ③은 조선시대 영전(影殿)의 건립과 그 기능, 현재는 사라진 정조의 초상화와 19세기 초 순조 초엽에 건립되어 어진을 봉안하며 제향을 올렸던 화령전의 건립과 그 운영을 살펴본 것이다.

(4)는 정조시대 공자의 초상화를 봉안했던 화성 궐리사를 건설하게 되는 과정과 운영, 정조 이후의 화성 궐리사의 운영, 궐리사의 전례 등을 소상히 해명한 값진 논고이다. 필자는 『동국궐리지』를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일성록』 등 연대기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이 방면의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5)는 18세기 말 정조가 화성에서 베푼 많은 민생대책과 진휼정책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정조실록』·『비변사등록』·『일성록』 등 연대기 자료를 토대로 정조시대 전반에 걸쳐 시행되었던 부세감축책과 진휼정책을 밝혀 놓았다.

(6)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수원지방 장시의 존재와 운영 실태를 고찰한 논문이다. 먼저 이 논문은 조선후기의 장시의 발달을 개괄한 다음 수원지방

장시의 변동과 유통현황 등을 고찰한 것이다. (7)과 (9)는 현릉원 천봉 이듬해인 1790년(정조 14)에 창건된 정조의 원찰 용주사와 용릉에 배치된 문화재의 문양을 미술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또 당시의 창건 경위와 불교계의 위상을 살펴본 것이다.

(8)~①은 수원지방의 대표적 서원인 명고서원·매곡서원 등의 배향인물과 건립주체를 고찰했으며, (8)~②는 수원지방 출신의 문신이자 노론계 학자였던 유계의 정치활동과 『여사제강(麗史提綱)』의 역사서술을 개괄해본 것이다. (8)은 지난해에 발표된 논문 「정조의 서체반정」<sup>73)</sup>에서 정조의 서예관과 서체반정을 다루었던 필자가 화성시 지역의 탐비·부도비·능·원표·묘표·묘갈·신도비·선정비 등의 금석문을 조사 분류하고 지방사적 측면에서 서예사와 문화사적 가치를 살펴본 논고이다.

## 맺음말 - 과제와 전망

이상으로 1970년대 이후 이제까지 조선시대의 수원지방사를 중심으로 경기지역사에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성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도 확인되듯이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 경기지역사 연구는 다른 시대사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전체사·일반사적 측면의 연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재나 주제로 도출된 것도 있고, 1980년대 말 이후에 고양되기 시작한 향토사 내지 지방사 연구열과 지역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해서 지방사적 시각이 투영되어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물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특히 최근의 연구경향이나 그 성과는 중앙중심의 한국사 연구의 경향에서 크게 전환되어, 지방사적 관점과 특성을 짚게 반영, 미시사적 소재와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 예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조선후기는 오늘의 시대에서 시간적으로 비교적 가까운 데 위치해 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중에서도 사상·학문·문학·예술 등 분야에 있어서 선사시대~조선중기에 비해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연구 주제 또한 시대

73) 『경기사학』 6, 2002.

적·사회적 전통이나 영향면에서 지속적인 생명력과 폭넓은 역동성을 지니고 있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경기지역사와 관련해서 일반사적 접근이나 지방사적 관점의 접근이거나를 막론하고 소재와 주제 선택에 매우 다양하고 또한 용이하여 앞의 현황 개괄에서 확인했듯이 많은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게 된 요인이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사적 측면에서 볼 때, 조선시대 경기지역사 연구는 너무 지나치게 특정분야에 관심이 치우쳐 다른 부문과의 연구사적 균형감이 크게 문제되며, 연구수준면에서도 보다 깊이 있는 연구태도와 방법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예컨대 조선후기 경기지역사에 한정해 볼 때도, 일반사적 시각에서 서술된 실학이나 정조시대의 신도시 화성 건설과 화성성역 관련 분야에 지나치게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경기지역 각 군현 향촌사회의 사회경제구조와 특성, 토지소유와 운영의 실태나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는 그 시대적 중요성에 비추어 아주 소홀하고 미미한 편이다.

그러한 추세 속에서도 일부 사회경제사와 지리사 연구자들이 몇 편의 사례 연구를 시도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이세영의 「대한제국기 농촌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 1900~1903년 광주부 북방면을 중심으로」<sup>74)</sup>, 「조선시기 경기도 음죽현의 사회경제사」<sup>75)</sup>와 홍금수의 「18~20세기 교하지역의 토지이용」<sup>76)</sup> 등의 논문은 몇 안되는 이례적인 것에 속하는 예가 아닐까 한다. 또한 시대사적 측면에서도 사회경제사를 포함하여 다른 특수사의 경우에도 18·19세기사의 많은 부분이 연구상의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기왕에 활발했던 연구부문도 지방사적 시각에서 그 지방의 역사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내용을 보강함은 물론 보다 다양한 미시사적인 시각과 정교한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심화시킬 필요성을 느낀다.

이러한 연구상의 분야별 또는 방법론적 문제점에 유의하면서 거의 20여 년간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지방사 연구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향후의 연구과제

와 전망을 결론을 대신하여 몇 가지 피력해 보기로 한다.

첫째, 경기지역사가 포괄하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대상, 곧 그 연구범위가 뚜렷히 설정 제시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경기도는 개성을 수도로 삼은 고려와 한양을 수도로 삼은 조선시대에 걸쳐 수도의 위성지역으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부여받은 역사적 특수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조선시대 이래 현재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수 이남과 이북으로 분립되어 위치해 있다. 따라서 경기지역사의 공간적 연구대상과 범위는 원칙적으로 조선후기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의 변동된 경기도의 행정구역과 지역까지 포함, 그 역사적 변천상을 통시적·유기적으로 연결 파악시킬 수 있도록 보다 포괄적이면서 신축성 있는 연구기준과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선중기 이래 봉당정치와 조선후기 세도정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기지역의 농촌사회는 서울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고, 정쟁에서 패배한 남인과 소론계의 인사들이 은퇴하여 생활하는 근거지·세거지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지역은 조선중기 기호사림의 근거지로서 기호학과 성리학 형성의 온상이 되었고, 조선후기에는 근기학과 실학과 강화학과 양명학을 생성·발전시킨 터전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18세기 말 신도시 화성 건설의 예에서 보듯이, 도시와 인근 농촌은 상품화가 용이한 특용작물의 재배지로서 상업적 농업이 활발히 발전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화의 진전과 향촌사회의 변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사회경제적 구조, 집성촌·사족층·향촌민의 동향에 대한 군현별 사례연구가 체계적으로 본격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18세기 전·후반의 실학과 양명학, 인물성동이론(人物性同異論)을 둘러싼 낙론(洛論)계 성리학자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지방사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셋째, 경기지역사 연구는 향토애를 바탕으로 한 기왕의 향토사 연구의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중앙사·일반사적 시각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구체성을 사상화(捨象化)시키는 연구태도는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시점의 경기지역사 연구는 단순히 향토애에 기초한 향토사 연구의 단계를 넘어서 그 연구의 공간과 인력이 보다 확대된 객관적 연구방법에 의한 학문으로서의 지방사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

74) 『한국문화』 16, 서울대 한국학연구소, 1995.

75) 한신대 국사학과 창설 20주년 기념사업회, 『경기지역의 역사와 문화』, 한신대 출판부, 2003.

76) 『문화역사지리』 1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1.

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와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경기지역사 연구도 행정구역상 광역화된 도 중심의 연구보다는 군현(市와 郡) 중심의 단위를 기준으로 오랜 시기에 걸쳐 특성화시킨 기층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조명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사회는 면·리제가 확립되고 오랜 역사시기를 관류하면서 행정적·문화적 일체감을 공유해온 군현제가 지방사회의 모델로 완전 정착화된 시기였다. 그러나만큼 지방사 연구는 오늘의 시·군 단위의 지방사 연구가 그 고장의 역사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지역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연구모형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지방사 연구모형에 대한 이러한 발상과 태도는, 조선중기 이래 조선후기 『여지도서(輿地圖書)』 단계를 거쳐 19세기 말에 성황을 이루었던 각종의 군·현 단위 읍지·지리지의 편찬 동기와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전근대시기의 읍지·지리지의 전통을 계승한 오늘의 시·군지도 그러한 지방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지방사 연구의 주제·소재는 물론 그 방향까지도 작게는 면·리에서 크게는 시·군 단위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앞서도 지적했듯이 경기지역사의 연구는 고려시대와 그 이전 시기의 연구는 매우 소홀하여 특정시기의 주제나 역사현상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동시대의 전체 지방의 역사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균형 감각이 크게 깨틀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예컨대 18세기 말 정조시대의 신도시 화성 건설과 화성성역, 조선후기 근기학과와 강화학과와 학문·사상인 실학과 양명학 등에 대한 연구경향이 그것이다. 이에 비해서 호적자료·토지대장·매매문기·추수기·고문서 등의 사료의 발굴과 이에 기초한 군·현 단위의 사회경제구조 연구, 경기지역 각 향촌사회의 구조·운영 및 집성촌·사족층·향촌민의 동향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루한 편이다.

따라서 경기지역의 도시와 농촌사회에 혼재하고 있는 양반귀족문화와 토착적 농경문화와 관련하여 사족층이 남긴 문집과 각종 고문서, 피지배 향촌민들이 향유 영위했던 민속과 같은 생활사자료의 발굴은 이 고장이 갖고 있는 지배층문화와 피지배층문화의 실상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고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의 지방사 연구는 향촌공동체의 대다수 구성원으로서 기층 향촌사

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민중세계의 삶과 문화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살아 있는 ‘민(民)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한다는 역사인식이 크게 요청된다.<sup>77)</sup>

다섯째, 경기지역사 연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자료는 관찬 연대기자료를 비롯하여 읍지·지지·고지도·고문서·문집·족보 등의 문헌사료와 금석문, 민속 등의 생활사자료, 그리고 지표·발굴조사자료 등 경기지역 관련 사료의 조사·수집·연구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그 지정학적 위치·특성으로 인해 역대 전란 중에 많은 문헌사료들이 일실(逸失)되었고, 남아 있는 기본자료 또한 기초적·체계적인 자료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연구에 착수하고 보면 사료의 절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항례이다. 향후 계통적인 수집·조사를 통하여 유형별·성격별로 자료집을 체계화하여 간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sup>78)</sup>

또한 이에 덧붙여 경기지역사를 연구함에 있어 역사학을 중심으로 문화인류학·민속학·사회학·문학·지리학 등 인접학문간의 활발한 교류와 학제간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전체사 내용의 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값진 작업이 될 것이다.

여섯째, 경기지역사 연구는 지방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결코 특정지역의 역사로서 그 의미가 한정되거나, 특수하고 배타적인 지방사로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조선시대 경기지역사는 통시적·공시적(共時的)으로도 한국사 전체와 직·간접의 관련을 맺고 있다. 말하자면 지방사로서의 경기지역사 연구는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기층적인 분자단위를 이루면서 한국사와 한국문화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할 것이다.<sup>79)</sup>

이와 같이 수원지방사를 비롯한 경기지역사 연구는 전체사 내용의 다양성과 그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까지 목표를 두어야 하며, 지방사 연구를 통해 그동안 연구상의 미개지로 남아 있거나 잘못 쓰여진 전체사를 구조적으로 새롭게 교정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과제로 남는다.

77) 최홍규, 「수원지방사의 연구현황과 과제」, 『조선시대지방사연구』, 222~223쪽.

78) 앞의 책, 221쪽.

79) 앞의 책, 223~224쪽.

## Abstract

# The present condition and view of the Kyonggi local history research

Choi Hong-Kyu

We observed Suwon history and Kyonggi history research since 1970's. There are many research results—Especially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in the latter term of the Chosun Dynasty research.

In general survey of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latter term of the Chosun Dynasty research we obtain excellent results. From the local history research, there are lopsided research in specification field. But some society economic history and geographic history research served as a pattern for others.

We need to deepen how to research local study. First, We must set up the investigation scope of Kyonggi local history. The urbanization and the change of Country village, noble family is the important materials.

Second, Kyonggi local history research need not love for native place but objective research Kyonggi local history research inclined to specific fields.

The whole history and local history didn't research equally. Suwon history research must take aim to deepen the comprehension the whole history. Through the local history research, we must cure the whole history which was written wrong and study the undeveloped field.

Keyword : Suwon local history, Country village, Hyangyak, Lecture hall, Practical science, Hwaseong

## 수원지역 민족운동사 연구 동향과 과제

박 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 본 연구소 운영위원)

---

### 머리말

1. 3·1운동 연구 동향
2. 1920년대 연구 동향
3. 구술사 연구 동향

### 4. 인물 연구

맺음말 - 수원지역 민족운동사 연구  
방향

---

## 머 리 말

식민지시대 수원주민들은 일제의 통치하에서도 끊임없이 민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3·1운동, 비밀결사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3·1운동의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질 정도로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도 일찍부터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에 주목하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하여 다룬 연구성과들을 3·1운동과 1920년대 연구동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운동의 경우 이 시기에 연구가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주목되고 있는 구술사, 인물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사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1. 3·1운동 연구 동향

수원지역 3·1운동의 연구 동향과 과제에 대하여는 김창수와 박환의 글이 있다.<sup>1)</sup>

### 1) 기독교

수원지방의 3·1운동연구는 홍석창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씨는 『수원지방의 3·1운동사』(왕도출판사, 1981)에서 수원지방 3·1운동의 원인, 3·1운동에 있어서 수원지방의 위치, 3·1운동 주동자 김세환선생, 3·1운동과 선교사, 3·1운동과 33인, 각 지방의 중요 운동자, 각 지역의 운동상황, 3·1운동의 반향 등 현재의 수원과 화성, 오산일대에서 전개된 3·1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 분야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수원의 김세환, 오산의 이성구, 태안의 황창오 등 여러 인물에 대하여도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씨는 『감리교회와 독립운동』(에이멘, 1998)에서도 「수원지방의 3·1운동」이라는 논고를 통하여 수원, 화성, 오산 등 식민지시대 수원군 지역의 만세운동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1893-1930 수원지방 교회사자료집』(에이멘, 2001)도 간행하여 기독교사적인 측면에서 수원지방 운동사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원지역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에 대하여는 김권정의 「수원지방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와 동향」(『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2003년 2월)이 주목된다. 여기서 씨는 수원지방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배경과 그 전개과정, 3·1운동 이후의 동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씨는 논고에서 수원지방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참여하게 된 조직적 배경에는 3·1운동 이전에

수원지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 조직과 젊은 학생층의 중심지인 기독교학교의 조직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수원읍보다 장안, 우정, 향남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수원지역의 3·1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세환에 대한 학술회의가 최근 개최되었다. 『김세환 3·1운동기념비 건립기념학술회의』(2004, 수원문화원)가 그것이다. 이 학술회의에서는 조이제목사가 「김세환의 생애와 종교운동」, 조성운이, 「수원지역 사립학교의 성장과 김세환」, 김권정이 「김세환과 기독교 민족운동」 등을 주제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였다. 조이제 목사는 김세환이 삼일여학교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파악할 수 있는 밀러선교사의 기록을 통하여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해주고 있어 신선미를 더해주고 있다. 1916, 1917, 1918년, 1926년 밀러 선교사의 보고문에 그에 대해 잘 나타나 있다. 조성운은 김세환은 수원지역 양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에서 주목되는 인물로 파악하고, 논고에서 화성학원의 사례를 통하여 수원지역의 교육운동에서 김세환이 차지하는 위상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씨는 논고에서 김세환을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교육자이자 민족주의에 입각한 지도자로서 평가하고 있다. 김권정은 그의 논고에서 김세환은 3·1운동 48인의 한 사람으로 한국근현대 속에서 수원지역이 낳은 대표적인 인물로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외국어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수원 상업 강습소, 삼일여학교의 교사로서 활동했으며, 1941년 폐교직전의 학교를 인수하여 수원 상업학교를 설립하는 등 수원지역 근대 교육의 중심적 인물로 보고 있다. 3·1운동 이후에는 사회운동, 그리고 신간회운동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한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있다. 김세환의 경우 그 평가가 높긴 하지만 그에 걸맞는 자료는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느낌이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수집을 통한 평가작업들이 이루어질길 기대해 본다.

### 2) 천도교

수원지역과 천도교의 역할에 대하여는 천도교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업적을 이루고 있는 성주현의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인의 역할」(『수원지역 민

1) 김창수, 「수원지역 3·1독립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 3·1운동 84주년 기념학술심포지움, 『수원지역 민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수원문화원, 2003. 2.

박 환, 「경기도지역 3·1운동의 연구동향과 전망」, 『김세환 3·1운동 기념비 건립기념 학술회의』, 수원문화원, 2004.3.

족운동의 역사적 위상』, 2003년 2월)이 있다. 씨는 수원과 화성지역의 천도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김세영이 최근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천도교의 항일독립운동」(『상명사학』 8.9, 2003.8)을 발표하여 수원지역의 동학과 천도교의 교세발전, 천도교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씨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지역의 역사를 보다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구술자료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동근 역시 수원지역 3·1운동 당시 천도교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수원지역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한신대학교 대학원 2003년 6월 석사학위청구논문)이 그것이다. 씨는 논문에서 지금까지 활용하지 못했던 통감부 조사자료인 『재무주보』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의 천도교인들을 농민과 영업종사자로 보고 있는 점, 천도교의 교육운동이 우정, 장안면의 3·1운동에 밑바탕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점, 우정, 장안면을 포함하는 남양군에서는 일제의 영업정책으로 제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염세를 거부하는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점 등은 이 분야 연구에서 새로운 언급이라는 점에서 신선미를 더해주고 있다.

### 3) 연구방향

수원지역의 3·1운동사는 주로 종교적인 입장에서 연구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앞으로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적 차원을 떠나 보다 다양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읍의 유교, 천주교, 불교, 성공회 세력, 상공인세력 등의 3·1운동에 대한 입장 및 태도 등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읍에 진출한 일본인, 군대, 경찰 등 다양한 일본측의 대응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세영, 이동근 등 젊은 학자들에 의한 천도교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증언자료의 과감한 사용, 새로운 자료의 발굴 등은 신선미를 더해주고 있다. 앞으로 천도교에 국한하지 말고 기독교 및 다른 종교의 경우도 면담작업을 통한 새로운 접근 등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 특히 성공회의 경우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수원지역 연구는 보다 새로운 연구자들의 발굴과 후원 작업 역시 병행될 때 새로운 수원학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2. 1920년대 연구동향

3·1운동 이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사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우선 박환의 것을 들 수 있다. 씨는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 혈복단과 구국민단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2, 1998)에서 1920년대 전반기에 수원지역에서 활동한 혈복단과 구국민단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씨는 혈복단은 비록 소규모 조직이기는 하지만 3·1운동 이후 전국의 지방에서 조직된 최초의 학생비밀결사조직으로서 주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국민단이 조직되었으며, 1920년대 중반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의 조선개척사 등이 조직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이어서 씨는 「1920년대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비밀결사-건아단과 조선개척사를 중심으로」(『길현익교수 정년퇴임논총』, 1996)를 발표하였다. 본 논고에서 씨는 1920년대 전반기에 활동한 혈복단, 구국민단에 이어 1920년대 후반에 활동한 수원고등농림학교 비밀결사인 건아단과 조선개척사(일명 계림홍농사) 등에 주목하였다. 수원고농의 비밀결사는 전문학교 비밀결사로서는 최초로 조직된 것으로 일제 통치당국에 강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특히 이 단체는 일본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이 조직한 조선농우연맹과도 연계를 맺고 농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어 이현희는 「수원고농학생의 항일투쟁 연구」(『한국민족운동사연구』 21,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9)에서 1920-30년대 수원고농학생들의 항일운동을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씨는 계몽운동과 상록수운동에 초점을 두었다.

3·1운동 이후의 수원지역의 천도교에 대하여는 성주현이 주목하였다. 씨는 「1920년대 경기지역의 천도교와 청년동맹의 활동」(『경기사학』 4, 2000)에서 3·1운동 이후 경기지역의 천도교와 천도교청년회, 청년동맹 등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수원지회와 광주지회를 중심으로 천도교청년동맹과 신간회 활

동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씨는 신간회 수원지회와 청년동맹과의 상호관계를 심도있게 밝히고 있다. 3·1운동이후 수원지역의 천도교의 발전을 개척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후 조성운은 「일제하 수원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민족운동」(『경기사론』 4.5합집, 2001)에서, 동학의 전래와 성장, 수원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활동,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천도교, 1920년대 수원지역 천도교의 민족운동 등 동학이후 1920년대 천도교에 이르기까지 수원지역의 천도교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3·1운동이후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는 조성운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씨는 수원지역의 천도교, 청년운동, 수원고농의 학생운동, 사립학교의 성장과 활동, 신간회운동, 농민조합운동 등 종교운동, 청년운동, 교육운동, 농민운동, 민족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원지역의 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최근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국학자료원, 2003)을 간행하였다. 본서는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사를 정리한 최초의 연구서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씨의 연구는 각 분야에 대한 개척적인 연구로서 이 분야 발전에 기여한바 크다고 생각한다.

우선 씨는 1920년대 수원지역의 청년운동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1920년대 경기도 수원지역의 청년운동과 수원청년동맹(『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2000)이 그것이다. 씨는 본고에서 초기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1920-1923), 청년단체의 혁신과 수원청년동맹의 조직(1924-1928)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씨는 논문에서 1924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서서히 청년단체의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어 1926년에는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청년단체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고 파악하고 있다. 수원지역의 청년운동에 대하여는 일찍이 리제재가 「수원지방의 청소년운동(1920년대를 중심으로)」(『기전문화』 제8집,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91)를 선구적으로 발표하여 청소년운동의 역사적 배경, 청소년운동의 실체와 그 활동 등을 검토한 바 있다. 또한 김태원도 「1920년대 수원지방의 민족운동사 연구 - 농민운동과 청년운동을 중심으로 -」(『수원문화사연구』 4, 2001, 수원문화사연구회)에서 수원지방 민족운동의 역사적 배경, 수원지방의 청년운동, 수원지방의 농민운동 등을 다룬 바 있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민족운동에 대하여는 박환, 이현희에 이어 조성운도 주목하였다. 박환은 1920년대 운동을 건아단과 조선개척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반하여, 조성운은 「일제하 수원고농의 학생운동과 상록수운동」(『경주사학』 4, 1995)에서, 수원고농의 학생운동을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학생운동(1923-1928)과 사회주의에 입각한 학생운동(1931-)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씨는 특히 전자의 특징을 상록수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농민야학에 두고 있다. 1930대 수원고농의 활동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돋보인다.

조성운은 수원지역의 교육활동에 대하여도 주목하였다. 「일제하 수원지역 사립학교의 성장과 활동-삼일학교와 화성학원을 중심으로」(『수원문화사연구』 3, 1999) 그것이다. 본고에서 씨는 두 학교의 설립에 관계한 인물들은 대개 수원지역의 유지층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수원지역 사립학교는 표면적으로는 문맹퇴치를 목표로 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간회 운동에 대하여도 조성운이 주목하고 있다. 일제하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실학사상연구』 15, 6, 2000)에서 씨는 조직배경, 지회의 조직과 활동, 구서원의 성격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씨는 논고에서 신간회 수원지역의 조직과정에서 천도교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천도교측은 계속해서 조직부를 담당하였다.

수원지역의 농민운동에 대하여도 조성운이 주목하였다. 일제하 수원지역의 농민조합운동(『동국역사교육』 5, 1997)에서 씨는 운동의 발생배경, 신간회운동, 수진농민조합의 결성과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씨는 여기서 수진농민조합의 조직배경으로서 수원과 평택지역의 사회운동을 청년운동과 신간회운동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후 수진농민조합의 조직과 활동, 운동 방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고에서 씨는 수진농조는 창립이후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일제가 이와 같은 수진농조의 활동을 탄압하면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김영상, 박승극 등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진농조를 혁명적으로 개조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씨는 박승극에 대하여도 주목하였다. 「박승극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한국독립운동사연구』 16, 2001)가 그것이다. 박승극의 대하여는 박승극문학전집 1권(학민사,

2001)과 그 안에 있는 김시중의 회고, <내가 만난 박승극 형>, 홍일선 시인의 <박승극 연보> 등도 크게 도움이 된다.

### 3. 구술사 연구동향

#### 1) 3·1운동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사연구에 있어서 구술자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술자료는 문헌자료에 보이지 않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측 기록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논리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우선 주목할 점은 수원지역의 3·1운동에 관한 것이다. 그와 관련되는 구술사자료로는 대표적으로 전동례 할머니의 증언집인 『두령바위에 흐르는 눈물』(뿌리깊은 나무, 1981)과 김선진의 저서인 『제암 고주리의 3·1운동』(미래문화사, 1983)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제암리 학살사건시 순국한 안진순의 부인 전동례 할머니의 사건에 대한 생생한 증언록이다. 제암리 학살에 대하여는 언더우드 등 선교사 기록, 외국기자들의 기록, 당시 생존한 한 젊은이의 기록 등 여러 기록이 있으나 전동례의 증언은 남편을 잃은 부인의 입장에서 집안내력 등 보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1970년대 이루어진 증언이라는 단점이 있다.

전자가 주로 기독교적 관점과 제암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증언이라면, 후자는 제암리 외에 우정, 장안 등 화성의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며 이루어진 증언이라는 장점이 있다. 김선진은 자신의 저서 머리말에서,

본인은 이미 12년전부터 경기도 화성군의 우정면 장안면 향남면 팔탄면을 중심으로 한 이지방의 3.1운동을 정리하기 위해 약 3년간에 걸쳐 관계문헌의 조사와 현지답사, 그리고 전동례(86세) 할머니와 김순남(85세)할머니를 비롯해서 약 300명에 이르는 현지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언을 청취한 바 있다.

라고 하고 있듯이, 우정, 장안, 향남, 팔탄에 이르기까지 300명에 달하는 인사의 면담 작업을 통하여 이 지역의 3·1운동을 복원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특히 김선진은 지금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천도교인들의 3·1운동 참여, 고주리 학살사건 등을 복원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박환은 『화성지역 3·1운동 유적지실태조사보고서』(박환, 조규태, 수원대학교 박물관, 2003)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3·1운동 참여자 후손들을 다수 면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화성시 송산면의 경우 문상익, 홍면옥, 홍관후 등 여러 지사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이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당시 집안 형편, 가계, 재산정도, 친인척 관계, 신분 등 보다 다양한 내용에 접근 할 수 있었다. 또한 제암리의 경우 김덕용의 손자 김명기, 김정현의 아들 김원돈, 안경순 안상용의 후손 안용웅 등이 거주하고 있다. 우정면의 경우 김종학의 손자 김영설, 김연방의 손자 김진세, 장안면의 경우 양순서 손자 양창록, 차병한의 손자 차진갑, 백낙열의 손자 백영기, 백순익의 아들 백상기, 김응식의 손자 김재영 등이, 팔탄면에는 김세열의 손자 김종택이 살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화성 3·1운동 증언자료집』의 간행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의 업적으로는 수원시에서 간행한 『수원근현대 증언자료집』 1 (2001)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sup>2)</sup> 특히 「김시중편」에서는 송산면 사강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홍면옥에 대하여 살필 수 있으며, 발안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정근편에서는 손자 이신재의 증언을 볼 수 있다. 또한 우정 장안 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한 차병혁편에서는 손자 차진환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신재, 차진환 등 손자의 증언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술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는 김세영의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천도교의 항일독립운동」(『상명사학』 8.9, 2003.8)을 들 수 있다. 씨는 본고에서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지역의 역사를 보다 구체화시켜 지역사의 지평을 넓힘과 동시에 보다 풍부한 전체사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씨는 수원지역의 동학 천도교의 유입과 초기 교구내의 활동에 대한 증언이 가능하고, 중앙의 항일운동가와 연관되는 수원지역의 항일운동에 대한 증언이 가능한 3대이상의 천도교 교

2) 서평으로는 김득중, 「그들이 살아 있을 때 들어라」, 『사람과 땅의 문학』 3, 삶이 보이는 창, 2002 참조.

인으로서 수원교구에서 주목되는 몇몇의 인물을 사전 조사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즉, 최근까지 수원권선교구장을 역임했던 이위경(1932년생, 오산출생)과 윤종건(1940년생, 수원출생), 현 수원권선교구장이자 그의 아내인 임승자 등이다. 이위경은 이병인-이연숙-이위경으로 이어지는 집안으로, 특히 아버지 이연숙은 천도교 청년회 수원지회, 천도교청년수원동맹, 신간회 수원지회 창설과 활동에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윤종건은 윤교충-윤한흠(장남, 1923년, 수원출생)-윤종건(차남), 임승자로 이어지는 집안으로 특히 아버지 윤교충은 교구장을 지내기도 하고, 윤준흠, 윤영흠이라는 일가의 조카들과 함께 교구활동을 왕성히 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신, 구파의 수원교구 분립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물론 이들의 증언만을 통하여 수원지역의 천도교의 유입과 활동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라는 점과 특정인의 사례를 통하여 전체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 3·1운동이후 구술사 자료

3·1운동 이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에 관한 면담은 박환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씨는 1995년에 발표된 수원고등농림학교 논문에서 건아단과 계림농사에서 중심인물로 활동했던 당시 생존지사인 김성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 단체의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하였다.(1995년 2월 11일 방배동 소재 흥진빌딩 4층 김성원의 사무실) 씨의 면담 작업은 운동의 중심 인물과의 직접적인 면담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채록 내용이 학회지 등에 게재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다음으로는 조성운의 면담 작업을 들 수 있다. 씨는 박승극과 신간회 등의 2편의 논문에서 증언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씨의 증언작업은 당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2차적인 작업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조성운은 그의 논문 「박승극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수원지부」에서 박승극과 관련하여 최장식(1930년생), 한남수(1930년생) 등의 증언을 통하여 박승극의 집안과 해방후 상황등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씨는 「일제하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에서 박승극과 함께 수원

지역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공석정에 대하여 공신택(1920년생)의 증언을 인용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2001년과 2002년에 수원시에서 간행한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1, 2 등은 수원지역의 근현대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족운동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증언은 김시중에 대한 것이다. 씨는 1912년 수원군 양감면 출생으로 일제시대는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해방후에는 남로당 수원군당 부위원장, 화성군 인민위원회 서기장을 한 인물이므로 식민지시대 사회주의 계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주의 계열의 경우 민족운동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씨의 증언을 통하여 식민지시대의 양감면의 야학당인 정문리의 신흥학당, 용소리의 대화의숙, 사창리의 보신강습소 등에 대하여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씨는 수진농조에 대하여 박승극의 증언을 통하여 용소리 사람으로 수진농조에 가담했던 이원섭과 경찰의 조직임을 밝히고 있어 또한 주목되고 있다. 증언에 있어서는 면담자의 유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담자인 한동민의 역할이 주목되는 채록이라고 생각된다.

## 4. 인물 연구

1971년에 발안지역에서 3.1운동을 주도하다 순국한 이정근에 대한 전기가 기념사업회에서 간행되어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3·1독립운동의 선구자 탄운 이정근의사 전기』) 또한 수원지역 향토사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제재는 「수원지방 독립운동의 선구자 김노적선생」(기전문화 10, 1992)를 발표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활발히 연구된 인물은 나혜석일 것이다. 나혜석에 대하여는 최홍규가 처음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나혜석의 가족사와 민족의식」(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 심포지엄, 나혜석기념사업회, 1999)에서 그녀의 집안 내력과 민족운동에 대하여 개척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박환은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의 민족의식 형성과 민족운동」(나혜석 바로 알기 제2회 심포지엄, 1999,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에서 3·1운동 당시 나혜석관련 신문조서를 발견하여, 나혜석을 본격적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박환의 연구가 보다 치밀성을 가지려면, 3·1운동에서의 나혜석의 역할이 좀더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평양과 개성에서의 활동에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그것이 이후 3·1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와 학우회 혹은 『여자계』와 『학지광』과의 상호연관 관계나 일본 유학시절 나혜석의 남녀 교우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1920년대 후반 이후 나혜석의 활동이 민족운동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혜석은 『학지광』이나 『여자계』에 발표한 글 속에서 민족의식이나 여성운동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나혜석의 강한 민족의식이 그의 미술작품에 끼친 영향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필요할 듯하다.

서광일은 『민족과 함께 한 정월 나혜석』(나혜석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엄, 2001)에서 1910년대 동경유학시절, 1919년 3·1운동, 민족적 환경에 대한 고찰, 의열단을 돕다. 1920년대 그의 민족의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황민호는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중운동의 전개」(나혜석바로알기 제5회 심포지엄, 2002)에서, 1920년대 들어 보다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씨는 『공제』와 『개벽』에 발표된 미술작품과 「4년전의 일기」등에서 변화하는 그녀의 민족의식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그녀는 여자야학을 설립하는 한편 의열단원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였으며, 의복개량 논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씨의 글은 두가지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3·1운동을 통해 성장하는 민족의 현실을 통찰하고 민중의 역동성을 확인한 나혜석이 1920년대 들어 보다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했다고 파악하고 있는 점이다. 이점은 기존의 연구가 1920년대 이후를 그녀의 민족운동의 쇠퇴기로 본점과 연관시켜 본다면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지금까지 학계에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새롭게 밝히고 있는 점이다. 1922년 그녀가 만주 안동현(현재 단동시)에서 여자야학을 하였다는 점은 일차적으로 주목된다. 아울러 씨는 그녀의

소설과 그림, 신문기고 등에 나타난 그녀의 민족의식과 근대의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나혜석 연구를 한 단계 끌어 올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는 나혜석이 1920년대 들어 보다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는 부분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그녀는 야학 등을 통하여 근대적인 운동은 하였는지 모르나 특별한 민족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그녀의 삶 속에서 남편 김우영이 일본관료로서 일하였다는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구미여행 중에 식민지고급관료들과도 인적교류를 갖고 있었으며, 조선총독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내선일체정책에 적극적이었던 大阪의 사업가 柳原吉兵衛과도 친분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본인은 필자가 근대적 민족의식의 증거로 제시한 여자야학의 설립, 의복개량논쟁부분은 민족적인 측면 보다는 근대적인 측면에 보다 비중을 두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안동현 부영사의 부인이 야학을 실시할 경우 민족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셋째, 필자는 공제 창간호에 실린 판화 “조조”, 개벽의 창간호에 실린 유화 “개척자” 등을 통하여 민중의 역동성을 묘사하는 주제의식이 강한 작품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사상의 형성과 발전을 생각할 때 그림 한두개를 갖고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 이러한 주제의식은 시대적 경향이였으며, 과연 그 작품들이 나혜석의 사상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3·1운동과 관련하여 검사의 총독정치에 대한 질문에 나혜석이 “정치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라고 답변한 것을 그녀의 한계로 본 부분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일은 수원출신 항일운동가 홍가륜에 주목하였다. 이상일, 「수원출신 항일청년투사 홍가륜」(『수원문화사연구』 2, 수원문화원, 1998)이 그것이다. 논고에서 씨는 출생과 성장, 조선혁명간부학교 입학, 국내 침투, 공작활동의 전개와 피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앞으로 해외에서 활동한 수원출신 민족운동가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또한 요망된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기사색인집이다. 수원문화원은 일찍이 1996년에 『한말 일제하 수원기사색인집』(이승언 저)를 간행하였다. 여기에서는 항일운동, 문화예술, 교육, 상업공업, 농업, 통신 교통, 체육, 언론, 청년 여성, 사회 등으로 나누어 1896년

부터 1945년까지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항일운동과 관련하여서는 1896년부터 1944년까지 황성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기사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도움을 주고 있다.

수원문화원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2002년에는 『구한말 일제하 수원관계 신문 자료집 1』을 간행하여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수원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가능한 전문을 수록하고 있어 지금까지 공백으로 되어 있던 구한말의 수원을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식민지시대의 경우도 빨리 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맺음말 : 수원지역 민족운동사 연구 방향

지금까지 식민지시대 수원지역 민족운동사연구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몇 가지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첫째, 1910년대 민족운동의 토양이 되는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성과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의병운동은 자료의 제한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몽운동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 수원, 서신 등지에서 계몽운동에 대한 자료들이 산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양 지역의 경우 이제제의 「남양군의 사회와 교육」(『화성의 얼』 3, 화성문화원, 1998)에서 사립보흥학교, 양성학교, 송림학교, 보성소학교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둘째, 수원지역의 3·1운동의 경우 현재의 수원, 화성, 오산, 안성, 평택 등이 하나의 권역으로 이해되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암리의 경우도 수원, 안성, 송산, 우정, 장안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수원지역의 3·1운동은 종교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 천도교 등 특정 종교의 3·1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천주교, 성공회 등 보다 다양한 종교, 인물, 단체들의 3·1운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넷째, 3·1운동이후의 민족운동사연구는 각 주제별로 단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정도이다. 앞으로는 1920, 30, 40년대 각 시기별 수원지역 민족운동사 연구가 보다 천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방법론에서 있어서 현장 답사, 면담 등 현장성에 보다 중심을 두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보다 살아있는 생생하고 풍부한 민족운동사 서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조성운, 성주현, 김세영 등의 연구는 주목된다.

여섯째, 3·1운동이후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사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조성운, 성주현 등에 의해 주도된 연구로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보다 다양한 분야에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1920년대 이후 수원지역 지식인들의 사회주의 사상 수용 및 발전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한 듯하다. 조성운의 박승극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아울러 수원 청년동맹의 연구를 통하여 일부 사실이 밝혀지고는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1930-40년대 수원지역 민족운동 세력의 동향 등에도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연구는 대개 1920년대에 한정된 느낌이다. 다만 조성운의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 운동에 대한 연구가 일부 30년대를 보완해 주고 있다. 앞으로 해방정국을 전망하면서 수원인들의 활동상에도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아홉째, 여성운동 등이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아울러 생활사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 지역의 민족운동사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다. 앞으로 지역별 사례별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주제별, 인물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을 마친 후에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연구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 수원지역 민족운동사연구의 현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 Abstract

# An research trend and task of the history of national movements in Suwon

Park Hwan

This thesis is surveying on the research trend and task of the history of national movements in Suwon area under the Japanese Colony. As this follow,

First, it seems that it has never been study on a patriotic enlightenment drive as well as a loyal army which based on national movement in 1910' s. As the study of loyal army limited the sources, it could not mention actively. However it needs to focus upon a patriotic enlightenment campaign.

Second, I think that the study on 3.1 Movement in Suwon have to include more expansive areas, for example, recent Suwon, WhaSung, Osan, AnSung, PyungTack, and so on. JeAmry also relates to Suwon, AnSung, SongSan, WooJeng, JangAn areas closely. Therefore it seems that these researchers have to view from more comprehensive respects.

Third, 3.1 Movement in Suwon deals with the religion, especially Protestants and ChenDoko. These certain religion which associated with 3.1 Movement have been studied mainly. For the part of religion, researchers need to include more various sects, for example Catholic Church, English Church and so forth. Moreover they may supplement many characters and groups together.

Fourth, the study on the history of national movements after 3.1 Movement have processed partial subject approaches. Researches may have observed each epoches of Suwon area, 1920' s, 1930' s, 1940' s.

Fifth, as a method of research approach, researchers are required field survey, interview, and investigation. Through this real work, they shall be able to write more vivid and abundant understanding on the history of national movements.

As this above, I think that it begins to study of national movement' history in Suwon area. So next researchers shall be studied case by case and region. In addition to it, they shall be understand subjects as well as characters respectively. Besides through diverse approach method, it seems that researches shall be advanced one stage.

Keyword : JeAmry, national movement in Suwon area, national movement in WhaSung area

## 수원지역 문학예술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 헌 선 (경기대 국문과 교수, 본 연구소 연구위원)

- 
- |                         |                        |
|-------------------------|------------------------|
| 1. 지방화시대의 문학과 예술        | 3. 지역문화에서 세계문화로의 관점 전환 |
| 2. 수원지역의 이야기와 굿이 지니는 특성 |                        |
- 

### 1. 지방화시대의 문학과 예술

근대는 민족주의 이념을 표방한 시대이므로 단일한 민족의 동질성을 내세우기 위한 문화적 전략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러한 문화적 전략은 중세의 공동문어를 매개로 하는 보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일제 식민주의에 맞서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었다고 평가된다. 중세의 공동문어인 한문은 국제적인 동아시아문명권을 유지시키던 수단이었다. 동아시아문명권은 한문과 민족어, 책봉체제와 민족정치, 보편종교와 민족종교 등이 양립하던 삼중의 이원구조를 지니고 있었으며, 공동문어, 책봉체제, 보편종교를 배척하고, 민족어, 민족정치, 민족 종교 등을 표방하던 과정에서 근대의 민족주의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아울러서 일본의 식민주의에 맞서서 민족의 정체성이나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대의 민족주의가 새삼스러이 요청되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표준어를 제정하고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노력은 당연한 추세였

다고 판단된다. 근대의 민족주의는 중세의 성립 이전에 존재했던 고대의 자민족중심주의를 계승한 것이면서 고대의 신화나 종교 등이 재발견된 사실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억압받는 민족의 처지에 희망을 주고 고대의 위대한 정신을 강조한 것은 근대민족주의의 측면에서 필요한 이념의 원천지 노릇을 했다고 생각된다.

21세기가 되어서 바라본 근대의 민족주의는 일정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허구적인 한계와 반성을 촉구하는 면모가 있다. 그것은 근대의 민족주의가 강조되면서 잊혀지거나 매몰되었던 지방어를 매개로 하는 지방어문화나 지방문화의 실체이다. 표준어를 제정해서 민족주의의 중심지 노릇을 하게 한 근대의 민족주의적 동질성의 의심되거나 해체의 조짐을 보이면서 마땅히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억눌렸던 자기의 정체성이 솟아나와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실체를 정면에서 재인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중앙의 집권적 성격이 강한 근대민족주의가 해체되고 지방의 분권적 성격이 강한 탈근대의 지방주의가 새삼스러이 등장했다. 탈근대의 지방주의는 연원과 내력이 깊다고 하겠다. 그것은 고대의 자민족중심주의가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매몰되었던 원시의 종족주의와 부족주의가 재발견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연적 연고와 환경을 중요시하는 종족주의와 부족주의의 확대판이 지자체를 매개로 하는 지방주의로 귀결하게 되었다. 근대의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전략이 곧 탈근대의 지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지방화시대는 세계화시대의 근간이 된다고 하겠다. 지방화의 이념은 세계화의 이념이 아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되나 이러한 거리의 발생은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세계화시대의 이념은 비교적 간단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 전지구촌적 차원의 의사소통을 매체와 실체를 매개로 구체화하고 있는 방안이자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전지구적 차원의 의사 소통행위는 미디어와 사이버 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동시에 그러한 의사 소통망을 실시간의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수단도 뒷받침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긴급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지방화의 실체를 인정해야 마땅하다. 세계화의 궁극적 이상은 결국 스스로 서 있는 시간과

공간의 기본을 인정하면서 세계적 다원성과 다원적 참여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쪽의 언어가 다른 언어를 일방적으로 잠식할 수 없는 진정한 평등적 가치관의 구현이 세계화여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화의 완성이 세계화여야 함은 물론이다.

지방화만 능사는 아니다. 지방화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방화에 의한 민족의 재발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아울러서 실제로 근대의 민족주의 이념 때문에 거세되거나 억압적으로 배척되었던 중세의 보편주의를 매개로 하였던 동아시아 문명권의 발견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뜻에서 모든 사물과 관념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지방화, 민족화, 문명권화, 세계화 등이 단계적으로 맞물려 있음이 확인된다.<sup>1)</sup>

이 시대는 언어로 이루어지는 언어 4중주권의 시대이다.<sup>2)</sup> 제 1주권은 수원지방 사람으로서 수원의 토박이 말을 사용하면서 수원의 문화를 향유하고 생산하는 문화주권자로서의 구실을 하는 주권을 말한다. 제 1주권은 수원지방에서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거지가 수원이면서 부지불식간에 선택되는 임의성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전통적 의미에서 제 1주권의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던 시대에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고 자연발생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 2주권은 수원사람이면서 우리나라사람이라는 주권을 말한다. 사투리를 쓰면서도 민족어에 동조하는 문화주권자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이 곧 제 2주권자의 면모라 할 수 있다. 사투리문화의 주권자인 점에서 어느 지역의 주권자와 평등하고 동시에 평등에 의한 대등한 화합의 총화가 민족어 주권자의 실제임을 인정해야 마땅하다.

동시에 제 2주권은 제 3주권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동아시아 전래의 정신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지역적 인접성에 기초하는 구체적 유형의 자산이기도 하다. 동아시아 문명권의 일원임을 강조하는 공동어권과 민족어는 어차피 이원적일 수

1) 지방화와 세계화를 합치는 조어가 나와서 세방화라는 말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말은 좀더 신중하게 써야 할 말로 생각된다.

2) 조동일 홈페이지에서 새로 쓴 글 란을 보면 이러한 용어의 소중함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며, 필자는 이 말을 받아들여서 이를 쓰고자 한다.

밖에 없다. 天下同文的 通文圈과 民族語의 通語圈은 구별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sup>3)</sup> 제 3주권은 이원주의적 속성이 있으나, 동질성과 이질성을 기반으로 삼게 된다.

제 3주권은 제 4주권의 근간이 된다. 전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중세의 세계를 겪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이다. 중세화의 세례를 겪은 곳과 겪지 않은 곳이 대등한 의의를 가지고 그것이 매우 심각한 갈등을 낳기는 해도 제 4주권의 권리는 모두 대등하게 지니고 있으며, 세계화의 요구도 이와 같은 각도에서 마련된다고 하겠다. 제 4주권은 도달점이라면 제 1주권은 출발점이다. 출발점에서 도달점으로 되돌아와야만 하고 또한 도착해야 한다.

4중주권이 행사되는 시대에 가장 긴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곧 제 1주권의 발랄하고 이상적인 정체성이 문학과 예술에서 확인됨은 물론이다. 문학과 예술의 근간이 현대의 문학과 예술에 있다고 하는 관점은 4중주권의 시대에 그릇된 발상이다. 과거의 전통 속에서 출발해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전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학과 예술의 근간이 과거의 문학과 예술에만 있다고 힘써 강조하는 것도 4중주권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발상이다. 과거가 미래이고, 미래가 과거일 수 있다는 溫故知新, 繼往開來의 이상은 허언이 아니다.

지방화시대의 수원지역 문학과 예술을 실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수원지역의 문학과 예술은 수원지역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그 특징이 발견되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사례로 두 가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하나는 설화이다. 설화에는 이야기로 꾸며져 엮어지는 거짓말의 참뜻이 있으므로 그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수원에 전승되는 이야기 전반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지역 유형의 설화와 보편 유형의 설화 두 가지를 간추려서 그것을 검토하기로 한다.

수원지역의 예술은 전통사회에서 특히 굿이 긴요한 의의를 가진바 있으므로 그것을 상세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수원에는 세습무의 전통이 뚜렷하게 자취를 남긴 고장이자, 강신무의 굿과는 다르게 수원지역의 굿은 화랭이 무속의 전통이 온전하

3) 통어권과 통문권에 관련한 말은 다음의 저작에 힘입어서 사용하고자 한다.  
조동일,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이 책에서 통어와 통문의 기본적인 용어 정의를 하고 규정했다. 필자는 이 용어를 받아들여서 쓰고자 한다.

게 자리잡은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화랭이는 수원과 수원 인근의 고장에서 온전한 자리를 잡고 있는 무속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굿은 예술적 총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토박이 예술의 근간으로 화랭이 무속이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입증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수원의 화랭이 무속에 관한 정당한 평가가 예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평가가 요청된다.

지방화시대에 이야기와 굿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표성에 관한 회의일 수 있다. 이야기와 굿은 다른 문학과 예술의 사례보다 나올 것이 없다는 생각이 근거에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이야기와 굿을 오해한 것이다. 이야기는 인류가 지혜를 집적하고 정보를 저장해서 전달하는 핵심적 수단이었다. 단편적인 용량의 정보가 아니고 대용량의 정보를 저장하는 수단이 곧 이야기이다. 굿은 이야기, 노래, 춤, 행위 등을 총괄적으로 집약하는 수단이고, 예술의 근간인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이야기와 굿이 현재 전승의 단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것이 수원지역의 문학과 예술을 담지하는 수단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승 방안의 강구와 변용을 현대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례라 힘주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와 굿은 그 자체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검토할 수 있는 예증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불가피하다.

## 2. 수원지역의 이야기와 굿이 지니는 특성

수원지역에 전승되는 이야기는 두 가지 뜻을 갖는다. 하나는 수원의 고유성과 수원사람의 정서적 기질을 반영하는 이야기라는 뜻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수원지역 이야기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다른 하나는 수원지역에 전승되는 이야기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전하는 이야기나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가 수원지역에 전승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의 수

원지역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이 물론이다.

수원지역의 기질적 특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에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수원사람을 기질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가 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각편이 있어서 주목된다. <수원 깍쟁이>와 <개성사람과 수원사람>이 그것이다.<sup>4)</sup> <수원 깍쟁이>는 수원사람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수원사람과 개성사람이 6.25사변 때에 겪은 사연을 소개해 놓은 자료이다. 두 사람이 피난을 가다가 빈 집에서 자다가 도저히 추워서 잘 수가 없자, 개성사람은 풀을 사고, 수원사람은 문풍지를 샀다는 것이다. 추위를 면할 요량으로 각기 분담해서 산 것이다. 이튿날 수원사람이 문풍지를 다시 뜯어냈으니 이유는 문풍지를 다른 곳에서 잘 때 다시 쓰기 위해서 엮었다는 것이다.

개성사람들이 생활력이 강한 깍쟁이라는 점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이다. 조선 왕조시대에 전왕조의 수도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격심하게 받았던 때문에 이에 뒤지지 않는 강한 생활력을 강하게 견지하며 조선 후기에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널리 알려진 바이다. 그런데 개성사람에 못지않게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 수원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뜻밖의 전란을 만나서 두 지역 사람이 만나서 벌인 일화가 곧 수원과 개성사람의 쟁패담이고, 이 과정에서 수원사람이 승리했다는 결과가 이 이야기의 요점이라고 하겠다.

<개성사람과 수원사람>은 현대적 상황을 염두에 둔 <수원 깍쟁이>보다 다소 과거의 전통사회를 무대배경으로 삼은 이야기이다. 개성사람과 수원사람이 자린고비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데 수원사람이 훨씬 더 깍쟁이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골자이다. 짚신 닳는 것이 가까워서 맨발로 가던 두 지역 사람 가운데 아내자의 행렬을 만나자 수원사람은 짚신을 신고 제자리에 탄전을 피우며 어전스러운 행동을 했음에 견주어서 개성사람은 짚신을 신고 몇 발자국을 더 가서 짚신을 털면서 닳은 것을 애석해했다는 이야기이다. 개성사람도 예사롭지 않은데, 수원사람이 한술 더 뜨는 이야기의 설정이 여기에 깃들여 있는 셈이다.

개성사람과 수원사람이 깍쟁이 노릇시합을 하는 전례가 언제부터 생성되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두 지역이 인접한 지역도 아닌데 이러한 이야기가 생성된 것에는 필연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가 수원지역에서만 전승되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수원사람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원지역 쪽에서 지어내어 퍼트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개성사람의 깍쟁이 유명세를 틈타서 이러한 이야기가 생성되었으리라 판단된다.

수원지역 사람의 특성을 기질적으로 강조한 이야기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으로 <발가벗고 삼십리>라고 하는 이야기 역시 흥미로운 자료이다. 양반집 자손의 젊은이가 수원부중 서호가의 행화촌에서 술을 먹다가 취해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서 선친의 제삿날임을 알고 발가벗고 뛰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이다. 수원사람이 예절이 바르고 깍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깍쟁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서울과 경기 인근의 사람에게 흔하게 발견되는 상투어구이다. 서울사람을 깍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사실과 수원깍쟁이는 일정한 함수관계를 지닌다. 깍쟁이는 어느 곳이나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서만 깍쟁이를 표방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전통에 특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인다. 개성깍쟁이, 서울깍쟁이, 수원깍쟁이 등이 모이게 되면 누가 깍쟁이의 원조인가 논란을 벌일 만한 문제라 하겠다.

수원이 정조시대에 주목을 받고 새로운 도시로 부각되는 계기가 된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구비로 전승되는 설화를 가장하고 있는 구비설화의 일단이 정조와 관련되어서 여러 편 전승되고 있다. 정조와 얽힌 설화를 정리해서 보면 이야기가 실화에 가깝게 전승되는 사실을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정조에 얽힌 설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정조가 직접 등장해서 행동한 이야기
- (나) 수원에 거주하는 인물이 정조와 관련되는 이야기

(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흔하지 않다. 정조가 이야기에 직접 등장해서 특정한 행위를 하는 이야기가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역사 속에 직접 기록되는 무늬이

4) 설성경·김용국, 『수원문화의 뿌리』, 수원문화원, 2000, 80-82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에 대한 가혹한 효심과 정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기록에는 나타날 수 없어서 그런지 구전으로 전승되는 것이 월등하게 많아 남다르다. 구체적으로 정조가 나타나는 사례는 세 가지가 있다.<sup>5)</sup> <송충이를 깨문 정조대왕> <정조와 지지대> <소나무마다 콩볶음> 등이 적절한 사례이다. <송충이를 깨문 정조대왕>은 정조가 화산에 송충이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화산에 도착하니 송충이가 너무 많아서 송충이를 이빨로 깨물면서 친산의 솔잎을 갉아 먹을 수 있느냐고 하자 송충이들이 일제히 땅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이다. 정조가 과연 송충이를 이빨로 씹었겠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기도 하나 그렇게 해서 송충이가 감동해서 땅바닥에 일제히 떨어졌다는 것도 민담적 설정이기도 하다.

미물에 지나지 않는 송충이도 임금의 행위에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적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정이다. 그러나 임금이 직접 송충이를 이빨로 물어뜯고 송충이가 알아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로서의 감동이 있으며 정성이 자연물에게까지 감화를 미친다고 하는 이야기의 설정에 일정한 감흥까지 얻어낼 수 있다. 그것은 민담적 가능성에 관련되는 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조와 지지대>는 일종의 지명연기설화로 전설적 속성이 강하다. 북수원의 초입에 있는 고개가 있는데 그것은 정조가 화산에 더디 이르는 것을 두고 고개를 넘기 힘들자 ‘어찌 이리 더디는가?’ 하는 말로부터 비롯된 것이 곧 지지대고개가 되었다는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비교적 간단하나 정조의 생각이 개입해서 이룩되었다는 점에서 긴요하다.

전설적 경이가 개입하여서 세계의 힘이 크다는 쪽으로 귀결되지 않고 오히려 특정한 임금과 관련되어서 고개까지도 이름을 얻는 특별한 사연이라고 하겠다. 임금이 자신의 아버지 묘소에 가는 일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심을 내세워서 동일한 이야기가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나무마다 콩볶음>이라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아이들이 소나무껍질 속에 있는 속껍질을 벗겨서 송기떡이나 송기죽을 해서 먹자 정조가 화산의 치산에 힘을 쓰면서 소나무 가지마다 콩볶음을 해서 걸

어두었다는 이야기이다. 가뭄에 소나무껍질을 벗겨서 배고픔을 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위해서 콩볶음을 해서 걸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로 간주된다.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한 점이 긴요한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치산에만 힘썼다고 하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정이다. 다른 고장에서 가뭄도 동일한 현상이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가 묻힌 곳의 치산에만 힘썼다고 하는 것은 효심에 관한 이야기로 보아주기에는 너무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나)에 관한 이야기는 정조가 특정한 인물에게 행운을 안겨다주는 이야기를 일단 기본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다. 정조가 중심에 놓인 이야기는 아니나 정조가 특정한 인물에게 일정한 기능을 하는 이야기이므로 정조의 존재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능참봉>과 <민어로 집강벼슬>이라는 이야기가 이에 적절한 사례이다.

<능참봉>은 정조가 화성 행궁 중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각편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김참봉이라는 인물이 사도세자의 능을 돌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추레한 과객이 나타나서 사흘 안에 죽을 관상이라는 파격적인 말을 한다. 이 말을 들은 능참봉이 살 방도를 묻자 사흘 뒤에 비가 내릴 때에 나랏님 산소에 상돌 밑에 유지를 덮고 잠을 자고 있으라고 일러주었다. 과연 그렇게 하니 임금님이 능참봉에게 벼슬을 주고 능을 지키라고 했는데 행궁 중에 비가 내리니 능참봉이 제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목을 베어 오라고 했다. 명을 시행하는 군사가 와서 보니 능의 상돌 밑에서 자고 있으니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자 임금이 한 끼에 닭 한 마리를 하사했다는 것이 결말이다.

임금이 과연 이러한 일을 했겠는가 의문스러운 사연이기도 하나 위기를 모면한 능참봉이 한 끼에 닭 한리씩 상급을 얻는 결말이 흥미롭고 위기를 행운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매우 기발하다고 하겠다.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임금과 이를 시행하는 능참봉 사이의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상을 보는 추레한 과객이 매개자 노릇을 하는 것이 특별하다.

<민어로 집강벼슬>은 더욱 기이한 설정의 이야기이다. 능참봉에게 괴롭힘을 당

5) 설성경 외, 같은 책. 정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모아 놓아서 이해에 도움이 되나 정확한 각편을 가려내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하는 인물이 아내에게까지 구박을 당하다가 마침내 민어 한 마리를 가지고 임금님을 찾아가서 진상하고 그 댓가로 능참봉보다 높은 집강벼슬을 하사받아서 팔시를 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민어 한 마리로 행운을 잡은 이야기가 흥미롭고 진상도 기회를 잘 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 이야기가 사실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랏님이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의 바른 이상이라면 능참봉의 행패를 알아차리고 오히려 능참봉의 악행을 징치하지 않고 더 지위가 높은 벼슬을 사사로운 민어 한 마리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정실인사의 표본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오로지 임금이 화산이나 화성에 얽매어서 정치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수원에 전승되는 것은 자기 고장 내세우기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수원의 기질과 특정 인물의 행적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지역적 추존을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임이 확인된다. 이 이야기는 대체로 이러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채록하면서 생긴 결과로 이해된다.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현장에서 채록해야 할 이유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역적 다원성의 지향이 이러한 이야기의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에서 내세울 수 있는 지역적 편향성은 극복해야 할 관점이라고 하겠다.

수원에 전승되는 이야기 가운데 전국적 광포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야기도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분석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큰 사람 장길손>과 <계모와 전실 아들>이 그것이다. <엄청나게 큰 사람 장길손>은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광포설화이다. 동일한 이야기가 전라남도에서도 발견되고 사건의 개요는 수원에서 채록된 이야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전국적인 변이형이 다를 수 있으며 인물의 성차나 이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변이의 양상이 심한 것은 아니다. 장길손, 설문대할망 등의 이름은 차이가 있음에도 사건이 같다고 하는 자연지리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

이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거인형 설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거인형 설화는 세계 창조의 거인 이야기인데, 북유럽의 이미르 Yimir, 인도의 푸루샤 Purusha, 중국의 반고 盤固 등의 이야기와 일정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에 전승되는 구전신화와 <창세가>의 미륵과도 상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sup>6)</sup> 거인형신화가 구비전승의 과정에서 생각한 변이가 생겨서 신성성이 거세되고 흥미 위주로 전락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세계적으로 확인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계모형 설화이다. 이른 바 계모 이야기는 연구자에 따르면 구석기와 신석기의 중간시기인 간석기에 탄생한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다. 계모가 등장해서 전실 자식을 괴롭히고 전실자식은 계모의 구박을 벗어나서 뜻을 이루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결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계모와 전실 자식의 관계가 주된 갈등이 되는 이야기이다. 수원에 전승되는 <계모와 전실 아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각편이다.

이 이야기는 본래 <칠성본풀이> 유형의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중간에 격심한 변이가 생긴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주인공이 전실 아들형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나중에 계모가 포수를 고용해서 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설정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은 <칠성본풀이>에서 계모가 일곱 아이의 간을 먹으려고 하는 설정과 일치하고 이때에 포수가 결정적 구실을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두 아들이 쫓겨나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쫓겨난 딸이 다른 계모형 설화에서 남성을 만나서 혼인하는 이야기와 상통하는 설정이다. 결말부분에서 계모의 응징담이 소거되고 삼부자가 재회하는 이야기는 특별한 변이로 간주된다.

계모형 설화는 계모의 악행을 응징하는 이야기가 핵심이고 권선징악이 주제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이야기의 심층구조를 생각하면 온전한 견해가 아님을 쉽사리 판정할 수 있다. 계모형설화는 이면적 의미가 훨씬 필요하다. 하나의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가정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기존의 세력을 몰리치고 핍박하자 쫓겨난 아이들이 새삼스러이 가정을 구성해서 자립한다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이 남성이거나 여성일 때에 의미가 궁극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참다운 여성성의 회복이 진정한 주제로 될 수 있다. 계모가 온전히 제거되고 새로운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이 설화의 심층적 주제이기 때문이다.

6)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이 책에서 상세한 논의를 펼 바 있다. 세계의 창세신화와 동아시아 창세신화를 비교할 만한 근거가 있으며 장길손이 거인으로 창세신화와 관련된다.

수원에 전승되는 이야기는 지역유형 oico type 의 설화와 광포유형 wide-spread type 의 설화로 나뉜다. 지역유형의 이야기는 수원사람의 기질이 어떠한가 하는 본질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이야기라면, 광포유형의 이야기는 수원지역에도 세계적으로 널리 전승되는 이야기가 확인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 된다. 두 가지 유형의 설화는 새롭게 구성되는 전승과 시작점은 알 수 없으나 오랜 전승성을 가진 설화라는 상황 보완성을 갖는다.

새로이 생성되는 전승의 시발점은 정조의 화성 천도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8세기의 화성을 이루고자 했던 꿈이 수원 지역민의 의식에 깊이 투사되어 정조를 미화하고 정조의 행위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생각이 다수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근거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널리 전승되는 거인설화와 계모설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원지역의 구비전승적 전통이 장대하고 심층적 무의식의 저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듯하다. 거인설화와 계모설화가 수원지역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한다. 두 가지 유형 가운데 특정하게 지역유형을 내세워서 강조하는 것은 편파적 견해라고 생각된다. 수원지역의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 속에서 대등하게 다루어져야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한다고 판단된다.

수원지역의 굿은 전통적 의미에서 세습무인 화랭이에 의해서 진행되는 굿이 적절한 사례이다. 화랭이들이 거행하는 굿은 규모나 기회에 따라서 대체로 집굿과 마을굿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집굿과 마을굿도 세부적 차이를 가지며 구현된다. 마을굿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굿의 실체가 밝혀져 있으나, 세습무가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집굿은 전혀 정보가 집약되어있지 못한 형편이다. 화랭이의 집굿에서 재수굿과 진오귀굿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수굿은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 있으나 진오귀굿은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수원지역의 무속이 화랭이 무속의 근간이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보가 전혀 안드러나는 것은 이 방면의 연구자가 연구시각을 편향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시각을 조정하고 수원지역 굿 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도달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도달점이 곧 수원지역 굿의 예술적 특성을 잠정적으로 밝혀보는 것이라고 하겠다. 수원의 굿이 지니는 의의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

우선은 수원 굿의 총화적 예술성에 있다고 하겠다. 수원지역의 굿은 전통적으로 경기도 남부 무속에 해당한다. 경기도 남부무속은 크게 한국 서남부지역의 거대한 지역유형인 육자배기토리권의 선율형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경기도 남부의 도살풀이장단유형권을 차별화하는 독자적인 유형을 성립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어야 마땅하다. 육자배기토리권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창법과 선법적인 개념이므로 논의가 불필요하 것이나 도살풀이권이라는 말은 부가적인 해명이 필요한 개념이다.

도살풀이장단은 경기도 수원의 굿에서 청배에 쓰이는 장단을 의미한다. 도살풀이장단은 2소박 6박 장단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섭채와 중복되는 의미의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섭채는 광의의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제석섭채, 오니굿거리, 오니섭채 등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한다. 섭채는 도살풀이와 겹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도살풀이와 섭채가 겹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한다. <제석굿>의 도살풀이로 하는 청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도살풀이>

에야 -

공심은 제례주요

제례 남산 본이로구나

집 터 잡으시니

삼이삼천 서른 수요

시물 여덟 땅을 마련

허궁천 비비천 삼화는 도리천

일심화경 되었느냐

천개는 어자하고 지벽이 여축하야

천야만야 이른 후에

일월성신 마련하는구나

대암 제석에 소암 제석

제불 제천 낙산 관악

석암 문전 십이제석

제석님의 근본이러니

게서 어디 본일러나

천하궁이 본이로구나  
 제석님의 근본이요  
 제석님의 본일러니  
 용궁뜰 용녀 부인  
 혼인 동중 인연 맺어  
 한 두달에 피를 모고  
 다섯 달에 반집 받아  
 십삭만에 낳아놓니  
 저 애기 거동 보라  
 한 두 살 말 배고  
 다섯 살 글을 배워  
 복희씨 데려갈 적에  
 사주 하나가 불길하야  
 팔자 하나 기박하야  
 다섯 살에 모선망하야  
 여섯 살에 부선망하야  
 갈 바히 전하 읊어  
 아쟁 삼촌 집에 가서  
 고공살이 허노라니  
 아재비는 내 아재비요  
 아주배미는 남의 전처  
 흰 밥뎡이 던져주며  
 이 밥 먹고 낭굴 가라  
 이 밥 먹고 낭굴 가라  
 저 애기 거동 보소  
 나무 연장 들어 뭇 적에  
 굽발 없는 지계에다  
 등테 없이 짙어지고  
 세 발 갈퀴를 들어메고  
 문전을 나서더니  
 나무 가세---, 나무, 나무, 나무 가세  
 아무리 외오치니

한산날 아적인데  
 거 뉘가 나무가라  
 저 애기 거동보소  
 허릴 없이 혼자 간다  
 청금산에 청에 조종  
 황금산에 황에 조종  
 아래 퍼진 떡갈 나무  
 위 퍼진 광대 싸리  
 한 전 두 전 허노라니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저기 저 중 내려온다  
 저 중은 어떤 중이냐  
 육환대사 명을 받아  
 권선문을 높이 들고  
 시주 집이를 내려 올 제에  
 석가 문안에 들려 오네  
 들도 넘고 산도 넘어 --  
 한 곳을 바라보니(칭취불능)  
 조그만한 -  
**〈발뻬드래〉**  
 한 곳을 당도하니  
 큰 법당 삼 층 절에  
 하날만큼 솟아 있고  
 적은 법당 이층 열안  
 허공에 솟았구나  
 천자 유합 동몽선습  
 사략 초권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사괘  
 사서삼경을 읽어내니  
 (칭취불능)  
 하나님전 축수경  
 땅에는 법화경

부모에는 효성경  
 일가에는 화목경  
 동기간에는 우애경  
 동네는 화우경  
 팔만대장경 읽어내니  
 중의 도법 완연하다  
 그 때 당금애기  
 재질 좋다 나라 가득  
 인물 좋다 소문 듣고  
 구경차로 가는구나  
 저 중에 거동 보소---  
 권선문 높이 들고  
 제석 뜰로 내려 갈제  
 아홉선비님네

(이하 청취불능이나 아홉선비집에 가서 엮불하고 당금애기와 만나는 장면이 이어진다. 그래서 문전에서 엮불을 하면서 천수경을 외우는 과정이 진행된다. 한 가지 특이한 일은 이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제석의 아버지인 중과 당금애기의 사연이 이루어지고 제석의 내력담이 상세하게 이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이용우, 오수복, 조광현 등의 제석본풀이에 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마도 확실하지 않으나 축소 전승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를 정간보로 옮기면 다음과 같이 된다. 전 사설을 옮기지 못하고 일부만 정간보화 한다.

도살풀이장단

덩	-	탁	탁	딱	-	탁	탁	궁	탁	궁	탁
에	야	-	-	-	-	-	-	-	-	-	-
공	심	은	-	제	레	주	요	-	-	-	-

<제석굿>에서 얹은 청배와 선청배가 있다. 얹은 청배는 4박으로 된 섭채로 동일한 사실을 주워섬기면서 제석을 청배하는 것이고, 선청배는 6박으로 된 도살풀이로 동일한 사실을 6박으로 늘리나 4박에 사실을 배당하고, 2박에 공박으로 긴 박을 사설로 늘여서 멜리스마 melisma 로 길게 끝나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배의 이원화 현상은 경기도 수원지역의 굿이 지니는 특성이라 하겠다. 도살풀이로 할 때에는 화랭이가 얹은채로 장단을 연주하고, 만신이 서서 사실을 주워섬기는 특성이 있다.

수원지역의 굿에서 섭채와 도살풀이가 이원화된 것처럼 다른 굿거리도 대체로 이원화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부정청배에서도 얹은 청배와 선 청배가 갈라져서 얹은 부정과 선 부정이 갈라져 있고, 시루청배에서도 얹은 청배와 도살풀이로 하는 시루청배가 갈라져 있고, 제석청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고, 군웅청배에서도 군웅청배 시에 가래조장단과 도살풀이, 가래조장단과 굿거리, 오니섭채와 굿거리 등이 이원적으로 짜이는 현상을 확인하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 굿거리가 흘긔으로 짜이는 것과는 다르게 겹긔으로 짜이는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수원지역에서 도살풀이장단이 출현하는 것은 다른 고장에서 나타나는 장단의 유형과 현격한 차이를 갖는다. 전라북도에서는 살풀이장단과 신임장단이 청배에서 긴요한 역할을 하므로 살풀이장단유형이 동살풀이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육자배기토리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도살풀이, 살풀이, 동살풀이 등은 지역유형을 결정하는 준거로 된다.

이러한 사실은 수원지역의 독자성이 다른 고장의 굿이나 무속을 들여다보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게 하는 요건으로 된다. 어느 하나를 가지고 기준 삼으면 다른 고장의 동일한 요소가 비교적으로 판단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지역유형은 다른 고장의 지역유형을 확인하게 하는 요소로 된다. 그 점이 수원지역의 굿을 대등하게 논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하겠다.

수원지역의 굿은 장단 분화가 굿거리별로 섬세하게 발달해 있음을 거듭 확인하게 한다. 경기도 남부의 장단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것은 2소박과 3소박이 결합되어 있는 혼소박장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장단의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곧 진쇠, 올림채, 부정놀이, 가래조, 반설음, 터버림 등이 이

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진쇠가 가장 복잡한 장단인데, 이 진쇠장단은 춤사위가 화려한 장단으로 혼소박장단이 거듭 변화되어 장단 자체가 집을 짓는 장단이고, 이 장단에 춤사위를 곁들이면 진쇠춤이라고 한다. 나중에 이 장단이 분화되어서 발달한 것이 곧 태평무이다. 올림채, 부정놀이, 반설음, 터벌림 등은 모두 춤에 소용되는 장단이고, 가래조는 청배에 쓰이는 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가래조의 사설과 정간보를 읊기면 다음과 같다.

대월은 서른 날이요  
 소월은 이십 구일이요  
 금년은 열 두 달이라  
 삼백은 예순 날이요  
 동삼색 하삼색 추삼색  
 군웅 왕신 마누라  
 신청 전물에 와겨서  
 나라님 전물로 나리오  
 (가래조 네 장단에 다시 피리와 해금이 선율을 연주한다.)  
 하늘은 언제 나며  
 땅 언제 나겨신고  
 천지 읊신지하니  
 한 기운 뿐이라  
 태극이 어린 후에  
 음양이 교호하야  
 지리가 생겼구나  
 천황씨 천하 마련  
 지황씨 지하 마련  
 염제 신농씨 황제 신농씨  
 태호는 복희씨라  
 실농씨 마련혈 제  
 첫번 오시는 군웅 왕신님  
 인간 마련하시고  
 신청 잡아 나리신 와겨셔서

나라 일체로 나리오  
 (가래조 장단에 피리와 해금이 네 장단 연주한다)  
 높은 산 제일봉은  
 산악이 조종이요  
 산제룡 흘러 들어  
 천하 구주 되었어라  
 천하가 적단 말쌈  
 공자의 대국이요  
 노국이 적단 말쌈  
 우리 모르노라  
 (이 대목에서 장단이 가래조에서 잦은 가래조로 이동하는데 이 장단은 올림채와 한 배가 맞는다.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이동하면 장단 자체도 한배가 달라지면서 이름도 달라질 된다. 막판에는 잦은 올림채를 모리에 가깝게 연주하나 장단의 틀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끝에 다시금 가래조로 회복한다.)  
 천지를 바라 꽃이 바라보니  
 태양이 현무 되고  
 동산은 주작이요  
 천태산 청룡이요  
 금강산 백호로구나  
 진시황 만리장성은  
 벼리로 삼어 두시고  
 남경(南京) 웅천부(熊川府)  
 북경(北京) 순천부(順天府)  
 동남 한실 간 데 없고  
 오희는 어디를 가며  
 지당은 어디 간고  
 세간 문물이  
 남가일몽이라  
 구주 첫 번 치국 마련하실 제  
 첫 번 치국을 잡는구나  
 경상도 경주 서울은

김비 대왕 치국이요  
 두 번을 잡는다 나주  
 전라도 전주 서울은  
 공민왕 치국  
 세 번을 잡으시니  
 충청도 부여 백제왕 치국이요  
 네 번을 잡는다  
 개성은 선덕물이라  
 왕건 태자 최일 장군  
 삼지창 받아 오시고  
 다섯 번째 시지 한양  
 아태조 치국  
 뉘라서 잡았던고  
 강남서 나온 무핵이  
 당글 영쇠 띄워놓고  
 지두서 앞에 놓고  
 대궐 터 잡는구나  
 동구안 대궐 터는  
 장군이 출두형이요  
 새문안 대궐터는  
 옥녀가 탄금형이라  
 경복궁 새 대궐 터  
 차례로 마련을 혈 제  
 정승은 삼정승  
 판서는 육판서  
 도감은 오도감  
 낭청은 팔 낭청  
 각도 각읍  
 각도 방백 수령을  
 차례로 마련을 혈제  
 일품을 잡는구나  
 광해는 일품

광주 이 품에  
 수원은 삼품을 마련  
 동네로 잡으시니  
 남문 밖 내달어서  
 동네 방성 --이라  
 정성을 들일 적에  
 오시는 임신네는  
 유태끼고  
 앞 내물 질러 가니  
 용이라 놀던 곳은  
 비리영정 금하시고  
 뒷 내물 질러 가니  
 학이라 노던 곳을  
 누리 영정하고  
 공중에 소순  
 물은 신 일곱 스물 한박  
 상탕에 머리 감고  
 중탕에 목욕하야  
 하탕에 열손 발원  
 시위송신주단  
 신연백모를  
 각으로 들여노시고  
 오시는 임신네는  
 초가망  
 초두 부정  
 이가망  
 이두 부정  
 즐거이  
 다녀 가시고  
 오시는 임신네는  
 칠성 어비양이  
 즐거이 다녀 가고

오시는 임신네는  
 제석이 오실 적에  
 제석은 삼불 제석  
 즐거이 다녀 가시고  
 오시던 임신네는  
 군웅이 오시느니  
 잡어오시던  
 (가래조 장단으로 다시 돌아와서 연주하면서)  
 군웅 왕신님 전물에 와겨셨던  
 전물로 나리오  
 (가래조 장단에 피리와 해금이 연주한다)

가래조장단

동	-	삼	색	-	주	삼	-	색	-
잡	아	오	시	던	군	웅	마	누	라
신	청	전	물	로	나	-	-	리	오

이러한 혼소박장단의 발달은 굿의 예술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요소이다. 춤사위, 몸짓, 노래, 재담 등이 합쳐지면서 그러한 요소를 모두 연결시키는 근간이 된다. 어려운 장단은 혼소박이라는 점에 있지 않고, 이 장단에 근거해서 다채로운 변화나 변주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예술적 다면성과 총체성이 굿거리 전체에 고루 분포한다.

수원의 굿에서 집굿과 마을굿은 모두 장단에 근간을 두고 분화하고 발전한다. 집 굿에서 새성주굿과 같은 굿은 가을 시기에 하는 굿도 있으며, 제차의 구성에 있어서 미세한 지역적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한 사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장차 진척시켜야 할 연구과제이다. 수원 굿이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흔적이 희석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수원의 굿을 구실 삼아 이러한 전통적 예술이 어떻게 다른 예술과 공유되고 분화되었는가 따져야 한다. 그러한 예술의 존재 의의를 현상적 차원에서 부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원형적 존재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사례를 분석해야 마땅한 지침을 계승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수원의 굿은 민중적 기반 위에서 민중예술의 미의식을 집약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실체이다.

특정한 화랭이 가문이 이제 온전히 구실을 하지 못한다. 화랭이 전통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 흔적이 사라진 것은 시대의 책임이다. 전통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재 발견되고 재인식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전통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굿의 담당자들이 이제 정면에서 부활할 계기를 부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3. 지역문화에서 세계문화로의 관점 전환

수원지역의 이야기와 굿을 매개삼아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의 핵심이 예술이고, 예술은 철저하게 지역성에 근간을 두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략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지역문화의 핵심인 지역유형의 문화를 창출한다는 사실이다. 지역유형의 문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룩되는 것이며 의식화된 창조는 아니라는 점이다. 비유하자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자연스럽게 사투리말을 익히는 것이지 사투리를 쓰자고 해서 그러한 말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유형의 문화적 창조력은 놀랍게도 보편성의 사유구조에 근간하고 있으며 보편적 심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별한 문화적 창조가 일반적 문화창조로 연대되는 특성을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 지역적 차별성이 대등한 처지에서 보편적 심성의 확인으로 이어진다. 차별성과 대등성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면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임을 확인하게 된다.

모든 사물은 다른 것과는 관계를 위계적으로 맺는데서 존재의 의의를 갖는다. 자연발생적으로 터득한 지역유형의 문화를 계승하는 방향 또한 이러한 각도에서 마련해야 마땅하다. 자연발생적 지역유형의 문화가 의식적인 지역유형문화의 창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문화의 생존전략이다. 단순성의 창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문화의 생존전략의 핵심임은 물론이다. 사물의 연계가 위계적으로 존재하듯이 단순한 창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를 구성해야 마땅하다.

지역적 차별성은 세계적 보편성에 근거해야 한다. 스스로 서 있는 지금 여기의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다음 저기의 시간과 공간에 무엇이 존재하며 구체적 의의가 있는지 입증되어야 마땅하다. 이야기의 세계성이나 곳의 보편성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사례와 비교될 수 있어야만 그 가치가 입증되리라 예견된다. 지역문화의 사례가 세계문화의 사례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문화에서 세계문화로의 관점이 전환되는데 있어서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문화의 현황에 관한 냉정한 관찰이 필요하다. 수원지역문화의 과거와 현재 사례를 충실하게 검토하고 그것의 공질성과 이질성을 확실하게 읽어내야 마땅하다. 과거의 유산이 현재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당시대 사는 사람의 고식적 희망사항이다. 문화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되고 기존의 생성물을 극복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다. 사물의 생성과 변천이 당연시되듯이 인간세계에서 생성하고 변천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다연한 현상이다.

수원지역의 문화가 생성과 극복을 거듭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고 문화의 대립적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살펴야 마땅하다. 현황을 냉정하게 관찰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장차 어떻게 이어야 바람직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가 살펴야만 바람직한 미래 창조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지역문화의 대응되는 사례를 우리나라의 다른 고장에 전승하는 사례와 비교해서 같고 다른 사실을 지적하고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객관적으로 확대하면서 비교해야 한다. 민족문화, 동아시아문명권, 세계 등의 사례를 견주어서 이해해야만 수원지역문화의 차별성과 대등성을 입증한다. 그런데 터무니없는 건강부회나 문화의 날 조에 따른 문화적 비교는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대등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를 광범위하게 비교하면서 논의해야 온전한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문화는 생산지와 소비지가 언제나 역전될 수 있어야 온전한 생명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문화 창출이 생산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불편부당한 아집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문화는 항상 넘나들면서 숨을 쉬어야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

력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문화의 생성과 극복을 당연히 여기면서 생성과 소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따질 수 있어야만 문화의 생존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모든 문화는 생성되면서 소멸한다. 생성과정에 다른 요인이 일정하게 기여하고 사라진다. 소멸과정에서 생성되어 이룩한 문화적 축적 또한 일정한 기여를 하고 소멸되는 것이 상례이다. 한 가지 유형의 문화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창조와 생성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한 생성과 소멸에 수원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기여하는가 따져서 물어야 문화생존전략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문화의 4중주권을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4중주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이다. 주권을 옳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지러진 주권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수원지역의 문화적 생존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지혜는 편벽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수원지역의 문화적 주권만 강조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정체성에 사로잡혀서 특정한 지역주의의 자긍심에 함몰될 우려가 있다. 수원이 소중하면 오산도 소중하고 평택도 대등하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4중주권의 기본권리 또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권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권리가 사위의 권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따져 물어야만 합당한 권리행사에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4중주권의 기본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2중주권에 함몰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2중주권은 1중주권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동시에 3중주권에 기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위험한 주권이다. 세계인, 동아시아인, 우리나라 사람, 수원사람 등이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야만 한다. 그러한 극점에서 4중주권이 행사되어야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니는 지역문화의 열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쓰여야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은 매우 소중한 반성적 의문의 출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각도에서 수원지역문화의 특징을 보편성으로의 확인이라는 점을 긴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 Abstract

# The present condition and view of the Suwon literature and art

Kim Heon-Seon

Through the Suwon exorcism and discourse, We think two things. The core of Culture is art. Art base on regional type. The culture of oico-type not arbitrariness creation but come itself, the creation of oico-type base on the universality.

Regional distinction must compare with universality, commonness and distinction deal with equally.

It is important thing to succeed oico type which create naturally. The creation of objects must keep up in relations. The regional difference must base on world universality.

The universality of tale and Kut must examine variously. The region culture and world culture need compare equally. These discussion solve in equal point of view. All culture have their existence strategy

It is natural that the object of extinct and create, when one object extinct, it contribute another thing which birth. So, The need of 4 sovereign is the epoch demand.

If suwon is important, osan, pyungtaek is important, these things approve equally. That can be a basic starting point of the 4 sovereign.

To be collapsed 2 sovereign is not reasonable. Citizen of the world, Citizen of the east-asia, Citizen of the Korea, Citizen of the Suwon connected gradually. Through the balance of the sovereigns, The genuine value of 4 sovereign can find. It is important to confirm the special feature of the property of Suwon culture.

Keyword : 4 sovereign, Tales, Dialect, Oico type, World culture, Creation, Conquest

## 수원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 준 혁 (수원시 학예연구사)

---

머리말	3. 화성관련 연구 현황
1. 수원지역사 연구 기관 및 성과	4.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사 연구 현황
2. 신읍치 이전 연구 현황	맺음말 - 앞으로의 과제

---

### 머 리 말

수원시는 인구 104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큰 대도시이다. 광교산과 칠보산을 비롯한 자연녹지가 아름답게 존재하고, 삼성전자와 SK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수원지역은 경기대학교를 비롯한 10여개의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교육 도시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수원에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역사문화 도시로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다.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인 수원은 21세기 초일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원의 역사를 올바르게 연구하고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원 지역에 대한 역사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었다. 실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분권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역사와 문화를 모

태로 하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선결과제로 인식되었다. 수원 지역 역사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하며 1997년에 『수원시사』를 개정하여 편찬하여 수원 지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1997년 12월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정조와 화성에 대한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기존의 지역사 연구가 주로 향토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향토사가들에 의해 선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sup>1)</sup>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정치사에서 ‘생활사’로, 제도사에서 ‘문화사’로, 그리고 중앙사에서 ‘지역사’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문화도 단순히 지역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주체로 하는 문화사·종합사·생활사’로 이해되고 있다.<sup>2)</sup>

따라서 수원 지역<sup>3)</sup>의 역사를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며, 지역사 연구 자체가 중앙사 연구의 한 부분인 것이다. 수원 지역과 연관된 모든 문헌을 찾아내고, 인물들의 증언록을 최대한 확보하고, 여러 학문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연구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연구가 확립되어야만 수원이 모든 시민들이 아름답게 살고 싶어 하는 올바른 도시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원문화연구소의 개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수원 지역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선사시대로부터 정조시대 신읍치 이전과 이후의 역사, 일제강점기 이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 수 있다. 다만 수원 지역의 변화가 1789년 신읍치 조성 이전과 이후가 매우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기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역사 연구사 정리는 이미 1999년 최홍규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다.<sup>4)</sup> 최홍

1) 최홍규, 「수원지방 역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기사학』3, 경기사학회, 1999.

2) 이해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1.

3) 이 글에서 지칭하는 수원 지역은 조선시대 말까지 행정적으로 분립되어 오던 수원군(부)·남양군(부)이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 때 이루어졌던 수원군 지역을 말한다. 이는 현재의 수원시·오산시·화성시 전역과 평택시·안산시·의왕시·군포시 일부가 포함되는 지역이다.

4) 최홍규, 위의 논문. 최홍규 교수는 연구 주체에 따른 지방사 연구와 시대별 연구현황에 대한 정리를 하였다. 연구 주체를 개인과 지방정부·문화원, 민간연구단체와 대학의 지방사 연구로 구분하고, 시대별로 선사-고시대, 조선후기 신도시 건설과 화성성역, 19세기말-식민지 시대의 민족운동으로 나누어 연구사 정리를 하였다.

규 교수의 앞선 1998년까지 수원 지역에 대한 연구 논문들의 현황이 정리되어 필자는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연구사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주제인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민족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서 논의가 있기에 중복을 피하고자 민족운동사와 연계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만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의 수원 지역사 연구는 여러 면에서 흡족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 지역 어느 곳에도 수원지역과 연관된 논문집 및 단행본이 한곳에 모여 있지 못한 현실이다. 수원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조차 연구 성과물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에 자료 수집에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수원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흡한 고민이 많은 同學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1. 수원지역사 연구 기관 및 성과

### 1) 수원시의 지역사 연구

수원지역사 연구에 가장 중심적으로 진행하는 곳은 수원시이다. 수원시는 수원시 사편찬실을 상설화하여 수원 지역의 역사 문화를 조명하고 있다. 1997년 개정된 『수원시사』를 편찬한 이후 구체적인 지역사 연구에 집중했다.

수원시사 편찬 이후 첫 번째 지역사 연구성과는 수원의 지명유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수원지명총람』<sup>5)</sup>이다. 수원지명총람은 당시 수원 지역의 3개구, 35개 동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산·하천·저수지·고개·골짜기·들·바위·도로·다리·약수터·화성관련 유적 등에 대한 이름과 유래, 위치 등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대상의 선정은 일반적인 지명조사의 관행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다만 수원에서 화성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화성관련 유적지의 이름과 유래에 대한 조사를

5) 1999년 수원시와 수원문화원이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덧붙인 것이 다른 지명유래 조사와는 구분되는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원  
의 어원이 물「水」에서 비롯된 것임을 『삼국사기』 등의 문헌을 통해 밝히었고, 삼한  
시대 모수국부터 시작하여 당시 1999년까지의 연혁을 정리하였다.

『수원지명총람』에 이어 수원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 고장 수원』을 편  
찬하였다. 『우리 고장 수원』은 수원의 연혁, 문화재, 화성, 공공기관 등의 편제로서  
어린이들이 수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3,  
4학년의 지역의 문화를 공부하는데 보조 교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원시는 1999년부터 수원지역의 근현대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을 녹  
음하여 이를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으로 편찬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 지역  
의 근·현대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통해 과거 수원 지역의 문화를 조망하고, 새  
로운 사료로서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I』(1999)은 정치·항일운동·사회운동 분야에  
집중된 인물을 선정하여 증언자의 간단한 약력과 사진을 실었으며, 채록일시와 채  
록자는 각 증언자의 증언 내용 끝부분에 기재하였다.

증언자는 김시중(화성군인민위원회 서기장), 김찬(55년 민주당 중앙위원), 박용  
근(수원군 1, 2대 김웅진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 박창균(대한청년단장), 안익승(수  
원문화원장), 오상근(보안부대 수원분실장), 이득성(민주당 비밀당원, 진보당 활  
동), 이정근(3·1운동 참가), 이흥범(52년 초대 수원시의원), 차병혁(3·1운동 참  
가), 최상균(60년 수원시의장 당선) 등으로 각기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수원  
지역을 품어왔던 인물들이다.

김시중은 1912년생으로 남로당 수원군당 부위원장과 화성군인민위원회 서기장  
을 역임한 사람으로 1952년 수감하여 1982년 출감한 장기수이다. 김시중의 증언을  
통해 수원 지역의 일제강점기 사회에서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상근은 1922년생으로 해방직후 경찰에 투신 49년 육군본부 특별방첩대 수사  
계장, 59년 수원지구 방첩대 대장을 역임한 수원지역 우익의 대표적인 인물로 당  
시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I』은  
좌·우를 막론하고 수원 근현대사를 가장 올바르게 증언해줄 인물을 찾아냈고, 이

를 근현대사 전공의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들에게 증언하게 함으로써 오류를 극  
복하고, 수원지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집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II』(2002)은 이전의 증언 인물과는 달리 종교·문  
화·교육·경제 분야로 한정하였다. 역시 증언자의 간단한 약력과 사진을 실었으며,  
김동휘(등잔박물관장)가 1920-1960년대 수원 지역의 옛 사진을 화보로 실었다.

증언자는 김남수(천주교 수원교구장), 김동휘(의사, 화성행궁복원추진위원장),  
김순기(경기도무형문화재14호), 김우식(목수, 1970년 화성복원 참여), 김학모(수원  
상업학교1회 졸업), 오수복(무속인,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우봉제(수원상공회의  
소 회장), 윤한흠(화가, 되살아 난 수원의 옛모습 전시회), 이위경(천도교 수원권선  
교구장), 임원순(수원성공회성당 신자), 정광희(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장), 조광현  
(무속인, 경기도 도당굿 이수자), 차명환(영동시장 중앙상회 대표) 등이다.

천주교, 성공회, 천도교의 수원 초창기 정착과정과 무속인들 삶을 구체적으로 확  
인하였으며, 우봉제는 수원으로의 경기도청 이전과 삼성전자의 유치 과정을 증언  
하였다. 차명환은 영동시장 상인으로 6·25 이전부터의 수원 시장 형성과정과 상  
인들의 삶의 모습을 증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는 사라져 가는 전통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수  
원시 영통구의 이의동은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자연 마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의동의 과거와 2002년까지의 마을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과정과 문화양식을 기록하여 『수원시 이의동지』(2003)를  
편찬하였다. 수원시는 곧 이어 울전동의 역사를 추가로 편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원시는 광역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2001)를 편찬  
하였다. 기전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제작한 지표조사보고서는 수원 지역 안의  
문화유적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민속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선사시대, 삼한-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의 역사를 개관하였으  
며, 민속은 수원의 장시, 생업과 세시의례, 의식주생활, 관혼상제례, 민속신앙, 놀  
이와 오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원지역의 각 마을의 문화유적과 화성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근대 건축물과 그  
유지(遺址)를 조사하였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근대 유적에 대한 문화적 가치

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원의 지표조사 ‘옛 수원 공립농업학교’, ‘옛 수원군청사’, ‘옛 경성지방방법원 수원지원’, ‘옛 수원경찰서’, ‘옛 수원군 공립소학교’, ‘옛 천주교수원본당’, ‘옛 수원종로감리교회’, ‘옛 소화강습소’, ‘옛 권업모범장’, ‘옛 관립여자잠업강습소’ 등의 연혁과 위치, 건축구조, 문화적 가치 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고고학분야에서 꽃피 유적이 기존의 철기시대 유적으로 보고 되었으나,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어 수원시 관내에서 최초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확인된 성과를 거두었다.

수원시에서 특기할 일은 수원의 옛 고지도를 모두 찾아내어 『水原의 옛 地圖』를 간행하였다. 신읍치 조성 이전과 이후의 지도 모두를 모은 이 책은 수원의 행정구역의 변화를 지도를 통해서 보여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화수준을 볼 수 있는 귀한 지도집이다.

이후 수원의 도시 변화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수원도시변천사』(2004)를 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과거 수원 신읍치 건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도시 변화에 대한 모습을 지도와 사진 등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한말의 사진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직후의 사진 등을 화성의 파괴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수원 화성행궁』(2003)을 편찬하여 화성행궁의 창건과정, 화성행궁의 주요 건물과 배치, 정조의 화성행차, 정조 이후의 화성행궁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사진 자료와 궁중유물전시관에 소장된 화성행궁의 현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화성행궁의 파괴목적과 전개과정을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

## 2) 수원문화원의 지역사 연구

1995년 9월에 수원문화원 산하의 ‘수원문화사연구회’가 발족하여 1998년에 『수원문화사연구』를 발족하였다. 이 연구지에서는 선사시대에서 일제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원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시대별 연구성과가 수록되어 주목을 요했다.<sup>6)</sup> 이후

6) 최홍규, 「수원지방 역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기사학』 3, 경기사학회, 1999.

『수원문화사연구』는 계속되어 통시대사적으로 주요한 연구 성과를 나타내었다.

### 수원문화사연구 1(1998, 5)

우장문, 수원의 고인돌 문화

李悌宰, 옛 水原의 寺址研究

朴憲淳, 羅末麗初 水原地域 豪族의 動向

洪洛基, 龍珠寺 및 隆陵의 紋樣 小考

李濟實, 華城의 守成體制에 대하여

趙成雲, 日帝下 水原地域의 農民組合運動

이종상, 정조대왕의 수원사랑 詩·文

### 수원문화사연구 2(1998, 12)

우장문, 수원의 선사문화에 대한 고찰

朴憲淳, 水原地域 書院의 建立 主體와 祭享 人物考

李悌宰, 學士公 李臯의 生涯와 墓域攷

黃仁奎, 趙仁規家門과 水原 滿義寺

高成勳, 1819년 華城 掛書사건의 추이와 성격

趙成雲, 日帝下 水原高等農林學校의 學生運動

李相一, 水原出身 抗日青年鬪士 洪加勒

황민수, 晶月 나혜석 研究

홍낙기, 수원의 석불들에 대한 小考

裴鳳均, 水原 城郭博物館의 展示計劃에 대한 研究

### 수원문화사연구 3(1999)

朴憲淳, 高麗時代 水原 地域民의 移動

李悌宰, 正祖의 顯隆園행차와 그 蹕路

金大中, 華城의 人才登用 政策

洪洛基, 鄉土美를 활용한 立體造形品의 開發에 관하여

趙成雲, 日帝下 水原地域 民族運動의 成長과 實態

### 수원문화사연구 4(2001)

우장문, 옛 수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 고찰

黃仁奎, 수원 최씨, 김씨 家門과 고려 중기 불교계  
 李悌宰, 南陽의 善政碑攷  
 成周鉉, 수원지역의 3·1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재조명  
 金泰元, 1920년대 水原地方의 民族運動史 研究  
 趙成雲, 일제하 수원지역의 新幹會運動  
 金贊壽, 華城 안내문의 새로운 모색

수원문화사연구 5(2002)

김기섭, 百濟 漢城時代의 西部  
 李悌宰, 용주사 《佛說大報 父母恩重經》攷  
 박헌순, 俞榮의 政治活動과 歷史敘述  
 한동민, 한말 · 일제강점기 龍珠寺의 변화  
 황민호,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의 전개  
 김찬수, 鄉土史 教育과 歷史教師의 役割

이와 같은 수원문화사연구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수원 지역사 연구에 가장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수원문화사연구회가 수원 지역내의 역사교사를 중심으로 출발하였기에 기존 역사관련 학회와 연계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수원 지역사에 연구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료를 통한 실증성이 부족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원문화사연구회의 활동이 확대되어 나가면서 전문 연구자들의 참여가 커졌으며, 자연스러운 결과로 논문의 질적 성숙도가 중앙학계의 논문과 차이성이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수원문화원은 수원문화사연구회 중심의 연구와는 별도로 정조시대 수원 지역에 존재하였던 장용영 외영과 24반 무예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연구를 하였다. 『장용영과 24반무예』(김영호, 2002)는 장용영의 건설 배경과 편제, 훈련 내용들을 기술하고, 장용영 외영의 무사들이 수원 지역에 거주하며 무예 훈련에 주력하였다는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예도보통지』의 도면을 통해 우리 병장기의 모양과 전통무예가 어떻게 훈련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장용영과 24반』무예는 너무 간략하여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며 장용영 전반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본 의도에 부합하는 수원 지역에 상주했던 장용영 외영에 대한 구체적

인 사실 규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발간한 『수원관련 문헌목록집』은 수원과 관련한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한 것으로서 수원학 연구의 시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수원관련 문헌목록집』은 총류/역사/정치·행정·사법/경제·산업/사회/지리·지지/종교·문화·민속/교육/자연과학 등 9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짧은 기간의 조사로 인하여 누락된 자료나 분류상의 오류가 나타나 완벽한 문헌목록집이 만들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수원문화원의 지역사 연구에서 특기할 일은 『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이창식 저, 2003)의 출간이다. 이창식은 언론인이자 기전향토문화연구회장으로 오랫동안 수원지역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이창식은 『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를 통해 수원군민들이 겪었던 뼈아픈 삶과 수원 군내 일어났던 항일사건·사고를 비롯하여, 행정·경제·교육·문화·종교·풍물·인물 등 각 분야에서 있었던 실화들을 수록하고 있어 수원 근현대사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경기사학회 및 기타 단체의 수원 지역사 연구

경기지역 역사 전공자들의 연구단체인 경기사학회는 1997년 『경기사학』창간호를 발표한 이후 계속하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경기사학』은 경기 지역사를 중심으로 연구 발표하는 학회지가 아닌 중앙학술지로 2005년부터 학술진흥재단이 인정하는 A급 학술지로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지역에 대한 연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사학에 발표된 수원 지역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최홍규, 정조대의 화성경영과 장용 외영 문제 : 특히 읍민대책과 관련하여(창간호)
- 18세기 말 華城地方의 繁榮과 産業振興策 : 특히 正祖의 民生對策과 관련하여(2호)
- 수원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3호)
- 수원지방의 역사적 변천과 행정구역의 변화(4호)
- 수원 지방의 3·1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6호)

- 조병로, 18세기 화성성역의 물자학보와 운송실태 : 석재 목재 및 철물을 중심으로(창간호)
- 박 환, 1920년대 초 수원지방의 비밀결사운동 : 血復團과 救國民團을 중심으로(창간호)
- 정해득, 正祖代 水原移邑과 以後의 변화 양상 : 수원지역 '邑誌' 를 중심으로(3호)  
正祖 御眞의 圖寫와 華寧殿 建立(5호)
- 성주현, 1920년대 경기지역의 천도교와 청년동맹 활동(4호)
- 우장문, 화성·용인 지역 선들의 비교 고찰(6호)
- 이달호, 華城 築城方略과 城制 I (6호), 華城 築城方略과 城制 II (7호)
- 이정일, 조선후기 수원지역의 장시연구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6호)
- 한동민, 근대 불교계와 龍珠寺 주지 姜大蓮(6호)
- 이민식, 華城市의 金石文(7호)
- 이동근, 수원지역 3·1 운동에서 천도교의 역할(7호)  
-兩汀·長安面을 중심으로-

한편 조선후기사를 전공한 경기사학회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는 사회단체 정조사상연구회에서는 정조와 화성에 대한 학술강연회와 1998년 11월 연구지 『정조사상연구』 창간호를 발간하였다.<sup>7)</sup>

『정조사상연구』는 수원 지역의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최홍규, 유봉학, 조성을 등 정조시대 전공자들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정조사상연구』 2호(1999)는 최홍규와 조성을의 논문을 중심으로 발간하였다. 최홍규, 「正祖代 水原지방의 수리정책과 농업진흥」, 「정조대 수원지방의 수전농업의 발전」, 「정조와 수원 관련 문헌 해제」, 조성을, 「다산과 정조」, 「다산과 정조관련 연보」, 「정조 관련 문헌 해제」, 『정조사상연구』 3호(2000)는 최홍규, 「정조대 화성에 대한 식목과 조경정책」, 유봉학 「정조시대 북학론의 대두와 사상적 갈등」, 「정조 24년의 역사적 정황」, 문중양, 「정조대 과학기술의 추이와 성격」을 실었다.

정조시대 연구를 위한 중요 논문들이 게재되어 우수한 논문집으로 성장하였지

만, 이 논문들은 기존의 연구성과를 다시 정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아쉬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사상연구』는 정조의 개인 문집이자 정조시대 연구의 최대 사료인 『弘齋全書』에서 화성 관련 저작을 뽑아 정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후 정조사상연구회는 2003년 10월에는 화성행궁 1차 중건을 기념하여 화성행궁 재조명이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2004년 10월 화성행궁 복원 기념을 위한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正祖時代 軍事文化의 再照明」을 주제로 하여 장필기 『정조시대 화성군사제도』, 박가영 『정조시대 군사복식』, 나영일 『정조시대 무예』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위의 발표는 장필기를 제외하고는 수원지역과는 거리가 먼 정조시대 군사문화의 연구이기에 수원지역사 연구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다.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단체인 '화성연구회'는 1999년 창립하여 매년 화성과 연관된 국제 학술회의를 주관하였다. 화성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드높이기 위하여 국내 성곽 및 외국 성곽과의 비교를 통한 학술회의는 시민단체이지만 전문 연구자의 발표로 인하여 연구 성과로서는 매우 수준있다고 하겠다.

강주수의 『화성 미복원시설물의 위치와 기능』(2000), 이달호의 『화성 시설물의 특징과 의의』(2001), 정해득의 『화성 수성체제의 일고찰』(2002) 등은 화성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의 시도였다. 특히 화성미복원 시설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있어 단순한 화성성역의궤의 기록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1911년 수원지적도와 1950년대 수원지역 항공사진을 결합하여 미복원 시설물을 찾은 것은 문헌과 지도, 과학적 측량법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였다고 평가할 만 하다.

『화성성역의궤』 간행 200주년을 기념하여 2001년 진단학회와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학술심포지움 ‘『화성성역의궤』의 종합적 검토’가 있었다. 이 학술심포지움에서의 발표는 아래와 같다.

- 최홍규, 『華城城役儀軌』의 구성과 역사적 의의
- 노영구, 正祖代 五衛體制의 復仇論과 華城 방어체제의 개편
- 조병로, 朝鮮後期 華城 城役에서의 物資確保와 賦役勞動
- 박정혜, 『華城城役儀軌』이 회화사적 연구
- 김동욱, 『華城城役儀軌』에 나타난 화성의 건축사적 의미

7) 최홍규, 「수원지방 역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기사학』 3, 경기사학회, 1999.

이외에 경기대학교 화성학연구소 개소기념으로 ‘화성의 외래 관광객 유치 잠재력과 방안’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최홍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화성과 화성행궁의 역사적 의의」, 김동욱의 「화령전의 건축사적 의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발표되었다. 이는 화성의 역사와 의의를 통해 화성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발전 방안을 가늠한 형태로서 수원 지역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준 신선한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2. 신읍치 이전 연구 현황

1789년 정조의 명에 의한 수원 신읍치 건설 이전의 옛 수원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는 사실 미미한 형편이다. 조선시대의 옛 수원지역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거나 그 이전 선사시대, 고대사 및 고려시대의 연구 역시 절대적인 연구자의 부족으로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수원 지역은 1988년 「수원파장동지역 발굴조사 보고」<sup>8)</sup>에 의해 파장동 일대에 구석기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2000년에 있었던 수원시의 광역 지표조사에 의해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어 꽃피 일대에 최초로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었다.<sup>9)</sup> 하지만 이와 같은 발굴 및 지표조사를 통한 고고학적 성과 이후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대한 연구가 없는 반면 수원지역의 청동기 문화에 대한 연구는 우장문<sup>10)</sup>에 의해서 계속되었다. 우리 학계에서 청동기문화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현실에서 우장문은 수원 지역의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산인 고인돌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우장문은 「수원의 고인돌 문화」에서 옛 수원지역에 고인돌이 46기가 있으며, 이들 고인돌은 대부분 기반식에 속하고 탁자식은 하나도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수원의 서수원 일대가 청동기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으며 이 중 여기산의 유물은 그 세련도가 청동기 문화중에서 아주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史料의 부족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기본적인 사료가 있기는 하나 우리 고대사를 명백하게 밝혀줄 사료가 그리 많은 실정이 아니다. 수원 지역의 고대사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삼국시대의 수원 지역사 연구로 김기섭의 『百濟 漢城時代 西部』(수원문화사연구 6)가 최근에 나타난 연구 성과이다. 초기 한성백제에 대한 연구는 백제사 전체에서도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 사료의 부족과 발굴에 따른 결과물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풍납토성이 발굴된 이후 백제사 연구에 있어서 풍납토성을 초기 한성백제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이 속에서 지금의 송파구 일대 한성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지역을 구분하였을 것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동쪽은 양평 방면, 서쪽은 인천 방면, 남쪽은 안성방면, 북쪽은 연천 방면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김기섭은 막연한 생각으로 미추홀 일대가 백제의 서부 근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 미추홀 일대가 서부일 것이라는 증거는 사료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증적인 연구를 보여주었다. 한성을 동부가 현재의 춘천임을 밝혀내고 수원지역(현재의 화성시)이 춘천과 대각선을 이루고 있으며, 백곡리 고분군(白谷里 古墳群)과 마하리 고분군(馬霞里古墳群)에서 출토된 유물과 토기류를 통해 이곳이 한성백제의 서부임을 추정하고 있다. 즉, 백곡리고분군과 마하리 고분군에서 나온 토기류들이 4세기 정도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의 유형이 한성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곳이 한성 서부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 고고학과 연계하여 더욱 구체적인 유물 고증이

11) 우장문, 「옛 수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 고찰」, 『수원문화사연구』 4, 수원문화사연구회, 2001.

8) 최완기, 박희현, 이강근, 「수원 파장동지역 발굴조사 보고」, 『판교-구리, 신갈-반월간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 충북대학교 박물관, 1988.

9) 『수원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수원시, 2000.

10) 우장문은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연구자로서 수원문화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학술활동을 진행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수원의 고인돌 문화(수원문화사연구 1), 수원의 선사문화에 대한 고찰(수원문화사연구 2), 옛 수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 고찰(수원문화사연구 4), 화성·용인 지역 선돌의 비교 고찰(경기사학 6) 등이 있다.

필요하며, 사료에 대한 비판도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수원지역의 고려시대 백성들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실제 고려시대 연구는 중앙사와 지역사를 모두 포함하여도 연구 성과가 그리 풍부한 편은 못된다. 고려시대의 연구가 정치사 연구로 고려 초기 광종의 개혁정책과 무인정권기, 대몽항쟁 그리고 공민왕대의 개혁정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불교사상사 위주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려시대 구체적으로 특정지역의 지역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신선하다 하겠다.

박헌순의 「羅末麗初 水原地域 豪族의 動向」(수원문화사연구 1)과 「고려시대 수원 지역민의 이동」(수원문화사연구 3)은 고려시대 향촌 사회사 연구의 하나로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시대 수원지역민의 姓氏와 이들의 이동경로를 살펴보았다.

고려시대 수원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최, 김, 이, 서, 방씨임을 확인하고 수원 백씨의 경우 고려 전기에 개경에서 내려와 수원을 본관으로 삼았음을 논증하였다.<sup>12)</sup> 그리고 수원 지역민의 이동 형태가 전입 15姓, 전출 27성으로 전입보다는 전출의 경우가 더욱 많았고, 이동 범위는 주로 수원의 임내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멀리 전남 장흥까지도 이동을 하였던 것을 밝혀냈다.<sup>13)</sup>

또한 수원지역에 대한 고려시대 연구는 황인규에 의해 이루어졌다. 황인규는 「수원 최씨 · 김씨 家門과 고려 중기 불교계」(수원문화사연구 4)를 통해 수원 최씨와 김씨 가문이 수원에서 토착세력을 형성하여 현달해 가는 모습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수원의 두 가문이 고려 중기 이후 문벌귀족사회에서 차지하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수원 지역이 고려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두 가문 출신인 유가종승(瑜伽宗僧) 관오(觀奧)(1096-1158)와 화엄종승(華嚴宗僧) 영소(靈炤)(115-1188)가 유가종과 화엄종의 대표적인 승려로서 고려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서술하였다. 관오는 고려 최대의 승려로 평가받는 지광국사(智光國師) 해린(海麟)(984-1070)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인 상지(尙之)의 조카로서 유가종의 법통을 이어받아 국왕의 신임을 두터이 받았다.

12) 朴憲淳, 「羅末麗初 水原地域 豪族의 動向」, 『수원문화사연구』 1, 수원문화사연구회, 1998.

13) 朴憲淳, 「高麗時代 水原 地域民의 移動」, 『수원문화사연구』 3, 수원문화사연구회, 1999.

수원 김씨 가문의 영소는 수주 「수원」에서 태어나 11세에 당시 승통이었던 혜선(慧宣)을 귀의하여 영통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영소는 21세에 광교사 주지가 된 이래 56세에 영통사 주지를 할 때까지 9개소의 주지를 하는 동안 왕실의 측근 승려로서 총애를 받았다.

황인규는 이 두 가문은 삼한 통합시 왕건에게 귀부하여 그 공로로 수원이 대읍인 수주로 승격시키게 함으로써 수원이 현재의 대읍으로 발전하는 단초를 열었다고 주장하며, 수원 김씨의 경우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으나 영소 등을 통하여 주요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고, 이로 인해 수원 지역이 고려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이 수원지역의 신읍치 건설 이전의 지역사 연구 현황이다.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지역역사 연구가 연구자의 절대부족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조선시대 신읍치 건설 이전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논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자호란 당시 광교산의 김준룡 장군의 대승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 바이며, 이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로 폄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원은 서해안 일대의 주요 군사도시로서 신읍치 이전까지도 5,000여 군사가 상주하고 있었으며, 인근 지역의 중심 도시였다. 그러나 조선 전·중기 수원 지역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아쉬운 일이며, 다양한 사료를 발굴하여 신읍치 건설 이전 시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3. 화성관련 연구 현황

조선시대 전·중기의 수원 지역사 연구 성과는 앞서의 설명과 같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1789년 7월 15일 수원부 읍치 이전과 이후 축성된 화성 건설에 관련된 논문은 1990년 후반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정조시대 수원지역에 장헌세자의 현릉원을 천봉한 것을 계기로 1793년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2년 9개월에 걸쳐 축성을 추진했으며, 정조의 1804년 왕위 양위를 겨냥하여 만든 화성행궁을 축조하였다.

수원 신읍치 건설과 화성 축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는 최홍규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최홍규는 1990년 대 중반 발간된 『수원시사』의 화성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10여 편 이상의 화성 관련 논문과 단행본을 간행하였다.<sup>15)</sup> 1999년 이후 발표한 논문과 단행본은 아래와 같다.

- 「正祖代의 對華城 농업진흥정책과 농업생산력 발전 : 특히 水利政策과 농업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9, 國史編纂委員會, 2000.
- 「醉石室 禹夏永의 향촌사회발전론 : 正祖代 향촌지식인의 對華城觀」, 『韓國實學研究』 2, 民昌文化社, 2000.
- 「정조가 건설한 역사와 문화의 고장」, 『문화예술』 27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2.
- 「華城城役儀軌의 구성과 역사적 의의」, 『震檀學報』 93, 震檀學會, 2002.
- 『水原 華城郡邑誌』 崔洪奎 編, 國學資料院, 2001.
- 『정조의 화성 건설』 일지사, 2001.
- 『朝鮮時代 地方史研究 : 京畿地域을 중심으로』 一潮閣, 2001.
- 『朝鮮後期鄉村社會研究 : 正祖時代의 華城을 중심으로』 一潮閣, 2001.

최홍규는 1990년 이후부터 화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원 지역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조의 화성 건설을 화성경영으로 표현하며, 유교적인 왕도 정치와 혁신정치, 문운 융성을 아울러 꾀하려던 정조시대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자 정치적 위용을 요약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화성이 실용지학을 숭상하던 好學의 왕권과 결합한 진보적인 관료·실학 사상가들의 이상을 상징화한 건축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최홍규와 더불어 화성과 정조의 정치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유봉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정조대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꿈의 문화유산 화성』을 펴냄으로써 정조와 화성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후 계속하여 정조의 화성성역

의 정치적 배경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正祖代 政治論의 추이」 『京畿史學』, 京畿史學會, 1999.
- 「正祖의 華城 건설과 산업진흥책」 『韓國實學研究』 2, 民昌文化社, 2000.
- 『정조시대 화성 신도시의 건설』 유봉학 ; 김동욱 ; 조성을 공저, 백산서당 2001.
- 『정조대왕의 꿈 :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1.

최홍규가 채제공과 정약용 등 남인 중심의 실학자들과 연결된 화성성역을 부각시킨 반면에 유봉학은 박지원, 박제가 등의 북학 계열의 실학자들이 화성성역 전반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하였다.<sup>16)</sup>

유봉학은 『정조대왕의 꿈 : 개혁과 갈등의 시대』를 통해 정조 독살설의 오류를 밝혀내고, 정조가 집권 후반기에 정국운영을 주도하지 못하여 노론 시파인 김조순을 외척으로 맞이하여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기존의 정조시대를 강력한 왕권으로 인해 정국을 주도하였다고 보는 시각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봉학은 영·정조 시대를 조선중화주의, 혹은 진경문화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이 과연 적절한 역사용어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의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건축사 연구로 화성을 부각시킨 연구자는 단연 김동욱이다. 김동욱은 조선시대 건축사 전공으로 화성에 대한 오랜 연구를 지속해왔다. 화성행궁 복원 이전부터 직간접적으로 화성을 연구하기 시작한 김동욱은 『화성성역의궤』의 분석을 통하여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유산으로의 우수성과 현재의 과학적 건축학적 시각에서도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다.<sup>17)</sup> 이후 자신의 연구성과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돌베개, 2002)을 출간하였다. 김동욱은 수원 신읍치의 위치가 단순하게 『반계수록』 군정편의 주장을 따라 팔달산 동쪽 들판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당시의 경제성장적 측면에서 유통이 활발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화성성역의궤』에 나오는 각종 공사기구와 시설물들의 도면을 이용하여 이

16) 유봉학은 간송학파의 중심 인물로 노론의 정통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17) 김동욱, 『華城城役儀軌』의 建築史的 意義, 『震檀學報』 93, 震檀學會, 2002.

14) 최홍규는 수원문화사학회 회장과 경기사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원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15) 최홍규, 「수원지방 역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경기사학』 3, 경기사학회, 1999.

기구들의 활용성과 시설물들의 독창성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성전도」와 일제강점기 수원 지도를 비교하여 화성 내에 최초의 십자로와 신작로를 개설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두 가지로 인해 화성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신도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앞으로 수원시가 해야 할 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화성 연구에서 주목할 연구자는 정해득이다. 정해득은 수원지역의 邑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 지역의 사회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正祖代 水原 移邑과 以後의 변화 양상-수원 지역 邑誌를 중심으로-」(경기사학 3, 1999) 실제 화성에 대한 연구는 화성 건설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정조의 홍서 이후 19세기 수원 지역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편이었다. 이러한 연구 풍토에서 19세기 수원 지역의 변화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 1895년 을미개혁 이후 화성의 4대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군졸들이 폐지되는 수비체제의 변화를 설명하였으며, 1846년 대홍수로 인하여 화홍문, 남수문 등 수원천 주변의 시설물들이 파괴되었다가 1848년, 1854년에 재건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수원유수부에서 거행한 과거가 문무과별시(文武科別試)를 비롯하여 공도회(公都會), 도시(都試), 취재도시(取才都試), 화포과(火砲科) 등 5종류의 과거가 있으며, 문과 별시는 수원부민만을 대상으로 무과 별시는 속5읍을 포함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正祖 御眞의 圖寫와 華寧殿 建立」(경기사학 5, 2000)을 통해 정조의 어진이 제작되었던 3차례의 도사과정과 그 어진을 봉안하였던 화령전의 건립과정, 화령전에서 행하여졌던 제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해득은 2003년에 있었던 화성연구회 제4회 학술발표회에서 「華城의 守城體制에 대한 일고찰」을 발표하면서 화성의 방어 체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화성의 수성체제에 대한 연구가 장용영외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바에 비해 이 논문에서는 장용영 혁파 이후 총리영의 신설을 통한 수성체제까지 아울러 논술하였다. 특히 개성, 광주, 강화 등 4대 유수부의 토지 전결수(田結數)를 비교하여 화성이 두 배 이상 많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화성축성 이후인 1798년부터 새로이 화성의 방어를 위하여 돈대와 적루를

설치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지금까지의 화성 방어체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로서 앞으로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이 화성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였다면 이달호의 『華城建設研究』(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는 화성의 축성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이다. 먼저 이달호는 화성 축성에 앞서 진행된 현릉원의 천봉과 수원 신읍치 선정문제에 대한 정조의 새로운 의도를 밝혀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박명원의 영우원 천원 상소에 따라 정조의 결단으로 진행된 것이었다고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릉원 천봉지로 선택된 자리는 이미 선조와 효종의 능침으로 정해졌던 자리였고, 수원부 읍치로의 능침을 주장하였던 이들은 모두 기자현, 윤선도 등 南人이었음을 밝혀냈다. 남인의 주장에 반대하여 능침 결정을 취소시킨 당파가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세력이었음을 밝히면서 수원부 읍치로의 이전은 남인에게 힘을 키워주기 위함이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또한 화성 축성에 따른 재정 마련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의 혼란스러움을 극복시켰다. 『화성건설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화성의 각 시설물들이 淸에서 수입하여 화성 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武備誌』와의 비교를 통하여 화성 시설물들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1999년 이후 화성에 대한 연구는 군제사, 정치사 및 사상사, 경제사, 풍수지리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화성에 대한 군제사 연구는 정연식과 노영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연식,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歷史學報』 169, 역사학회, 2001.

정연식,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진단학보』 91, 震檀學會, 2001.

노영구, 「조선후기 城制 변화와 華城의 城郭史的 의미」 『진단학보』 88, 震檀學會 1999.

노영구, 「정조대 오위체제 복구 시도와 화성 방어체제의 개편」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2002.

김기호, 「正祖代 華城 建設과 防禦體制의 變化」 서울시立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3.

정연식은 화성의 방어시설이 당시 攻城砲에 대한 과학적 설계가 있었음을 논증하였고, 이에 반해 노영구는 성곽 자체가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보다는 내란 방어 목적이 강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정조가 노론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금위영 등의 권한을 축소하고 왕과 병조판서의 영향력이 커지는 오위체제로 전환하면서 화성에 장용영외영을 설치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정조의 화성 건설과 정치운영에 대한 논문은 아래와 같다.

- 곽희숙, 「華城城役に 비친 正祖의 政治構想」,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문식, 「正祖의 華城경영과 문헌배포」 『규장각』 23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 박현모, 「정조의 정치와 수원성 : 華城건설의 정치적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 34, 경남대학교, 2001.

김문식은 정조가 화성을 건설한 이후 국가에서 발간하는 주요 서적을 화성유수부로 내려 보냈는데, 이는 장기적인 정국 구도하에서 양위 후 화성에서 정국을 운영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하였다.

박현모는 과거 김성윤의 화성으로의 천도설과 연결하여 정조의 화성 건설이 바로 왕위를 물려주고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한 뒤 자신의 개혁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조에게 있어 실질적인 천도의 개념이었다고 주장했다.

화성의 경제기반시설과 경제행위에 대한 논문은 아래와 같다.

- 류기승, 「정조시대 수원의 농업기반사업」, 『농어촌과환경』 77, 농업기반공사, 2002.
- 강문환, 「正祖代 水原의 大都會 發展과 經濟變化」, 『청람사학』3, 한국교원대학교, 2000.
- 발행사항 청원 : 한국교원대학교, 2000.
- 엄태현, 「18세기 말 화성지방의 농업진흥정책 : 정조의 수리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이정일, 「조선후기 수원지역 장시연구-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경기사학』 6, 경기사학회, 2002.

이정일은 18세기 후반 구읍치 시기부터 19세기 후반 개항 이전까지 수원지역 장시의 변동을 당시의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당시 수원지역에 남문외장(南門外場)이 4·9일, 오매장(烏梅場) 3·8, 세람장(細籃場) 1·6, 팔탄장(八灘場) 1·6, 석현장(石峴場) 1·6, 안중장(安仲場) 2·7, 사사곶장(沙土串場) 4·9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신읍치 조성 직후 북문외장(北門外場)이 있었으나 1830년대 이후에 없어진 것을 밝히면서 남문외장이 서울 다음으로 큰 장이었다고 논증하였다. 수원지역의 장시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주로 미곡, 면포, 채소와 과일, 해산물, 소금, 다시마, 담배, 송아지로 다 장시에 비해 소금의 유통이 매우 컸음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 지역의 풍수지리에 대한 연구는 두 논문이 있다.

- 성동환, 「顯隆園 遷園과 華城建設을 통해 본 正祖의 風水地理觀」, 한국사상사학 17, 한국사상사학회, 2001.
- 정반석, 『水原地域의 傳統建築과 風水地理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 華城行宮을 中心으로』 漢城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3.

성동환은 조선풍수학 전공자로 『화성성역의궤』와 『홍재전서』에서 정조의 풍수지리에 대한 인식을 통해 풍수지리가 현릉원 천봉과 화성건설에 끼친 영향을 살펴 보았다. 다만 역사적 배경을 소홀히 여기고 풍수적 측면만을 강조한 것은 약간 아쉽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김준혁의 「花山 龍珠寺의 創建과 佛敎界의 位相」(경기향토사학 3, 2002)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설화를 중심으로 용주사의 창건을 설명했던 것에 반해 『비변사등록』과 『조선왕조실록』등을 통해 용주사 창건이 현릉원 천봉과 연결하여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정조의 특별한 배려로 용주사 승려들이 전국의 불교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설명하였다.

이상이 정조와 화성이 연관된 지역사의 연구 현황이다. 역사학계에서 조선후기 정조 및 정조시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아진 편이기는 하나 아직도 화성 관련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 못된다고 할 수 있다. 화성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과 건축사 중심의 연구가 아직도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생활사와 복식사, 그리고 식생활사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그나마 이정일 등의 장시와 관련된 연구가 나타난 것이 나아

진 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화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4.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사 연구 현황<sup>18)</sup>

일제하 수원지역사 연구에서 나혜석과 연관된 개인 연구가 특이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역사 연구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나혜석이라는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의미 있다고 하겠다. 특히 나혜석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근대 여성화가라는 사실로 부각이 되어 왔었으나, 반일과 친일 등에 관하여 논란이 분분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나혜석에 대한 미술사와 여성사적 접근을 넘어 민족운동사의 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나타났다.

- 1) 최홍규, 「나혜석의 가족사와 민족의식」, 『나혜석 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움』, 나혜석기념사업회, 1999.
- 2) 서평일, 「민족과 함께한 晶月 羅惠錫」,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국제심포지움』, 나혜석기념사업회, 2001.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움을 통한 나혜석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근대사 전공자들의 나혜석 연구가 뒤를 이었다.

- 3) 박 환, 「羅惠錫의 민족의식 형성과 민족운동」, 『여성, 역사와 현재』, 2001.
- 4) 황민호,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 전개」, 『수원문화사연구 5』, 수원문화사연구회, 2002.
- 5)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한길사, 2000.
- 6) 서정자, 『정월 나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

18) 일제강점기 연구에 있어서 민족운동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수원지역사 연구에 있어서 민족운동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역사 연구를 논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하지만 이번 학술대회에서 수원지역 민족운동사의 연구현황에 대한 박환 교수의 별도의 발표가 있기에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통해 나혜석이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아나키즘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본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사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선진적 지식인의 면모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나혜석의 3·1운동 참가와 5개월간의 서대문형무소의 생활, 이후 1920년대 김원봉의 의열단과의 관계 등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연구들은 1930년대 이후 나혜석이 김우영과 이혼하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은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나혜석 개인의 연구가 수원 지역사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접근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에 대한 민족의식과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수원 지역에서 나혜석에 대한 추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말 일제 강점기 龍珠寺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동민은 근대 불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논문을 발표해왔다. 그중 「한말·일제 강점기 龍珠寺의 변화」(수원문화사연구 5, 2002)와 「근대 불교계와 龍珠寺 주지 姜大蓮」(경기사학 6, 2002) 근대 불교계의 핵심 승려인 강대련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근대 불교사에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용주사에 대한 연구는 지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 있어서는 중앙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한말 강대련을 중심으로하는 용주사는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용주사의 연구는 근대 불교사 연구의 몸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 7월 「國內寺刹現行細則」 전문 36조의 반포하여 대한불교의 이념과 교화방법 승려의 법계 및 승직·승적·승규와 사찰관리 등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을 담고 있다. 이때 용주사는 각도의 首刹 16개중의 하나로 中法山으로 지정되었다.

한동민은 용주사가 1906년 11월에 명화학교(明化學敎)를 설립하여 교육운동에 뛰어 들었으며,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있어서 5월 9일 승려 25명이 12원을 모아 기부하였음을 밝혀주었다.

특히 1911년 10월 용주사에서 ‘水原佛敎布敎堂’을 설립, 운영한 것을 밝혀주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성과로서 한동민의 연구가 있기 전까지 수원포교당은 1920

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포교당의 설치에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로서 실증적인 사료 분석으로 통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다만 한동민의 용주사에 대한 연구는 용주사를 근대 불교계에 있어서 좋은 순기능만을 평가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강대련이 鳴鼓逐出될 정도로 친일 성향이 강했던 인물이었으나, 용주사에서 32년간이나 주지를 역임하면서 거대 사찰로 만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증주의가 용주사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일제강점기 수원 지역의 천도교에 대한 연구는 조성운<sup>19)</sup>과 성주현<sup>20)</sup>에 의해 이루어졌다. 물론 두 연구자는 천도교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수원 지역의 천도교 세력들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당시 천도교의 현황에 대해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맺음말 - 앞으로의 과제

이상에서 1999년 이후의 수원 지역사 연구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보았다. 약 5년간의 연구 성과로는 아주 적은 양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정조와 화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두드러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읍치 이전의 역사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평가된다. 수원문화사연구회를 중심으로 고대사에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연구자가 주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지만 그 다양성과 질적 성숙도에 있어서 아직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조와 화성에 대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에게 치중되고 있으며, 연구자마저도 과거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수원 지역의 지역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sup>21)</sup>

첫째, 수원 지역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심어주어야 한다. 과거 중앙사 중심의 연구 풍토에서 향토사 및 지역사 연구는 저급한 연구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 연구는 매우 중요한 학문으로 이를 바탕으로 중앙사가 정리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다보니 지역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 자연스럽게 지역사 연구에 능력있는 전문 연구자이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지역에 남아있는 향토사가들 중심으로 연구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올바르게 못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수원 지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둘째, 수원 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의 자질과 실력을 갖춘 연구자의 확보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수원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의 대학원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수원 지역사를 전공케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며, 수원 지역 내에 있는 경기사학회, 정조사상연구회, 수원문화사연구회, 수원시사편찬실, 화성연구회 등의 제 연구단체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을 마련하여 연구자들을 상근 연구 인력으로 투입하면 수원 지역사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들 단체들이 자체의 회비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해 낼 수 없는 것은 우리 문화역량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경기도 및 수원시에서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이들 단체에게 연구 인력 지원을 위한 '두뇌 경기21', '두뇌 수원 21' 과 같은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안정되게 지역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연구 부분의 확대와 주제별·시대별로 연구의 세분화·전문화가 필요하다. 수원 지역의 경우, 앞의 현황에서 말해주듯이 수원신도시 건설과 화성성역, 일제강점기 민족운동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이 부분이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연유된 것이지만, 역사의 전체상의 파

21) 수원 지역의 지역사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5년전 최홍규 교수가 제기하였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5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최홍규 교수의 주장과 필자의 새로운 의견을 함께 모아 제기하고자 한다.

19)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 천도교의 성장과 민족운동」, 『경기사론』 4·5합집, 2001.

20) 성주현, 「1920년대 경기지역의 천도교와 청년동맹 활동」, 『경기사학』 4, 경기사학회, 2000.

악·보완하는 차원에서 선사·삼국·고려시대와 조선 전·후기, 해방 이후의 현대사 부문에 대한 각 시대별·주제별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그동안 소외된 시대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분류사적인 측면에서 건축·미술·공예 등 특수사 부문의 연구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대사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 교류가 있어야 하며, 수원의 청동기 문화 및 고대사를 위한 중앙이 전문연구 집단에게 핵심 과제를 주어 연구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 수원 지역은 구석기에서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유적이 발견되었다. 특히 팔달산 자락에 있는 고인돌은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아마도 화성성역시 상당히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고대의 유적과 문화에 대한 전문 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수원 지역 내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케 한다면 수원 지역의 고대사 연구가 한 층 발전될 수 있으리라 본다.

네 번째로 화성에 대한 연구 기관의 공동 연구와 적극적인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수원시사편찬실, 경기대 화성학연구소, 정조사상연구회, 화성연구회 등은 공동으로 월례발표회를 진행하여 연구 의욕을 증대시켜야 하며, 서로의 학술 교류를 통해 연구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에 즉각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 번째로 수원 지역사 연구에 필요한 지표·발굴조사, 읍지, 고문서, 문집, 금석문 등의 문헌사료조사, 민속 등의 생활사 자료 등 지역사 연구를 위한 자료의 조사와 발굴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읍지 및 고문서 그리고 전적류 등은 고가이기에 개인이 구입하기가 쉽지 않으니 수원 지역과 연관된 자료들은 기관에서 모아서 열람시켜야 한다. 이 일은 여러 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수원시 선경도서관 향토자료실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자료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 번째로 수원 지역민들에게 역사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수원 지역내에 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초·중·고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수원 지역사에 대한 교육을 신설 혹은 강화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애정은 자연스럽게 수원 지역사 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된다.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 지방자치단체를 움직여서 재정 및 인력 지원을 할 것이며, 연구 센터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수원시는 ‘화성박물관’ 과 ‘수원역사박물관(사운역사·서예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2007년 전반기에 완공될 두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기능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수원 지역사 연구와 수원 문화발전의 중요한 센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역의 좋은 인재들을 연구 인력으로 채용하여 수원 지역사 연구를 진행한다면 아마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수원 지역의 미래는 지역사 연구의 활성화에 달려있다. 미래를 바로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한다.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사회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고 본다. 아무쪼록 수원 지역사 연구 활성화가 되기 위해 모든 기관과 연구단체들이 손을 모아야 한다.

## Abstract

# The present condition and subject of Suwon regional history research

Kim Jun-hyuk

There are a lot of researches Cheongjo and Hwaseong and Japanese imperialism age in Suwon regional history research. Nevertheless, The study about before Sineupchi leave much to be desired.

The study about ancient and the Korea Dynasty period presented By the Suwon cultural history research organization. In viewpoint of maturity and variety, There are some boundary.

To activate Suwon regional history research, We need a few proposal. First, We need the conversion of recognition about Suwon regional history. The Whole history consist of regional history. It is important that secure researcher who trained and the training of manpower.

Second, It need held academic convention about Hwaseong. Through the material investigation and unearthing, We must prepare document records and folk-customs. All organization must teach history about Suwon history. Village office, middle and high school, citizen corporation in Suwon must use education program to suwon citizen.

To correct future, we must know past. To activate Suwon regional history research, all organizations and research teams must cooperate.

Keyword : Cheongjo(正祖), Hwaseong(華城), Suwon regional history, education program, regional history

## 수원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강진갑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머리말

1. 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현황
2. 수원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현황

3. 수원지역 문화콘텐츠의 특징

- 맺음말 - 수원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머 리 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문화의 시대에 사람들의 문화향유 형태는 소극적인 감상 위주에서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는 적극적인 문화 향유가 중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효용의 비교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느끼고 좋아할 수 있는 감성적인 소비를 선호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감성과 감동, 그리고 재미가 모든 산업에서 강조될 것이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상현실을 다루는 디지털시대의 문화산업이 발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는 것’ 들을 제공하는 상품의 개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상품이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산업, 혹은 문화콘텐츠산업이 세기의 관심 산업으로 떠오른 것도 그것이 엄청난 부가

가치를 창조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sup>1)</sup>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제작이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문화자원은 한국 문화자원의 보고이기에, 지역문화자원의 문화콘텐츠화는 문화산업발달의 기초가 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 지역문화콘텐츠 제작 현황을 살펴보고, 수원 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현황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한다. ‘콘텐츠’란 단어는 내용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콘텐츠란 단어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와 각종 정보자료나 도서 저작물 중,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저작되었거나,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유통되는 내용물을 뜻하고 있다.<sup>2)</sup> 본고에서는 콘텐츠 전반을 다루지 않고, 인터넷에 수록된 콘텐츠에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현황<sup>3)</sup>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지역문화의 콘텐츠화 작업은 지방자치단체, 민간,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제작 콘텐츠

지역문화자원의 콘텐츠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지역문화자원 관련 정보는 매우 다양하

다. 지역의 역사와 연혁, 지명유래, 전설, 민속, 지역축제, 문화유산, 특산물, 인물,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시설, 지역소재 예술작품, 관광자원, 관광시설, 관광코스, 관광쇼핑, 여가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 유형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가상현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향토지는 지역문화정보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그래서 전국 232개 시, 군 중 신설 시, 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 군지등의 향토지가 발간되었다. 이 중 일부 시, 군은 발간된 시, 군지 내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하남시, 남양주시, 평택시 등이 제공하고 있다.

하남시와 남양주시는 출판된 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차, 본문 단어 검색 기능과 색인 기능이 있고, 텍스트, 2D 이미지 등을 제공하고 있다.

평택시 역시 2003년 전 2권으로 발간된 평택시사를 출판된 내용 그대로 2004년에 홈페이지에 올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능은 본문 단어 및 목차 검색 기능, 색인 기능, 본문 사진 확대 기능, 주석 연결 기능, 페이지 이동 기능, 인쇄 기능이 있으며, 동영상과 2D 이미지를 제공하는 점은 다른 향토지와 비슷하다. 그런데 게시판을 운영하여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이용 중 모르는 단어가 나올 시, 네이버, 엠파스, 야후, 구글, 다음, 한미르, 심마니 등의 포털 사이트 지식검색기능과 바로 연결되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점이 특색이다.

향토지를 책으로만 출판할 때에 비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할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책은 한정부수로 발간되기에 이용에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될 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향토지 내용을 재편집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안내 책자를 제작할 때, ‘인터넷 향토지’에 수록된 내용 중 필요 부분만 발췌해서 재편집, 출판하면 자료 조사 및 사진 촬영, 원고 입력, 편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셋째, 내용의 침삭과 수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 발굴된 자료와 연구 성과를 곧바로 반영할 수 있다.

1) 강진갑, 「디지털 문화콘텐츠 개발과정에서 향토사학자의 역할」, 『한국향토사연구회보』 14, 1~2쪽, 2002.

2) 김현, 「인문콘텐츠를 위한 정보화 연구 추진방향」, 『인문 콘텐츠』 창간호, 29쪽, 2003.

3) 필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작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향토문화자원의 디지털콘텐츠 제작현황과 특징’이란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문에서 지역 문화콘텐츠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본장은 이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2004. 6. 5.

그런데 향토지를 출판물 형태로 간행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진정한 이점은 따로 있다.

첫째, 출판물 형태의 향토지는 문자와 사진만을 수록할 수 있는데 반해 인터넷 향토지는 여기에 음향,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3D 모델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민속놀이를 예를 들면, 출판물 형태의 향토지에서는 놀이 내용을 사진과 문장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나, 인터넷 향토지에는 놀이 내용을 오디오와 함께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출판물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수록되는 내용이 제한되나, '인터넷 향토지'는 용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남양주·하남·평택시사는 인터넷 향토지가 누리는 진정한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할 목적으로 향토지가 편찬된 것이 아니라, 출판 목적으로 제작된 향토지를 출판 이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였기 때문이다.

'인터넷 향토지'는 출판물 형태의 향토지와는 편찬 추진체제가 달라야 한다.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처럼, 향토지 내용을 담당하는 편찬팀과 기술팀이 초기부터 결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와 사진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공하여야 한다.<sup>4)</sup>

이상에서 살펴본바처럼 지역문화자원 콘텐츠화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문자 및 2D 이미지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인터넷이 가지는 장점을 살려 지역의 특성을 주제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제주도의 관광종합정보시스템(1996),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예술시스템(1997), 광주광역시의 문화예술 가상체험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1998), 경상북도의 가상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전자 관광시장 구축(1998), 충청남도의 사이버 백제문화관 구축(1999), 경기도의 역사문화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사

업(2000-2003), 강원도의 강원지역 정보인프라 구축(2001), 충청북도의 사이버 향토지방문화원 정보시스템(2001), 경상북도의 사이버 유교박물관 시스템(2002) 등을 들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작한 것으로는 나주시의 나주 마한 사이버문화, 역사 박물관 및 관광정보센터(1999), 목포시의 가상 광역목포권 문화전자관광시장 구축(1999), 정읍시의 정읍지역 역사, 문화 종합정보 시스템(1999) 등이 있다.

이들 사이트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텍스트와 2D, 이미지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동영상, 가상현실 형태등 다양한 유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5)</sup>

## 2) 중앙정부 제작 콘텐츠

중앙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전자박물관, 미술관, 문화재정보서비스(1995)', '사이버문화관을 위한 표준시범시스템(1997)', '남북통합문화관(1998)', '국가문화유산 종합서비스시스템(2000)',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2000)', '공연예술종합정보시스템(2001)',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시스템(2003)'을, 정보통신부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1999)'을, 행정자치부 :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추진(2001)' 등을 구축하였거나, 구축하고 있다.<sup>6)</sup>

중앙정부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문화콘텐츠는 각 기관이 소장하는 문화재와 문헌, 박물관·사찰 관련 정보, DB로 구축된 각 기관별 보유한 국악·공연 예술·미술 자료, 각 기관 관련 문화예술정보, 지역 활성화 위한 지역 특산물 및 관광 정보 등 특정 주제 중심이다. 그리고 전문분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기에 다른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에 비해 체계적이며, 사업도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1개 사업 당 투입되는 예산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지만 중앙 정부가 제작하는 문화콘텐츠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특정분야 자료 중 국가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차원에서 접근된 자료는 아니다.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계획서』, 31쪽, 2004.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9-30쪽, 2004.

4) 강진갑, 「21세기 정보화시대 '인터넷 향토지' 편찬에 대하여」, 『향토사연구』 12집, 78-80쪽, 2000.

### 3) 민간 영역 제작 콘텐츠

개인, 기업, 단체 등이 관련 업무 및 개인적 취향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문화원연합회인데 홈페이지에 한국향토문화자원, 지역축제,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수상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공공영역에서 제작 서비스하는 콘텐츠와 비교하면, 홈페이지 수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수이나, 개별 홈페이지 내 콘텐츠 양과 질은 대체로 떨어진다. 그리고 일부 콘텐츠는 사실 관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2. 수원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현황

수원지역에서 제작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 야후 코리아의 “지역정보 / 한국의 지방 / 경기도 / 시·군별 / 수원시” 범주에 들어 있는 2,612개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2,612개 홈페이지는 12개 범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엔터테인먼트’가 22개, ‘여가생활’이 33개, ‘여행·관광’이 45개, ‘예술’이 12개, ‘교육’이 271개, ‘뉴스와 미디어’가 3개, ‘건강·의학’이 17개, ‘비즈니스와 쇼핑’이 1,984개, ‘자연과학’이 2개, ‘지역공동체’가 213개, ‘지역안내’가 6개, ‘취업’ 관련이 4개이다. 이 중 문화분야 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여가생활’ ‘여행·관광’ ‘예술’ ‘교육’ ‘뉴스와 미디어’ 범주에 속하는 홈페이지로 모두 386개이며 전체의 13.5%이다. 그런데 이 분석이 수원지역 홈페이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2,612개는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여기에는 홈페이지에 주소를 정확히 밝힌 것만 들어 있어서 주소를 밝히지 않거나, 개인이 제작한 홈페이지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원 지역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강 추이는 밝혀주고 있다.

제작 주체는 각급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이고, 내용은 기관·단체, 기업 소개, 행사 소개 등 다양하다.

### 1) 수원시 제작 콘텐츠

수원시 제작 홈페이지 중 수원시 홈페이지와 화성사업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열린시장실 / 시정정보 / 문화관광 / 민원 / 기업물가정보 / 생활정보 / 위생환경정보 / 시민참여 / 통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시정정보’와 ‘문화 관광’에 수원의 역사와 문화 관련 내용이 다수 소개되어 있다. ‘시정 정보’ 하위 범주인 ‘수원시 소개’ 범주에 수원시 역사, 수원시 유래, 전통 의전복, 수원시 지도, 수원의 인물, 심볼 마크, 수원의 상징, 수원의 지명유래, 수원의 길 이름, 우리고장 수원 등이, ‘문화 관광’ 범주 하위 범주인 ‘문화재’ 범주에 수원시 문화재, 축제, 문화 공간, 산·공원, 근교관광, 특산물·관광상품, 관광안내소가 각각 소개되어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원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문화관광’ 범주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원시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의 성과를 내외에 널리 알려 수원시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관광수입 증대시키기 위해서이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어, 일어도 제공하고 있으며, 텍스트 중심이나,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다.

화성사업소는 수원 최대의 관광자원인 화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화성과의 만남 / 화성행궁 소개 / 화성가상여행 / 행사 및 이벤트 / 테마여행 / 커뮤니티 / 자료실 / 화성사업소 소개”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한글 서비스만 하고 있다. 내용 구성도 텍스트, 동영상만이 아니라, 화성을 가상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나, 파노라마 기법으로 체험토록 한 것이 한계이며, 전체적으로 수원을 상징하는 화성을 특징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 2) 경기문화재단 제작 콘텐츠

경기문화재단은 2000년 경기도문화유산가상현실체험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화성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sup>7)</sup>

가상현실은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컴퓨터 모델 속에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같은 감각들을 사이버 미디어를 통하여 체험하고 대화식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그동안 산업계, 훈련 시뮬레이션, 오락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산업분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CAD(Computer Aided Design)인데, CAD는 실시간으로 3D를 조작할 수 있어 단순한 기어부터 항공기 설계에까지 이용되고 있다. 항공기, 자동차 설계, 건축 설계 등에서 설계 단계에서 최종 완성된 제품과 건물 모습을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해주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있다. 그리고 항공기, 기차, 탱크, 의료, 선박, 항공관제소, 원자력 통제 센터, 무기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상의 오락게임은 대부분 가상현실을 이용한 것이다. 문화유산이 가상현실로 구축되어 인터넷에 수록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sup>8)</sup>

화성 가상현실 체험프로그램에는 화성의 4대 성문인 장안문, 창룡문, 화서문, 팔달문을 비롯하여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등 화성의 24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그리고 화성과 관련된 이미지 자료와 해설 원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행궁을 비롯한 화성 내 각 시설물, 용주사와 용·건릉, 화성의 건축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서 화성 주요 시설물, 성곽 축성 당시 사용한 기계 및 도구의 그림과 설명 등이 수록된 도설(圖說) 부분, 정조의 화성행차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수록된 화성능행도와 반차도(班

7) 경기도 문화유산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다. 경기도 문화유산을 인터넷상의 가상현실 체험 사이트(<http://www.vrkg21.net>)로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본 사업은 2000년부터 점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경기도 예산, 가상현실 제작회사, 인문학자로 구성된 3자가 결합되어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1차년도인 2000년도에는 현재 그 모습이 남아있는 남한산성, 화성, 그리고 경기도박물관을, 2차년도인 2001년에는 현재 터만 남아있는 회암사와 전곡리 구석기유적지를, 3차년도인 2002~2003년에는 정조의 능행차와 정약용 생가를 가상현실 체험사이트로 복원하였으며,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4개국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경기도 문화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강진갑, 「경기도 문화유산 가상현실 시스템 개발과 인문학자의 역할」, 『인문콘텐츠』 창간호, 106쪽, 2003.)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상현실기술 시장보고서』, 8~11쪽, 2001.

次圖), 수원 화성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정조대왕 능행차 시연 등이 수록되어 있다.<sup>9)</sup>

가상현실을 제작하면서 사용한 기술은 Superscape VRT 기술이다. Superscape VRT 기술은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능과 SVR 압축 방식을 핵심기술로 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기능은 이용자가 조작에 의해 가상현실 속을 향해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시점(視點)을 제공해 주는 기술이다. 그리고 이용자가 가상현실 속의 물체를 클릭하면 물체는 반응하도록 해준다. 그래서 화성 가상현실에서 이용자는 마우스를 조작하여 닫힌 성문을 열고 들어가 성곽과 건물을 둘러볼 수 있다. 그리고 시점도 보통 사람의 눈 높이에서 대상물을 바라볼 수도 있고, 공중으로 올라가 실제 답사 때에는 볼 수 없는 건물의 지붕 위도 볼 수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때 중요한 요소는 빠른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상현실은 많은 양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에 전송 속도가 떨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SVR 압축 전송 방식이다. 이 방식은 데이터의 용량을 70% 수준으로 압축하여 전송하기에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PC 환경에 맞추어 초고속통신망 이용자와 일반 모뎀이용자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고속통신망 이용자에게는 1개 화일당 500kb 용량의 고해상도 화질을 제공하며, 일반 모뎀 이용자에게는 1개 화일당 200kb 이하로 데이터 용량을 줄여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대상물의 화점(畫點) 개수를 줄이는 것이기에, 화면의 해상도가 저하된다. 따라서 일반 모뎀이용자는 초고속통신망 이용자보다 그래픽 수준이 떨어지는 화면을 제공받게 된다.<sup>10)</sup>

### 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사업

2002년부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우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공모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문화원형을 디지털기술을 이용, 콘텐츠화하여 문화산

9) 강진갑, 106-107쪽, 2003.

10) 강진갑, 111-112쪽, 2003.

업발전에 필요한 창작소재로 제공하기위해 시작한 것으로 1차년도인 2002년 모두 40개 과제를 선정 개발을 지원하였다.<sup>11)</sup>

이 40개 과제 중 ‘화성성역의궤 이야기’가 들어 있다. 포스트미디어사가 개발한 것으로, 화성 공사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와 『원행을묘정리의궤』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디지털 콘텐츠로 재구성한 것이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과 전문 작가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D, 3D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개발하였다. 내용은 반차도, 행차이야기, 화성이야기, 정조이야기 4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정조가 용릉을 참배하기 위해 화성으로 행차하는 행렬을 그려놓은 반차도를 2D, 3D와 동영상으로 재구성하였고, 반차도에 나오는 주요 인물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게 하였다. 행차이야기는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바탕으로 정조의 8일간의 여행을 시간과 공간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화성이야기는 『화성성역의궤』를 바탕으로 화성 건설 전 과정을 부분별로 검색하도록 구성하였고, 주요건물을 3D VR 체험과 2D 이미지 사진과 조선시대 군사, 정치, 경제, 문화를 살펴보는 부가 메뉴로 들어 있다. 정조이야기는 정조의 삶을 시나리오화하여 구성한 것이다.<sup>12)</sup>

#### 4) 민간단체에 의한 콘텐츠 제작 사례

화성연구회는 화성을 연구하기 위해 수원시민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법인으로 연구, 조사, 발굴 사업 및 교육, 홍보, 화성 안내사업 등을 펼치는 수원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이다.

화성연구회 홈페이지는 “화성연구회 소개 / 역사문화공부방 / 체험학습 프로그램 / 화성지도 사진 / 열린마당 / 화성강좌 / 자료실”로 구성되 있다. 내용은 다양하고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 업 데이트하고 있고, 게시판도 활성화되어 있는 홈페이지이다. 텍스트와 2D 이미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1) 박경하, 「한국문화원형콘텐츠 개발현황과 과제」, 『동북아 문화허브 구축을 위한 한·중·일 문화원형콘텐츠 개발과 문화사업정책』, 인문콘텐츠학회·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4-8쪽, 2003.

1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3 문화원형콘텐츠총람』, 156-159쪽, 2004.

### 3. 수원지역 문화콘텐츠의 특징

첫째, 지역문화자원의 콘텐츠화 제작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과 개인, 기업, 단체 등 민간영역이다. 콘텐츠 양과 질은 대체로 前者가 後者보다 앞서며, 수원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수원지역에서에서 제작된 홈페이지 중 문화관련 홈페이지는 대체로 13% 내외로 추산된다.

둘째, 수원지역 문화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지역에서 제작된 각종 홈페이지에 구축된 콘텐츠보다 중앙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훨씬 다양하고 수원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부각시켜주고 있다. 수원을 상징하는 화성에 대한 콘텐츠를 비교하면 뚜렷이 드러난다.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 문화콘텐츠와 비교해도 분명해진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가 통상 지역의 역사, 민속, 축제, 문화유산, 특산물, 인물, 문화예술 자원, 관광 자원을 소개하고 있는 점은 수원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서 살펴 본 나주시, 목포시, 정읍시 등의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기 위해 특정주제 중심의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그렇지 못하다.

셋째, 출판물로 발간된 시, 군지 내용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시, 군지 내용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수원은 이러한 서비스도 하지 않고 있다.

넷째, 수원지역 콘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애니메이션, 동영상, 3D 모델링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 인터넷이 가지는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수이다. 디지털의 장점은 정보를 멀티미디어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직도 문자와 2D 이미지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 맺음말 : 수원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언

첫째, 수원시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개발

하거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수원의 상징은 화성이다. 수원시는 화성행궁복원을 위해 1996년 이후 화성행궁 복원사업에 총 325억원을 투자하고, 2002년까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95억원 투자하며, 2003년부터 14년간 5,683억원 투입하여 2016년 화성 복원 완료 예정이다.<sup>13)</sup>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화성을 복원하면서 화성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화 작업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둘째, 수원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소재로 문화원형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화성은 물론이고, 효, 24반 무예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 중심 문화콘텐츠 행사 및 이벤트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문화콘텐츠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추진하는 향토문화전자대전과 연계하여 수원지역 문화자원의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

## Abstract

# The present condition of production and Activation of suwon cultural contents

Kang Jin-Kap

Till lately those who have produced the contents digitalizing cultural inheritance of Suwon city are Government, Gyeonggi-Do and Suwon City and so on. However we have the remarkable case, "virtual experience program ; The history and culture of Gyeonggi" that make us experience 3D programs of the Hwa-sung(華城) on cyber space(internet), most of the contents are consisted of just visual texts or 2D programs, and so they have difficulties in furnishing various informations for user.

Therefore we need to produce the digitalized contents applying archetypes of cultural inheritance of Suwon City in order to activate regional industries in a field of culture and then uplift cultural level of citizens.

After all, a local autonomous entities including Suwon city have to be concerned about exploiting the digitalized contents of culture inheritance and to be positive supporters of that field.

Keyword : contents, internet, virtual experience

13) 강진갑, 「경기도의 지역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사례」, 『문화관광부 예술정책포럼 발표문』, 2004.

## 조선후기 현릉원(顯隆園) 원행(園幸)과 역참(驛站)

조 병 로 (경기대 사학과 교수, 본 연구소 연구위원장)

머리말	3. 도로의 修治와 舟橋 설치
1. 乙卯園幸의 배경과 절차	4. 驛站의 신설과 접대
2. 원행 노선	맺음말

### 머 리 말

조선후기 正祖시대의 수원지역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축적되었다. 특히 사도세자의 永祐園을 수원 화산으로 천봉하여 顯隆園을 축조하고 이 능침과 신도시 화성의 축성과 신읍치민의 생활을 중심으로 정치, 국방, 건축사 및 구휼정책 측면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顯隆園 園幸에 대해서는 일찍이 李洪九, 李洪烈, 白英子, 鄭炳模, 朴廷蕙, 李明奎 등의 부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sup> 최근에는 화성 축성 200주년 기

1) 李洪九, 「顯隆園 遷奉과 正祖大王의 園幸孝誠」, 『畿甸文化』 9, 1992.  
 李洪烈, 「洛南軒放榜圖와 혜경궁홍씨의 周甲-水原陵行圖와 관련하여-」, 『사충』 12 · 13, 1968.  
 白英子, 『조선시대의 御駕行列』, 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1994.  
 朴廷蕙, 「水原陵幸圖屏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189, 한국미술사학회, 1991.  
 李明奎, 「園幸定例에 나타난 京水路程語 연구」, 『인문논총』 16, 한양대, 1988.  
 鄭炳模, 「園幸乙卯整理儀軌의 版畫史的 연구」, 『문화재』 22, 1989.

념학술행사를 치르면서 부적 관심이 고조되어 화성연구와 함께 현릉원에 대한 다각적인 재조명이 진행되었다. 金文植은 18세기 후반에 걸쳐 정조의 능행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규명한 결과 잦은 원행을 통해 왕권을 신장하고 지역주민의 민생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上言·擊錚을 통해 국왕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다고 분석하였다.<sup>2)</sup> 신명호는 국왕 행행시에 수도의 궁궐과 도성 수비 및 행행시의 국왕 호위에 대하여<sup>3)</sup>, 崔洪奎는 정조의 현릉원 원행에 따른 읍민정책을 중심으로 민본주의적 계몽군주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규명함으로써<sup>4)</sup> 정조시기 화성 및 현릉원 원행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그러나 원행의 구체적인 御駕護衛 체제나 군병의 편성, 迎華驛 이설과 새로운 撥站 설치에 따른 접대 등 교통사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릉원과 화성 축조이후 수원지방에의 행행은 수도방위 및 행차에 따른 접대 비용이나 숙박을 위해 추가 조치가 마련되어야 했다. 한강을 건너기 위하여 舟橋를 설치한다든지 왕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良才驛을 수원에 이설하여 迎華驛으로 개칭하거나 撥站을 새롭게 설치하여 숙박 및 전명을 제공해야 했다.

이에 本考에서는 正祖 19년(1795) 乙卯園幸에 따른 원행노선의 선정, 도로의 수차나 舟橋설치, 迎華驛 및 5撥站의 新設에 따른 驛站에서의 驛馬調達 및 음식, 숙박 제공 등을 중심으로 園幸의 교통사적 측면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종래의 현릉원 연구는 『朝鮮王朝實錄』이나 『園幸定例』 및 『園幸乙卯整理儀軌』의 자료에 국한된 점이 없지 않다. 앞으로는 『日省錄』, 『顯隆園膳錄』, 『幸行膳錄』, 『顯隆園幸行節目』, 『顯隆園園所都監儀軌』, 『遷園膳錄』, 『永祐園遷奉膳錄』 등의 의궤류나 등록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의 연구업적에 기초하여 등록류 및 의궤류 특히 『원행음요정리의궤』를 중심으로 현릉원 원행의 교통사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8세기 도성 및 수도권의 상업경제, 물류유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사 연구가 새롭게 부각될 것이라 생각된다. 향후 현릉원

2) 金文植, 「18세기 후반 正祖 陵幸의 意義」, 『한국학보』 88, 1997.  
 3)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幸行時 국정운영체제-『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7, 2001.  
 4) 崔洪奎, 「正祖의 13차 顯隆園 園幸과 邑民政策」, 『正祖思想研究』 4, 2001.

및 화성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관련 연구자들의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기대하는 바이다.

## 1. 乙卯園幸의 배경과 절차

임금이 궁밖으로 행차하는 것을 흔히 거동 또는 幸行이라 하는데 陵(왕과 왕비무덤)에 가서 展拜하는 것을 陵幸이라 하고, 園(후궁이나 세자의 무덤)에 가는 경우를 園幸이라 한다. 정조는 동왕 13년(1789)에 부친 사도세자(1735~1762)의 묘인 永祐園(초기에는 垂恩廟라 함)을 華城 龍伏面 花山으로 천봉하여 顯隆園을 조성하고 해마다 1, 2월에 현릉원을 참배하기 위하여 화성에 행차하였다.<sup>5)</sup> 정조는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위 24년간 太祖의 健元陵, 肅宗의 明陵, 그리고 英祖의 元陵 등 66회나 되는 陵·園幸을 행하였으며, 그중 영유원과 현릉원에만도 31회나 참배하여 능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sup>6)</sup> 특히 정조의 현릉원 참배는 아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회나 되었다. 그만큼 비중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乙卯(正祖19 ; 1795) 園幸은 모친 혜경궁 홍씨와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회갑을 경축하기 위해 거행되었다. 이보다 앞서 정조17년(1793) 1월에 선혜청 당상 鄭民始에게 하교한 바에 따르면

내후년은 곧 우리나라 초유의 큰 경사가 있을 해이며 나 소자의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賀·號·宴의 3禮는 국가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典禮인데, 賀儀는

5) 朴廣成, 「正祖의 顯隆園 展拜」, 『畿甸文化研究』 10, 1979.  
 李洪九, 「顯隆園 遷奉과 正祖大王의 園幸 孝誠」, 『畿甸文化』 9, 1992.  
 鄭崇教, 「正祖代 乙卯園幸의 財政運營과 整理數 마련」, 『韓國學報』 82, 1996.  
 崔洪奎, 「顯隆園 遷奉과 移邑대책」, 『水原市史(上)』, 수원시, 1996. 및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金文植, 「18세기 후반 正祖 陵幸의 意義」, 『한국학보』 88, 1997.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幸行時 국정운영체제-『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17, 2001.  
 6) 金文植, 「18세기 후반 正祖 陵幸의 意義」, 『한국학보』 88, 1997.

〈표-1〉 정조의 현릉원 원행 일람표

年月	기간	주정소	숙소	주요일정
정조13(1789)	10.6-10.9	과천행궁	수원부, 현릉원재실, 과천행궁	영우원 천봉
정조14(1790)	2.8-2.12	과천행궁	수원부, 과천행궁	현릉원작헌례, 독성산성거동, 별시
정조15(1791)	1.16-1.18		수원부	화성시찰, 현릉원 참배
정조16(1792)	1.24-1.26		수원행궁	현릉원참배, 어진봉안, 지시대 명명
정조17(1793)	1.12-1.14	과천행궁	수원행궁	화성유수부로 개칭, 현릉원 참배, 장용영설치
정조18(1794)	1.12-1.15	과천행궁, 사근천행궁	과천행궁, 현릉원재실, 수원행궁	현릉원 참배
정조19(1795)	윤2.9-2.16	용양봉저정, 사근평행궁	시흥행궁, 화성행궁	현릉원 참배, 혜경궁진찬
정조20(1796)	1.20-1.24	화성교구정, 시흥행궁	화성행궁	현릉원참배, 장조 탄신일
정조21(1797)	1.29-2.1	시흥행궁	화성행궁	화성 순행, 현릉원 참배
	8.15-8.19	양천행궁, 부평행궁, 수원 구포, 시흥행궁	김포행궁, 안산행궁, 화성행궁	장릉 참배, 현릉원참배
정조22(1798)	2.1-2.5		화성행궁	현릉원 참배
정조23(1799)	8.19-8.21	사근평 행궁	과천행궁, 화성행궁	현릉, 현릉원 참배
정조24(1800)	1.16-1.18	시흥행궁	현릉원 재실	현릉원 참배, 세자책봉

자료: 金文植, 「18세기 후반 正祖 陵幸의 意義」, 『韓國學報』 88, 1997에서 재인용.

甲寅에 寶齡 六旬에 대한 賀禮를 할 것이고, 上號는 慈殿·閼宮에 삼가 顯冊을 齊進할 것이며, 宴禮는 우리 慈宮의 檢손을 지키려는 德으로 인해 愴昔의 衷心과 豐豫의 행사를 準請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이로 인해 마음속에 생각해 둔 것이 있다. 대개 이해가 거듭 돌아옴은 소자에게 風樹之感 뿐만이 아닌 우리 자궁을 모시고 원침을 참배하여 한편으로는 자궁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로서의 정성을 조금이나마 펼치려는 것이니 곧 天理와 人情으로 그만 둘 수 없는 바이다. 變輿가 돌아오는 길에 행궁에 모시고 나아가 간략하게 進饌의 禮를 마련하여 祝岡의 정성을 조금이나마 펼칠 것이다.<sup>7)</sup>

7) 『園幸乙卯整理儀軌』 卷1, 筵說, 癸丑 正月 19日

라고 한 데서 을묘년 원행의 뜻이 잘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794년 7월에는 장용영 제조 정민시와 원행에 드는 제반 비용을 의논하여 10만여 냥의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게 되었고<sup>8)</sup> 整理所를 설치하여 원행의 제반 비용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호조판서의 주관아래 財政은 整理所가, 輿馬는 司僕寺, 舟橋는 舟橋司에게 맡겨 원행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sup>9)</sup> 이와같은 원행의 배경에는 이외에 재위 20년간의 ‘繼志述事’의 입장에서 선왕의 위업을 계승하고 왕권강화를 과시하여 신민의 충성결집과 정치개혁을 위해서였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리고 원행은 민의 수렴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上言이나 擊錚을 통하여 시흥·과천 백성들의 민폐를 처리하여 환곡 및 군포의 폐단을 시정한 것이 그 한 예이다.<sup>10)</sup>

그리고 능원 참배시 공신·문신에 대한 追贈과 致祭 및 別試를 통하여 지역 유생과 무사들을 선발, 등용하여 수도권 주민의 민의를 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현릉원을 보호하고 신읍치로서의 화성을 축성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호부를 유수부로 승격시켰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이후 상업도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인구증가로 신흥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물자와 사람의 교통이 활발하게 되고, 도로의 보수와 교량의 건설 등으로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신작로는 간선도로의 구실을 하여 오늘날 국도 1호선으로서 역사적 발달의 근간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 위에 시행된 원행의 절차와 그에 따른 원행로, 영화역 및 발참의 신설과 접대문제에 대하여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원행 일정은 整理所 郎廳이 보고한 원행 때의 軍令에 의하면 出宮후 첫째날은 露梁津에서 晝停하고 始興行宮에서 숙박하며, 둘째날은 肆觀坪에서 휴식을 취하고 (晝停) 수원 행궁에서 숙박한다. 셋째날 현릉원 참배 후 돌아와 수원행궁에서 숙박한 후, 넷째날 進饌宴, 다섯째날 文武科 시험, 여섯째날 화성을 출발하여 사근평 주정, 시흥행궁에서 숙박하고, 일곱째날 노량진에서 휴식한 뒤에 還宮하도록 되었다.<sup>11)</sup>

8) 위의 책, 卷1, 筵說 甲寅 7月 20日.

9) 위의 책, 卷1, 筵說 甲寅 12月 初10日.

10) 韓相權, 『朝鮮後期 社會와 訴訟制度』, 一潮閣, 1996. 및 金文植, 앞의 책, 참고.

11) 園幸乙卯整理儀軌 卷2, 啓辭, 乙卯 2月 1日. 整理所 郎廳 啓.

그리고 구체적인 出宮 및 還宮절차를 살펴보면, 整理所와 禮曹에서는 節目에 따라 掖庭署에서 돈화문 동쪽에 帳幕을 설치하게 하고 가마를 따라갈 백관대신과 6조 당상 및 낭청, 종친과 의빈 등은 먼저 강을 건너 戎服을 입고 慈宮과 御駕를 맞이하여 侍衛한다. 이때 도성에 남을 留都百官들은 戎服을 입고 돈화문 밖에서 임금 행차를 환송한 다음 都城을 방어한다. 駕轎에 오르는 절차는 사복시의 거행절차에 따르고 3嚴대신에 3吹를 거행하며, 현릉원에서 화성으로 돌아올 때의 준비사항은 整理所에서 담당한다.

始興宿所와 華城宿所에서는 陪從百官이 시위하여 자궁과 가교를 맞이하고, 현릉원 동구 밖에 이르면 백관은 행차와 떨어져 자궁과 임금이 展謁하고 제사를 마치면 다시 화성으로 돌아온다. 화성에 이르러 進饌, 養老宴, 謁聖文武科 시험과 城操를 사열한 후 시흥숙소, 노량진을 지나 도성으로 환궁하게 된다. 그리고 整理所의 지휘에 따라 園所와 各站에는 帳幕을 배치하였다.<sup>12)</sup>

이러한 出宮·還宮 절차 및 의식<sup>13)</sup>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掖庭署에서 돈화문 바깥 동쪽에 천막(幄次)을 설치하고 천막 앞에 祇迎版位를 설치한다.
- (2) 初嚴을 치면 병조에서 諸衛를 통솔하여 仗衛와 鹵簿를 仁政門밖에 진열하고 留都百官은 모두 朝房에 모여 평상시처럼 戎服을 입되 着劍한다.
- (3) 행차를 따라가는 陪從百官은 미리 강을 건너 戎服을 입고 佩劍하여 깃을 꽂고 강건너 편에서 동서로 나누어 侍衛한다.
- (4) 2嚴을 치면 각 衛將은 부대를 감독하여 평상시처럼 진열케 하고, 司僕寺는 돈화문에 말을 대기시키며 수레는 閣門밖에, 駕轎는 內閣門밖에 대기시킨다. 유도백관들은 돈화문밖으로 나아가고 近侍와 각 護衛官은 각각의 복식을 갖추고 閣門밖에 나아가 伺候한다. 左通禮는 합문밖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嚴중임을 알린다.
- (5) 3嚴을 치면 안팎의 문을 열고 좌통례가 바깥사정을 아뢰면 임금은 溫幸때처럼 戎服 또는 軍服을 입고 깃을 꽂고 수레에 올라 출발하면 繖扇을 들고 시위

12) 『園幸乙卯整理儀軌』卷2, 節目, 大駕陪慈宮詣 顯隆園時節目 整理所禮曹.

13) 『園幸乙卯整理儀軌』卷2, 儀註, 大駕陪慈宮詣顯隆園時出還宮儀.

한다. 좌통례가 앞에서 인도하고 상서원 관리는 옥새(寶印)를 받들어 앞서서 간다. 乘馬시는 寶載馬를 이용한다.

- (6) 大駕가 돈화문에 이르면 좌통례의 안내에 따라 수레에서 내려 천막(幄次)에 들어가면 尙儀가 內嚴할 것을 贊請하고 바깥 준비상태를 보고한다.
- (7) 慈宮이 가마를 타고 나오시면 평상시처럼 繖扇을 들고 호위하며, 闕內入直할 百官들은 鞠躬하여 행차가 지나가면 卽身한 다음 시위대 뒤를 따라 돈화문 밖에 이르렀다 나중에各司를 지킨다. 자궁행차가 돈화문에 이르면 좌통례의 안내를 받아 임금이 祇迎版位 앞에서 鞠躬, 卽身한 다음 승마하여 출발한다. 留都百官들은 鞠躬, 卽身하여 환송하고 유도백관중의 6조 堂郎 각 1명은 시위대를 따라 大駕가 江頭 晝停所인 露梁行宮에 이르면 먼저 간 陪從百官은 祇迎하고 留都百官들은 환송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出·還宮시에 시흥행궁 등의 각 주정소 및 행궁 등의 숙소에서 侍衛하였던 것이다. 단, 수원 경내에 이르러서는 화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城丁軍이 城堞에서 여러 날을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화성 부근 마을에 거주하는 軍兵 약간을 차출하여 북쪽 성 위에서 大駕를 영접하고 門旗와 角旗 및 將旗와 같은 깃발은 4대문의 城長이 수령하여 책임맡은 곳에 꽂고 대기하였다.<sup>14)</sup>

한편, 侍衛의 절차는 慈宮 陪衛 및 先·後廂軍은 大駕 侍衛 및 先後廂 軍兵과 동일하게 마련하며, 大駕가 먼저 돈화문 밖에 나아가 祇迎할 때 愷景궁을 陪衛하는 兵曹, 都摠府 堂上·郎廳·五衛將·宣傳官·武臣兼宣傳官 등 궁을 지키는 인원이 陪衛하다가 돈화문 밖에서 떨어져 入宮하고, 반대로 還宮시에는 露梁津에 나와 祇迎하고 시위한다. 義禁府의 郎廳은 羅將을 대동하고 呈訴人이나 擊錚人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대궐 안에서의 禁喧은 兵曹가, 행차 중에는 義禁府, 訓練都監, 壯勇營이 맡았다. 시위대 안으로 출입하는各司의 吏隸는 '衛內'라는 글씨를 새긴 門標를 검사해서 출입을 통제하였다.

시위대의 別雲劍은 藍色 雲紋緞 天翼을 입고, 虎鬚笠을 꽂고, 兵曹·都摠府의 당상, 낭청, 선전관은 戰笠과 戰服을 착용하며, 忠義衛는 붉은색 天翼을 착용한다.

14) 『園幸乙卯整理儀軌』卷2, 啓辭, 乙卯 1月 24日. 水原留守 趙心泰 又啓.

別軍職은 大駕 앞에서 좌우로 나뉘어 시위하며, 行禮시에는 侍衛이하 각 差備는 紅箭門밖에서 시위해야 하며, 大駕뒤에는 宣傳官이 시위하되 承傳宣傳官은 信箭手 밖에서 좌우로 나뉘어 시위하면서 傳命을 전달한다.

大駕에 대한 巡視는 令旗手·軍牢手が 맡고, 別差備軍牢手를 훈련도감이나 장용영 군병에서 차출하여 露梁津에 가서 시위하며, 出宮 및 還宮시에는 令旗手·軍牢手·信箭手를 禁衛營으로 하여금 대령하게 한다. 挾輦砲手는 訓練都監 군병에서 가려뽑아 장관의 통솔하에 노량진에서 대기하였다가, 좌우로 시위하며 大駕 後尾에서 연결하여 서며 출입인과 일체의 雜人을 통제한다.

그런데, 闕內的 宿衛는 守宮大將을 차출하여 入直 衛卒을 다스리고 從事官을 대동하며, 입직장소는 守宮大將은 남쪽 衛將房을, 從事官은 部將房, 衛將은 金虎門 哨官房, 部將은 金虎門 守門將房이며, 入直砲手 100명을 뽑아 대궐의 각 門을 把守한다.

晝停所·宿所·園所의 馬軍은 下馬시에는 鎗(鑿)을 치고, 騎馬시에는 桴(桴)를 볼 때 禁軍別將과 馬兵別將의 분부에 따라 거행하며, 장막을 치거나 깃발을 달 때나, 人定 후에 조두(勺斗)를 치는 일 등은 각 軍門의 분부에 따라 거행한다. 특히 날이 밝기 전에 陣內에 들어오는 자는 사형에 처하며, 도로의 좌우와 晝停所·宿所·園所 근처에 자라는 곡식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행군 질서를 엄히 다스렸다. 거동시 불시의 명령 전달은 侍衛 禁軍중에서 날쌔고 말을 잘타는 군병을 禁軍別將이 임시로 뽑아 쓰도록 하며, 일반적인 傳語는 대궐문에서 노량진까지 衛軍 150명을 뽑아 배치하되, 도성 안은 斥候兵만 세우고 伏兵은 두지 않으나, 광주·과천·시흥 경내의 척후병과 북병은 守禦使·摠戎使 소속의 경기도 東伍步軍을 뽑아 배치하고, 화성 경내는 留守府에서 보낸다.

壯勇衛는 좌우 5馬隊로써 挾輦軍의 뒤를 이어 행진하며 善騎別將은 善騎隊와 本陣의 기와 북을 인솔, 노량진으로 먼저 가서 대기하다가 御駕가 강을 건너면 영접 후 주둔지에서 나와 초소로 돌아가며, 善騎隊 1대는 別將이 5馬隊를 이끌고 장용위를 따라 행진하다가 먼저 간 선기대와 합류, 다음 장소로 출발할 때 차례로 시위하되 晝停所·宿所·園所 동구밖에서 편대를 따라 체재한다.

御駕 앞뒤의 別抄軍이나 禁軍은 戰笠과 戰服을 입고 5마대 전후에 반씩 나누어 행진한다. 內禁衛·兼司僕·羽林衛에서 50명을 뽑아 별장의 통솔하에 전립과 전

북을 착용, 노량진 강변에서 대기하며 나머지 禁軍은 龍虎營에 머물다 出宮시에 5마대의 전후에서 행진하다 노량진에 이른 뒤 각자의 장소로 돌아오며 還宮때도 이와 같이 한다. 먼저 간 禁軍은 5마대를 전후로 나누어 先驅禁軍, 攔後禁軍으로 편성하여 행진하되 시흥숙소, 사근평주정소, 화성숙소, 원소에서는 금군과 별초군은 고을입구에서, 선구금군과 난후금군은 동구밖에서 合陣하여 侍衛한다.

壯勇營 軍兵중에서 弘化門 入直軍은 훈련도감 군병 및 將官의 통솔하에 標信을 기다려 교체했다가 행차가 돌아오면 다시 전처럼 입직한다. 壯勇營 중 京軍 2哨는 먼저 노량진에서 기다렸다가 어가가 강을 건너 후 대장이 善騎隊 2哨를 합쳐 壯勇衛를 통솔하여 後尾를 시위하고 시흥숙소, 사근평 주정소, 화성 행궁 담장밖을 호위한다.

그리고, 御駕 행차가 宮門을 나갈 때 宮城門의 關閉節次<sup>15)</sup>는 大駕가 출궁할 때 궁문을 여는 것은 조금 일찍하되 回變할 때에는 敦化門, 金虎門, 丹鳳門, 宣仁門, 弘化門은 해질 무렵에 문을 닫고 날이 밝으면 문을 열며 曜金門은 이내 닫는다.

도성문은 崇禮門, 興仁門, 彰義門, 光熙門은 해질 무렵에 문을 닫고 동이 트면 열며, 敦義門, 惠化門, 昭義門은 이내 닫는다. 환궁할 때에 만약 밤이 되면 대궐문은 그대로 두었다가 일이 끝난 후 예에 따라 닫는다. 崇禮門, 興仁門, 敦義門, 昭義門은 임시로 信箭에 따라 그대로 닫지 않고 두되, 崇禮門, 敦義門, 昭義門은 임금을 맞이하는 백관과 도성민이 다 들어간 뒤에 닫는다.

환궁하는 날 曜金門은 예에 따라 標信없이도 各門과 같이 모두 열며, 임의로 도성문을 닫을 때에도 일체 標信없이 상황에 따라 연다. 환궁일에 구경하는 士民들은 정해진 예에 따라 禁事를 풀고 營門을 巡邏하고 左右捕廳을 순찰한다.

한편, 임금의 교외 거동시에 도성을 수비하는 문제는 留都 및 留營, 留陣체제를 수립하여 방어하였다. 현릉원 행차시 弘化門 밖에 守禦廳, 摠戎廳, 禁衛營이 留陣하는데 正祖19년(1795)의 경우 홍화문 밖의 朝房에는 訓練都監의 中軍 1哨가 머무르게 되었다. 대개 훈련도감이 大駕를 수행하면 禁衛營이 홍화문 밖에서 留陣하고, 어영청이 수도방위(留防) 임무를 맡았으나 훈련도감 군사중 大駕를 수행하는 군사 이외의 外方步軍 및 哨를 임시로 금위영에 배속시켜 홍화문 밖을 留陣하도록 하였다.<sup>16)</sup>

15) 『園幸乙卯整理儀軌』卷2, 節目, 園幸時宮城開閉門節目.

16) 『園幸乙卯整理儀軌』卷2, 啓辭, 乙卯 2月 1日, 整理所郎廳啓.

潤 2월 9일 出宮당시의 留都 및 留營체제<sup>17)</sup>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留都大臣은 도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임명하였는데, 유도대신으로 임명된 행관중 추부사 金熹는 扈衛別將 2명, 所任軍官 3명, 受料軍官 25명, 在家軍官 128명, 軍 54명, 禁衛營軍 9명, 摠戎廳軍 12명 합계 233명을 편성하여 金虎門 밖에서 結陣하여 拱北門 앞길까지 호위대를 배치하여 出宮시 시위하면서 전송한 후 도성을 수비 하였다.<sup>18)</sup> 그러나 실제 을묘원행시에는 護衛別將(2), 所任軍官(3), 軍官(305), 書吏(2), 使令(4), 房直(1), 標下軍(54), 前排軍(21)으로 편성되었다.<sup>19)</sup>

守宮은 大將 行사직 趙宗鉉으로 하여금 南所에 入直하여 궁궐 안의 각처를 宿衛하였는데, 禁軍·護衛軍官·訓練都監軍·局出身·有廳軍士를 점검하였다. 從事官(1), 禁衛營別武士(1), 摠戎廳教鍊官(1), 前排軍(35), 兵曹結束色書吏(1), 奎章閣檢校直閣(1), 承政院假承旨(1), 假注書(1), 兼春秋(1), 內醫院提調(1), 兵曹參判(1), 佐郎(1)으로 편성하였다.<sup>20)</sup>

留營은 국왕의 교외 거동시 도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예비병력으로써 남아있는 군영으로서,<sup>21)</sup> 원행 때는 前 御營大將 李邦一이 맡았다.<sup>22)</sup> 어영청 中軍 1명, 兼別將 1명, 千摠 4명, 騎士將 2명, 把摠 4명, 哨官 12명, 教鍊官 4명, 軍官 4명, 三廳所任軍官 7명, 別武士 6명, 藥房 1명, 馬醫 1명, 騎士 19명, 各色京標下軍 176명, 摠戎廳標下軍 63명으로써 留營을 통솔하였다. 東營은 騎士將 1명, 把摠 1명, 哨官 1명, 騎士 25명, 標下軍 2명, 摠戎廳 標下軍 32명을 인솔하여 입직하였으며, 南小營은 無軍哨官 2명, 別破陣 4명, 京標下軍 4명으로 入直하고, 斥候 16곳은 將 16명,

軍 64명을 편성하여 把守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執事教鍊官(2), 別破陣次知教鍊官(1), 牢子次知教鍊官(1), 巡令手次知教鍊官(1), 吹鼓手次知教鍊官(1), 大旗手次知教鍊官(1), 塘報手次知教鍊官(1), 燈籠軍次知教鍊官(1), 帳幕軍次知教鍊官(1), 牙兵次知教鍊官(1), 伺候(11), 別軍官(5), 兒旗手(5), 別武士(7), 三廳所任軍官(7), 藥房(1), 旗牌官(1), 馬醫(1), 書吏(6), 牢子(43), 巡令手(41), 吹鼓手(43), 細樂手(19), 大旗手(56), 塘報手(28), 燈籠軍(11), 帳幕軍(15), 牙兵(31), 別破陣(25), 中軍(1), 別武士(5), 牢子(11), 巡令手(11), 兼別將(1), 騎士(90), 千摠(4), 標下軍(31), 騎士將(2), 標下軍(21), 哨官(13), 摠戎廳作隊軍(63) 모두 620명으로 편성되었다.<sup>23)</sup>

留駐는 前摠戎使 申大顯으로 하여금 訓局軍 1哨 113명, 哨官 1명, 將校 3명, 禁衛營 旗鼓前排軍 29명, 將校 2명, 御營廳 旗鼓前排軍 29명, 장교 2명을 인솔하여 弘化門 밖 朝房에서 주둔하여 밤낮으로 순찰하도록 하였다. 실제 乙卯園幸 때에는 訓練都監教鍊官(1), 別武士(2), 禁衛營教鍊官(1), 別武士(1), 書吏(1), 御營廳教鍊官(1), 別武士(1), 書吏(1), 前排軍(42-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의 巡令手, 牢子로 편성), 大旗手(16), 燈籠軍(4), 御營廳帳幕軍(4), 訓練都監哨官(1), 中哨軍(122-旗鼓手, 旗摠, 隊摠, 銃手, 火兵, 卜馬軍으로 구성)으로 편성되었다.<sup>24)</sup>

그리고, 留都 禁衛中軍 吳載徽는 兵曹節目에 따라 대장은 訓局步軍 5哨, 馬軍 2哨를 인솔하여 先·後廂을 편성하여 나루터까지 御駕를 호위하였다.

留陣은 원래의 자기부대에서 출동하여 흥화문 밖에서 도성의 외부를 수비하는 것으로 을묘원행시에는 禁衛營이 담당하였다. 大將 金持默은 本營 騎士 112명, 別破陣 21명, 京標下 各色軍 613명, 守禦廳 料標下軍 62명, 訓局步軍 5哨 608명, 各色軍 515명 합계 1,931명으로 편성되었다. 中軍은 留都를 거느리고 左巡廳 앞길에서 結陣하고 있다가 출궁후 돈화문 밖으로 나아가 結陣하고 나중에 留陣을 합병하였다. 실제로는 駕前前排牢子次知教鍊官(1), 伺候(1), 巡令手次知教鍊官(1), 伺候(1), 招搖旗次知教鍊官(1), 伺候(1), 牢子(21), 巡令手(19), 旗手(5), 大將別軍官(6), 兒旗手(6), 行軍兼塘報手次知教鍊官(1), 伺候(1), 行軍兼帳幕軍次知教鍊官(1), 伺候(1), 牢子次知 兼右牙兵次知教鍊官(1), 伺候(1), 巡令手次知 兼燈籠軍次知教鍊官(1),

23) 『園幸乙卯整理儀軌』 卷5, 留都 附守宮留陣留營留駐.

24) 『園幸乙卯整理儀軌』 卷5, 留都 附守宮留陣留營留駐.

17) 신명호, 앞의 논문 및 『園幸乙卯整理儀軌』 卷5, 留都.

18) 『園幸乙卯整理儀軌』 卷3, 狀啓, 乙卯 潤 2月初 9日. 留都大臣 行判中樞府事 金熹 등의 狀啓.

19) 『園幸乙卯整理儀軌』 卷5, 留都.

20) 위의 책.

21) 조선후기에 이르러 평소의 도성방어는 肅宗8년(1682)에 禁衛營의 설치와 함께 5군영이 확립되고, 英祖 23년(1746) 摠戎廳이 북한산성을 수비하면서 砦대가 갖추어졌는데, 그 결과 도성안은 訓練都監·御營廳·禁衛營의 3軍門이 맡고, 외곽의 북한산성은 摠戎廳이, 남한산성은 守禦廳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성방위체제 아래 국왕이 幸行하면 3軍門의 하나가 御駕를 따라 호위하였던 것이다.

22) 당시의 御營廳 大將은 李漢豊이었는데 舟師大將을 겸임하였기 때문에 전 어영대장 李邦一이 留營軍을 통솔하게 되었다. 正祖 19년(1795)의 원행 때에는 留營을 御營廳이 맡았다.(『園幸乙卯整理儀軌』 卷2, 啓辭, 乙卯 2月 11日)

伺候(1), 吹鼓手次知 兼左牙兵次知教鍊官(1), 伺候(1), 大旗手次知教鍊官(1), 伺候(1), 旗牌官(1), 伺候(1), 別武士(6), 鍼醫(1), 藥房(1), 書吏(6), 牢子(45), 巡令手(44), 吹鼓手(62), 細樂手(15), 大旗手(78), 塘報手(34), 燈籠軍(24), 帳幕軍(6), 左牙兵(27), 右牙兵(30), 別破陣(15), 糧餉色從事官(1), 帶隸(1), 牢子(2), 巡令手(2), 訓局馬兵左別將(1), 吹手(43), 左哨官(1), 馬兵(119), 右哨官(1), 馬兵(119), 右部千摠(1), 吹手(42), 左司把摠(1), 吹手(31), 前哨官(1), 哨軍(122), 左哨官(1), 哨軍(122), 中哨官(1), 哨軍(122), 右哨官(1), 哨軍(122), 後哨官(1), 哨軍(122), 領付教鍊官(2), 伺候(2), 差官別武士(7), 中軍(1), 教鍊官(2), 兒旗手(1), 別武士(8), 牢子(23), 巡令手(22), 吹鼓手(10), 大旗手(8), 帳幕軍(23), 別破陣(6), 守門軍(17), 別將(1), 標下軍(21), 騎士將(2), 標下軍(10), 騎士(112), 輜重卜馬軍(9), 千摠(2), 標下軍(41), 把摠(4), 標下軍(33), 哨官(29), 兒旗手(29), 別騎衛(21), 書吏(2), 守禦廳受料軍(62), 訓局左部左司把摠(1), 吹手(31), 前哨官(1), 哨軍(122), 左哨官(1), 哨軍(122), 中哨官(1), 哨軍(121), 右哨官(1), 哨軍(121), 後哨官(1), 哨軍(121), 別武士(18), 各色標下軍(368) 모두 2,991명으로 편성되었다.<sup>25)</sup>

## 2. 園幸의 路線

正祖의 원행노선은 昌德宮 敦化門에서 시작하여 수원 현릉원 園所齋室까지를 말한다. 전 노정의 길이는 노량주교를 건너 지금의 장승백이·대방동·시흥·안양·의왕을 지나 수원에 이르는 始興路의 경우 도로 83리, 교량 24곳이며, 이와는 달리 과천을 경유하여 수원에 이르는 果川路의 경우는, 노량의 용양봉저정까지는 시흥로와 일치하고 그 다음 萬安峴으로부터 사당리와 과천을 거쳐 軍堡川店을 지나 院洞店까지와, 그 이하는 시흥로 노정과 동일하였다. 그 길이는 모두 도로 85리, 교량 21곳이었다. 그러므로 과천을 경유하는 원행길이 지금과는 달리 시흥, 안양을 경유하는 시흥로의 그것보다 2리가 더 멀고 교량수로는 3개가 오히려 적은 셈이

된다. 『園幸定例』와 『園幸乙卯整理儀軌』<sup>26)</sup>에 따라 正祖 19년(1795) 원행시의 도로 노선은 다음과 같다.

敦化門 → 敦寧府前路 → 把子塵石橋 → 通雲石橋 → 鐘樓前路 → 大廣通石橋 → 小廣通石橋 → 銅峴屏門前路 → 松峴 → 水閣石橋 → 崇禮門 → 桃楮洞前路 → 青坡橋 → 石隅 → 栗園峴 → 羅業山前路 → 蔓川 → 舟橋(北紅箭門 中紅箭門 南紅箭門) → 鷺梁行宮 → 龍驤鳳翥亭晝停所 → 萬安峴 → 蕃大坊坪 → 文星洞前路 → 始興縣行宮 始興堂 宿所 → 大博山前坪 → 安養橋 → 長山隅 → 淸川坪 → 院洞川 → 肆觀坪行宮 凝鑾軒晝停所 → 日用峴 → 彌勒峴 → 槐木亭橋 → 眞木亭橋 → 長安門 → 鐘街 → 左右軍營前路 → 新豐樓 → 華城府行宮 長樂堂 宿所 → 新豐樓 → 左右軍營前路 → 鍾街 八達門 → 梅橋 → 上柳川 上柳川店幕 → 下柳川 → 下柳川店幕 → 皇橋 → 甕峯 → 大皇橋 → 迺瞻峴 → 迺觀橋 → 萬年堤 → 園所幕次

### 1) 시흥로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園幸定例』에 의해 살펴보면 始興路와 果川路로 나뉘어 이용되었다.

敦化門 → 敦寧府前路 → 把子塵橋 → 通雲橋 → 鐘樓前路 → 大廣通橋 → 小廣通橋 → 銅峴屏門前路 → 松峴 → 水閣橋 → 崇禮門 → 桃楮洞前路 → 青坡橋 → 石隅 → 栗園峴 → 羅業山前路 → 蔓川 → 鷺梁舟橋 → 龍驤鳳翥亭 → 長安峴 → 長生峴 → 桃花站撥所前路 → 蕃大坊川橋 → 蕃大坊坪 → 馬場川橋 → 文星洞前路 → 壽川站撥所前路 → 富壯川橋 → 始興縣行宮 → 大博山前坪 → 念佛橋 → 萬安橋 → 安養站撥所前路 → 長山隅 → 軍布川橋 → 書院川橋 → 淸川坪 → 西面川橋 → 院洞川 → 肆觀坪 → 肆觀站撥所前路 → 肆觀站行宮 → 遲遲峴 → 遲遲臺 → 槐木亭橋 → 龍頭前路 → 沐浴洞橋 → 如意橋 → 萬石渠 → 如意坨 → 迎華亭 → 大有坪 → 觀吉野 → 長安門 → 鐘街 → 華城站撥所前路 → 左右軍營前路 → 新豐樓前橋 → 新豐樓 → 華城府行宮 → 新豐樓 → 新豐樓前橋 → 左右軍營前路 → 八達門 → 梅橋 → 上柳川店 → 健壯洞 → 皇橋

25) 『園幸乙卯整理儀軌』卷5, 留都.

26) 『園幸定例』道路橋梁, 및 『園幸乙卯整理儀軌』卷2, 節目, 大駕陪慈宮詣顯隆園時節目.

→ 甕峯 → 大皇橋 → 迢瞻峴 → 安寧里 → 迢觀橋 → 萬年堤 → 園所洞口 → 園所齋室  
 이상 都城의 敦化門부터 園所까지 道路 83리, 橋梁 24처가 있었다.

## 2) 과천로

한편, 과천로의 경우 龍驤鳳翥亭까지는 위의 시흥경로 노정과 동일하고 과천로를 지나 院洞川(店)에서 다시 합류하여 園所에 이른다.

龍驤鳳翥亭 → 萬安峴 → 金佛庵 → 金佛峴 → 社堂里 → 裳巖川橋 → 南泰嶺  
 → 果川縣行宮 → 邑內前川橋 → 冷井店 → 銀杏亭 → 仁德院店後川橋 → 仁德院川橋 → 禿朴只 → 葛山店 → 禿洞峴 → 軍堡川店 → 自棧洞 → 院洞店(이하 始興路와 같음)

이상 도성으로부터 원소까지 도로 85리, 교량 21처이다. 위에서 본 전 노정에서 지지현으로부터 원소재실까지가 화성유수부 관할이었으므로 이들 지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27)</sup>

遲遲峴; 현재 경기도 의왕시와 수원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고개이다. 처음에는 沙斤峴이라 하였다가 1795년에 彌勒峴으로, 다시 1796년에 遲遲峴으로 개칭되었으며, 고개 위에 長柵을 세워 '遲遲峴'이라 하였다.

遲遲臺; 지지현 아래로 10여보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조는 수원 원행에 특히 환궁길에 매번 이곳에 머무르면서 아버지를 추모하는 애뜻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 유래는 正祖 16년(1792) 1월 현릉원 참배를 마치고 환궁하던 국왕이 이 고개에서 쉬면서 "(이곳에서) 말에서 내려 머무르며 경들을 불러 보는 것은 대저 나의 행차를 지연시키려는 뜻이다"하고 이곳을 '遲遲臺'라고 이름하였다. 正祖 18년(1794)에도 환궁길에 이 고개에서 잠시 쉬면서 "언제나 현릉원에 갔다가 돌아올 적에는 나의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더디어 지고 이 고개에 이르면 절로 고개를 들고

서성거리게 된다"고 했고, 드디어 1795년 2월 정조는 위와 같은 감회를 새삼 토로하면서 앞으로는 행행하는 노정에 이 고개 아래에 '遲遲臺' 3자를 첨가해 넣도록 지시하였다. 다음해 거동길에 정조는 지지대를 주제로 시 한 수를 남기기도 하였다. 정조가 승하한 후 純祖 7년(1807)에 홍문관제학 徐榮輔가 짓고 판돈령부사 尹師國이 썼으며, 화성유수 洪明浩가 새긴 遲遲臺碑를 세웠다.

駐蹕臺; 지지대 아래에 있는데, 英祖 26년(1750) 온양 온천에 溫幸시에 머문 곳이다.

槐木亭橋; 주필대 1리쯤에 있는데 지지대 고개에서 좌측 옛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옛 의왕읍 사무소 못미처 다리가 있다. 아직도 다리앞에는 '槐木亭橋'라는 標石이 남아 있다.

日用里; 괴목정교 아래의 지지대로부터 5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龍頭前路; 괴목정교로부터 4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의 이목동쪽으로 노송지대가 나오는데 좌측 언덕이 용과 같은 모양이라 이곳을 龍頭라 칭했다고 한다.

沐浴洞橋; 수원시 과장동에 있었던 다리로 추정되며, 속칭 '떡골다리'는 지금은 복개되어 없어졌다. 그러나 『華城志』蹕路에 의하면 용두전로와 목욕동교 대신에 日用里'라는 지명을 넣고 있는데 지지대 고개로부터 5리 지점이라고 했다.

如意橋; 일용리 3리쯤 거리에 있는데 송죽동 조기정방죽「北池」아래에 있는 다리로 추정된다. 목욕동교에서 2리 지점이었고 '如意橋'라고 새겨진 표석이 있었다. 처음 이름을 眞木亭橋라 하였으나 正祖20년(1796)에 개명되었다.

萬石渠; 여의교에서 백 여보 도로 동쪽에 '萬石渠'라고 새겨진 표석이 있었고 동쪽으로 迎華亭이 있었다. 곧, 송죽동의 조기정방죽을 의미하는데 正祖 20년(1796)에 '亭을 迎華라 하고 野를 觀吉, 坪을 大有, 渠를 萬石'이라 이름하여 비석을 세우도록한 것에서 유래된다. 『화성지』에 의하면 만석거 다음으로 芰荷洞을 넣고 위치는 만석거에서 100여 보, 일용리에서 5리에 장승을 세웠다고 했다.

如意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大有坪; 속칭 '대리평'으로 불려지던 곳으로 1790년에 大有屯을 설치한 데서 유래하였다. 大有坪이라는 표석이 있었다. 『華城志』에 의하면 대유평 다음으로 迎華驛을 넣고 위치는 대유평으로부터 100여보 도로 동쪽에 '영화역'이라고 새긴 표

27) 수원시, 『水原市史』上, 500~508쪽 재인용.

석이 있다고 했다.

觀吉野; 1790년에 명명된 이름으로 수원 북문 못미처 영화동 동북쪽 넓은 들을 의미하며 흔히 광고뜰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영화역으로부터 100여보 남짓 도로 동쪽에 ‘觀吉野’라고 새겨진 표석이 있었다.

長安門; 수원시 장안동에 있는 화성의 북문이다. 관길야 표석으로부터 30보쯤 떨어진 지점이다. 『華城志』에 의하면 장안문 다음에 行宮이 표기되어 있다.

鐘街; 북문으로부터 종로로 가는 거리로 추정된다.

華城站撥所前路; 종로 네거리 부근으로 추정되며, 御駕가 행궁에 도착하면 左右軍營前路 → 新豐樓 前橋 → 新豐樓 → 華城府 行宮 → 신평루 → 신평루 전교 → 좌우군영전로를 지나 다시 원소로 가게 된다. 즉 국왕의 행차가 종로 네거리에서 행궁에 들렀다가 다음 지점인 팔달문으로 향하려면 노정을 반복하여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지명이 중복되고 있다. 『화성지』에서는 이 노정을 장안문-행궁-팔달문으로 단순화 하였다.

八達門; 수원시 팔달로에 있는 화성의 남문으로 화성행궁으로부터 1리쯤 거리에 있다. 보물 제402호로 지정되었다.

梅橋; 보통 ‘매교다리’로 통하는 곳이다. 팔달문으로부터 3리쯤 되는 길의 서쪽으로 ‘梅橋’라고 새겨진 표석이 있었다. 처음 이름은 梅山橋이었다가 1795년에 이름을 바꾸었다.

上柳川店; ‘옛매교’에서 100여보 거리의 상유천에 이르면 ‘上柳川’이라는 표석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삼거리라고 불리다가 1795년에 개명하였다.

建壯洞; ‘건장굴’로 불리워지던 곳으로 『화성지』에 의하면 매교 - 황교사이에 새로운 필로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매교-萬和峴-建壯洞-下柳川-황교로 이어지는 노선이 그것이다.

皇橋; 처음 이름은 小皇橋였다가 1795년 개명하였으며 ‘皇橋’란 표석이 있었다. 지금 수원비행장 경내의 ‘셋말’이라고 불리던 지역에 있었다.

甕峯; 황교로부터 100여보 떨어진 도로의 서쪽으로 ‘甕峯’이라는 표석이 있었다. 처음에는 獨峯이었다가 1795년에 개명하였다. ‘옹’과 ‘독’은 모두 향아리를 뜻하는 의미로 쓰여졌고 지형이 향아리처럼 둥글게 불쑥 올라온 모습이어서 이름지

어진 것으로 보인다.

大皇橋; 옹봉으로부터 100여보 떨어진 도로의 서쪽으로 ‘大皇橋’라는 표석이 있었다. 처음에는 ‘黃橋’였다가 1795년에 개명하였다. 조그만 정자가 있었으나 수원 비행장 확장공사로 없어지고 1970년에 그 골조를 이용하여 화산 용릉안에 대황교를 설치하였다. 『화성지』에 의하면 대황교 다음에 陵園所火巢를 蹕路에 첨가하였다.

迢瞻峴; 처음 이름은 ‘鵲峴’인데 1795년 개명하였다. 장승이 있었으며 옹봉으로부터 5리 지점이다.

安寧里; 지금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이며 유침현으로부터 3리쯤에 있다. ‘安寧里’라는 표석과 장승이 있었다. 순조 때에도 큰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迢觀橋; 처음 이름은 ‘土成橋’인데 1795년에 개명하였다. 안녕리로부터 1리쯤 도로 북쪽에 ‘迢觀橋’라는 표석이 있었다.

萬年堤; 처음 이름은 ‘防築藪’인데 1795년에 개명하였다. ‘萬年堤’라는 표석이 있었다.

陵園所洞口; 현릉원 입구로 안녕리로부터 3리에 있다.

園所齋室; 현릉원 齋室이다.

### 3. 道路의 修治와 舟橋의 건설

#### 1) 도로의 修治와 治道役

都城 창덕궁에서 園所까지 도로 개설과 修治문제는 永祐園을 花山에 천봉할 때부터 논의되었다. 우선 遷奉道路의 개설은 西氷庫 渡涉論과 廣津 渡涉論의 대두에서 비롯되었다. 즉, 正祖 13년 7월 13일 여러 대신과 遷奉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에서였다. 당시 대부분의 의견은 한강을 건너는 津渡는 서빙고를 거쳐 과천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慈宮의 망극한 심정을 헤아려 城內 作路보다는

28) 『日省錄』 正祖 13年 7月 13日.

城外作路하는 편이 낫다고 하여 廣津渡涉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 그것이다.<sup>28)</sup> 이에 경기감사 徐有防은 園所로부터 廣津까지 1晝停으로 삼고 나루를 건넌 후 1站은 과천읍에 이르는 도로는 극히 甚難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좌의정 李性源은 학여울(鶴灘)이 매우 險한 곳이라 하자 서유방은 평평하게 깎으면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였으나 결말을 내리지 못하였다. 16일에 다시 논의, 도당감상 鄭民始는 鶴灘이 험준하고 또 좁아 도로를 개설하기엔 어렵고 또한 廣津을 경유하면 너무 우회하고 만약 獻陵 洞口에 길을 내면 비록 평탄하나 너무 멀리 돌아 거의 60리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泥板里로부터 斗浦로 길을 내면 도로도 평탄하고 멀리 돌아가는 불편함도 없을 것이라 하여 이판리-두포도로를 이용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sup>29)</sup>

또 8월 20일에는 園所에 展拜하기 위하여 銅龍門 入直軍 60명을 先·後廂으로 삼고, 御營·禁軍 각 10명을 거느리고 거동할 때에 의논된 바에 의하면 往十里-小寺峴-蠶島에 이르는 길을 택하여 강을 건널 때는 兵防船을 京江에 정박시켜 건너려고 하였다. 그러나 楊花津에서 蠶島까지 사이에 간혹 개울이 얇거나 바위가 있는 경우는 배가 왕래하기가 어려움이 있자 三軍門으로 하여금 水深의 깊이와 배가 왔다갔다 하는데 장애물이 없는지를 측량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데서 廣津 또는 蠶島(현재의 독섬)를 중심으로 통과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sup>30)</sup> 그리하여 수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舊園所 靑龍洞口를 출발하여 典農里 - 踏十里 - 馬場里 - 往十里를 거쳐 浮橋가 놓여 있는 蠶島까지의 도로를 修治하여 이용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1)</sup>

그리하여 영우원 천봉시의 道路는 道路節目<sup>32)</sup>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舊園所(路祭所)-中橋(1)-馬場里(5리)-中橋(1)-車峴(5리)-箭串石橋-隱溝(1)-蠶島晝停所(5리)-廣州淸潭里-靖陵火巢外鶴峴-隱溝(3)-狎鳩停(5리)-狎鳩停後峴-隱溝(1)-少坪里(5리)-果川 沙坪里-藝峴-盤浦里店-小橋(2)-隱溝(2)-盤草里(5리)-柵峴店-柵峴-良才街店-隱溝(3)-道里井(5리)-隱溝(3)-胎峴(5리)-牛眠川大橋-隱溝(2)-和樂洞(5리)-公須川大橋-小橋(1)-隱溝(1)-果川宿

所(5리)-邑內前川 中橋- 鄉校前路-冷井店- 小橋(1)-隱溝(2)-銀杏亭峴(5리)-泥川中橋-仁德院店後川中橋-仁德院川大橋-小橋(1)-隱溝(1)-廣州 禿白里(5리)-葛山店-葛山峴-禿洞峴-軍堡川店-軍堡川峴-小橋(1)- 隱溝(3)-自棧洞(5리)-院洞店-小橋(1)-隱溝(3)-沙斤川店(5리)-小橋(1)- 隱溝(2)-水原 沙斤峴(5리)-彌勒堂店- 小橋-隱溝(1)- 一用里(5리)-眞木亭店-小橋(2)-龍洞前路(5리)-新基里-隱溝(1)-水原新邑 晝停所(5리)-鄉校前路-柳川大橋-上柳川店(5리)-下柳川 後坪(5리)-小橋(1)-禿峯(5리)-新作路-鰲沐川大橋-隱溝(2)-鵲峴洞(5리)-鵲峴新作路-隱溝(2)-細藍橋隅(5리)-隱溝(2)-園所洞口(5리)

이상 도로 길이는 120리로 각각 舊園所~蠶島 15리, 蠶島~果川宿所 35리, 果川官門~水原新邑 40리, 水原新邑~園所洞口 30리였다. 이때 斥堠 및 伏兵과 傳語軍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기적인 원행체제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다. 특히 果川宿所로부터 園所洞口까지의 노선은 이후 원행의 중요노선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도로의 수치는 어떻게 하였을까? 도성안의 도로 수치는 대개 燠造契貢人들이 맡았다. 원래 燠造契는 왕실에 메주를 제조, 납부한 공인인데, 도성안의 도로를 보수하는 治道軍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sup>33)</sup> 그러나 영우원의 御路였던 청량리 근처의 淸涼川이 범람하여 도로가 파손되자 도성의 坊民이나 田夫가 동원되어 治道하기도 하였다.<sup>34)</sup>

正祖13년 영우원 천봉 때의 사례를 보면, 과천~수원간의 경우 원래부터 溫幸路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修治에 힘썼으며, 그 넓이는 대개 6把 정도 또는 말 5필이 지나갈 정도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민간인들의 토지에 混入되기도 하여 이를 보수할 때에 도로에 편입된 땅값을 요구하게 되자 溫幸路의 규정에 의거하여 6把 이외의 전답은 민간인들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대신에 도로의 보수에 대한 力役의 댓가는 쌀과 돈으로 지급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5)</sup>

우의정 蔡濟恭의 말에 의하면 당시 원행 거동시 外方道路의 修治는 대개 田夫 즉

29) 『日省錄』 正祖 13年 7月 16日.

30) 『日省錄』 正祖 13年 8月 20日.

31) 『日省錄』 正祖 13年 8月 23日.

32) 『日省錄』 正祖 13年 9月 20日.

33) 『日省錄』 正祖 10年 4月 8日.

34) 『日省錄』 正祖 11年 6月 5日.

35) 『日省錄』 正祖 13年 10月 10日.

농민들에게 儲置米를 지급하여 그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36)</sup> 그러나 고양, 파주, 교하 등의 輦路에는 이른바 橋契가 있어 도로와 교량의 보수를 담당하였다. 즉 正祖 16년 2월 28일 암행어사 申獻朝 등의 보고에 따르면

“도로의 수치와 교량의 수선 비용은 품삯(雇價)을 주거나 돈 또는 쌀을 지급함으로써 각 읍마다 다르므로 役民들의 혜택이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 또 춘궁기나 농사를 짓지 않은 시기에는 백성들이 모두 治道の 赴役에 나아가 생활비용을 충당한다. 橋契의 설치는 畿民들에게는 큰 혜택인데 이번 도로의 수치는 비록 해방이 되지 않아도 진창길이 없이 교량이 견고한 것은 모두 橋契를 두었기 때문이다.”<sup>37)</sup>

고 한 데서 도로보수와 교량의 수선에 橋契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衿川(현재 시흥)지방의 도로 보수비용은 關西지방의 南塘城을 축성하고 난 나머지 돈 1만 3천냥의 일부를 取用해서 충당하기도 하였다. 즉, 正祖18년 4월 경기감사 徐龍輔가 “園幸 沿路의 지방 중에서 과천 경내는 고갯길이 가파를 뿐만 아니라 교량 또한 많아 매년 幸行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治道 때에는 民力이 배가 들어가 그 폐단을 시정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前後의 道臣들이 모두 衿川의 路程은 편리하다고 하는 陳達이 있었습니다. 신 또한 看審해보았는데 비단 道里的 원근이 현격하게 다른 곳은 없이 편편하고 넓어 다시 논의할 것은 없습니다. 내년의 行幸시에 內衙를 수리하고 道路를 보수하는 것 등은 불가피하게 거행해야 하나 재력을 융통할 방도가 없으면 관서 지방의 南塘城 축성 비용 나머지 돈 1만 3천냥을 우선 取用<sup>38)</sup>하였던 것이다. 또한 江都米 移轉條 1만 석중에서 3천석을 劃付하여 이자곡(取耗)으로 삼아 衿川縣의 제반 經用에 충당함으로써 新作路 등의 도로수치 비용을 확보하였다.<sup>39)</sup>

한편, 현릉원 원행시의 도로를 수치하는 과정에서 길에 편입되는 백성들의 토지는 10步마다 1負의 조세를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화성지역의 경우는 元結로 획급

하고, 시흥·과천은 宮結로 지급하였으며, 광주 역시 화성의 관례에 따라 給復하였다. 즉, 正祖 22년 1월의 조치 내용을 보면 수원유수 徐有隣은 遲遲峴에서 迺瞻峴까지 35리 가운데 城邑과 村坊을 제외하면 나머지 길의 양편은 모두 2만 3백 14보이며, 15보마다 1부를 면제하면 13결 54부 2속이 된다고 하였고, 또 경기관찰사 李在學은 시흥경계와 과천경계에서 읍내의 취락을 제외하고 연로의 양편을 계산하면 1만 8천 9백 88보로 15보마다 1부씩을 면제하면 시흥이 8결 41부이고 과천이 4결 25부라고 전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sup>40)</sup>

이와 같이 영조 26년(1750)에 국왕이 온천으로 거동할 때와 장헌세자가 1760년에 온천으로 거동할 때에 溫幸路가 있었으나 이후 이용되지 않아 민간인들이 많이 犯耕하였다. 그러나 정조 13년(1789)에 사도세자의 영우원을 옮긴 후 국가에서 길가의 전답을 매입하여 길을 넓히고 눈을 제거하는 비용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修理所를 두어 장정을 고용하여 제설작업과 治道를 담당하게 하고 부족분은 儲置米나 公錢으로 지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 2) 露梁津 舟橋의 설치

한편, 園幸에 있어 한강을 건너는 일은 최대의 과제였다. 초기에는 龍舟 또는 浮橋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용주는 임금이 직접 승선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이에 船艙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용주가 나루를 건너면 先·後廂과 左右 挾船이 扈從하였다. 용주로 운반된 사례는 肅宗 23년 금강산 楡店寺에 전각을 설치하고 임금의 影幀을 용주로 운반하여 봉안한 것<sup>41)</sup>이나 英祖 44년 3월 獻陵에 제사지내기 위하여 廣津을 용주로 건너 사실<sup>42)</sup> 그리고 正祖 3년 8월 寧陵에 전배하기 위하여 창덕궁-화양정-광진주정소를 거쳐 선창소에서 龍舟를 타고 남한해공으로 행차한<sup>43)</sup> 사례가 그것이다.

40) 『正祖實錄』 卷48, 正祖 22年 1月 己巳.

41) 『肅宗實錄』 卷31, 肅宗 23年 1月 甲子.

42) 『英祖實錄』 卷110, 英祖 44年 3月 己酉.

43) 『正祖實錄』 卷8, 正祖 3年 8月 甲寅.

36) 『日省錄』 正祖 13年 8月 20日.

37) 『日省錄』 正祖 16年 2月 28日.

38) 『日省錄』 正祖 18年 4月 2日.

39) 『日省錄』 正祖 18年 10月 13日.

또 浮橋제도는 용주, 선창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正祖 13년 7월, 모든 津渡에 浮橋를 설치할 것을 반포함으로써 등장하게 되었다.<sup>44)</sup> 대개 漕運船이나 軍船(兵船, 防船)을 이용하곤 하였는데, 正祖13년의 경우 牙山漕倉의 조운선이나 江華 橋洞 또는 湖西 및 海西의 새로 만든 兵·防船을 사용한 것이 그것이다.<sup>45)</sup> 당시에 선창 대신에 부교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船倉을 浮橋로 대신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만전을 보장할 수 있다. 선창은 소용되는 배가 많게는 1천척 가까이 되는데 부교의 경우는 백척도 되지 않으니, 이것만 하더라도 폐해를 줄이는 셈인데, 더구나 또 완고하고 견실하기가 육지나 다름없으니, 영구히 준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각컨대, 이 이후로 부교에 드는 경비는 京江에 전적으로 떠맡기되, 배의 경우는 별도로 作除하는 제도를 수립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기에 맞춰 役に 응하도록 하고, 조정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을 깊이 강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입고 힘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외방 畿邑의 稅穀을 경강의 諸船에 나눠주어 마치 都監船에 運稅를 元定하듯이 한다면, 강가의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을 듯하고, 뱃사람들 역시 기꺼이 나설 듯하다...”<sup>46)</sup>

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浮橋가 船倉보다는 배의 이용이 절감되고 또 京江人들에게 배를 부교에 제공하는 대신에 稅穀의 운송권을 지급해 주고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선창제도의 폐단이 나타나자 正祖 13년 영우원 천봉 때부터 선창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병조참판 李獻慶은 松坡, 三田渡와 豆毛浦지역이 얹고 좁아 船倉을 만들어 이용하기가 좋다는 이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sup>47)</sup> 浮橋를 이용하는 문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sup>48)</sup> 그 결과 龍舟, 浮橋에 대신하여 구체화된 것이 舟橋제도이다.

일찍이 한강유역에는 津渡<sup>49)</sup>를 설치하여 행인의 渡涉과 檢閱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官船으로서의 津船과 渡船을 비치하여 조세 및 행인 등을 운송하였다. 화성과 현릉원 행차시에 가장 많이 이용된 곳이 바로 露梁津이다. 그리고 獻陵·英陵 및 寧陵을 행차할 때에는 대부분 廣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강에는 여러 군데에 津渡가 설치되었는데 현릉원에의 행차에는 露梁津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보다 앞서 노량진이 중요한 교통로로서 특히 輦路의 구실을 하게 된 것은 지리적 입지가 우선이었다. 또 章陵의 연로로서 일찍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英祖 21년 御眞을 강화부 萬寧殿에 봉안하기 위해서 津路를 결정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御眞을 받들고 갈 때의 津路를 楊花渡로 결정하였는데, 비록 民力을 많이 들이더라도 船倉을 완전히 쌓을 형세가 없습니다. 露梁津은 건너기가 편리하고 쉬움이 세 津 가운데서 제일이고, 또 이는 章陵의 輦路이니, 이 길로 받들어 가는 것이 사체에 당연합니다. 비록 20리를 돌아가 멀기는 하나 만약 일찍 출발하면 金浦 속소에 밤 늦게 도착할 염려는 없으니, 노량진으로 길을 고쳐 잡는 것이 마땅합니다....”<sup>50)</sup>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露梁津이 漢江 渡涉의 주요 교통로가 되었으며, 노량진의 주교설치는 舟橋司의 설립과 동시에 구체화되었다. 正祖 13년(1789)에 瀋川司를 舟橋司로 개칭하여 도제조 3명·제조 6명·낭청 3명을 두고 嶺南의 別會穀 중에서 大米 2,000 석을 떼어 주어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주교사가 설립된 것이다.

이와 같은 舟橋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는 正祖 14년 7월에 직접 구상한 『舟橋指南』에 잘 나타나 있다.<sup>51)</sup>

① 주교의 위치 즉, 舟橋의 地形에 대해서는 東湖이하에서부터 露梁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노량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강화

44) 『正祖實錄』 卷27, 正祖 13年 7月 乙巳.

45) 『日省錄』 正祖 13年 7月 19日.

46) 『正祖實錄』 卷28, 正祖 13年 9月 辛丑.

47) 日省錄 正祖 13年 7月 26日.

48) 日省錄 正祖 13年 7月 16日.

49) 露梁津, 松坡津, 漢江津, 廣津, 三田渡, 新川津, 楊花渡, 孔巖津 및 鐵串津 등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李鉉涼, 崔完基 등의 연구가 있다.

50) 『英祖實錄』 卷61, 英祖 21年 2月 壬戌.

51) 『正祖實錄』 卷30, 正祖 14年 7月 己卯 및 『園幸乙卯整理儀軌』 卷4, 舟橋, 御製舟橋指南.

부나 삼남지방에 가는 요충지였던 데도 그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東湖(동호대교 주변)는 물살이 느리고 강언덕이 높은 것은 취할 만하나 강폭이 넓고 길을 돌게 되는 것이 불편했다. 빙호(서빙고 주변) 또한 강폭이 좁아 취할만하나 남쪽이 평평하고 멀어 만약 물이 조금만 불어도 언덕이 물러나 선창을 넓히는 문제와 강물의 유속이 빨라 연결할 배에 미칠 충격이 커서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露梁津은 양쪽의 언덕이 마주 대하여 높고 강북편의 흐름은 평온하면서 깊으며 강폭 또한 독섬(蠶島)이나 西水庫보다 3분의 1은 적어 지형의 편리와 공역의 절감이 五江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하여 결국 露梁津으로 결정하였다.

- ② 물 넓이는 배를 수용하는 데 중요하다. 노량진은 강물 넓이가 약 200把(1把는 指尺 6척임)이나 강물의 진퇴를 고려하여 300把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 ③ 배의 선정은 아산의 漕運船과 훈련도감의 兵船 대신에 한강의 五江에 있는 京江船을 선택하여 배의 높낮이에 따른 순서 및 기호를 정하여 관리한다.
- ④ 배의 수효는 배 1척의 넓이와 강폭을 계산하여 만약 배 1척의 넓이가 30척이라면 강폭을 1800척으로 기준하면 京江船 60여 척이 필요하다.
- ⑤ 주교의 높이는 가운데가 높고 양쪽은 낮게 하여 穹窿橋의 형태로 하면 미관뿐만 아니라 실용에도 합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체의 높낮이에 따라 五江의 船主로 하여금 각자의 선박의 정박처, 높이와 넓이의 척수 및 선주의 이름을 적어 관리하되 발송 기일에 의거하여 집결하여 배다리를 완성한다.
- ⑥ 배의 세로 연결 즉, 縱梁문제는 돛대 대신에 별도의 장대를 준비하여 다른 배의 駕龍木(배안의 가로지른 나무)에 연결하되, 御路가 4把이면 1把마다 1개씩의 종량을 놓아야 하므로 배마다 5개씩, 모두 60척의 경우 300개의 장대가 필요하다. 1척의 배에 100개를 실으면 3척의 운반선이면 충분히 실어 나를 수 있다.
- ⑦ 가로판자(橫板) 역시 御路의 폭이 4把면 횡판도 4把에 해당, 횡판의 넓이 1척, 두께를 3치로 표준하면 강폭 1,800척의 경우 횡판도 1,800장이 필요하다. 배 1척이 300개를 실으면 6척의 운반선으로 나를 수 있다. 종량과 횡판 제작에 소요되는 목재량 소나무 750주 정도는 장산곶, 안면도에서 벌목하여 운송한다.
- ⑧ 잔디를 까는 문제는 선주들이 각자의 배로 지나는 길(楊花나 西江)에서 사공들이 떼어 내어 싣고 와서 깔고 필요한 삼태기나 가래 등의 도구는 관청에서 마련해 준다.

- ⑨ 난간 설치는 御路의 가장자리에 양편 1把에 1개씩 말뚝을 세워 만드는데, 선창까지 약 700여 개 필요하며 둘러 치는 대나무말은 150浮 내지 160浮 정도 필요하다.
- ⑩ 닻을 내리는 일은 각자의 뱃머리에 질서정연하게 닿게 하여 서로 엉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⑪ 기구의 보관은 도구의 소속 배와 종류를 분별해서 창고에 보관, 출납하도록 하고 각 隊伍로 하여금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⑫ 대오를 편성(結隊)하는 것은 號令과 賞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데, 上船 중심으로 10척을 1대로 조직하여 좌부 3대, 우부 3대로 편성한다. 각 3대중에서 제1호, 제2호...제10호로 번호를 붙여 대장·부장·별감관의 지휘관을 차례로 임명하여 통솔하면 자연 軍制가 형성되어 지휘통솔이 확립된다.
- ⑬ 상벌은 舟橋의 役事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부역에 종사하는 船主들의 소원과 이익을 물어 세곡운반이나 소금 운송 및 舟橋案에 들어가 隊伍를 편성하는 일을 선택, 帖紙를 주어 이권을 차지하도록 허락하면 백성들을 자연적으로 참여하게 권장할 것이며 만약 범죄가 있을 경우 명단에서 제거하고 다른 배로 대신하게 하면 五江의 船人들도 주교에 편성되는 것을 좋아할 것이며 부장·대장은 몇번의 행차를 겪으면 邊將이나 屯監으로 승격시키면 더욱 권장하는 일이 될 것이다.
- ⑭ 기한안에 배를 집결하는 일은 서울 포구의 배가 항상 9, 10월에 각처로 나가 정박하고 있다가 봄 漕漕을 기다리지 않고 봄 행차 끝난후에 나가거나 가을 행차 역시 8월 10일 경에 대기하도록 하면 그만큼 남과 경쟁할 필요 없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⑮ 船艙은 浮板을 만들어 선창다리가 물을 따라 오르내려 舟橋와 서로 오르락 내리락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게 하였다. 노량진의 밀물과 썰물의 차이와 주교의 높낮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물의 부력을 이용한 매우 과학적 발상이다.

이와 같은 舟橋指南의 규정에 따라 正祖 17년(1793)에 이르러 舟橋司에 의해 『舟橋節目』이 작성되었으며<sup>52)</sup> 이것은 정조 19년(1795) 원행시의 주교제도에 반영되

52) 『正祖實錄』卷37, 正祖 17年 1月 乙巳.

었다. 이 『舟橋節目』과 『園幸乙卯整理儀軌』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교의 관리체계는 먼저 1월 28일 舟橋司 堂上에 徐龍輔를 임명(총용사, 경기감사)하고 整理所의 整理使를 총리대신 채제공으로 임명하여 총괄지휘, 감독하도록 하였다. 1795년 2월 13일 설치하기 시작하여 2월 24일 완성하였다.

주교 체계는 橋排船 36척과 左右衛 護船 12척으로 구성되었다. 주교선은 원칙적으로 한강의 경강선 80여 척을 이용하되 실제 교배선은 36척을 쓰고 나머지는 주교의 좌·우측에 배열, 주교를 잡아매거나 호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80여 척중에서 실제 주교의 교배선으로 36척이 쓰이고 나머지는 호위선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당시 한강의 실제 넓이는 190把=336.4m였으므로 (1把=指尺6척, 1척=29.5cm) 주교 길이 역시 330~340m 정도였다. 왜냐하면 渴水期인 2월에는 河床이 낮기 때문이다.

橋排船에 들어간 재료는 橫樑 72株, 縱樑 175株, 鋪板 1,039立, 撐柱 170箇, 蛭木 70箇, 回龍木 108개, 大小釘 900개, 牽馬鐵 5,804개, 頭釘 24개, 叉釘木 175개, 大叉釘 10개, 小叉釘 10개, 輪桶 10坐, 大蛭釘 10개, 大牽鐵 8개, 鐵索 77巨里, 大鐵索 8巨里였다.

欄干은 240척으로 板 92개, 法首 242주, 曲釘 292개, 鶴鐵 73개, 排目 146개로 만들었다.

紅箭門은 3면으로 남,북 선창에 각각 1개씩 세워 배다리의 경계를 표시하고 중앙의 가장 높은 데도 세워 강물의 한복판임을 표시하였다. 1개의 홍살문에는 鶴板 2좌, 頭釘 8개, 升旗紅大索 4거리가 사용되었다.

船艙은 나무로 만든 浮板 대신에 雜石을 石灰와 함께 석축하여 항구적인 시설로 하였다. 배의 결구는 상류로 향하여 닢을 내리고, 배의 삼판을 犬牙相制 형태로 연결, 남·북 선창 가까이 있는 項船의 머리·꼬리부분을 묶어 결박한 후 세로막대기(종량)과 버팀목(탱주)을 연결하여 橫板을 깔고 난간과 홍살문 설치하여 마치 弔橋처럼 만들어 조수의 흐름에 따라 주교와 선창이 신축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교선은 京江船과 訓練都監船을 이용하되, 설치하거나 철수시에는 格軍과 匠人을 給價雇傭하였다.

한편, 주교의 호위는 배 1척당 格軍 12명을 배치하여 戰巾을 착용하고 청·황·

적·백·흑색의 號衣를 착용하고 좌우 난간 뱃머리에 排立시키고, 挾船의 경우도 같았다. 남쪽은 前部, 북쪽은 後部로 편성하여 3척으로 1선단을 조직, 5개 선단을 편성하였으며 協總(주교사도청이 겸임) 1인이 전·후부를 통솔하였다. 전·후부의 領將(주교사의 감관으로 임명) 2명을 배치하여 단속하며 각 선단에는 1명씩 주교사의 영장으로 임명하여 통제한다. 이의 총감독은 수어청 또는 총용청의 수어사나 총용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주교의 호위구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舟橋堂上 徐龍輔, 舟師 大將 李漢豐, 敎鍊官 최태영 외 8명, 別軍官 조방규 외 3명, 別武士 김유상 외 9명, 藥房 1명, 馬醫 1명, 書吏 2명, 牢子 32명, 巡令手 30명, 吹鼓手 25명, 細樂手 11명, 大旗手 23명, 塘報手 13명, 燈籠軍 9명, 牙兵 16명, 別破陳 13명, 協摠 1명, 標下軍 13명, 令旗手 2명, 棍杖手 2명, 列牌頭 1명, 陪下人 3명, 帳幕軍 1명, 卜馬軍 1명, 都牌頭 1명, 吹鼓手 10명, 軍物都監官 1명, 副監官 2명, 領將 10명, 書吏 5명, 旗軍 432명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驛站의 신설과 接待

### 1) 화성축성 이전의 역참

조선시대의 驛路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역도(驛道) - 속역(屬驛)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도로의 상태와 중요도 및 산천의 거리에 따라 수 개 내지 수십여 개의 역을 한데 묶어 驛道로 편성한 다음 역승(驛丞)이나 찰방(察訪)의 지휘 감독 아래 순행하면서 역을 관리하였던 것이다. 수원지방의 역참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고려시대의 역도는 충청주도에 소속되었는데, 同化驛·長足驛·菁好驛이 있었다. 조선시대 태조, 태종을 거쳐 세종 때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驛道와 驛路網을 새로이 조직하여 재편되었다. 『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당시 조선은 전국에 산재한 538개의 역을 44개의 역도로 편성하여, 경기도에는 다음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8개 역도에 60역, 충청도에는 9개 역도에 70역,

경상도에는 10개 역도에 165역, 전라도에는 7개 역도에 58역, 황해도에는 3개 역도에 36역, 강원도에는 3개 역도에 77역, 평안도에는 1개 역도에 13역, 함길도에는 3개 역도에 59역이 설치되었다.

당시 수원에는 동화역(同化驛)과 장족역(長足驛)이 설치되어 남양(南陽)의 해문역(海門驛), 진위(振威)의 청호역(菁好驛), 양성(陽城)의 가천역(加川驛), 안성(安城)의 강복역(康福驛)과 함께 동화도(同化道)에 속하였다. 동화도에는 역승(驛丞)이 파견되었으며, 남쪽으로 충청지역의 성환도(成歡道)와 직결된 교통의 요지로서 기능하였다.

〈표-2〉 세종대의 경기도 역로망

道	驛道	屬驛
京畿	左道 忠淸道 程驛 (祭訪: 7)	良才(果川) 樂生(廣州) 駒興(龍仁) 金寧(龍仁) 佐贊(竹山) 分行(竹山) 無極(陰竹)
	右道程驛(祭訪: 8)	迎曙(楊州) 碧蹄(高陽) 馬山(原平) 東坡(臨津) 招賢(長湍) 青郊(開城) 狻猊(開城) 中連(海豐)
	京畿 江原道 程驛 (祭訪: 5)	綠楊(楊州) 安奇(抱川) 梁文(永平) 豐田(鐵原) 雙谷(抱川) 其餘十八驛 皆在江原道界
	重林道(驛丞: 6)	慶申(仁川) 石谷(安山) 盤乳(衿川) 南山(陽川) 金輪(富平) 種生(通津) 重林(仁川)
	同化道(驛丞: 6)	長足(水原) 海門(南陽) 菁好(振威) 加川(陽城) 康福(安城) 同化(水原)
	平丘道(驛丞: 11)	仇谷(楊州) 雙樹(楊州) 奉安(慶州) 娛賓(楊根) 田谷(砥平) 冬白(砥平) 甘泉(加平) 連洞(加平) 平丘(楊州) 青坡·蘆原(楊州)
	慶安道(驛丞: 9)	慶安(廣州) 德豐(廣州) 阿川(利川) 吾川(利川) 留春(陰竹) 楊花(川寧) 新津(驪興) 安平(驪興) 無極(陰竹)
	桃源道(驛丞: 7)	桃源(臨江) 仇和(臨江) 白嶺(長湍) 玉溪(漣川) 龍潭(鐵原) 丹金(積城) 湘水(積城)

세종 때의 역도체계는 그 뒤 세조대에 이르러 대폭 개편되어 『經國大典』의 역도 체계를 확립하는 발판이 되었다. 세조대의 역도 개편은 세조 3년(1457년)과 6년, 그리고 8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개편은 주로 기존의 역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으며, 2·3차 개편은 역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재편성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경기지역에는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서도·도원

도·중립도·양재도·경안도·평구도 등 6개 역도에 58역이 설치되었고, 충청좌도에는 3개 역도에 41역, 충청우도에는 3개 역도에 24역, 전라좌도에는 4개 역도에 30역, 전라우도에는 2개 역도에 23역, 경상좌도에는 6개 역도에 67역, 경상우도에는 5개 역도에 81역, 강원도에는 4개 역도에 78역, 황해도에는 3개 역도에 30역, 평안도에는 2개 역도에 32역, 함경도에는 3개 역도에 49역이 개설되었다.

〈표-3〉 세조대의 경기도 역로망

道	驛道	屬驛
京畿	迎曙道(楊州)	碧蹄(高陽) 馬山(坡州) 東坡(長湍) 青郊(開城) 中連(豐德)
	桃源道(長湍)	仇和(長湍) 白嶺(長湍) 玉溪(漣川) 丹棗(積城) 湘水(積城)
	重林道(仁川)	慶信(仁川) 盤乳(衿川) 石谷(安山) 金輪(富平) 種生(通津) 南山(陽川)
	良才道(果川) (→迎華道)	樂生(廣州) 駒興(龍仁) 金嶺(龍仁) 佐贊(竹山) 分行(竹山) 無極(陰竹) 康福(安城) 加川(陽城) 菁好(水原) 長足(水原) 同化(水原) 海門(南陽)
	慶安道(廣州)	豐德(廣州) 楊花(驪州) 新津(驪州) 安平(驪州) 阿川(利川) 吾川(利川) 留春(陰竹)
	平丘道(楊州)	綠楊(楊州) 安奇(抱川) 梁文(永平) 奉安(廣州) 娛賓(楊根) 雙樹(楊州) 田谷(砥平) 白冬(砥平) 仇谷(楊州) 甘泉(加平) 連洞(加平)

당시 수원지역의 청호(菁好)·장족(長足)·동화(同化) 3역은 良才道에 속하였는데, 청호역은 수원도호부의 동쪽 25리에 있었으며, 장족역은 부(府)의 동쪽 30리, 동화역은 부의 서쪽 7리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수원에는 이밖에 오산원(烏山院)·사원(蛇院)·대제원(大梯院) 등 3개의 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 2) 迎華驛의 신설과 운영

### (1) 迎華驛의 신설

조선후기에 이르러 수원지방의 역참은 대부분 전기의 역참이 그대로 존속되어 운영되었다. 다만 역참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나 후기 영조 대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수원부읍지에 의하면 동화역(同化驛)은 부의 서쪽

10리에 위치하여 대마(大馬) 1필, 복마(卜馬) 4필, 역노(驛奴) 8명 정도가 배치되어 역참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장족역(長足驛)은 부의 북쪽 25리에 있으며, 대마 1필, 기마(騎馬) 2필, 복마 2필, 역노 5명, 그리고 청호역(靑好驛)은 부의 동남쪽 25리에 위치하여 대마 2필, 복마 3필, 역노 7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런데 후기 수원지방의 역참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곧 迎華驛의 신설이었다. 영화역은 良才驛을 폐지하고 수원 장안문 밖에 移設함으로써 수원지역의 중요한 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내력을 살펴보면 『華城城役儀軌』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영화역은 장안문 밖 동쪽 1리 쯤에 있다. 丙辰年(正祖20 ; 1796) 가을 華城直路에는 역참이 없고 북문 밖은 인가가 없이 텅비어 특히 막아 지키는 형세에 흠이 되기 때문에 경기 良才道 驛을 옮겨 이곳에 새롭게 설치하고 우선 역에 속한 馬와 驛戶를 이주시켰다. 이어서 官廩를 짓고 驛名을 바꾸도록 명하니 迎華라 이름하였다.<sup>53)</sup>

라고 한 데에서 잘 알 수 있다. 곧 영화역은 화성을 축조하고 나서 장안문 밖의 공한지에 인구를 이주시키고 성의 북쪽을 막아 지키는 斥候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찰방으로 하여금 군제 편성과 더불어 北城의 斥候將을 겸직하게 한것에도 엮을 수 있다. 원래 양재역은 고려시대에는 廣州道에 소속된 良梓驛이었으나 조선 세종때에 驛道の 개편과 더불어 오늘날의 良才驛으로 개칭되었다. 양재역은 종6품직의 찰방이 근무하고 있는 중심역으로서 樂生驛 등 12개의 屬驛을 가지고 있는 역로상의 咽喉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이었다. 그리고, 양재역은 삼남지방의 大路에 위치하고 있어 官物·進上의 운송은 물론 使臣들의 왕래에 따른 接待와 迎送, 그리고 宿泊제공 등으로 인하여 관리,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곳이다. 따라서 찰방의 임명과 역마의 立待 및 관리에 있어 꽤 심혈을 기울였던 역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다른 역과 마찬가지로 驛役의 과중한 부담과 말값의 앙등으로 驛吏가 도망가고 驛馬의 濫乘

에 따라 많은 폐단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에 양재역을 소생시킬 목적으로 下三道의 驛民을 入居시키거나 使命이외의 사적인 역마이용을 규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sup>54)</sup> 때로는 진상품품의 운송에 따른 驛務의 과다로 인하여 水站船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국적인 역의 폐단현상이 나타났으니 양재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임진왜란 당시 수도서울의 방어로 말미암아 한강 이남의 直路에 위치하고 있었던 양재역은 주변에 木柵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과 흩어진 驛卒들을 불러 모아 屯田을 경작토록 조치하였다.<sup>55)</sup> 임진왜란 당시 양재도 찰방으로 있던 朴汝櫟은 전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양재역의 소생대책<sup>56)</sup>을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마련하였던 것이다. 역리·역졸과 공사천 소생의 日守충원, 진상품의 민간인과 역졸 분반 운송과 향진물의 역졸 운송, 경기목장 말의 분급, 驛卒 復戶의 지급, 사신들의 역리구타 방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재역은 正祖 20년(1796) 8월 29일 水原으로 移設하여 迎華驛으로 개칭함으로써 迎華道察訪체제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은 『萬機要覽』에도 영화도 속역 11개의 역으로써 낙생(樂生)·구흥(驅興)·금령(金嶺)·좌찬(佐贊)·분행(分行)·무극(無極)·과천읍참(果川邑站)·수원본참(水原本站)·해문(海門)·가천(加川)·강복(康福)을 들고 있는 데서 잘 알 수 있다.<sup>57)</sup> 그런데 당시 영화역의 신설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찍이 知事 李奭祚는 이른바 ‘華城條件’이라는 상소를 비변사에 올리면서 화성문제와 관련하여 駒興·長足·同化 3개의 역을 합하여 하나의 郵驛을 두고 이것을 화성 근처로 옮겨 察訪을 설치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sup>58)</sup> 이에 당시 비변사 대신들은 3역을 하나의 역으로 합하여 이설할 경우 馬位畜의 경작과 代土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행 불가능함을 제기하였던 것이 그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 근처에 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점점 커졌다. 그리하여 正祖 20년(1796) 8월 1일 수원부유수 趙心泰에게

54) 『中宗實錄』 卷67, 中宗 25年 2月 丁卯.  
 55) 『宣祖實錄』 卷56, 宣祖 27年 10月 辛酉.  
 56) 『宣祖實錄』 卷182, 宣祖 37年 12月 庚戌.  
 57) 『萬機要覽』 軍政編 1, 驛遞 各道屬驛.  
 58) 『華城城役儀軌』 卷1, 啓辭, 乙卯 6月 初4日.

53) 『華城城役儀軌附編』 卷1, 迎華館.

화성은 바로 三南의 요충지로서 비록 이미 축성은 했다 하더라도 虛疎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北邊은 매우 虛疎하기 때문에 북문 밖에다 驛館을 설치하고자 하니 재력이 조금 여유가 생기기를 기다려 서서히 의논하는 것이 마땅하다.<sup>59)</sup>

고 하여 역관 설치를 의논토록 함으로써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해 8월 29일 양재찰방 李五鎭으로 하여금 驛舍 건물 그림을 그려 바치도록 하고, 흠어진 驛民 20여 호를 우선 移接토록 조치하였다.<sup>60)</sup> 그 뿐만 아니라 재원 마련책으로써 屯田을 설치하여 稅를 거둬으로써 재원을 충당토록 하였으며 驛卒에 대한 우대책도 마련토록 하였다. 이렇게 신설된 영화역의 규모는 『華城城役儀軌』에 따라 살펴보면 館舍는 正堂 및 三門이 있는데 모두 남향이며 內衛는 모두 52칸이라 하였다.<sup>61)</sup> 또 다른 기록에는 영화역의 官廡는 40칸이나 되었고 새로 들어온 민호는 50여 호 정도였다고 한다.<sup>62)</sup> 이와 같이 영화역은 당시 임금이 “영화역 新館은 이미 매우 精緻하고 郵治를 맡은 건물들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도중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큰 官村을 이루고 있다.”<sup>63)</sup>고 할 정도로 제법 역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화역은 正祖 20년(1796) 8월 29일 良才驛을 수원에 이설하고 양재도 찰방을 迎華道察訪으로 개편함으로써 명실공히 수원 지방에서의 중요 역참으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sup>64)</sup>

## (2) 迎華驛의 규모와 운영

迎華驛의 규모는 『華城志』 郵驛條에 따라 살펴보면 察訪 1명, 驛吏 12명, 通引 6명, 使令 9명, 官奴 5명, 人夫 18명, 驛奴 133명, 驛婢 2명, 奉足 216명(매명 1냥 1전씩 납부), 驛馬 108필(本驛 35필, 駒興驛 7필, 金嶺驛 5필, 良才驛 17필, 樂生驛 3필, 果川站 18필, 加川驛 9필, 分行驛 6필, 佐贊驛 5필, 無極驛 5필임)이었으며,

59) 『華城城役儀軌 附編』 卷2, 筵說, 丙辰 8月 初1日.

60) 『日省錄』 正祖 20年 8月 29日.

61) 『華城城役儀軌 附編』 卷1, 驛館 迎華館.

62) 『日省錄』 正祖 21年 1月 29日.

63) 『華城城役儀軌 附編』 卷2, 傳教, 丁巳 2月 初1日.

64) 『日省錄』 正祖 20年 8月 29日.

65) 『華城志』 郵驛.

경제적 재원으로는 馬位田 167石落, 馬位畚 149石落이었으며, 당시 驛村의 호구는 97호였다고 한다. 그리고 迎華館이 전간 11칸, 부속건물 2칸, 行廊 9칸이고, 內三門 3칸, 內衛 10칸 半, 行廊 10칸, 門 2칸이며, 別堂 4칸, 衛前廳 6칸, 外三門 3칸 등 모두 60여 칸의 대규모였다.<sup>65)</sup>

이러한 영화역은 현릉원 조성과 화성 축조이후 정조의 園幸에 있어 역마의 입대를 준비해야 했다. 園所站과 華城站에 임금의 거동시에 騎馬 또는 卜馬를 제공하였던 것이다.<sup>66)</sup> 그 뿐만 아니라 서울에 勅使나 본국 使行이 오갈 때에는 ‘上京應役’이라 하여 서울에 역마를 入把시키기도 하였다.<sup>67)</sup> 그러나 이것은 오랫동안 먼거리까지 入把함으로써 폐단이 발생하고 특히 새로 정착한 馬戶들이 감당할 수 없어 제반 支勅이나 사행에 대한 入把役은 다른 5역(영화역 이외의 중립역, 평구역 등)에게 맡기고 영화역의 ‘上京應役’은 폐지하게 되었다.<sup>68)</sup>

한편 영화역의 재정 확보는 다각도로 강구되었다. 정조 20년(1796) 11월 수원유수 趙心泰의 요청에 의거하여 신설에 필요한 재원을 총액 2만냥을 한도로 하여 영·호남지방의 加分耗條 각각 3천 石을 劃給하여 조달하였다.<sup>69)</sup> 정조21년(1797) 우의정 李秉模의 건의로 부족분은 海西 水營의 군량미 2만 1천 8백여 石 중에서 3,000石을 劃付하여 매년 耗條 300石으로 보충하게 되었다.<sup>70)</sup> 또 正祖 24년(1800) 1월에는 영화찰방 李元膺의 요청에 의해 華城留守府의 公貨 5,000냥 중에서 3,000냥을 매년 300냥씩 갚는 조건으로 10년간 대여받아 조달하였으며, 심지어는 남양 海門站, 안성 康福站이 僻路에 있어 사신왕래가 별로 없게 되자 두 역의 馬戶를 영화역에 移付하고 馬位田 收稅를 영화역에 옮겨 公用에 보충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다.<sup>71)</sup>

영화역의 구체적인 운영문제와 실태에 대해서는 암행어사의 서계에 잘 나타나 있다. 正祖22년(1798) 2월 암행어사 呂駿永의 迎華驛弊瘼에 대한 書啓<sup>72)</sup>에 따르면

66) 『日省錄』 正祖23年 12月 29日, 備邊司以京畿各驛釐弊節目啓.

67) 『日省錄』 正祖 23年 12月 29日.

68) 『日省錄』 正祖23年 4月 18日.

69) 『華城城役儀軌 附編』 卷2, 啓辭, 丙辰 11月 11日. 『日省錄』 正祖 21年 1月 30日.

70) 『日省錄』 正祖 21年 6月 24日.

71) 『日省錄』 正祖24年 1月 17日. 및 同 2月 27日.

72) 『日省錄』 正祖22年 2月 9日.

다음과 같다.

1. 本驛(迎華驛)의 馬戶는 同化·菁好·長足驛 등에서 移屬해 온 자와 京願立 下來자를 합쳐 모두 35戶이나 元戶로서 移接해 온 자는 겨우 8戶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戶主의 差人으로서 無賴輩이기 때문에 아침에 모였다가 저녁에 흩어질 염려가 많습니다. 이들이 客地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작할 만한 토지가 거의 없어 땔나무(柴草)나 겨(糠粃) 등을 모두 무역하므로 쓸데 없는 비용이 여러 갑절이나 되고 심지어는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물어보면 모두 멀리 떨어져 있는 馬位田을 가까운 私田으로 相換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元戶 馬主를 조속히 영화역으로 移屬하게 해야 합니다.
1. 京願立(서울에서 영화역의 입마를 위해 내려온 자) 15戶는 田土를 팔지 않고 來接할 수 있는 자는 단지 4호에 불과합니다. 그 중 1호는 지탱할 수 없어 철수하여 돌아갔고, 일찍이 京願立의 應役이 무겁고 힘들어 처음에 낭비의 出斂이 없고 또 人夫의 責立을 하지 않아 替把할 道里도 매우 가까워 왕래하기가 편했습니다. 그러므로 都中의 閑民이 모두 立馬를 원합니다. 한번 스스로 京願立이 畿營에 속할 때에 흥년을 만나면 북한산성의 餉穀을 受食하기를 呈訴하여 마침내 전례를 만듭니다. 지금 移屬후 또 15석을 받아 35호에 분급, 遠路作錢하여 나눠주더라도 매호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8전에 불과합니다. 지난 가을 각 호에 납부된 것이 2냥 6전에 이르고 있으니 비록 사소한 폐이나 면제해주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1. 본부(華城留守府)에서 立馬하는 마필은 전에는 府使 坐馬 1필, 輪馬 2필에 불과하였으나, 유수부로 승격된 이후에는 좌마, 교마, 중군, 패장 및 서리청직 등이 탈 말이 모두 14, 5필이 되어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 대령합니다. 심지어 及唱輩들까지 중간에 억눌러 濫騎하니 새로 설치한 역이 실로 지탱하기 어려울까 걱정스럽습니다.
1. 35戶의 位田내에서 上等 馬位田은 불과 13필에 지나지 않으며 그중 10필은 세력있는 將吏에 속하여 다른 나머지 驛戶들은 이미 탄식할 구석마저 없습니다. 이른바 將吏들은 죽은 말이나 병든 말을 代立하지 않습니다. 본부의 將校 林懋昌, 畿營 營吏 羅就長은 대립하지 않은지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본역의 驛吏 鄭卜順은 입마하지 않고 마위전을 공공연히 耕食하고 본부 書吏 羅應三은 몰래 2필을 上中等이라고 일컬어 驛戶에게 分給하고 위전을

耕食하는 등 그 侵漁하는 바가 한 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말이 있을지라도 제반 苦役은 다른 道에 돌아가 여의치 않으면 驛吏, 驛長이 임의로 심문하고 다스려도 찰방은 보통 때와 똑같이 봅니다.

1. 본도의 찰방 李五鎭은 일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오직 잘 처리한다고 자랑하며...(중략)... 安集은 오직 馬戶에 있으나 이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招集하여...(중략)... 본역에 來接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위전을 지급한다는 말이 민간에게 크게 퍼져 城內의 貧民 15호가 家舍를 팔거나 稱貸하여 마위전이 찰방이 지급을 허락하지 않은 자 또 閑民으로서 冒受할 수 없는 자가 장차 해마다 두루 미쳐 이익이 없는 백성은 원망을 일으켜 留守에게 호소하고 備局에 呈訴하나 모두 發落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가고 머무름이 본역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찰방이 원망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耗條錢 800냥으로 보리밭(牟田)을 매입하여 매호마다 3일경으로써 15호에 분급한다고 합니다. 실은 2일경 혹은 1일 반경입니다. 또는 6일경으로써 특별히 驛戶중 2명에게 지급하므로 客民은 이미 位田을 지급하지 않고 또 牟田이 減給되는 것을 원망하고 驛戶는 客民에게 給田한 것 때문에 또 2명에게 치우쳐 지급한 것을 원망합니다.
1. 본 역의 驛戶 숫자는 主客을 물론하고 52호일지라도 將吏는 단지 건물을 짓고 들어가지 않으며 찰방된 자는 마땅히 來接자를 엄하게 감독하되 만일 명령을 듣지 않거든 位田을 다른 사람에게 移給하여 허다하게 使役하도록 一任함으로써 다른 집들이 침해를 받아 점차 凋殘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일에 본부의 幕裨나 府中의 將吏를 지낸 사람들이 친구 아닌 사람이 없어 10여 馬戶가 평등하게 사귀면서 무릎을 맞대고 익살부리면 驛戶로서 처음 본 자는 비웃지 않음이 없고 부끄럽게 官長이라 칭하여 貢錢은 지급하지 않고 개인호주머니에 다 들어가며, 復戶는 임의로 삭감하여 12結을 제멋대로 官用에 붙여 수백 금을 驛民에게 殖利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차 강제로 지급하여 마침내 富實한 戶로 하여금 瓦舍를 버리고 공공연히 멀리 도피하여 驛馬가 죽게 된 것이 4필이요 병든 것이 1필입니다. 1, 2년 責立할 수 없는 자는 비단 馬戶의 죄이고 添價錢이 上下로 쓰이지 않고 이익은 자기에게 해는 驛民에게 미칩니다.

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영화역의 馬戶 확보, 上京立役의 폐단, 마필의 濫乘, 마위전 分給, 驛戶의 생활 안정 대책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正祖23년(1799)에 수원유수 徐有隣은 京畿各驛釐弊節目<sup>73)</sup>에서 영화역과 경기5역의 掾弊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迎華驛의 제반 公役을 除減한 후 전부터 入把 마필은 5驛에 분배하여 移定한다.
1. 금년 봄(1799, 정조 23년-필자) 支勅 및 우리 나라 대소 사신의 사행에 따라 본역에서 應役할 200필 중, 영화역 入把馬 45필, 경기 5역 201필을 보충해도 부족하니 긴요치 않은 명목의 마필은 除減토록할 것.
1. 본도 監司, 都事, 中軍의 座馬는 迎華驛에 責立시키지 말 것. 元數 2필 중 각 1필 除減하고, 타역 소재의 2필로써 輪回入番하고, 칙행시 都事, 中軍 座馬중 1필을 出番시킬 것.
1. 迎華驛馬의 上京應役은 영구히 減하며, 驛屬으로서 營門 立役자는 馬頭 이하 긴요 및 완만 여부를 물론하고 영구히 減하고, 심지어 貫牌는 본래 驛屬이 아니고 서울에서 雇立한자이니 영화역 貫牌 15명은 5역에 分屬하여 옛과 같이 使役하고 朔料錢은 復戶米木으로써 지출하고 매년 부족한 돈 141냥은 영화역에 賣出하기가 어려우니 公役이 아니면 疊役시에 약간 명을 裁減해도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15명 내에서 5명은 裁減하여 料錢으로 삼을 것.
1. 勅行시 영화역에 贈給한 銀子 70냥 및 인부, 별세, 松都留糧 등 雜費는 지금 본역으로 하여금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영이 힘써 添補할 것.
1. 화성 幸行시 園所站과 本府站에 驛馬 待승은 영화역이 거행할 것.
1. 畿驛이 조잔하게 된 폐단의 이유는 入把 증가, 다양한 侵漁에 있으니 지금 釐正이 그치지 않고 대소 사행과 三都留守, 각도 監·兵·水使이하 각 행차의 夫馬 入把는 定例가 있으나 매년 濫把의 폐단이 없지 않다. 지금부터 舊典을 밝혀 후 濫把한 경우가 있으면 감영에 보고할 것. 驛馬入把시에 下屬들의 誅求가 1驛 1년의 소비가 적어도 백 여금을 내려가지 않으니 만약 이 폐단을 금하지 않으면 나머지 驛이 실로 지탱할 수 없으니 일체 嚴禁하고 嚴禁자가 있으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적발하여 法도를 바로잡을 것. 모든 濫把나 誅求의 폐단을 만약 해당 역에서 은닉하고 보고치 않으면 察訪을 심문할 것.

73) 『日省錄』 正祖 23年 12月 29日.

1. 대소 사행은 兵曹 역마로써 外驛에 도착하여 初站에서 비로서 替把하는 것이 法例이다. 근래에 매번 서울로부터 入把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下屬들이 틈을 타 誅求하는 이유가 이로부터 말미암는다. 定式을 밝혀 대신이나 부연사신의 사행이외 서울로부터 입파하는 것은 일체 嚴禁하고 차후 해당 부서에서 일체 草料를 성급하지 말고 후 濫騎한 경우가 있으면 다해 察訪을 적발하여 嚴히 論劾할 것.
1. 본도의 監營의 裨將, 執事, 營吏 등이 公務로 왕래할 때에는 비록 騎馬의 예가 있다하더라도 責把를 憑藉하여 폐단이 없지 않으니 이후부터 번에 따라 왕래하거나 공무로 出使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막을 것이며 감영부터 정식으로 시행하여 범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
1. 본도의 防禦使가 赴任하거나 遞來시에는 騎馬의 예에 따르되, 그의 私行에는 일체 말을 지급하지 말고 立待의 폐단을 제거할 것.
1. 勅行시 각 驛道에서 맡은 直路의 留站馬는 1, 2필에 불과하여 兵曹馬가 初站에 도착해도 만약 말이 없어 越站하는 일을 당하면 徵貫의 수가 극히 과다하여 이것 역시 폐단의 하나가 되니 이후로는 이른바 越站貫錢은 매 10리마다 1전을 넘지 않도록 하며 후 科外로 濫徵하는 자는 감영으로부터 報章에 보고하여 嚴히 緝할 것.
1. 대소의 公行은 中火 宿所를 물론하고 邑站으로부터 먼 곳은 驛村이 먼저 支供하고 그 乾價를 본邑에서 받는데 주고 받을 때에 吝嗇하여 받지 못하는 것이 所費의 반도 안 되어 단지 왕래하는 수고로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驛民의 원망하는 것이 된다. 광주의 德豊, 奉安, 慶安, 양주의 綠楊 등의 여러 역은 모두 이 폐단이 있으므로 불가불 申飭해야 하며 심지어 綠楊驛은 매년 樓院에 出站하게 하는데 이곳은 역촌이 아니므로 부당하게 피로에 찬 驛卒을 수 십리 떨어진 곳에 교체하여 出站하는 것은 극히 뜻있는 일이 아니므로 차후에 樓院支供은 본 고을에서 편리에 따라 거행하고 나머지 역을 侵責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삼아 예전의 폐가 없도록 할 것.
1. 본도 5驛의 上中等馬는 모두 201필인데 매년 勅使의 행차시 많은 수가 應把하여 차례로 늘어놓을 수가 없다. 지금 부득이하게 除減한 바가 있어도 오히려 고생할 염려가 없지 않다. 심지어 각 역의 卜馬가 부족한 숫자가 너무 많아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變通의 方策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중 平구역 11필, 경안역 6필, 연서역 5필, 중림역 3필, 도원역 5필 합계 30필을 中等馬와 바꿔 세우고 교체비용과 차후 부족한 경우 改立添價는 감영에서 힘써 마련하여 지출할 것.

등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역참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역정(驛政)의 문란과 그에 따른 역마가의 양등과 남승폐단, 역민의 업무과다로 인한 역민들의 유망과 조잔(凋殘) 등으로 말미암아 점차 그 폐해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것은 특히 공공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용무로 역마를 이용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역마를 사용(私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었고, 역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역마부족 현상이 발생된 데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 더욱이 역리에게 부과된 입마(立馬)의무는 1필당 포(布) 300~500필에 이르는 말값의 양등으로 역리·졸 등이 도망하여 숨어 살거나 심지어는 떠돌아 다니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역호가 조잔하게 되었던 것이다.

### 3) 撥站의 신설과 운영

#### (1) 擺撥制의 성립

조선시대 초기부터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공공의 군사통신망으로는烽燧制와擺撥制가 있었다. 봉화(烽火)·낭화(狼火)·낭연(狼煙)이라고도 하는 봉수(烽燧)는 외적의 침입과 같은 변경의 급한 소식을 밤에는 횃불(烽), 낮에는 연기(燧)로 중앙에 전하는 군사적 목적의 통신 수단이었으며, 파발제는 임진왜란 이후 새로 대두된 군사통신의 하나로南撥, 北撥, 西撥로 조직되어擺撥軍이擺撥馬를 타고 긴급한 변경의 군사상황을 전달하는 것이다.<sup>74)</sup> 그런데 이 파발제의 등장은 전기의 봉수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자 그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파발제를 처음 개설한 나라는 중국의 송(宋)이었다. 송나라는 북방의 여진족이 세운 금(金)나라가 빠른 속도로 남하해 오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종의 군사첩보기관인擺鋪를 설치하여 변경의 동정을 중앙에 전달케 하였다. 전달방법은步遞, 急脚遞, 馬遞 등으로 나누어졌다. 보체와 급각체는 발빠른鋪卒들이 릴레이 식의 달리기로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이고, 마체는騎馬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급각체로는 하루에 400리를 갔으며, 마체로는 500리를 달렸다고 한다. 이와 같은擺鋪

遞는 이후 元나라를 거쳐 명나라로 계승 발전되었는 바, 이것이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으로 온 명나라 군대를 통해 조선에 소개되어 채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임진왜란을 통해 봉수제의 폐단이 또 다시 문제되자 정유재란이 일어난 선조 30년(1597)에는 파발제 설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봉수대가 너무 많아 다 지킬 수 없으니撥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領事 金應南의 건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에 그대로 인정되었으며,<sup>75)</sup> 명나라처럼騎撥은 25리마다 1참씩,步撥은 30리마다 1참씩 두자는 집의 한준겸(韓浚謙)의 건의 또한 받아들여 마침내西撥·北撥·南撥<sup>76)</sup>의 3대로를 근간으로 한 파발제가 인조, 효종때 국방력 강화정책의 하나로 성립하게 되었다.

#### (2) 華城 撥站의 신설과 운영

수원지방에 파발이 설치되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正祖 19년(1795) 3월 29일 “화성의直路에擺撥站을 설치하였다.”<sup>77)</sup>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원래 수원지방에는 파발제도가 시행될 초기에는 파발이 없었다. 당시 경기도 지역에는 단지 수도 서울의京營站에서釜山站에 이르는東南大路上에 지금의 잠실방면의新川站 → 栗木站 → 黔北站 → 慶安站 → 雙橋站(이상廣州) → 高尺站 → 大浦站 → 素沙站(이상利川) 밖에 설치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원지방에 파발참이 설치된 배경은顯隆園의展拜에 따른園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창덕궁궁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현릉원에전배하고 화성행궁에서 숙박하기 위해서는 원행에 따른園幸定例의 규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강을 건너는데 필요한舟橋의 설치, 도로의 보수, 만안교 등 교량의 신축 그리고 왕명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발참의 신설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이와 같은華城直路上에 파발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日省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正祖 19년 3월 29일에 임금이 경모궁(景慕宮)에 거

75) 『宣祖實錄』卷85, 宣祖 30年 2月 丙戌.

76) 『萬機要覽』軍政編 1, 驛遞 撥站.

77) 『正祖實錄』卷42, 正祖 19年 3月 庚辰.

74) 南都泳, 「조선시대 군사통신조직의 발달」, 『한국사론』 9, 1981.

동할 때 原任 直提學 徐龍輔가 京營站에서 華城에 이르는 곳에도 西道 즉, 수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예에 따라 파발을 설치하여 왕명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sup>78)</sup> 그 결과 파발의 설치에 따른 비용은 장용영 내영전(壯勇營內營錢) 1만냥을 劃給하여 조달케 하였으며, 大同米 중에서 지방의 재정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한 儲置錢의 일부로써 驛馬를 改立케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平薪牧場의 목장마 15필을 分給하여 사용케 하였던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서울의 궁궐에서 현릉원에 이르는 화성직로상의 원행로에 파발참이 설치되었으니, 鷲梁站·始興站·肆觀坪站·彌勒堂站·華城站 또는 水原站·園所站이 그것이다.<sup>79)</sup> 대개 이러한 파발참은 원행에 따라 어가행렬이 머물거나(晝停所) 또는 숙박하는 곳(宿所)에 설치되어 왕명의 전달과 숙박 및 음식의 편의 등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華城撥站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正祖 19년(1795)에 제정된 이른바 ‘華城撥站節目’<sup>80)</sup>이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첫째, 서울 京營站과 華城까지의 거리는 75리로 계산하여 5개의 撥站을 설치하는데, 각 참의 거리는 20리 또는 15리로 정하되 京營站에서 始興 新村站까지 20리, 新村站에서 果川 安養站까지 20리, 安養站에서 廣州 沙觀站까지 15리, 沙觀站에서 華城官門站까지 20리로 한다.

둘째, 이 5站的 撥所는 오로지 華城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화성에 왕래하는 급한 公事 즉, 공문서를 중앙의各司와 지방의 營邑간에 撥馬를 使役하여 전달하되 각 站에는 2필씩을 배치한다.

셋째, 각 참의 將卒은 西撥의 예에 따라 每站마다 ‘1將3卒’의 원칙에 따라 撥將과 撥卒을 畿營에서 兵曹에 移文하여 차출한다. 京營站은 본래의 撥將을 겸해서 差出하고 그의 新村站은 始興將校, 安養站은 畿營將校, 沙觀站은 廣州 有料將校, 華城站은 本府 有料將校를 差定하며 5년 임기마다 교체한다.

넷째, 撥所의 需用은 壯勇營에서 劃給한 1만냥을 錢·穀으로써 殖利하여 마련한다.

다섯째, 撥將과 撥卒의 朔料와 馬料는 마땅히 西撥의 예에 의거하여 마련하

며 新村站, 安養站외의 京營站·沙觀站·華城 3참의 撥將은 모두 有料將校로써 差定하여 原料의 有無와 厚薄을 參量하되 京營站·華城站的 撥將은 每朔 添料錢 3냥씩, 沙觀站 添料錢 5냥, 新村站·安養站은 每朔 料米각 6斗, 錢 5냥씩 나누어 지급한다. 5참의 撥馬는 西撥의 예에 따라 每匹마다 每朔 11냥씩 지급하고 이외에 紙地·草價는 畿營이 참작하여 마련한다.

여섯째, 京外에 付撥하는 일이나 撥將의 殿最는 壯勇營節目에 따르고 이외 사소한 일들은 역시 畿營에서 節目을 만들어 영구히 遵行한다.

일곱째, 壯勇營節目·畿營節目을 合錄하여 備局·壯勇營·華城府에 비치하여 관리한다.

한편, 이와 같은 파발참이 신설되고 원행로가 형성됨으로써 서울 ~ 수원간의 교통로는 그 비중이 증대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당시에 쓰던 지명도 새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즉 正祖 19년 윤2월 1일 京畿監營의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 경내 지명을 새로 고쳐 부르게 되었는데 素沙峴 → 萬安峴, 沙斤川 → 沙觀坪, 一用峴 → 日用峴, 沙斤峴 → 彌勒峴으로 고쳤으며, 또 수원부 경내의 지명 역시 小黃橋 → 皇橋, 梅山橋 → 梅橋, 三巨里店幕 → 上柳川店幕, 獨峯 → 甕峯, 黃橋 → 大皇橋, 鵲峴 → 迢瞻峴, 土成橋 → 迢觀橋, 防築藪 → 萬年堤로 고치게 되었던 것이다.<sup>81)</sup>

이로써 살펴본다면 노량참·시흥참·사근평참 등은 원행시에 어가행렬에 수반하여 진배(進排)할 물건과 띠갈(柴草)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로 행궁이 있는 곳에 임시로 설치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 (3) 驛站에서의 接對와 驛馬備立

각 파발참의 설치장소와 원행에 따른 접대에 대해서 正祖 19년(1795)의 『園幸乙卯整理儀軌』에 나타 난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鷲梁站에서는 윤2월 9일 出宮 및 윤2월 16일 還宮할 때의 晝停所로서 접대를 맡았는데 노랑진 鎭將의 大廳에 수라를 진설하기 위하여 龍驤鳳翥亭 밖에 內衙로서 家 2칸을 배설하여 어가행렬을 접대하였다. 대개 주정소의 경우는 여러 가지 餅果·藥飯·强精·莞子湯 및 魚采, 片肉 등의 早茶小盤果를 慈宮(혜경궁 홍씨)·大

81) 『園幸乙卯整理儀軌』卷3, 移文, 潤 2月 初1日.

78) 『日省錄』 正祖 19年 3月 29日.

79) 『園幸乙卯整理儀軌』에는 華城撥站節目과 달리 노량참, 시흥참, 미륵당참, 원소참이 설치되었다.

80) 『日省錄』 正祖 19年 4月 16日.

殿(正祖)·淸衍君主·淸璿君主 그리고 대소 관리들에게 접대하였으며, 또한 밥·탕·찜(助致)·구이·생선·포 등의 아침 수라(朝水刺)를 대접하였다.<sup>82)</sup>

始興站은 역시 윤2월 9일의 出迎할 때와 윤2월 15일 還宮할 때의 宿所로서 시흥당 동쪽밖에 假家 10칸, 宮人 및 整理所 당상 이하를 供饋할 假家 5칸을 지어晝夜로 茶小盤果 및 저녁수라(夕水刺) 등을 노량참 메뉴와 비슷하게 접대하였다.<sup>83)</sup>

沙觀站은 윤2월 10일 出宮할 때와 윤2월 15일 還宮할 때 晝停所로서 사근참 행궁 북쪽에 수라용 假家 5칸, 궁인 및 정리소 당상 이하를 供饋하기 위하여 5칸의 家를 점심의 茶小盤果 및 수라와 미음을 각각 대접하였다.<sup>84)</sup>

또한 華城站은 윤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園所에 展拜하기 위하여 화성행궁에 머무르면서(宿所) 수라간을 裨將廳에 설치하고, 별도의 熟設所에 別廚 등 여러 建物을 두어 임금과 자궁, 신하와 내빈 그리고 수행한 軍兵들에게 각양각색의 음식을 각각 접대하였다.<sup>85)</sup> 이외에 園所站에도 윤2월 12일 園所를 배알하기 위하여 수라용 假家 5칸, 궁인 및 정리소 당상 이하를 공궤하기 위하여 역시 假家 5칸을 齋室 대문 밖 동쪽에 지어 規例에 따른 음식을 접대하였다.

한편 각 站에서는 이러한 접대에 필요한 器用을 확보해야 했다. 기본적으로 원행 때에 쓰일 각 站의 물품은 대부분 都廳, 곧 整理所에서 준비하여 때에 따라 운송하여 구비하나, 이외에 무역해서 구입하거나(買用) 돈을 주고 빌려쓰는 경우(給價用還)도 있다.<sup>86)</sup>

鷺梁站의 경우, 자궁과 대전·내외빈 등에 쓰일 비품들은 대부분 식사 및 미음용 그릇류가 대부분이고, 熟設所에서 사용되는 물건들도 취사 및 음식용 그릇이나 운반·보관용 비품들이다. 다음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整理所, 本站에서 준비하거나 戶曹, 壯勇營 등에서 돈을 주고 빌려쓰는 경우가 많으며, 買用하여 措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외의 각 站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다.

<표-4> 乙卯園幸시 鷺梁站에서의 물품조달 현황

용도	器皿종류 및 숫자	조달방안	비고
慈宮	鑰盤床(1부), 周鉢(1좌), 湯器(1좌), 大櫟(1좌), 助致器(2좌), 甫兒(1좌), 櫟匙(5좌), 鍾子(3좌), 錚盤(1좌), 黑漆足盤(4립)	豫備	
	銀酒煎子(1좌), 襦袢(1건), 揮巾(1건), 揮巾錚盤(1좌)	整理所	
	畫器(3립)	本站	
大殿	鑰盤床(1부), 周鉢(1좌), 湯器(1좌), 大櫟(1좌), 助致器(2좌), 甫兒(1좌), 櫟匙(7좌), 鍾子(3좌), 錚盤(1좌), 黑漆足盤(2립)	豫備	
	鑰酒煎子(1좌), 襦袢(1건), 揮巾(1건), 揮巾錚盤(1좌)	整理所	
盤果用	大砂鉢(1족), 砂櫟匙(2족), 砂鍾子(6립), 黑漆足盤(4립)	整理所 豫備	
米飲用	畫砂鉢(6립), 畫櫟匙(3립)	本站	
	鑰錚盤(3좌), 銀杯(2좌), 銀籤(1개)	熟設所	
	鐵峯爐(4좌), 銅炒兒(4좌), 大雨傘(1명)	各站 替用	
	架子(1부)	整理所	
	輜重車(1량)	壯勇營	
淸衍·淸璿君主	鑰盤床(각 1부), 周鉢(각 1좌), 湯器(각 1좌), 大櫟(각 1좌), 助致器(각 1좌), 甫兒(각 1좌), 櫟匙(각 5좌), 鍾子(각 2좌), 錚盤(각 1좌), 黑漆足盤(각 2립)	豫備	
	鑰酒煎子(1좌), 襦袢(각 1건), 揮巾(각 1건), 揮巾錚盤(1좌)	整理所	
內賓	鑰盤床(1부), 周鉢(1좌), 湯器(1좌), 大櫟(1좌), 助致器(1좌), 甫兒(1좌), 櫟匙(5좌), 鍾子(2좌)黑漆足盤(1립)	各站 替用 豫備 取用	
	宮人	鑰大盒(6좌), 鑄錚盤(4좌), 銅酒煎子(2좌), 大隅板(3립), 湯器(1족)	整理所
外賓·閣臣	鑰周鉢(2족5립), 鑄湯器(2족5립), 大隅板(1립), 小隅板(2족), 鑰東海(6좌)	壯勇營 取用	
	砂湯器(2족), 砂大櫟(2족)砂甫兒(1족3립), 砂櫟匙(1족5립), 砂鍾子(1족5립), 行擔(5부)	給價 用還	
熟設所	炙金(적쇠4부), 鑄金(적쇠4개), 鑄者(적자3개), 火箸(5부), 鐵工伊(1개), 食刀(10개), 餅刀(2개), 手刀(10개), 研(1좌), 毛老(1좌), 小執介(1부), 高足床(5좌), 卓子(1좌), 隅板(4립), 茶食板(3개), 木火爐(3좌), 大櫟(2부), 架子(4부), 龍脂(10명), 黃燭(5쌍), 肉燭(70명)	整理所	

82) 『園幸乙卯整理儀軌』卷4, 饌品, 鷺梁站.

83) 위의 책, 饌品, 始興站.

84) 위의 책, 饌品, 沙觀站.

85) 위의 책, 饌品, 華城站.

86) 『園幸乙卯整理儀軌』卷4, 器用.

용도	器皿종류 및 숫자	확보방안	비고	
熟設所	地衣(3부), 鑰匙(1단), 菜刀(2개), 剪刀(2개), 薑板(2개), 綃蓆(1개), 馬尾蓆(3개), 竹蓆(2개), 木周杼(2개), 齒瓢(2개), 杻盤(3죽), 蓆省(2개), 草省(5개), 釣乃(3개), 大砂鉢(2죽), 砂磁碗(1죽), 砂瓶(10좌), 砂缸(15좌), 膏飲缸(2좌), 細長竹(200개), 於音炙串(300개), 炙串(200개), 揮巾布(1필20척), 行子布(15척), 苧布(20척), 白木(1필), 各色扇子紙(5장), 五色紙(5장), 油壯紙(2권), 油白紙(3권), 壯紙(1권), 白紙(5권), 紅小索(50파), 苧絲(1냥), 雨傘(2병), 中礪石(2괴), 木燈(5좌)	賃用		
	鑰所羅(2좌), 鑰涼盆(9좌), 鑰半瓶入里(2좌), 鑰錚盤(6좌), 銅前大也(2좌), 鑰沙用(2좌), 鑰煮(3개), 函之朴(6좌), 刀个(3좌), 案板(5좌), 木臼(2좌), 中竹(20개)	給價用還		
	食鼎(10좌), 爐口(3좌), 燔鐵(6좌), 小磨石(1좌), 水瓮(7좌), 陶甌(2좌), 陶所羅(10좌), 陶東海(10좌), 方文里(10좌), 柳箕(유지5부), 柳箕(2부), 行擔(10부), 擔桶(3부), 水桶(5부), 東古里(2개), 大所古味(5개), 軟瓢(15개), 斗升(각2개), 木燭臺(20개), 細繩(100파), 網蓆(5립), 空石(75립), 柴炭, 燒木, 杻木, 杻炬, 藁草	畿營待令		
	銅爐口(20좌), 靑衣巾(각20건), 草蓆(20부)	各營門, 濟用監, 宣惠廳 用還		
補階所	補階板(240립), 屯太木((40개), 足木(200개)	戶曹 用還, 整理所 수송.		
	葛 (4동), 四寸釘(950개)	賃用		

자료 : 『園幸乙卯整理儀軌』 卷4, 器用.

그리고 각 화성 5참에서 원행 때에 지출된 비용은 <표-5>와 같이 노량참 504냥 1전 4푼, 시흥참 1,292냥 6전 6푼, 사근참 551냥 4전 9푼, 원소참 293냥 6전 모두 2,641냥 8전 9푼이며, 화성참까지 포함한다면 9,613냥 5전 9푼이 소요되었다. 그중 鷺梁站의 경우 수라(水刺), 盤果, 米飮 마련에 323냥 3전, 그릇 구입에 52냥 1전 9푼, 각종 빌린값(貰價)에 19냥 7전, 운송값(馱價) 4냥 8전, 내외손님 접대에 45냥 4전, 盤纏에 56냥 8전, 입대 말값 1냥 9전 5푼 등 모두 504냥 1전 4푼이 지출되었다.

이와 같은 원행 재원의 확보는 대부분 整理所의 재원으로 마련하였다.<sup>87)</sup> 정리소는 正祖 18년(1794) 12월 園幸을 위해 설치하였는데, 당시 3南 지방을 휩쓴 전국적

87) 鄭崇教, 「正祖代 乙卯園幸의 재정운영과 整理穀 마련」, 『韓國學報』 82, 1996.

<표-5> 各站에서 사용된 支出 現況

용도	鷺梁站	始興站	沙(肆)觀站	園所站	華城站
水刺·盤果 米飮	323냥 3전	1,015냥 2전	330냥 8전	177냥 9전	
器皿 買入價	52냥 1전 9푼	57냥 4푼	52냥 1전 9푼	17냥 1전	
貰價	19냥 7전	21냥 7전	19냥 7전	8냥 6전	
馱價	4냥 8전	11냥 2전	25냥	18냥 7전	
內外賓員役供饋	45냥 4전	90냥 8전	45냥 4전	22냥 7전	
盤纏	郎廳		9냥	7냥	
	帶隸驅從		7냥 8전	4냥 2전	
	書吏 糧饌錢	3냥 6전	6냥 8전	3냥 2전	2냥
	熟手 糧饌錢	29냥 2전	36냥	15냥 6전	12냥
使喚軍雇價錢	24냥	27냥	26냥	19냥 2전	
立待馬價	1냥 9전 5푼	5냥 6전 7푼	7냥 8전	4냥 2전	
江心水 馱價		7냥 5전			
待令懸板馱價		2냥			
壯油紙價		2냥	5냥 4전		
行擔價		5냥 7전 5푼			
其他 費用		4냥	4냥 2전		
合 計	504냥 1전 4푼	1,292냥 6전 6푼	551냥 4전 9푼	293냥 6전	6,971냥 7전

자료 : 『園幸乙卯整理儀軌』 卷3, 手本, 乙卯 2月 20日.

1) 華城站의 합계는 『園幸乙卯整理儀軌』 卷5, 財用의 통계임. 같은책 卷3, 手本에는 漏落.

인 흉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당국은 救荒策을 강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sup>8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의 사도세자에 대한 추모와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원행대책이 속속 수립되어 壯勇營 提調 鄭民始와 원행재원 확보방안을 의논한 결과 10만 3천 여냥 정도의 재원 확보방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園幸乙卯整理儀軌』에 의하면 正祖 19년(1795) 당시의 총재원은 화성 축조시 화성주민에게 빌려준 진흥청 이자의 하나인 華城貸下利條錢 26,000냥, 關西·鐵山 등 吏逋作錢 31,081냥 8전, 德川 還米作錢 14,220냥, 湖南 買米作錢剩條 24,800냥, 耗條作錢 6,960냥으로 합계 103,061냥 8전이었던 것이다.<sup>89)</sup> 이외에도 內帑金(또는

88) 『正祖實錄』 正祖 18年 10月 己巳, 戊寅. 『日省錄』 正祖18年 11月 1日.

89) 『園幸乙卯整理儀軌』 卷5, 財用.

內下錢)이 사용되기도 하였다.<sup>90)</sup> 이와 같은 재원은 초기에 宣惠廳에 유치되었다가 賑恤廳으로 이관되었으며 대부분은 壯勇營에서 貸下하여 지출되었던 것이다.<sup>91)</sup> 이것은 장용영이 친위군영이면서 재정 기구로서의 역할까지 맡았음을 말해주고 있어 당시 장용영의 위상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각 참의 뜰아래에 깔 돛자리의 확보는 長興庫에서 내려준 것을 운송해 두었다가 사용하거나 京畿監營에서 준비해 둔 것을 사용했는데 각 참에 소용되는 돛자리는 각 고을로 하여금 필요한 분량을 납입케 하고 그 비용은 정리소에서 지급해 주었다.<sup>92)</sup>

각 참에 布帳을 설치하는 일은 軍營에서 담당토록 하였는데, 노량진은 禁衛營, 시흥행궁은 訓練都監, 사근평은 御營廳의 3營門이 나누어 맡고 포장을 수령할 장교와 졸병들의 노잣돈과 賞馬費는 정리소에서 지급해 주었으나,<sup>93)</sup> 肆觀坪站的 경우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물자를 운반하는 폐단 때문에 화성부에 보관하고 있는 포장의 수량이 많고 거리도 가까워 운반하기에 편리하므로 화성부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sup>94)</sup>

이와 같이 각 撥站은 어가행렬에 따른 宿所 또는 晝停所로서의 역할을 주로 맡았으며, 왕명을 전달하기 위하여 임시의 仮家와 布帳을 설치하고 撥將과 撥卒 그리고 撥馬를 배치하여 교통, 통신의 기능을 수행한 임시기구의 성격을 띠었던 것이다. 그리고 각 站의 관리를 위해 鷺梁站에는 堂上 徐龍輔, 郎廳 金龍淳을, 始興站에는 堂上 李時秀, 낭청 洪大榮을, 肆觀坪站에는 堂上 徐有防, 낭청 李潞秀, 水原站에는 堂上 尹行恁을, 園所站에는 堂上 徐有大, 낭청 具膺을 각각 파견하여 지휘·감독케 하였다.<sup>95)</sup>

各站에서 사용할 쌀과 콩의 구입은 정리소에서 지급한 재원으로 買入해서 보충하였는데, 시흥참 쌀 60석, 콩 15석 사근참 쌀 30석, 수원참 쌀 170석 큰50석, 원

소참 쌀 15석이였다.<sup>96)</sup>

한편, 역마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였다. 원행시에는 御駕 및 隨行員들을 태우기 위하여 司僕寺와 경기도에 소속된 각 驛의 驛馬를 出役시켜 入侍케 하였다. 乙卯年 원행 때에 필요한 마필은 慈宮관련 마필이 67필, 임금 御駕 수행관련 마필이 132필로 모두 199필이 조달되었다. 한편 어가를 호위하는 마필은 『園幸定例』에서 집계하면 장용영 기복마 65필, 용호영 군마 154필, 사복마 2필, 훈련도감 기복마 367필, 금위영 기복마 115필, 어영청 기복마 155필, 충용청 기복마 10필, 경기감영 군마 34필, 광주부 표하마 11필, 장교마 3필 등이었다. 그러나 『園幸乙卯整理儀軌』 班次圖에 의하면 당시 어가를 수행한 인원은 1,779명이고(『園幸乙卯整理儀軌』 배종 명단을 통계하면 실제 인원은 약 6,000 여명임), 마필은 무려 779필이나 되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重林驛의 역마 51필 가운데 17필을, 桃原驛의 역마 43필 가운데 20필을, 良才驛의 역마 113필 중에서 32필을, 延曙驛의 역마 73필 중 22필을, 平丘驛의 역마 95필 중에서 28필, 慶安驛 63필 중에서 32필 씩 모두 151필을 차출시킨 것이다.<sup>97)</sup> 또 司僕寺 소속의 마필 199필과 군용마 등을 조달하여 어가 호위와 승용 및 卜馬로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수원지방에 읍진 사도세자의 현릉원에 행차하기 위해 도로변에 행궁과 더불어 설치한 영화역 및 발참은 19세기말 근대적인 교통·통신제도가 도입되면서 驛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 맺음말

이상 살핀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正祖는 부친 思悼世子の 능침인 永祐園을 수원 화산으로 옮겨 顯隆園을 조성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華城을 축성하였다. 그리고 이곳을 참배하고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원행을 하였다. 특히 정조19년(1795)의 乙卯園幸

96) 『園幸乙卯整理儀軌』 卷3, 移文, 乙卯 2月 30日.

97) 『園幸乙卯整理儀軌』 卷3, 來關, 乙卯 潤 2月初 8日.

90) 『日省錄』 正祖 19年 2月 20日. 같은 책, 潤 2月 11日.

91) 鄭崇教, 앞의 논문, 149~152쪽.

92) 『園幸乙卯整理儀軌』 卷2, 啓辭, 乙卯 2月 5日. 整理所 堂上 尹行恁 및 京畿監司 徐有防 啓.

93) 『園幸乙卯整理儀軌』 卷2, 啓辭, 乙卯 2月 1日. 整理所 郎廳 啓.

94) 『園幸乙卯整理儀軌』 卷2, 啓辭, 乙卯 2月 9日. 整理所 郎廳 啓.

95) 『園幸乙卯整理儀軌』 卷2, 啓辭, 乙卯 2月 1日. 整理所 郎廳 啓.

은 모친 혜경궁 홍씨와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회갑을 경축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원행은 사실상 국가적 경축행사였고 왕권 안정과 민의 수렴의 커다란 계기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원행의 시말을 기록한 것이 『園幸乙卯整理儀軌』이다. 이 자료는 원행의 전반적인 출궁, 환궁 절차나 어가수행 관료와 호위 군병, 원행노선 및 교량, 주교 설치 그리고 왕명의 전달체계와 접대, 영화역과 발참의 설치 등을 파악하는데 국방 및 교통사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원행의 목적과 절차는 예조와 정리소의 규정에 따라 돈화문을 출발하여 노량진·시흥·사근평·화성행궁을 거쳐 현릉원을 展拜하되 화성에서 進饌, 養老宴, 謁聖文武科 시험과 城操를 사열하는 것이었다.

侍衛는 先·後廂 군병을 편성하며 別雲劍, 別軍職이 大駕앞 좌우에서 시위하고 대가 뒤에서는 承傳宣傳官이 시위하면서 왕명을 전달한다. 대가의 巡視는 禁衛營의 주관아래 令旗手, 軍牢手, 信箭手が 맡아 출입인을 통제한다. 그리고 거동시의 傳命은 禁軍중에서 禁軍別將이 차출하여 배치하되 일반적인 傳語는 대궐문에서 노량진까지는 衛軍 150명을 차출, 배치하되 도성안은 척후병만, 광주·과천·시흥경내의 척후병과 복병은 수어사, 총융사 소속의 경기도 東伍步軍을 뽑아 배치하였다. 壯勇衛는 좌우 5마대를 편성하여 挾輦軍의 뒤를 따라 행진하며 善騎別將은 善騎隊를 지휘하여 주정소·숙소·원소 등을 시위한다. 禁軍은 5마대를 편성하여 先驅禁軍, 攔後禁軍으로 나뉘어 행진하다 각 숙소·주정소·원소에서는 禁軍과 別抄軍이 고을입구에서, 先驅禁軍과 攔後禁軍은 동구밖에서 合陣하여 시위한다.

임금의 교외 거동시 도성수비는 留都 및 留營, 留陣체제를 수립하여 방어하였다. 일반적으로 훈련도감이 대가를 수행하면 금위영이 홍화문 밖에서 留陣하고 어영청이 도성을 방어하였다. 留都大臣은 도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金虎門 밖에서 결진하여 출궁시 호위하고 나서 도성을 수비하였다. 을묘원행시에는 실제로 護衛別將 2명, 所任軍官 3명, 軍官 305명, 書吏 2명, 使令 4명, 房直 1명, 標下軍 54명, 前排軍 21명으로 편성하였다.

守宮은 南所에 入直하여 궁궐 안의 각처를 宿衛하였는데, 禁軍·護衛軍官·訓練都監軍·局出身·有廳軍士를 점검하였다. 從事官(1), 禁衛營別武士(1), 摠戎廳教鍊官(1), 前排軍(35), 兵曹結束色書吏(1), 奎章閣檢校直閣(1), 承政院假承旨(1), 假注書

(1), 兼春秋(1), 內醫院提調(1), 兵曹參判(1), 佐郎(1)으로 편성하였다.

留營은 국왕의 교외 거동시 도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예비병력으로써 남아있는 군영으로서, 원행 때는 주로 御營廳·摠戎廳 군병으로써 留營을 통솔하였는데 東營, 南小營으로 나누어 파수하였다. 留駐는 乙卯園幸 때에는 訓練都監教鍊官(1), 別武士(2), 禁衛營教鍊官(1), 別武士(1), 書吏(1), 御營廳教鍊官(1), 別武士(1), 書吏(1), 前排軍(42-訓練都監, 禁衛營, 御營廳의 巡令手, 牢子로 편성), 大旗手(16), 燈籠軍(4), 御營廳帳幕軍(4), 訓練都監哨官(1), 中哨軍(122-旗鼓手, 旗摠, 隊摠, 銃手, 火兵, 卜馬軍으로 구성)으로 편성되었다.

留陣은 원래의 자기부대에서 출동하여 홍화문 밖에서 도성의 외부를 수비하는 것으로 을묘원행시에는 禁衛營이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원행을 하기 위해 정해진 교통로를 이용하였다. 원행노선은 시흥로와 과천로로 나누어 이용되었는데 을묘년의 시흥노선은 83리, 교량 24곳이며 敦化門 → 敦寧府前路 → 把子塵石橋 → 通雲石橋 → 鐘樓前路 → 大廣通石橋 → 小廣通石橋 → 銅峴屏門前路 → 松峴 → 水閣石橋 → 崇禮門 → 桃楸洞前路 → 靑坡橋 → 石隅 → 栗園峴 → 羅業山前路 → 蔓川 → 舟橋(北紅箭門 中紅箭門 南紅箭門) → 鷺梁行宮 → 龍驤鳳翥亭晝停所 → 萬安峴 → 蕃大坊坪 → 文星洞前路 → 始興縣行宮 始興堂 宿所 → 大博山前坪 → 安養橋 → 長山隅 → 淸川坪 → 院洞川 → 肆觀坪行宮 凝鑾軒晝停所 → 日用峴 → 彌勒峴 → 槐木亭橋 → 眞木亭橋 → 長安門 → 鐘街 → 左右軍營前路 → 新豐樓 → 華城府行宮 長樂堂 宿所 → 新豐樓 → 左右軍營前路 → 鍾街 → 八達門 → 梅橋 → 上柳川 → 上柳川店幕 → 下柳川 → 下柳川店幕 → 皇橋 → 甕峯 → 大皇橋 → 迺瞻峴 → 迺觀橋 → 萬年堤 → 園所幕次이었다.

그리고 원행 노선상의 道路 修治는 영우원 천봉 때부터 논의되었는데 西水庫와 廣津渡涉論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泥板里 - 斗浦 도로 이용과 전농리 - 답십리 - 마장리 - 왕십리 - 뚝섬까지의 도로를 수치하였으며, 천봉이후에는 과천로와 시흥로를 중심으로 도로의 보수와 만안교 등과 같은 교량을 건설하여 통행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도로의 수치는 도성의 경우 도성의 坊民이나 燻造契貢人들이 맡았으며, 외방의 경우는 田夫 즉 농민들의 부역노동이나 雇立勞動에 의하여 시행하였다.

한편, 원행에 있어 한강의 도강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종래의 龍舟, 浮橋에 의

한 방법을 쓰지 않고 舟橋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露梁津에 일찍부터 津渡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는 이점을 살려 舟橋司의 설립과 함께 왕이 직접 구상한 『舟橋指南』에 따라 이곳에 주교를 설치하였다. 주교는 한강의 京江船을 이용하여 넓이 300把를 기준으로 60척이 소요되었으며 穹窿橋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縱梁·橫板·欄干·船艙·紅箭門 시설 등을 갖추었다. 실제로 『舟橋節目』과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의하면 주교는 橋排船 36척과 左右護船 12척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머지는 주교의 좌우측에 배열하여 주교를 잡아매거나 호위선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주교의 호위는 배1척당 格軍 12명을 배치하여 수어사 영장-주교사 협총지휘 아래 전·후부 선단을 통제하였는데 주교당상, 주교대장, 교련관, 별군관, 별무사, 약방, 마의, 서리, 순령수, 취고수, 세악수, 대기수, 당보수, 등룡군, 아병, 별과진, 기군 등 432명으로 편성되었다.

그리하여, 현릉원 행차에 따라 왕명의 전달과 접대 등을 위하여 驛站의 신설과 接待문제 또한 중요한 일이었다. 화성 축성이후 良才驛을 이설하여 북문(장안문) 근처에 迎華驛을 신설하였다. 『華城城役儀軌』, 『華城志』 등에 의하면 迎華驛의 규모는 察訪 1명·驛吏 12명·通引 6명·使令 9명·官奴 5명·人夫 18명·驛奴 133명·驛婢 2명·奉足 216명(매명 1냥 1전씩 납부)·驛馬 108필(本驛 35필·駒興驛 7필·金嶺驛 5필·良才驛 17필·樂生驛 3필·果川站 18필·加川驛 9필·分行驛 6필·佐贊驛 5필·無極驛 5필임)이었으며, 경제적 재원으로는 馬位田 167 石落, 馬位畓 149 石落이었으며, 당시 驛村의 호구는 97호였다고 한다. 그리고 迎華館이 전간 11칸·부속건물 2칸·行廊 9칸이고, 內三門 3칸·內衙 10칸 半·行廊 10칸·門 2칸이며, 別堂 4칸·衙前廳 6칸·外三門 3칸 등 모두 60여 칸의 대규모였다. 그리고 영화역은 현릉원 조성과 화성 축조이후 정조의 園幸때 역마에 입대해야 했다. 園所站과 華城站에 임금의 거동시에 騎馬 또는 卜馬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서울에 勅使나 본국 使行이 오갈 때에는 ‘上京應役’이라 하여 서울에 역마를 入把시키기도 하였다.

영화역의 재정 확보는 다각도로 강구되어 정조 20년(1796) 11월 수원유수 趙心泰의 요청에 의거하여 신설에 필요한 재원을 총액 2만냥을 한도로 하여 영·호남 지방의 加分耗條 각각 3천 石을 劃給하여 조달하거나 정조21년(1797) 우의정 李秉

模의 건의로 부족분은 海西 水營의 군량미 2만 1천 8백여 石중에서 3,000石을 劃付하여 매년 耗條 300石으로 보충하게 되었다. 또 正祖 24년(1800) 1월에는 영화찰방 李元膺의 요청에 의해 華城留守府의 公貨 5,000냥 중에서 3,000냥을 매년 300냥씩 갚는 조건으로 10년간 대여받아 조달하였으며, 심지어는 남양 海門站, 안성 康福站이 僻路에 있어 사신왕래가 별로 없게 되자 두 역의 馬戶를 영화역에 移付하고 馬位田 收稅를 영화역에 옮겨 公用에 보충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다.

또한 화성의 直路에 撥站을 설치하여 왕명의 신속한 전달체계를 확립하였다. 正祖19년(1795) 3월 徐龍輔의 제의에 의하여 경영참에서 화성까지 75리 사이에 5개의 발참 즉 시흥참·안양참·사근참·화성관문참·원소참을 설치하고 ‘1將3卒’에 따라 발장과 발군을 배치하였으며 재정은 壯勇營에서 획급한 1만냥을 殖利하여 충당하였다. 그리고 각 발참에서는 假家와 布帳을 지어 임시 주정소로 삼아 각종 器用을 마련하여 수행원이하 군병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것이다. 원행에 필요한 역마 779여 필을 준비해야 했는데 司僕寺, 軍馬 및 경기도 중립역·도원역·양재역·연서역·평구역·경안역 등에서 차출되어 조달되었다.

이와 같이 현릉원 천봉과 화성 축성에 따라 수원지역은 교통사적 측면에 있어서 十字路의 건설, 游衡車 등 교통도구의 개발, 안면도·장산곶 등의 목재 운반에 따른 鷗浦의 해상운송 중심지 역할, 鷗浦와 華城을 연결 육상도로의 개설 및 확장, 과천, 시흥로의 개발로 서울 ~ 수원간의 新作路 확장과 만안교 등 교량건설, 그리고 이에 따른 지방도시 - 서울간의 상업경제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사람과 三南의 物貨이 流通되는 교통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현릉원 연구는 『朝鮮王朝實錄』이나 『園幸定例』 및 『園幸乙卯整理儀軌』의 자료에 局限되지 않고 『日省錄』, 『顯隆園謄錄』, 『幸行謄錄』, 『顯隆園幸行節目』, 『顯隆園園所都監儀軌』, 『遷園謄錄』, 『永祐園遷奉謄錄』 등의 儀軌類나 謄錄類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Abstract

# Hyunryungwon(顯隆園) wonhaeng(園幸) and Yukcham(驛站) in the late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Cho Byoung-Ro

Cheonjo(正祖) built a Hwaseong to make and defend a Hyunryungwon(顯隆園). To make his pilgrimage to royal tomb and to get a legitimacy of succession to the throne Cheonjo(正祖) had wonhaeng several times. especially Eulmyo Wonhaeng(乙卯園幸) had a celebrate Haekyunggung Hongssi(惠慶宮 洪氏) and Sadosaeja's(思悼世子) 61 birthday anniversary.

The aim and process of Wonhaeng to Hyunryungwon via Noryangjin, Siheung, Sakeunpyung, Hwasung haengkung by the Chungriso provision. When King go to the suburbs, the defence of the castle take charge of Hunryundokam, Keumyuiyoung, and euiyoungchung.

Yuju(留駐) consist of 訓練都監教鍊官(1), 別武士(2), 禁衛營教鍊官(1), 別武士(1), 書吏(1), 御營廳教鍊官(1), 別武士(1), 書吏(1), 前排軍(42), 大旗手(16), 燈籠軍(4), 御營廳帳幕軍(4), 訓練都監哨官(1), 中哨軍(122-旗鼓手, 旗摠, 隊摠, 銃手, 火兵, 卜馬軍 in Eulmyowonhaeng. These Wonhaeng used the road which decided Siheong route(始興路) and Kwacheon route(果川路).

In Wonhaeng the cross of the Han-river was important thing. they didn't use the Yongsun(龍船) and Bugyo(浮橋) which conventional type. they built a Jugyo(舟橋) to cross the river. moreover to deliver King's order rapidly, they built a Balcham(撥站) in Hwaseong.

Through the Hyunryungwon(顯隆園) Cheonbong(遷奉) and a Hwaseong

fortification, Suwon developed in traffic history-The bulding of four corners, the development of traffic means, bridge construction, road expansion. the development of commerce promote the traffic of Suwon.

Keyword : Wonhaeng route, Hyunryungwon(顯隆園), Hwaseong(華城) fortification, Jugyo(舟橋)

## 현릉원(顯隆園)과 용주사(龍珠寺)

박 천 우 (장안대학 한국사 교수, 본 연구소 연구위원)

머리말	1)용주사 창건
1. 현릉원과 능행(陵行)	2) 용주사 가람구성
1) 현릉원 천봉	3) 용주사 시설물
2) 응행의 의의	맺음말
2. 용주사	

### 머 리 말

현릉원(顯隆園)과 용주사(龍珠寺)는 조선후기 정조(1752~1800)의 효성으로 조성되고 건립되었다. ‘용릉’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가 고종 때 장조(莊祖)로 추존되면서 추봉된 능호이고, ‘현릉원’은 정조가 1789년에 양주 배봉산에 있던 묘소를 수원 화산(花山) 아래로 옮기며 올린 원호이다. 정조는 11세 때 아버지 사도세자가 불과 28세의 젊은 나이로 뒤주 속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리고 그 한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자랐다.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부친의 원혼을 위안하기 위해 3대 길지 중의 하나로 알려졌던 수원 화산 아래로 묘소를 옮겼다.

용주사는 현릉원의 능사(陵寺)로 1790년에 건립되었다. 절이 세워진 자리는 원래 신라 때 창건된 갈양사(葛陽寺) 터였다. 이곳이 천하제일의 복지(福地)라는 신하

들의 권유로 정조는 현릉원을 수호하기 위한 능침 사찰로 이 절을 창건하였다. 정조는 보경스님을 팔도도화주로 삼고 전 국민들로부터 받은 시주 8만 냥으로 4년간의 공사 끝에 1790년 절을 완공하였다. 용주사라는 이름은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는데서 유래했다.

정조는 인조반정 이래 정국을 주도해 온 서인세력 중에서 노론세력에 대한 반감이 골수에 사무쳤다. 조부인 영조가 노론세력에 의해 옹립되어 평생 그 그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부친 사도세자는 그 세력에 저항하려다 음모에 휘말려 왕세자의 몸으로 젊은 나이에 뒤주에 갇혀 생목숨을 잃었으니 정조의 원한과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현릉원과 용주사에는 왕에 오르지 못한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려고 한 정조의 적극적인 노력이 엿보인다. 즉 풍수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현릉원 자리가 있는 화산이 8백 개의 꽃봉오리로 둘러 쌓인 ‘화심(花心)’ 형의 산세임에도 불구하고 ‘반룡농주(盤龍弄珠)’의 형국이라고 억지에 가까운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용의 여의주를 상징하는 5개의 봉우리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현릉원의 석물도 왕릉에서 볼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였고, 곳곳에 왕을 상징하는 용과 봉황의 문양을 새겼다. 이는 능찰로 삼은 용주사도 예외가 아니다. 용주사를 기존의 사찰에서 유례가 없는 궁궐 형태로 건립하였다. 석조기둥·행랑채·난간을 만들었고, 대우석에 비운문(飛雲文)을 새기는 등 부친을 왕으로 추존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본 논문은 왕이 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한을 풀어주고 왕으로 추존하기 위한 정조의 의도가 용릉과 용주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sup>1)</sup>

1) 지금까지 용릉과 용주사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박광성, 「정조의 현릉원 전배」, 『기전문화연구』 10, 기전문화연구소, 1979.  
 하선영, 「수원용주사 후불탱화에 관한 연구-김홍도의 회화를 중심으로」, 청주사범대학 논문집 12, 청주사범대학교, 1983.  
 이흥구, 「현릉원 천봉과 정조대왕의 원행 효시」, 『기전문화』 9,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92.  
 이장영, 「정조의 불교관 변화와 불교 정책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논문, 1995.  
 천성철, 「용주사 벽화에 관한 고찰」, 『문화사학』 4, 문화사학회, 1995.

## 1. 현릉원과 능행

### 1) 현릉원 천봉

#### (1) 현릉원 천봉과정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후 영조는 이 일을 후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세자의 위호(位號)를 복구시키는 동시에 시호를 사도(思悼)라 내리고 세자빈을 혜빈(惠嬪)이라 했으며, 혜빈과 세손의 환궁을 명하였다. 그리고 양주 배봉산 기슭에 장례를 치르고, 묘호를 수은묘(垂恩墓)라 하였다. 정조는 세손 시절 묘소를 참배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1774년(영조 50)에 비로소 영조를 수행하여 수은묘를 전배할 수 있었다. 2년 뒤에 영조의 명으로 다시 묘소를 참배하였는데 이 때 정조는 정자각과 묘상을 살펴보고 상설 앞에 엎드려 옷소매를 적실만큼 오열하여 신하들의 만류로 겨우 환궁하였다.<sup>2)</sup>

영조가 1776년 3월에 83세를 일기로 승하하자 세손인 정조가 왕위에 올랐다. 즉위 직후 정조는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한 일에 일체 관련치 말라는 영조의 유지 때문에 사도세자에 대한 존호의 추상밖에 할 수 없었다. 즉 효장세자를 진종대왕으로 했고, 생부인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세자(莊獻世子)라 추상하였다. 그리고 사당을 세워 궁호를 경모궁이라 했으며 수은묘의 원호를 영우원(永祐園)으로 높였다. 그 뒤 1783년(정조 7)에 다시 사도세자의 존호를 추상하여 ‘수덕돈경(綏德敦慶)’이라 올리고, 얼마 후 그에 대한 의전 기록들을 모아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를 편찬하였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88, 일지사, 1997.  
 홍낙기, 「용주사 및 용릉의 문양 소고」, 『수원문화사연구』 창간호, 수원문화사연구회, 1998.  
 김경섭, 「용주사 상불회맹의 연구-김홍도 작설에 대한 재고」, 『강좌 미술사』 1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999.  
 김준혁, 「조선후기 정조의 불교인식과 정책」, 『중앙사론』 12·13합집, 중앙사학연구회, 1999.  
 성동식, 「현릉원 천원과 화성건설을 통해 본 정조의 풍수지리설」, 『한국사상사학』 17, 한국사상사학회, 2001.  
 최홍규, 「정조의 13차 현릉원 원행과 음민개혁」, 『정조사상연구』 4, 정조사상연구회, 2001.  
 2) 『正祖實錄』, 정조 13년 10월 己未.

다. 이어서 이듬해에는 ‘홍인경지(弘仁景祉)’라는 존호를 다시 추상하였다.<sup>3)</sup>

정조실록에는 정조가 아버지의 묘소 이장을 위해 진행했던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조는 즉위 후 매년 한 두 차례 영우원을 참배하였다. 현릉원이 조성되기까지 무려 18회나 참배한 것을 보아도 정조의 아버지에 대한 추모의 정을 알 수 있다. 영우원 참배 때마다 정조는 몸소 작헌례를 드리고, 묘역일대를 두루 살펴 보았다. 1783년(정조 7)년과 1786년(정조 10)에는 작헌례를 드린 후 재실에서 밤을 보내고 환궁할 만큼 생부에 대한 추모의 정이 매우 극진하였다.

특히 1786년(정조 10)에는 영우원을 돌아본 뒤 이곳의 지세를 자세히 살피게 하였다. 이때 금성위 박명원<sup>4)</sup>과 지사(地師) 차학모가 묘소에 흐르는 물줄기가 뒷산 기슭을 돌아 흐르고 지세가 좁고 불길하다고 하였다. 이때의 이심전심으로 후일 박명원은 배봉산이 흉지이므로 영우원을 천장할 것을 권하는 상소를 올린다.<sup>5)</sup>

즉위 초부터 이장할 뜻이 간절했던 정조는 이때를 계기로 숙원이던 아버지의 묘 천장문제를 공론화 시켰다. 1789년(정조 13) 7월 11일 정조는 2품 이상의 대신들을 희정당에 모이게 한 후 이 자리에서 박명원의 상소를 낭독케 하였다. 정조가 가슴이 막힐 정도로 울음을 삼키면서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자 대신들은 어느 한 사람도 천봉을 반대하지 못했다. 이 때 정조는 대신들에게 능이나 원으로 쓰기 위해 봉표해 둔 곳 중에서 3대 길지에 대하여 말하였다. 3대 길지는 영릉(寧陵), 건원릉의 오른쪽 등성이인 원릉(元陵), 그리고 수원읍이었다. 두 곳은 이미 왕릉이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정조는 수원으로 그 뜻을 결정하고 있었다.

“오직 수원읍내에 봉표해 둔 세 곳 중에서 관가 뒤에 있는 한 곳만이 전인들의 명확하고 적실한 증언이 많았고 옥룡자가 이른바 반룡농주의 형국이다. 그리고 연운(年運)·산운(山運)·본인의 명운(命運)이 꼭 들어맞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 하늘의 뜻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이름이다.”<sup>6)</sup>

이렇게 하여 수원읍의 화산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곳은 일찍이 윤강·윤선도·홍여박 등에 의해 능묘 후보지로 추천되어 왔던 최길지의 명당이었다. 정조는 천봉을 주관할 천원도감(遷園都監)과 원소도감(園所都監)을 설치하여 영의정 김익을 총호사 천원도감·원소도감의 도제조로 삼고, 서유린·이재간·정창순을 천원도감 제조로 삼았다. 김이소·정민시·이문원은 원소도감 제조로 임명하였다.

이어 같은 날 정조는 영우원의 천장과 비용에 관해 전교하였다. 특히 백성과 고을의 폐단을 생각하여 도감을 설치하기 위해 거동할 때까지 모든 신하들은 스스로 밥을 싸가지고 다니라는 전교를 내렸다. 정조의 애민사상을 엿볼 있는 부분이다.

7월 13일 정조는 화산의 새 묘소터를 둘러보고 온 영의정 김익·좌의정 이성원·우의정 채제공 등을 불러 묘소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들이 화산의 지세를 상세히 설명한 후 묘소를 계좌정향(癸坐丁向)<sup>7)</sup>으로 하여 안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다.<sup>8)</sup>

한편 화산은 수원부의 진산으로 영우원을 천봉하기 위해서는 화산 기슭 일대 용복면에 있는 수원부 읍치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조는 수원읍 소재지를 팔달산 밑으로 옮기고 광주의 두 면을 수원에 붙이도록 했다. 또한 천봉과 읍치 이전에 따른 수원부민들의 불편과 고충, 민심동향에 유념하여 대책을 하고하였다. 그리고 경기관찰사에 서유방과 수원부사에 조심태를 임명하여 이읍과 천봉작업에 따른 행정을 관장케 하였다.<sup>9)</sup>

새 능원의 산역은 7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다. 8월 9일 새 능침의 원호를 현릉이라 정하였다. 이는 ‘현부(顯父)에 융성하게 보답하는 의미’이다. 원호가 결정되자 현릉원 지문(誌文)이 문제로 떠올랐다. 정조는 지문을 지으려면 ‘모년사(某年事)<sup>10)</sup>를 불가피하게 언급해야 하는데 전례대로 지장(誌狀)에 편입하면 ‘차마 드러내지 못한 다’는 뜻과 어긋나므로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지 대신에게 물었다. 이때 영의정 김익(노론계)은 신중을 기할 것을 건의하였고, 서명선과 이재협(소론계)은 공개에

3) 최홍규, 「화성축조와 화성성역」, 『수원시사』, 591쪽, 1996.

4) 박명원은 정조의 친 누이동생인 화평옹주의 남편이다.

5) 『正祖實錄』, 정조 13년 7월 乙未.

6) 『正祖實錄』, 정조 13년 7월 乙未.

7) 계좌정향(癸坐丁向)은 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을 말한다.

8) 『正祖實錄』, 정조 13년, 7월 丁酉.

9) 『正祖實錄』, 정조 13년, 7월 己亥.

10) 모년사(某年事)란 1762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임오화변을 말한다.

찬성하였다. 채제공(남인계)은 당시의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적되, 공개는 미루자는 입장을 고하여 정조가 이에 찬동하였다.<sup>11)</sup> 이때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하여 임오화변 당시 사도세자의 구명을 고하다 유배당한 후 죽은 대사헌 한광조에게 ‘충정’이란 시호를 내리고 임오충신으로 표창하였다.<sup>12)</sup>

현릉원으로 이장할 때 소요된 총 경비는 184,600냥이었다. 쌀이 6,326석, 목면 279동, 베가 14동이었다.<sup>13)</sup> 정조는 현릉원의 모든 석물을 영릉(효종의 능)이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화했던 난간석을 제외하고 광릉(세조의 능)의 예에 따를 것을 하교한 후 정성을 다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고 현릉원은 합원이니 만큼 전후에 석물을 배설할 곳이 좁으므로 병풍석 이외의 석물은 광릉의 제도에 따라 혼유석 1좌, 장명등 1좌, 망주석 1쌍, 문·무석 각 1쌍, 양·말·호석 각 1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sup>14)</sup>

정조는 1789년 10월 11일(정조13) 수원부를 ‘송추지향(松楸之鄉)’이라 하여 수원 등 3읍의 백성들에게 유시하였다.

“이 고을의 화산은 원래부터 영기가 모인 곳으로서 그 형상은 서린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고 그 땅은 천리를 가다가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한 곳 이어서 원침으로 의논하여 정하고 드디어 천봉하는 예식을 거행하였다. 따라서 이 고을은 바로 나의 조상이 문혀 있는 고을이고 너희들은 이 고을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을 마치 한 식구처럼 여기면서 먹거리를 넉넉하게 하고 산업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생활에 안주하고 생업을 즐기는 방도를 알게 해줘야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나의 생각을 풀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그리고 수원 등 세 읍의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윤음을 유시하였다. 그 내용은 원소 부근의 면리 및 신읍치로 이사한 백성들에게 10년 동안 급복(給復)하고 새환자(還子)를 탕감하며 수보미(需保米)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하고 그 나머지는 돈으로 대신 받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면리에 1년 동안 급복하고 오래된 환곡 가운데

가장 오래된 3년 조는 탕감하고, 수보미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해주었다. 이는 현릉원 천봉과정에서 수고하고 애쓴 백성들을 위하는 정조의 지극한 마음이 담겨있는 조치였다.

또한 부로(父老) 가운데 온천의 행차를 재차 맞이한 자와 조관(朝官)으로 나이가 70 이상인 자, 서인 가운데 나이가 80 이상인 자에게는 가자(加資 : 정 3품 이상의 품계를 올리는 것)토록 하였다. 경내의 유생과 무사들에 대해서는 이듬해 봄에 설과하여 시취하고, 교속(校屬)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직을 제수하거나 조천(調遷)시키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과천과 광주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수원의 백성에게 버금가는 혜택을 주었다. 정조의 이러한 조치는 정조의 고심과 지성을 알고 힘과 마음을 합쳐 함께 원을 보호하면서 영원토록 변치 말자는 깊은 뜻과 배려에서 비롯되었다.<sup>16)</sup>

이러한 조치는 원행에 따라 불편을 준 읍민뿐만 아니라 도하(都下)의 공인(貢人)과 시인(市人)들에게도 베풀어졌다. 즉, 원소(園所)에 대령했다가 공물을 바친 공납인들에 대해서는 전부터 남아 있는 것 가운데 3천 석에 한하여 탕감을 해주되, 대령한 공납인들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탕감해주도록 했다. 또한 대여(大興)와 견여(肩輿)를 앞뒤에서 끈 군사들과 각 전의 시민들에 대해서는 요역을 20일에 한하여 면제해주고, 각 차비(差備) 시민들에 대해서는 10일에 한해서 면제해주고, 반인(泮人)들의 현방(懸房) 속전은 10일에 한해서 면제해주는 특별혜택을 내려 조정의 소중히 여기는 뜻을 보여주라고 하였다.<sup>17)</sup>

1789년(정조 13) 10월 16일 드디어 현릉원의 공역이 완공되고 안원전을 거행하였다. 이 날 정조는 원을 옮기는 일에 비용을 덜 들이고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 날 정조는 자신의 본의가 오로지 선왕의 뜻을 이어나가려는 ‘양술(仰述)’ 두 글자에 있음을 말하였다.<sup>18)</sup>

11) 『正祖實錄』, 정조 13년 8월 甲戌.

12) 『正祖實錄』, 정조 13년 8월 辛巳.

13) 『正祖實錄』, 정조 13년 10월 庚申.

14) 『正祖實錄』, 정조 13년 8월 己巳.

15) 『正祖實錄』, 정조 13년 10월 癸亥.

16) 『正祖實錄』, 정조 13년 10월 癸亥.

17) 『正祖實錄』, 정조 13년 10월 癸亥.

18) 『正祖實錄』, 정조 13년 10월 戊辰.

## (2) 현릉원의 특징

현릉원은 봉분이 하나이고 상석도 하나여서 단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헌세자와 그의 비 혜경궁 홍씨(경의왕후)의 합장릉이다. 정조는 팔달산에 올라 성 쌓을 터를 직접 살핀 뒤 화성의 축조에 대하여 하명하면서 현릉원의 자리에 대하여 직접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릉원이 있는 곳은 花山이고, 이 부는 柳川이다. 화(華) 땅을 지키는 사람이 요임금에게 세 가지를 축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華城이라고 하였는데 ‘花’와 ‘華’는 통용된다. 화산의 뜻은 대체로 8백 개의 봉우리가 이 한 산을 둥글게 둘러싸 보호하는 형세가 마치 花瓣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sup>19)</sup>

이처럼 현릉원의 형국은 화심형(花心形)이다. 화산의 중심인 씨방자리는 꽃이 개화하려고 중심부터 밀치고 난 다음 옆으로 꽃잎을 벌려주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용릉은 바로 그 화심에 자리하고 펼쳐진 사초지는 꽃잎에 해당한다. 밀치는 화심(씨방)의 힘을 혈(穴)이라는 구멍을 통하여 받으려는 것이다. 여주의 세종대왕릉과 서오릉의 덕종릉 및 이곳의 용릉은 꽃 모양의 왕릉들이기에 쌍릉을 피하여 단릉·합장릉의 양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화산이 사도세자의 묘소로 낙점 받게 된 이유는 이곳이 반룡농주(盤龍弄珠)의 형국을 지닌 최고의 명당지였기 때문이다. 용릉의 풍수형국이 분명히 화심형인데도 정조는 이곳의 풍수형국을 반룡농주형이라고 거의 고집에 가까운 주장을 하였다. 반룡농주형이란 한가로운 차림새(盤)의 용(龍)이 앞에 놓여있는 여의주(珠)를 희롱(弄)하는 모양을 말한다.

정조가 이곳의 형국을 반룡농주라고 선포해버리자 대신들은 이를 부정할 수 없었다. 영의정 김익은 앞산에서 여의주 봉우리를 보았다며 정조를 기쁘게 했다. 그래서 대신들은 용의 구슬의 형체와 디자인·조경문제를 의논하였고, 정조는 능의 좌향을 여의주 봉우리에 맞추어 잡으라는 말을 하였다. 현릉원 천장 당시 정조는

부근의 갈양사를 원찰로 지정하고 크게 중수하여 낙성식을 올리더니 그날 밤 여의주를 물고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며 갈양사를 용주사로 개명하였다.

실제 현릉원 앞에는 여의주 봉우리가 없으며 반룡농주형도 맞는 사실이 아니다. 정조는 선친의 묘를 천장한 이후 반룡농주의 지기를 더욱 보완하고자 현릉원 주위 다섯 군데에 여의주에 해당하는 인위적인 소봉을 만들었다. 그 소봉들의 위치는 세류동 비행장 안에 있었던 응봉, 만년제 가운데 섬, 조금고개 근처 논, 용릉 남서쪽, 현 용릉·건릉 재실 지나 건릉 입구에 있었다. 이중 용릉 남서쪽과 만년제 가운데 섬은 남아 있으나 나머지는 흔적이 없다.<sup>20)</sup>

지금 남아있는 용릉 남서쪽의 여의주봉은 자연봉우리가 아니라 인공물로서 그 옆에는 인공 연못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 연못의 형태는 특이하게 둥근 원모양의 형태이다. 동양사상에 따르면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 하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 모양’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땅에 연못을 팔 때 네모로 파고 그 안에 둥근 섬을 만드는 양식이 우리 나라 연못의 정형이다. 이는 하늘 기운을 땅그릇에 담는다는 맥락이기도 하다. 결국 둥근 연못을 만든 것은 여의주봉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 화성의 방화수류정의 용연 역시 이곳과 똑같은 원형 연못으로 반룡농주형에 대한 정조의 고집을 느낄 수 있다.

정조가 현릉원을 반룡농주형이라고 고집한 이유는 왕위에 등극하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였다. 용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릉원 천장 당시 여의주를 매김질하였다. 즉 풍수형국을 반룡농주형이라 고집하고, 현릉원 원찰인 갈양사를 용주사로 개명하였으며 앞쪽에 여의주 봉우리 다섯 개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화성의 창룡문, 용머리의 방화수류정, 용연, 유난히 용처럼 특이하게 뻗어가면서 축성시킨 동쪽 성벽들도 모두 같은 목적에서 조성된 것이다. 그리고 현릉원 문인석 금관에 다른 왕릉에서 보지 못했던 봉황을 그려놓았다. 용과 봉황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왕이 되지 못한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려는 정조의 강한 효심으로 보인다.<sup>21)</sup>

이처럼 정조의 특별한 배려로 조성된 현릉원은 어느 왕릉에 비할 수 없이 격을

20) 박천우, 『수원의 역사와 문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1997, 66쪽.

21) 박천우, 위의 책, 67쪽.

19) 『正祖實錄』, 정조 18년 1월 癸卯.

높게 만들었다. 현릉원 뒤쪽의 배산은 송림을 배경으로 하여 경사지 밑부분 3면에 곡장을 두르고 이 곡장 안에 봉분이 놓였다. 봉분 밑부분은 12각의 병풍석을 둘러 보호하고 병풍석의 중앙면석에는 12방위의 십이지신상을 해당방위에 맞게 양각했다. 이 십이지신상은 모든 방위의 외침으로부터 왕릉을 보호하라는 의미로 새겨 놓았다. 병풍석은 영릉(寧陵) 천봉 때 폐지하기로 했지만 정조는 병풍석을 만들었고, 난간석은 만들지 않았다.

봉분은 석호 4기와 석양 4기가 밖을 향하며 호위하고 있다. 석호는 능을 지키는 수호신이며, 석양은 사악한 것을 피한다는 의미와 함께 명복을 비는 뜻을 담고 있다. 추존된 왕릉은 일반 왕릉과 차등을 두기 위하여 석호와 석양의 수를 반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릉은 석호와 석양이 각각 2기씩이고 건릉은 각각 4기씩이다.

봉분 바로 앞쪽에는 상석 또는 혼유석이라 불리는 돌이 있다. 상석 아래에는 귀면 모양을 새긴 고석이 상석을 받치고 있다. 상석 좌우에는 망주석 1쌍이 있는데, 이 망주석에는 상상의 동물인 세호가 새겨져 있는데 세호는 밤에는 눈이 잘 보이기 때문에 뱀이나 새 등으로부터 봉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장명등 좌우에는 문인석 1쌍이 석마를 대동한 채 서 있고, 그 아래에는 왕이 위협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장검을 빼들고 서 있는 무인석 1쌍과 석마가 있다. 추존된 왕릉에는 무인석을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용릉에 무인석을 만들어 세웠다는 점과 봉분에 병풍석을 화려하게 조각하고 치장한 점 등에서 왕릉으로 승격시키고자 한 정조의 효심을 엿볼 수 있다.<sup>22)</sup>

봉분에서 무인석까지는 거의 평평한 지형을 이루다가 무인석부터 정자각까지는 심한 경사를 이루는데 이 경사진 부분을 사초지라 한다. 사초지의 끝부분에 정자각이 놓인다. 정자각은 제향을 지내는 건물이며 정자각 뒤편 서쪽에는 제향시 사용한 축문을 태워 묻는 방형모양의 석함인 예감이 있고 동쪽에는 비를 안치하기 위한 비각이 있다. 비각 아래에는 제기·제물 등을 준비하는 수복방이 있었으나 현재 복원되지 않고 초석만 남아 있다.

22) 박천우, 위의 책, 65쪽.

정자각 정면으로는 참도가 깔려 있고, 참도는 임금이 다니는 어도와 망인이 다니는 신도로 나뉜다. 용릉의 참도는 다른 능과는 다른 데 두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을 폭이고 그 아랫단 왼편에도 정자각까지 넓게 박석을 깔아놓고 있다. 참도가 시작되는 곳부터는 신성한 곳임을 알리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고 홍살문 오른쪽에는 왕이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절을 하고 들어가는 장소인 배위가 있다.

용릉이 다른 능과 다른 점은 첫째, 봉분이 장릉에서와 같이 모란·연화문을 새긴 병풍석을 두르고 있다. 둘째, 인석(引石)이 꽃봉오리모양을 하고 있다. 셋째, 장명등이 조선 전기의 팔각장명등과 후기의 숙종·영조 연간에 등장한 사각장명등의 양식을 혼합하여 구름무늬를 다리에 새기고 대석에 꽃을 새겨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고 있다. 넷째, 난간석을 생략하고 방위표시를 위해 꽃봉오리 모양의 인석에 문자를 새겨 넣었다. 다섯째, 추존된 왕릉임에도 불구하고 무인석을 만들어 세웠다.<sup>23)</sup>

용릉 석물의 특징 중의 하나는 병풍석·인석·장명등이 모조리 꽃 문양들로 치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용릉의 형국이 화산(꽃피)의 씨방인 화심에 자리하고 있기에 석물에도 꽃 문양을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조대의 문은 용성과 실학의 분위기까지 반영하고 있는 용릉의 석물은 19세기 이후의 능 석물(陵石物)의 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용릉에서는 능의 석인을 사실적으로 다듬어 가슴에 파묻혔던 종래의 목을 나오게 하여 답답하지 않으며 문인석의 조각도 종래까지 흔히 쓰던 복두(머리수건)대신 금관을 쓰고 있다.<sup>24)</sup>

## 2) 능행의 의의

정조는 재위하는 동안 현릉원 참배를 13회 실시하였다. 현릉원 외에 경기도에 산재한 왕릉참배도 60여 회 이상 실시하였다. 정조 재위기간 중 능행 횟수는 연 평균 3회로 조선의 역대 어느 왕보다도 능행을 자주 하였다. 정조는 능행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용릉이 조성되기 전까지 아버지의 원침인 영우원을 18차례나 참배하였

23) 한국문원, 『문화유산 왕릉』, 1995, 278쪽.

24) 박천우, 위의 책, 66쪽.

다. 특히 본격적으로 묘소를 옮기기로 한 1789년(정조 13)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무려 6차례 방문하였다. 영우원의 산역은 7월 하순부터 시작되었고, 수원 구읍치의 관아와 민가·묘소의 철거작업도 진행되었다. 그해 10월 4일 영우원을 떠난 영구는 10월 7일 화산에 도착하여 현릉원에 안장되었다. 현릉원에 새 원침을 마련한 후 정조는 1800년 1월까지 총 13회 참배하였다. 정조의 현릉원 참배는 짧게는 2박 3일에서 길게는 4박 5일이 걸렸다.

이처럼 정조는 1789년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현릉원을 방문하여 아버지에 대한 추모의 정을 표현하였다. 정조의 현릉원 참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고, 자신의 혈통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정조의 능행의 의의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능행을 통해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왕권강화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였다. 정조는 능행 때마다 자신의 능행이 선왕의 뜻을 계승하는 일환임을 강조하고 역대 선왕들의 행적을 참고하여 각종 조치를 내림으로써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 예로 1779년(정조 3) 여주의 영릉을 방문한 정조는 자신의 능행은 '열성조가 실천한 사례를 따른 것이며, 선왕들이 능행을 할 때마다 특은이 있었던 것에 따라 민정을 위로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1792년 광릉을 방문한 후 양주·포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성조의 사업을 계승하여 성조의 심(心)을 자신의 심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조가 역대 선왕의 능행 선례에 따라 업적을 계승함을 강조한 것이다. 1789년(정조13)에도 정조는 혜택을 베풀기에 힘을 쓰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선왕의 뜻을 이어나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sup>25)</sup>

정조는 특히 영조와 사도세자의 행적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1781년 정조는 영조가 경종의 세제로서 명릉을 참배한 1721년의 사적을 기록한 기념비를 세우고, 영조의 사적을 기록한 연서비각(延曙碑閣)을 방문하였다.<sup>26)</sup> 1791년에는 장릉을 참배한 후 영조가 1731년에 심은 잣나무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수식(手植)'이란 글자를

새겼다.<sup>27)</sup> 1790년 현릉원을 참배한 후 독성산성에 올랐는데 1760년에 사도세자가 숙소로 사용했던 운주당(運籌堂)에서 산성의 부모(父老)들을 불러 당시의 행적을 전해 듣기도 하였다. 진남루에서는 사도세자가 했던 것처럼 활을 쏘았다.<sup>28)</sup>

둘째, 능행을 통해 왕실이나 사대부가의 후손들을 관리에 임용하여 화합을 도모하였다. 정조는 능행 시 왕릉뿐만 아니라 대군·빈·옹주의 묘소도 참배하고, 그 후손들을 관리로 등용하여 왕실의 화목과 권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결국 자신의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있었다. 또한 방문하는 지역의 공신이나 문신의 사묘에도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관리로 임명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공적을 표창하였다.<sup>29)</sup>

셋째, 방문지의 서원이나 향교에 제사를 올리고 그 지역 공신·문신·선비들의 공덕을 기리고 학문을 권장하였으며, 별시를 통하여 문·무사를 선발하여 인재등용의 기회로 삼았다. 그 예로 정조는 수원의 향교를 자주 방문하였는데 1789년에는 유생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고 향교의 관리들을 위문하였다.<sup>30)</sup> 1795년에는 화성의 성묘(廟聖)를 참배한 후 새로 인쇄한 사서삼경을 하사하기도 하였다.<sup>31)</sup> 1798년에는 예조판서를 파견하여 석다례를 거행기도 하였다.<sup>32)</sup>

정조는 능행시 수차례 별시를 시행하였다. 문사 선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1797년 장릉과 현릉원을 방문하는 길에 거쳐간 10개 읍을 대상으로 유생을 선발한 행사였다. 이는 주로 지방의 유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빈흥과(賓興科)와는 차이가 있었다. 무사의 선발은 문사의 선발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1795년 화성행궁 안에 있는 낙남헌에서 56인의 무사를 선발하였다.<sup>33)</sup> 빈흥과에서 무사 선발이 단 2회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볼 큰 차이가 있다. 별시는 이처럼 실시 지역이 광범위하고 횡수와 인원이 훨씬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조는 능행을 수행한 군사들에게도

27) 『正祖實錄』, 정조 13년 2월 庚子.

28) 『正祖實錄』, 정조 14년 2월 辛酉.

29) 김문식, 「18세기 후반 정조 능행의 의의」, 『한국학보』 88, 일지사, 1997, 47쪽.

30) 『正祖實錄』, 정조 13년 10월 庚申.

31) 『正祖實錄』, 정조 19년 윤 2월 癸巳.

32) 『正祖實錄』, 정조 22년 2월 乙未.

33) 『正祖實錄』, 정조 19년 윤 2월 癸巳.

25) 『正祖實錄』, 정조 13년 10월 癸亥.

26) 『正祖實錄』, 정조 5년 8월 乙酉.

별시를 통한 승진의 기회를 주었다.

넷째, 정조는 능행길에 백성들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민정을 살피고 민원을 해결하는 민본정치를 실현하였다. 왕의 능행시 다수의 수행원을 거느리므로 행사의 규모, 복장 의장의 화려함, 국왕을 가까이 대면하는 점 등에서 백성들에게는 좋은 구경거리였다.<sup>34)</sup> 실제로 왕의 행차시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정조실록에서는 이들을 ‘관광민인(觀光民人)’이라고 묘사하였다.

능행길에 왕의 모습을 직접 본 백성들은 왕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하였다. 신하들은 이를 금하고자 하였지만 정조는 ‘백성은 모두 나의 적자이며 이들로부터 민정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허락치 않았다. 또한 왕을 보러 온 백성들이 통금 시간이 임박해 돌아가느라 생기는 혼잡을 막기 위해 통금을 임시로 완화하기도 하는 등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다.<sup>35)</sup> 백성들도 정조의 이러한 배려를 알고 왕이 능행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온갖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정조는 능행을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정조는 백성들의 다양한 민원을 직접 듣고 환곡의 이자나 군포까지 면제해주는 선정을 베풀었다. 나아가 직접 대면에 의한 민원 호소가 한계가 있음을 알고 상언·격쟁 제도를 활성화하였다. 백성들은 능행시 행렬의 앞에 엎드려 상언을 올리고, 북·징을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을 하였다. 정조의 능행시 총 3,355건의 상언·격쟁이 있었는데 정조는 환궁하는 즉시 이를 처리하였다. 정조는 능행을 ‘행행(行幸)’이라고 하였다. 이는 능행을 통해 방문지의 백성에게 ‘행’ 즉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다.<sup>36)</sup>

다섯째, 능행이 통과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발전하였고, 도시적 성장이 촉진되었다. 당시 한양은 상업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서울의 인구가 당시 30만 명을 웃돌았으며 이웃 군현도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개성이나 수원은 서울의 상권과 연결되어 새로운 상업도시로 발전하였다. 특히 1789년부터 수원 신도시 건설을 계획했던 정조는 1790년 현릉원을 방문하고 돌아

오던 길에 신도시 육성방안을 논의하였다. 1793년 수원의 이름을 화성으로 바꾼 뒤 수원부사를 화성유수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수원을 생산력을 갖춘 자급자족의 농업·상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화성 육성책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정조의 능행은 수도권의 방위상황을 점검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였다. 정조는 능행을 군사훈련의 기회로 삼았다. 국왕을 수행하는 중앙군의 무예를 단련시키고 서울을 방위하는 수도권의 경계상태를 점검하였다. 능행 시 정조는 전장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갑옷을 갖춰 입을 정도였다. 특히 정조 17년 1월에 화성에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였다. 장용영은 정조의 친위부대로 군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의 능행은 정치·경제·사회·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조는 능행을 통해 선왕의 유지를 계승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표출하였고, 직접 백성과 대면하여 민정을 살핌으로써 민본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결국 정조는 능행을 개혁정치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 2. 용주사

### 1) 용주사의 창건

용주사는 현릉원의 명복을 빌어주는 능사(陵寺)로 1790년(정조 14)에 창건되었다. 정조가 용주사를 창건하게 된 것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였다. 용주사에는 정조의 애뜻한 효심이 담겨있는 부모은중경판이 있다. 정조가 이를 간행을 하게 된 동기는 보경스님으로부터 들은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에 대한 설법 때문이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은혜 열 가지는 첫째가 아기를 배어서 수호해 주신 은혜, 둘째는 해산에 임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셋째는 자식을 낳고서야 근심을 잊으시는 은혜, 넷째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시는 은혜, 다섯째는 진자

34) 김문식, 위의 논문, 52쪽.

35) 『正祖實錄』, 정조 16년 2월 甲子.

36)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1996, 48~57쪽.

리 마른자리 가려 누이시는 은혜, 여섯째는 젖을 먹여 기르시는 은혜, 일곱째는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은혜, 여덟째는 먼길을 떠났을 때 걱정하시는 은혜, 아홉째는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감히 짓는 은혜, 열 번째는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말한다.

보경스님의 설법에 감동한 정조는 부친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절을 세울 것을 결심했다. 먼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옮겨 현릉원이라 하고, 보경스님을 팔도도화주로 삼아 옛 갈양사 터에 절을 짓기 시작하였다. 전 국민으로부터 받은 시주 8만 냥으로 4년간의 공사 끝에 1790년 절이 완공되는 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 정조는 절 이름을 용주사로 정했다. 용주사는 창건 때부터 규정소(糾正所)<sup>37)</sup>가 두어졌고, 팔로도승원(八路都僧院)을 두어 전국의 사찰을 통제했다. 또한 일찍이 31본산의 하나였으며,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로 60여 개의 말사·암자를 거느리고 있다.<sup>38)</sup>

## 2) 용주사 가람구성

용주사 일주문을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용주사 사적비, 왼쪽으로 강대련선사비가 있다. 삼문각을 들어서면 오층석탑을 앞에 둔 천보루가 있다. 천보루의 아래층은 모두 석조기둥을 쓰고, 2층 누각에 누마루를 돌렸다. 대체로 사찰에서는 목조기둥을 쓰는 것과 비교가 된다. 삼문은 독특하게 좌우로 행랑채가 있으며, 천보루 좌우에 ㄱ자형으로 연결된 나유타료와 만수리실이 있다. 용주사의 구조는 일반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구조이다. 용주사는 사도세자 현릉원의 재궁(齋宮)으로 지어졌고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궁궐에서 쓰는 건축기법을 많이 썼다. 특히 궁궐 건축에서 주로 사용되는 석조기둥이 천보루의 석조기둥에 나타나 있고 처마의 이음새·난간 등이 독특하게 나타나 있다.

용주사 장대석의 석축은 4개의 단으로 조성되었다. 첫 번째 단이 외삼문, 두 번

37) 규정소는 승려의 기강을 진작하고 승풍을 규찰하는 기구로 조선 중기 이후 시작된 제도이다. 전국 의 5 규정소는 용주사 외에 봉은사, 봉선사(양주), 개운사(남한산), 중흥사(북한산) 등이다.

38) 한국문화원, 『명찰』, 1996, 357쪽.

째 단이 천보루·나유타료·만수리실이다. 세 번째 단이 대웅보전이고, 네 번째 단이 시방칠등각(칠성각)·제각 등이다. 이러한 석축은 조선시대의 일반사찰에서는 거의 볼 수 없으며 적어도 궁궐이나 관청과 같은 국가공사에서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용주사 조영이 나라의 주관아래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sup>39)</sup>

천보루 동쪽으로 종루 벽면에 김정 목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친일 승려의 하나인 강대련<sup>40)</sup>이 주지를 맡고 있을 때 서울의 문인 묵객들이 와서 기념 휘호한 것들을 모아 판각해 놓은 것이다. 이후 강대련은 한용운 등에 의해 명고출송(鳴鼓出送 : 파계승의 비행을 적어 등에 붙인 다음 북을 치며 거리에 나가 뭇 사람들에게 환속당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중벌)까지 당하게 된다. 한때 강대련의 화려했던 단면을 보여주는 이 목판은 용주사를 찾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수행처로 삼고 있는 스님들에게도 두고두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는 선대의 색다른 유산이다.

대웅보전은 팔각지붕의 네 귀퉁이에 활주가 받쳐져 있으며, 정면 3칸의 목조건물이다. 특히 대웅보전 정면 계단 대우석의 비운문(飛雲文)은 일반 사찰의 연화문·당초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용릉 정자각 대우석·화성행궁 봉수당의 대우석과 똑같은 문양이다. 같은 시기에 같은 솜씨 같은 의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대웅보전 오른쪽에는 정조가 심었다고 하는 회양목이 한 그루 있다. 이 회양목은 천연기념물 제10호 지정되어 있다.

용주사의 상징적인 유물로는 부모은중경판이 있다. 목판 54매, 동판 7매, 석판 24매가 있는데 목판은 1796년 정조의 명으로 간행하였고, 동판과 석판은 1802년 순조가 하사한 것이다. 대웅보전 동쪽에 부모은중경판을 복각하여 건립한 은중경탑도 용주사의 정신을 보여 주기 위하여 최근에 건립한 것이다.<sup>41)</sup>

이밖에도 용주사에는 정조가 1796년 5월 손수 지은 불교식 가사체 「어제 화산용

39) 박천우, 위의 책, 70쪽.

40) 강대련(1875~1942)은 용주사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사에 오점을 남긴 인물이다. 1911년 용주사의 주지였던 강대련은 불교진흥회·조선사찰 30본산 연합사무소 등 친일 불교단체를 만들어 활동하였다. 1919년 10월 사이토 총독에게 효과적인 조선통치를 위해 일본 승려와 우리 나라 양반자제들과의 결혼 또는 우리 나라 승려와 일본 귀족간의 통혼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때부터 조선총독부는 조선불교 말살정책으로 승려들을 대처승으로 만들었다. 이와같은 강대련의 친일행각은 불문(佛門)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1) 한국문화원, 위의 책, 361쪽.

주사봉불기복계(御製 花山龍珠寺奉佛祈福揭)가 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로 백성을 깨우치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용주사 창건 당시 하사한 금동향로(지방유형문화재 제11호), 청동향로(지방유형문화재 제12호)도 보존되어 있다. 금동향로는 조선 초기에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이고, 청동향로는 왕실에서 사용하던 중국제 향로이다.<sup>42)</sup>

### 3) 용주사 주요시설물

#### (1) 삼문

절의 첫 입구인 일주문을 들어서면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삼문을 맞게 된다. 이 건물은 맞배지붕 양식이며 좌우에 행랑채를 지녔다. 동서의 옆문과 중앙의 대문에 각각 문이 나 있어 삼문이라 부른다. 삼문의 네 기둥은 상단부는 목재이고 하단부는 석재의 초석인데 유난히 높고 큰 편이다. 삼문 앞에는 화마를 물리친다는 석조 해태상 두 마리가 버티고 있다. 네 기둥에는 ‘용주사불(龍珠寺佛)’의 네 글자를 각각 첫 글자로 한 시구가 걸려 있다. 이것은 안순환의 글씨이다.

용이 꽃구름 속에 서리었다가  
 여의주를 얻어 조화를 부리더니  
 절문에 이르러 선을 본받아  
 부처님 아래에서 중생을 제도한다  
 용반화운(龍蟠華雲)  
 주득조화(珠得造化)  
 사문법선(寺門法禪)  
 불하제중(佛下濟衆)<sup>43)</sup>

#### (2) 천보루(天保樓)

천보루의 이층에는 앞뒤로 난간을 둘렀다.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양끝

의 처마가 날렵한 느낌을 준다. 천보루는 밖에서 불리는 이름이고, 안에서는 홍제루(弘濟樓)로 불린다. 같은 누각의 이름을 두 개로 부르는 것이 특색이다. 원래 천보루였으나 후대에 와서 홍제루라는 별호가 추가되었다. 천보루는 밖으로는 하늘(天)이 보호(保)하고, 안으로는 널리 백성을 제도(弘濟)한다는 뜻이다.

천보루의 건축양식은 사찰건축 이라기보다 궁궐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건물 명칭도 그러하고 궁궐과 같이 난간이 있으며 좌우로 연결된 나우타료·만수리실이 이를 말해준다. 용주사가 궁궐양식으로 지어진 것은 정조의 현릉원 참배시 행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의도도 있다. 또한 천보루의 석조기둥도 일반적인 사찰건축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주로 궁궐 건축에서 사용된다. 이를 보더라도 용주사의 창건이 왕실의 직접적인 후원아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3) 나우타료 (僧堂)와 만수리실(仙堂혹은 禪堂)

나우타료와 만수리실은 모두 외정으로 출입문이 나 있고 뒷마루가 부속되어 있어서 민가의 건축양식처럼 보인다. 나우타료는 승당인데 총 면적 86평으로 대중회의 때 사용하는 큰 방과 스님들의 요사가 있다. 실학자 이덕무(1741-1793)는 용주사의 여러 건물에 주련을 썼는데나우타료에는 이덕무가 지은 창건시가 아직도 남아있다.

‘부처가 바로 알지 못한 곳에 바로 이르렀어도 다만 이는 과정일 뿐이니 다시 부모미생전의 한 구절로 도를 시험해보세.’<sup>44)</sup>

만수리실은 선당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 객실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남아 있지 않으나 당시에는 이덕무가 지은 주련이 있었다.

‘도술궁 속에서 큰 계승을 말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반야대위에서 참된 법을 연습하여 무량겁을 초탈하네.’<sup>45)</sup>

42) 박천우, 위의 책, 71쪽.

43) 사찰문화연구원, 『용주사』, 1993, 84쪽.

44) 사찰문화연구원, 위의 책, 73쪽.

45) 사찰문화연구원, 위의 책, 74쪽.

#### (4) 대웅보전

대웅전은 부처님을 모신 건물이다. 법화경에서 석가모니를 부를 때 ‘대영웅 석가모니’라고 부르고, 줄여서 ‘대웅’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영웅 석가모니불을 모신 보배로운 전각’이라는 뜻에서 대웅보전이라 한다.

대웅보전의 주련도 이덕무가 지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팔만 사천 범문으로 다같이 피안에 이르고, 이백 오십 대계로 다함께 어두운 길에서 벗어나세’<sup>46)</sup>

대웅보전은 먼저 장대석을 쌓아 성역공간을 마련하고 중앙에 대우석을 설치한 6단의 계단을 두었다. 그런데 이 대우석에는 4분의 1 원형 표면에 비운문(飛雲文)이 새겨져 있고 북 모양의 막음돌에 삼태극 문양과 모란이 새겨져 있다. 이는 용릉 정자각 계단의 대우석과 동일한 양식으로 같은 솜씨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한다. 보통 사찰의 대우석은 연꽃·당초 문양으로 장식하는데 비해 용주사나 용릉 정자각의 대우석은 궁궐이나 왕릉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을 새기고 있어 정조의 의도를 짐작케 한다.<sup>47)</sup> 대웅보전은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사찰 건축양식을 지녔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형식으로 다포계 양식이다. 건물의 규모는 57평으로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장중한 위엄과 함께 산뜻한 조화미를 지니고 있다. 처마는 이중의 겹치마로 위로 약간 치솟았으며 그 네 귀퉁이에 활주를 세웠다. 문은 빗꽃 살무늬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처마에 고리가 달려 있어 문을 위로 들어 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예는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문을 활짝 올려 제침으로서 불전 내부의 성역공간과 외부의 세속공간이 차별 없이 하나로 합일되는 역할을 한다. 외벽의 3면에는 석가모니의 탄생설화를 벽화로 묘사하였다.<sup>48)</sup>

대웅보전 안에는 가운데 석가여래, 오른쪽에 동방약사여래, 왼쪽에 서방아미타불이 협시하는 삼세불이 봉안되어 있다. 높이 110cm, 재질은 목조로 1979년에 개

금하였다.

대웅보전 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세 분의 부처님 뒤에 있는 후불탱화이다. 당시 연풍현감이던 단원 김홍도를 불러 7일 동안 기도를 올린 다음 그리게 했다고 한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 불화의 평면적·도식적 기법과는 거리가 먼 과장 없는 인체비례, 사실적인 얼굴표현, 설채법 등이 더욱 돋보인다. 우리 나라 탱화 중에서 유일하게 서양화의 음영법을 도입하여 그렸다. 후불탱화는 세로 440cm, 가로 350cm의 비단에 채색한 거대한 불화로 1790년 절의 창건과 함께 만들었다.

이 후불탱화에 대해서는 단원 그림이 아니란 설이 있다. 대웅보전 단집에서 발견된 원문 중에 민관·상겸·성윤 등 25인이 탱화를 그렸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사제반서화조작등제인방함(本寺諸般書畫造作等諸人芳啣)』에는 단원 김홍도가 후불탱화를 그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미술사학자 최원수는 이 후불탱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탱화에 표현된 불보살 및 그 권속들의 얼굴 모습이 단원풍의 얼굴 모습들이다. 길쭉할 정도의 긴 윤곽에 큰 코와 우뚝 솟은 콧날을 가진 청수한 용모가 그것인데 이 얼굴 모습은 아마 단원 스스로의 용모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유연하고 날렵하게 젓혀지는 손목의 표현이나 그에 비해 무미하다고 할만큼 아무 변화 없이 미끈하게 처리하는 팔뚝 표현도 단원만이 가지는 인체 표현의 특징이며 세장한 손가락과 고운 발 땀시 역시 단원 인물화에서 보이는 품위 있는 표현법이다. 그리고 산들바람을 맞은 옷자락인 듯 유려하게 휘날리는 당풍세의 옷자락 표현이 또한 단원 인물화임을 말해준다.”<sup>49)</sup>

후불탱화 위로는 정교하고 화려한 단집이 있다. 천장에는 극락조가 날고 좌우에는 구름 속에 동자 모습의 비천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 각 기둥에는 다섯 마리의 용이 불단을 보호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넷만이 남았다. 이 하나 하나의 조각들이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여 다른 절의 법당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정조가 아버지의 혼백을 모시는 원찰인 용주사를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다.

불단·후불탱화·단집은 각각 불국토의 세계를 의미한다. 결국 이 셋이 조화를 이

49) 최원수, 『명찰순례』 1, 대원사, 1994, 320쪽.

46) 사찰문화연구원, 위의 책, 48쪽.

47) 박천우, 위의 책, 73쪽.

48) 사찰문화연구원, 위의 책, 48쪽.

루어 보다 넓은 공간으로서의 불국 세계를 상징한다. 불단 앞에는 괘불함이 있고 이 속에 괘불이 들어 있다. 괘불은 큰 법회나 야외법회 때 사용하는 의식용 불화이다.<sup>50)</sup>

### (5) 시방칠등각

시방칠등각은 대웅보전과 천불전 사이에 위치한 전각으로 칠성·산신·독성이 탕화로 봉안되어 있다. 시방칠등각은 다른 불교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독특한 불교신앙이다. 각각의 신을 모시는 전각이 별도로 존재(칠성각·산신각·독성각)하기도 하고, 삼성각이라 하여 세 신을 하나의 전각에 함께 봉안하기도 한다. 용주사의 시방칠등각은 세 신을 함께 모신 전각이다.

시방(十方)이란 동·서·남·북·동북·동남·서남·서북·상·하의 열 곳으로 무수한 부처님의 세계를 의미한다. 칠등이란 칠성, 즉 북두칠성을 가리키므로 시방칠등각은 결국 칠성각과 동일하다. 칠성탱화의 주존인 치성광여래는 가람을 수호하고 자손을 번영시킨다. 산신은 원래 불교와 관련 없는 토착신이지만 불교에 융화되어 가람을 지키는 호법신이 되었다. 독성탱화는 혼자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은 나반존자로 말세중생을 제도한다.<sup>51)</sup>

### (6) 지장전

저승세계를 상징하는 사찰의 건물을 명부전이라고 한다. 저승의 심판관인 시왕을 봉안하고 있어서 시왕전이라고도 하고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신다고 해서 지장전으로 부르기도 한다. 용주사에서는 지장전이라고 부르며 지장보살과 시왕, 판관 등을 봉안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석가여래 이후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몸을 육도에 나타내어 천상에서 지옥까지의 일체중생을 교화하는 대자대비의 보살이다. 자신의 성불을 미루면서 악도에서 해매거나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기까지 스스로가 성불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 보살이기에 대원본존이라고 부른다. 이 지장보살은 원래 천관을 쓰고 가사를 입으며, 왼손에는 연꽃을 쥐고 오른 손에는 보주를 든 모습

50) 사찰문화연구원, 위의 책, 51쪽.

51) 박천우, 위의 책, 74쪽.

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삭발한 머리에 석장을 짊고 여의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많다.<sup>52)</sup>

용주사 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을 올린 주심포식 건축물이다. 건물의 측면에는 도리가 노출되는 가구형식을 가졌다.

### (7) 범종각

서쪽의 범종각에 있는 용주사 범종은 국보 제120호로 봉덕사 신종(국보 제29호),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3대 범종 중의 하나이다. 종신에는 신라 제46대 문성왕 16년(845년)이라 새겨진 글씨가 보이지만 이는 일제시대에 음각한 것으로 보인다. 용주사 범종은 용뉴나 비천상·삼존상의 경직된 듯 하면서도 귀여운 모습들로 보아 고려시대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범종은 높이 145cm, 직경 86cm, 중량 1,500kg 되는 동종이다.<sup>53)</sup>

### (8) 법고각

법고각은 대웅전 왼쪽에 단칸 3평의 아담한 건물로 북이 소장되어 있다. 법고는 흥고라고도 하며 보통은 북이라고 한다. 북은 예불과 의식에 쓰이는 사물의 하나로 짐승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소리를 낸다. 또한 멀리 퍼져나가는 북소리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모든 사람에게 참다운 이치를 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북은 조석예불에 쓰이므로 대개 사물과 함께 보관하나 용주사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법고각과 범종각이 마주보고 있다.

사찰의 사물(四物)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지옥중생을 위한 범종과 축생을 위한 북, 물고기를 위한 천보루의 목어, 하늘의 조류를 위한 만수리실의 운판을 일컫는다. 이들은 함께 어우러져 중생을 지혜의 세계로 인도한다.

### (9) 지장전 뒤 5층 석탑

지장전 뒤에 전체 높이 4.5m의 화강암 5층 석탑이 있다. 보통 석탑이 가람의 입

52) 사찰문화연구원, 위의 책, 69쪽.

53) 최완수, 위의 책, 322쪽.

구나 법당 앞에 있는 것에 비해 이 탑은 용주사의 가장 뒤쪽에 자리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이전해온 것임을 말해준다. 지대석의 사방에 안상이 있고 체감률이 적은 모습 등 고려시대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 (10) 천보루 앞 5층 석탑

천보루 앞에 있는 5층 석탑은 1702년에 성정스님이 사리 2과를 담아 석탑에 안치했다고 전한다. 높이 4m로 전형적인 5층 석탑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옥개석 받침은 3단씩이고, 이것은 조선시대 탑파형식의 기본 양식에 속한다.<sup>54)</sup> 전체적인 옥개석의 체감은 비율이 작다. 상륜부는 연잎과 연봉으로 꾸며져 있다. 석탑 앞에는 이수가 있는데 두 마리의 용이 각각 여의주를 낀 채 서로 마주보고 있다. 탑의 사방에 높은 석주와 잘 어우러져 사리탑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이다.<sup>55)</sup>

## 맺음말

이상 용릉과 용주사의 구성과 창건과정 속에 담긴 의미, 각종 시설물의 특징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용릉과 용주사는 정조의 효심과 개혁사상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한을 가슴에 품고 자란 정조에게 왕릉의 규모에 해당하는 묘소를 조성하고 궁궐양식의 능찰을 창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더구나 왕이 되지 못한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기 위해 화심형의 현릉원 풍수형국을 반릉농주형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현릉원 주위에 여의주에 해당하는 5개의 봉우리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였다. 그리고 용릉의 남서쪽에 조성한 여의주봉 옆의 연못이나 방화수류정 아래 용연을 원형 연못으로 만들어 하늘의 기운을 담는 그릇을 상징하게 했다. 또한 화성의 동쪽 문을 창룡문이라 부른 점, 화성의 방화수류

정을 용머리 위에 짓고 용연을 조성한 점, 화성의 동쪽 성벽을 용의 꼬리 모양을 닮도록 축성한 점, 능찰의 이름을 용주사로 한 점, 용릉 문인석 금관에 봉황무늬를 새긴 점, 용주사를 궁궐양식으로 지은 점, 용릉과 용주사 곳곳에 용·봉황·비운문을 새긴 점등에서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기 위한 정조의 강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지극한 효심으로 완성한 현릉원 참배를 마치고 나면 정조는 쉽게 환궁을 하지 못하였다. 정조는 “지극히 슬픔이 속에 있으니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느냐”고 땅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수원을 떠나 환궁할 때 행차가 수원 북쪽에 있는 고개를 넘을 때면 한동안 부친의 묘를 볼 수 없음을 한탄하며 가다가 멈추기를 되풀이하여 그 행차가 너무 지지하였다. 정조는 “명일화성회수원 지지대상우지지(明日華城回水原 遲遲臺上又遲遲)”란 글을 지어 화성을 떠나기 싫음을 읊었다. 그래서 이 고개를 지지대 고개라 불렀다. 정조의 효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정조는 조선의 역대 다른 왕에 비해 능행을 자주 실시하였다. 정조의 능행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민본정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 또한 능행이 통과하는 지역에서 별시를 실시하여 문·무사들의 활로를 열어주고, 왕실이나 과거 공신들의 공적을 표창하고 그들의 자손을 등용하여 화합의 장도 마련하였다. 이들은 정조의 개혁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정조의 능행은 도시와 상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군사훈련의 실시로 군사력의 증대에도 기여했다.

정조는 노론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성리학적 체제에 환멸을 느껴 화산 아래로 아버지 묘소를 옮기고 구읍치를 팔달산 아래 지금의 수원으로 옮긴 뒤 화성을 쌓았다. 정조는 왕세자가 15세가 되는 1804년에 전위하고 화성행궁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생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세자 나이 11세인 1800년에 급서하여 아버지 사도세자 곁에 묻히고 말았다. 정조의 원대한 개혁정치는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사라졌지만 정조가 남긴 유·무형의 자산은 오늘날까지 귀감이 되고 있다.

54) 석탑의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옥개석 받침으로 알 수 있다. 즉 통일신라 때에는 옥개석 받침이 5개, 고려시대는 4개, 조선시대는 3개로 줄어들고 있다.

55) 사찰문화연구원, 위의 책, 87쪽.

## Abstract

# Hyunryungwon(顯隆園) and Yongjusa(龍珠寺)

Park Cheon-Woo

Hyunryungwon and Yongjusa temple was built by King Jeongjo(1752-1800) in Josun Dynasty. Jeongjo's father and mother were buried in Hyunryungwon. Jeongjo's father is Jangjo(1735-1762). He was a king in name only.

When jeongjo was 11, he directly saw his father's miserable death. Yongjo had Jangjo locked up in a rice box until he suffocated. Jeongjo grew hatred and longing in his mind. After he was a king, he had the grave moved to Hwasan in old Suwon and named the tomb Hyunryungwon. The tomb was renamed Yungneung when the prince was awarded the title of king.

Hwasan was recommended as a great place in Josun. The shape of Hwasan is the center of flower, but jeongjo insisted it the shape of Banroungnongju. Because the dragon meant king. He really wanted to raise his father a king. So he made 5 artificial hills. They meant Yeoeuju of dragon.

Hyunryungwon was built much like a regular royal tomb. It has a stone wall on the east, west and north and the base of the mound is reinforced with a stone hedged topped by stone flower buds that bear inscriptions indicating the compass points.

Yongjusa temple was built to protect Hyunryungwon in 1790. Yongjusa is very particular temple. It looks like a style of palace. It has stone pillar, quarter on both side of the gate, rail. They never can be seen

other temples. There are many patterns of dragon, phoenix and flying clouds in temple.

Hyunryungwon and Yongjusa were the center of Jeongjo's Hyo and reformation. If his reformation succeeded, our history might be changed. Although his great reformation failed because of his sudden death, his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have been exemplified until today.

This study was written to clarify King Jeongjo's intent that made his father a king in Hyunryungwon and Yongjusa temple.

Keyword ; Hyunryungwon, the shape of Banroungnongju, Yongjusa, a style of palace, Jeongjo's Hyo and reformation

## 현릉원(顯隆園)의 조성 화성방위체계(華城防衛體系)

장 필 기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 본 연구소 연구위원)

머리말	1) 장용영의 발전
1. 현릉원의 조성 2. 화성방위체계의 구축	2) 장용영 외영제의 구축 맺음말

### 머 리 말

1789년(정조 13) 永祐園의 遷葬계획에 따라 양주 拜峰山에 있던 思悼世子 묘를 수원의 花山에 옮김으로써 시작된 화성수축계획은 1793년(정조 17) 장용외영의 수월설치와 더불어 성곽과 행궁건설을 위한 화성수축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1794년(정조 18) 1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796년(정조 20) 10월 16일에 완성하였다. 이 시기 이러한 대규모의 국가사업이 행하여 질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영조를 이어 어려운 정세하에서 왕위를 계승한 정조는 무엇보다도 우선 왕권확립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세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조는 정국안정 논리에 앞서 우선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신변보호와 숙위체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였다. 이에 정조는

자신이 밝혀 온 의리탕평의 실현과정을 통하여 신변보호와 나아가 왕권안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숙위체제의 정비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기존 집권세력에 의하여 거의 장악된 三軍門 중심체제 속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강화책이 그렇게 쉽지 않은 않았다.

특히 삼군문 중심으로 집중되어 온 도성방위체계의 문제점이 노정됨에 따라 도성을 둘러싼 외곽방어에 더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정조는 진관체제의 복구와 오위체제의 환원을 군제개혁 방향으로 삼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도성중심의 집권노선세력으로부터의 탈피와 함께 왕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조는 장용위의 설치를 통한 친군위체제의 정비를 진행시키면서 이 같은 여건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재정보호에 주력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우원의 천장이라는 표면적인 시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지만, 이러한 시책의 점진적인 수행과정에서 화성건설의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정조대의 華城建設이나 華城防衛體系에 대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이 주로 사회·정치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더구나 화성건설과 더불어 이에 따른 화성방위체계와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sup>2)</sup> 따라서 여기에서는 화성건설의 또 다른 전제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 현릉원의 조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화성방위체계의 구축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李泰鎮, 「正祖代의 王權 強化와 壯勇營 經營」, 『朝鮮後期 政治와 軍營制 變遷』, 한국연구원, 1991.  
 崔洪奎, 「朝鮮後期 華城築造와 鄉村社會의 諸樣相」, 『국사관논총』 30, 1991.  
 \_\_\_\_\_, 「정조대 화성경영과 장용외영 문제 -특히 읍민대책과 관련하여-」, 『경기사학』 1, 1997.  
 裴祐晟, 「正祖年間 武班軍營大將과 軍營政策」, 『한국사론』 24, 1991.  
 유봉학, 「正祖代 政局 동향과 華城城役의 추이」, 『규장각』 19, 1996.  
 강문식, 「正祖代 華城의 防禦體制」, 『한국학보』 82, 1996.  
 장필기, 「정조대의 화성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재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998.

2) 이에 대해서는 앞의 유봉학, 장필기의 논문 참조.

## 1. 현릉원의 조성과 화성건설

화성건설은 1789년(정조 13) 永祐園의 顯隆園 遷葬과 함께 계획되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생부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할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조정 내외의 정국동향과 왕권의 위협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렇 즈음 錦城尉 朴明源의 상소로 인하여 천장이 결정되고 장지를 수원의 花山으로 택하게 되었다.<sup>3)</sup>

이때 화산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文義의 兩星山, 長湍 白鶴山, 光陵 達摩洞, 龍仁 獻陵내의 梨樹洞, 厚陵局內, 康陵 白虎坐, 加平 등이 거론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수원읍내의 봉표한 세 곳 중에 관가 뒤에 있는 화산을 택하였다. 이곳은 원래부터 나라에서 봉표해 둔 세 곳, 즉 弘濟洞의 寧陵자리와 健元陵 오른쪽의 元陵자리 그리고 수원 중에서 제일 길지라고 여겨 택하게 되었다.<sup>4)</sup>

길일이 정해지자 제일 먼저 수원 화산의 민생을 안정시켜 고을을 이전하여야 하였다. 이에 경기감사 趙鼎鎭과 수원부사 金魯永 대신에 이 책임자로서 신임이 두터운 徐有防을 경기감사로, 趙心泰를 수원부사로 각각 임명하는 한편, 조정에서는 이 일을 관장할 도감을 설치하고<sup>5)</sup>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이때 화산의 읍길 민호가 244호였는데,<sup>6)</sup> 이들을 위한 이전계획과 수원읍내 소재지에 대한 논의 끝에 팔달산 아래의 화성으로 결정하여 광주 소속의 일음면 등 두 고을을 수원으로 떼어 붙여 대도회로의 길을 트게 하였다.<sup>7)</sup> 이를 두고 일찍이 礪溪 柳馨遠은 팔달산 아래의 신읍지를, “산이 크게 둘러쳐져 있고 땅이 크게 평탄하여 판국의 맺힘이 심오하고, 규모가 평원하여 성을 쌓아 읍치를 이루면 참으로 대번진이 될 기상”<sup>8)</sup>이라고 하였다.

3) 『正祖實錄』 권27, 13년 7월 을미.

4) 『正祖實錄』 권27, 13년 7월 을미.

5) 앞과 같음.

6) 『水原下旨抄錄』 二·三, 己酉 7월 17·19일.

7) 『正祖實錄』 권27, 13년 7월 기해.

8) 柳馨遠, 『礪溪隨錄』 補遺, 郡縣制 水原都護府.

“北坪 山大轉地太平 結作深奧 規模宏遠 設治建城 眞是大藩鎮氣象也”

1789년(정조 13) 10월 현릉원의 공역이 완성되자, 정조는 “나는 원을 옮기는 한 가지 일에 대하여 오랫동안 경영하고 조치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비용을 덜 들이고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sup>9)</sup>고 하듯, 오직 이 사업을 위해 즉위 초부터 채용 마련과 민의를 끌어들이기 위한 여론조성에 진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원소 부근의 면리 및 이사한 백성들에게는 10년 동안 급복하고 새 還上를 탕감하며 需保米도 탕감해주었다. 더불어 수원 부로와 경내의 유생·무사들에게도 加資와 設科試取를 베풀고, 과천과 광주의 환곡·요역 등을 면제해 주는 위무책을 펼치었다.<sup>10)</sup>

나아가 수원 신도시에 대한 부흥책으로 수원의 상업경제를 진작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정조는 “새 고을의 소재지가 옛적 고을보다 더 낮게 되기 위해서는……그들로 하여금 힘껏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외에 다시 직접 장사하여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이다”<sup>11)</sup>고 하여 상업을 통한 수원 경제의 활성화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정조의 뜻에 부응하여 蔡濟恭은 새 수원의 경제도시화를 위해서는, 우선 길거리를 정연하고 뻑뻑하게 하여 전방들을 따로 짓고, 서울의 부자 20, 30호를 모집하여 무이자로 1천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게 한 뒤 몇 해를 기한으로 차차 나누어 갚게 한다면 새 고을의 도회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 고을 근방에 한 달에 여섯 번의 정기시를 서게 하여 세를 거두지 말고 장사만 허락한다면 사방의 장사치들이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전주나 안성 못지 않은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sup>12)</sup>고 하여 수원을 상업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자들을 이주시키고 시장을 옮기는 것은 楊州의 樓院 등 이전의 실례를 보더

9) 『正祖實錄』 卷28, 正祖 13年 10月 戊辰.

“子於遷園一事 積有所經營措設者 必欲不煩經用 不勞民力”

10) 『正祖實錄』 卷28, 13년 10월 계해.

11) 『正祖實錄』 卷29, 正祖 14年 2月 壬戌.

“新治之勝於舊邑……又使力作之外 更售手販之益 則將有比屋改觀之效”

12) 『正祖實錄』 卷29, 正祖 14年 3月 庚午.

“街巷櫛比之要 莫如別立廩房 今且募京師富人數三十戶 給無邊錢一千兩 就新邑相對起屋 使有賣買興利之樂 然後限幾年鱗次還納 則在朝家 別無所損 在新治 有成聚成都之漸……邑治旁近 命一月六場 雖一分銅 切勿收稅 只許交易 則四方商賈之聞風雲集 未必多讓於全州安城之盛 如此則居民自當樂生”

라도 도성의 塵房과 서로 방해가 될 염려가 있다는<sup>13)</sup> 조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러한 뜻은 1791년(정조 15) 신해통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어떻든 수원은 삼남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로<sup>14)</sup>이기는 하나 단시일 내에 계획대로 성취되지는 않았다. 이에 본 고장의 백성들 중 장사물정을 아는 자에게는 관청에서 장사 밀천을 빌려주기도 하고,<sup>15)</sup> 과거와 급복, 면세, 급료지급<sup>16)</sup>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수원 신도시의 활성화와 안정을 구가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어느 정도 안정된 기틀이 마련되자, 이제 서서히 수원의 방어문제에 대한 의논들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정조는 수원의 위상을 두고 “本府는 바로 나의 팔다리인 셈이고, 고을이 서울 부근의 큰 관방이 되는 데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sup>17)</sup>라고 하는 것이나, “조정에서 수원부를 도성의 5부처럼 보는 처지에 그 곳에 고통이 있다면 어찌 범연히 볼 수가 있겠는가…… 비록 다른 고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급대를 해야 할 터인데 하물며 본부이겠는가”<sup>18)</sup>라고 하듯, 수원에 대한 정조의 생각은 도성 이상의 그것이었다.

이 같은 정조의 뜻이 확고해 지면서 수원의 城池防禦와<sup>19)</sup> 이에 대한 축성논의가<sup>20)</sup>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성지방어는 독성산성과 서로 견제하면서 유사시에 협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sup>21)</sup> 우선 기존의 독성산성을 수축하게 하였다.<sup>22)</sup> 더불어 경기 좌방영을 독성으로 옮겨 설치하고, 중군이 겸하던 토포사도 이곳 방어사가 예겸하도록 하여<sup>23)</sup> 독성을 보강하는 한편 수원의 우익이 되게 하였다.

13) 『正祖實錄』 卷29, 14년 3월 경오.

14) 『正祖實錄』 卷30, 14년 5월 정유.

15) 앞과 같음.

16) 『正祖實錄』 卷30, 14년 4월 17일, 12월 갑인.

17) 『正祖實錄』 卷29, 正祖 14年 2月 丙寅.

“本府即吾股肱 郡爲畿輔大關防乎”

18) 『正祖實錄』 卷33, 正祖15年 8月 丙寅.

“朝廷之視水原府 如部內 凡有疾苦 豈可泛視乎……雖在他邑 猶當給其代 況本府乎”

19) 『正祖實錄』 卷30, 14년 6월 기미, 副司直 姜游 上疏.

20) 『正祖實錄』 卷32, 15년 1월 정유, 司直 慎基慶 上疏.

21) 『正祖實錄』 卷30, 14년 6월 기미.

22) 『正祖實錄』 卷36, 16년 10월 기사.

23) 『正祖實錄』 卷37, 17년 1월 경술.

그러나 이미 수원이 장용영의 외영이 되어 요새지로서의 중요함이 더욱 강화되자 다시 방어영을 철회하였다. 이는 남양부의 大阜·靈興 두 섬이 해로의 요충에 걸터앉아 해상방어로 볼 때는 요새지라 할 수 있으나, 남양은 본래 육군 영장을 두는 고을이므로 해상방어 요새지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호서의 여러 길에서 올라오는 육로는 陽城·平澤으로 나갈 적에 宮浦 아래쪽 및 唐津·沔川·大津의 위쪽을 경유하는 길은 수원을 거치지 않고 곧장 남양의 사잇길로 질러가며 安山·衿川을 모두 지나가게 되는데, 지역이 매우 평탄하고 막힌 곳이 없다. 그래서 남양부의 소재지를 동쪽 10리쯤 되는 楮八里의 鳩浦근처로 옮겨 방어요새지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방어사의 직책이 본래 한쪽 지방을 방어하는 것인 만큼, 이미 남양부가 충용청 전영으로 혹 급한 때를 만나면 충용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였다. 그러나 수원부가 강화됨으로써 이러한 필요성이 상쇄되어진 것이었다.<sup>24)</sup>

특히 관방문제와 아울러서 禹夏永 같은 이는 임진왜란이후 주요 방어요새로서 주목받아 온 독성산성의 물 부족과 지형적 협착에 따른 수비상의 어려움을 들어 이를 신읍으로 이속시키는 것이 화성의 방위와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보았다.<sup>25)</sup> 우하영의 이러한 화성방위론은 논의 그 자체로서만 끝나지 않고, 실제 화성 건설과 화성의 대도시화에 많은 이론적 뒷받침이 되기도 하였다.

정조는 수원부가 “일의 중대성이나 수도방위의 요새지”<sup>26)</sup>인 점을 들어 관직제도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조17년 1월에 그 호칭을 華城으로 바꾸고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켜 장용외사와 행궁정리사를 겸임하게 하였다.<sup>27)</sup> 특히 수원을 화성이라고 이름한 데에는 현릉원이 있는 花山과 관련하여 ‘花’와 ‘華’가 통용되는 것에서 그렇게 지은 것이었지만,<sup>28)</sup> 이것을 통하여 보더라도 정조의 수원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안산군을 수원에 이속시키는 등 화성의 경계확대를 진행시켰다.<sup>29)</sup>

24) 『正祖實錄』 권37, 17년 3월 을묘.

25) 禹夏永, 『觀水漫錄』 下, 關防制置三策.

26) 『正祖實錄』 권36, 16년 12월 기묘.

“教曰 水原府使官制釐正 爲所重爲保障 在所不已”.

27) 『正祖實錄』 권37, 17년 1월 병오.

28) 『正祖實錄』 권39, 18년 1월 계묘.

29) 『正祖實錄』 권37, 17년 1월 정미.

이러한 성지방어논의를 거친 뒤 1793년(정조17) 5월 당시 수원유수였던 채제공에 의하여 築城方略이 거론되어졌고, 정조는 이에 대한 뜻을 굳히게 되었다. 그러자 조야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였는데, “읍기가 평야에 자리잡아 비상시 사면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게 되므로 그 형세가 축성에 부적합하다.”<sup>30)</sup>는 논의까지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옛날부터 중국의 성지는 모두 평야를 이용하여 성벽을 쌓았지, 산계의 험로를 따라 쌓지는 않았다 하고, 이에 산성이 대부분인 우리 지형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그렇다고 전제하였다. 더불어 축성은 일시적 편부를 떠나서 시행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효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원은 留陣 甲兵과 民物이 성하여 전통적으로 한수 이남의 大營軍陣이 설치되었던 곳인 만큼 축성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10년 계획으로 화성신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축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은 대개 茶山 丁若鏞이 지어 올린 水原城規制에 나타나고 있는데,

화성 성역은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일이 번잡하고, 시기가 어려운 때인데 일을 크게 벌여 성상께서 노심초사하고 계시지만 조정의 의논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오직 처음 시작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하므로, 신이 삼가 전에 들은 것을 간추려 외람되나마 어리석은 한 견해를 올립니다.<sup>31)</sup>

라고 하여 첫째는 分類, 둘째는 材料, 셋째는 壕塹, 넷째는 築基, 다섯째는 伐石, 여섯째는 治道, 일곱째는 造車, 여덟째는 城制<sup>32)</sup>를 들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조야의 논의와 어려움 속에서 정조는 채제공과 조심태를 중심으로 화성신축을 서두르게 되었고, 그 공역의 기한을 대략 10년 정도로 잡았다. 이에 대해 조심태는 ‘대략 10년의 기한을 잡았으나 재화를 갖추고 기구를 갖추어 공장을

30) 禹夏永, 『千一錄』 卷4 觀水漫錄 上篇, 築城方略.

31)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10 詩文集 說, 城說.

“華城之役 費鉅而務繁 時絀而舉 聖念憂勞 廟議岐貳 第 惟經始之初 商確宜密 臣 謹撫舊聞 猥貢愚一見”.

32)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10 詩文集 說, 城說.

모으는 일을 명하다 보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sup>33)</sup>고 그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성역에 대한 정조의 애착<sup>34)</sup>과 전력투구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한지 단 2년 10개월 만인 정조 20년 10월에 완공을 보았다. 이런 놀랄만한 공기단축은 바로 정조의 결집된 왕권신장의 한 표상이기도 하였다.

화성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蒼龍門, 華西門, 八達門, 長安門을 4대문으로 두고 華虹門과 南水門 등 2개의 수문, 暗門, 敵臺, 弩臺, 空心墩, 烽墩, 雉城, 砲樓, 舖樓, 將臺, 角樓, 砲臺 등으로 축성되어졌으며, 이중 포루, 공심돈, 노대 등은 다른 城制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조물들이다. 또 성축은 높은 언덕과 야산부분에서는 성의 외변을 깎아 내리어 비상시 외적방어에 유리하도록 설계하였다.<sup>35)</sup>

이 같이 내·외성의 이중성을 강조한 까닭은 임진왜란 당시 각 도성의 함락이 대부분 축성의 허실에서 나왔음을 들어, 그 축조방안을 외성이 내성을 둘러싸는 형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물자확보<sup>36)</sup>의 어려움은 土築·石築과 함께 灰를 이용하는 축성법으로 재정절감과 방어의 유용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화성의 규모는 총 연장이 4,600보로 산상부분이 2,944보 4척, 평지부분이 1,019보 4척 그리고 여기에 각 문루와 포루의 635보 4척이 포함되었다.<sup>37)</sup>

이와 같이 이루어진 화성의 내·외성 축조는 관방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원군의 신도시 건설이라는 시대적 여건에 부응한 정조의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수행된 대역사였다.

축성의 재정적 뒷받침은 주로 충용청과 수어청의 停番錢으로 충당하였다.<sup>38)</sup> 그 밖에 各道加分 錢·京畿會簿米 등 각 도와 국고의 보조재정<sup>39)</sup> 및 각종 재원으로 충당하였다.<sup>40)</sup>

33) 『華城城役儀軌』卷1 筵說, 癸丑 3月 10日.

34) 『華城城役儀軌』卷1 啓辭, 癸丑 12月 6日.

당시 정조 스스로도 국내의 고금의 城制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여 화성축성의 계획과 실행에 치밀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명감까지 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5) 『華城城役儀軌』卷首, 圖說.

36) 趙炳魯, 「18세기 華城城役의 物資確保와 運送實態」, 『경기사학』 창간호, 1997.

37) 『華城城役儀軌』卷首, 圖說.

38) 『華城城役儀軌』卷1 啓辭, 癸丑 12月 6日.

또 성읍을 일으키는 데에 백성을 괴롭힐 수 없다하여,<sup>41)</sup> 부역노동 대신 고가를 지급하는 실업구제책<sup>42)</sup> 펼치는 결과가 되어 이 기간 전국의 유이민들이 수원으로 집결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화성성역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머물게 되어 수원 인구증대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sup>43)</sup>

아울러 화성을 중심으로 민생안정과 상업진흥을 꾀하고자 도성의 부호들과 각처의 방민들을 유치하여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하였다.

우하영이 주장하는 수원 신도시화의 전제조건에 따르면, 수원부의 민호 1만 5천 호 중 病·獨 등 虛戶를 제외하면 實戶는 불과 수천 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실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으로 부계의 새로운 편성을 주장하였다.<sup>44)</sup> 이에 따라 직산·안성·남양의 3읍 7면을 수원부에 편입시키는 한편, 부내의 어려운 침정을 각 읍면에 이속시키고, 그 대신 해당 읍면의 신역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 부내의 새로운 토지 분등과 전부의 경감문제를 제안하여 민생의 안정을 강조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군량비축과 糶糴의 실효성을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邊城은 15만 명이 2년 간 먹을 수 있는 儲置米를 비축하는 것이 상례인데, 화성이 비록 변방과는 다르다고 하나 도성의 지척에 있으면서 중요한 군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만 명의 군인이 적어도 3·4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향

39) 화성의 城役 및 物役과 관련하여 획급한 것과 꾸어 온 것, 도로 갠야 할 것 등을 조목별로 구획한 別單을 보면 다음과 같다(『正祖實錄』 권43, 19년 7월 갑자 참조).

劃給錢		借錢		要償還錢	
平安兵營	2만냥	壯勇營	25만냥	壯勇營	25만냥
關西小米作錢	2만5천냥	均役廳	30만냥	均役廳	30만냥
本府記簿	1만6천냥	御營廳	4만냥	御營廳	4만냥
各道乙卯加分耗條8천석	2만4천냥	禁衛營	4만냥	禁衛營	4만냥
嶺南兵營別備	2만냥				
畿營別備	2만냥				
完營別備	1만5천냥				
계	13만냥	계	63만냥	계	63만냥

40) 『華城城役儀軌』卷5 財用上, 區劃.

41) 『正祖實錄』 권40, 18년 7월 병신.

42) 『正祖實錄』 권41, 18년 10월 계유.

43) 유봉학, 「正祖代 政局 동향과 華城城役의 추이」, 『규장각』 19, 1996.

44) 禹夏永, 『觀水漫錄』下, 民人募聚之策.

을 비축해야 하였다. 더구나 부민의 자활과 소득증대라는 측면에서 상업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상품화폐경제의 증진을 도모하거나,<sup>45)</sup> 부내에 둔전을 완성시켜 각 민인과 府吏·軍校 등에게 분급하여 생업 보장을 해 주도록 그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46)</sup>

이러한 뜻은 정조의 일련의 정책 즉, 신해통공을 통한 금난전권의 혁파, 南人慰撫와 老論懷柔策 등을 통한 지역차별 철폐, 서얼허통, 노비속안 폐지,<sup>47)</sup> 문체반정을 통한 정치개혁 등과 함께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써 정조의 왕권안정책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정조가 온 심혈을 기울여 축조한 화성성역은 현릉원의 조성과 화성 행궁을 호위하기 위한 명목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조왕권의 강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더불어 정조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해 준 것이 바로 장용영이었다.

## 2. 화성방위체계의 구축

### 1) 장용영의 발전

장용영은 본래 정조 즉위초 왕의 신변보호와 숙위체제의 정비를 통해 마련된 친위군영으로서, 처음에는 壯勇衛라 하였다. 장용위는 오위의 한 위를 본 딴 것으로 3부를 두지 않고 5司를 설치하여 내영과 외영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중국의 남방군제인 浙江兵法을 본 뜬 것이었다. 이때 선발된 군사들은 內禁衛의 局出身 선발예에 따른 取才 혹은 出身·武班家子弟·善騎者·技藝者들이 주로 충원되었다.<sup>48)</sup>

45) 『正祖實錄』 권46, 21년 2월 기사.

정조는 축성이 끝난 뒤 수원부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비변사에서 올린 '華城富戶帽蓼節目'을 통해 수원경제의 부흥과 안정을 꾀하기도 하였다.

46) 『正祖實錄』 권43, 19년 11월 갑인.

47) 『正祖實錄』 권37, 17년 12월 기사.

48) 『正祖實錄』 권37, 17년 1월 병오.

장용위는 馬·步軍 3哨 정도의 호위친병이었지만, 이를 더욱 구체화시키고자 1788년(정조 12)에 2초를 더하여 하나의 군영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壯勇營이라 칭하기 시작하였다.

장용영 내영은 본래 도성의 전사 5초와 중사 5초 및 고양·파주·지평·양근(가평)·양주의 후사 5초 등, 모두 3사 15초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1795년(정조 19)에 수원을 중심으로 인근 8개읍에 해당하는 진위·양성·용인·광주·안산·과천·시흥 등의 8초와 양주·장단의 2초 등 10초를 더하여 5사 25초 체제로 1영을 구성하게 되었다.<sup>49)</sup>

이때 더해진 10초는 대개 경기 향군으로서 수어·총용청의 기간병이었다. 이들 향군은 장용영 내영의 기반으로서 정조 12년~17년에 이르는 동안 3사 15초의 편제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는 1영을 만들 수 있는 25초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良丁搜括의 어려움으로 계속 미뤄져 오다가 이에 금위영의 향군 125초에서 각 초마다 正軍 및 官保, 資保를 각각 약간 명씩 털어내어 장용영에 보내는 동시에 나머지 10초를 채워서 1영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강 남·북쪽의 옛 대오와 새 대오를 골고루 배치하여 전후좌우로 고기 비늘 형태의 초를 만들고 京軍 中司와 합쳐서 5사의 편제에 맞추게 되었다. 이때 떼어 받은 정군은 한강 남쪽의 과천·시흥·용인·양성·진위·안산 등지의 각 1초와 광주의 2초 등 8초, 한강 북쪽의 양주와 장단에 각각 1초를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고을 소재지에 군포를 납부하도록 하고 良軍을 중심으로 정예화 하는데 힘썼다. 따라서 전·후·중·좌·우의 5사체제에 따라 전사는 소재지의 5초를, 후사는 양근·가평·지평·양주·장단의 5초를, 중사는 경군의 5초를, 좌사는 광주·용인·진위·양성의 5초를, 우사는 시흥·과천·안산·고양·파주의 5초를 각각 소속하도록 하여 이를 고리처럼 연결해 에워싸게 함으로써 서로 협수하는 형세가 되도록 하였다.<sup>50)</sup>

이들이 장용영으로 이속됨에 따라 수어·총용 양청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어, 수어청은 도성의 본청을 혁파하는 대신 광주유수가 수어사를 겸하게 되었고, 총용청 또한

49) 『正祖實錄』 권42, 19년 5월 을해.

50) 『正祖實錄』 권42, 19년 5월 을해.

그 편제를 5초에서 4초로 축소 개편함<sup>51)</sup>과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는 결국 경기 번상군을 주대상으로 하는 총·수 양청의 군사와 재정을 장용영체제 확립에 이속시킴으로써 정조가 의도하는 바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1793년(정조 17)에는 다시 그 조직체계를 확대 개편시킴으로써 도성중심의 내영과 화성 중심의 외영으로, 명실공히 정조대 최대 군영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되었다.

장용영 외영제는 1793년(정조 17) 수원부를 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壯勇營內外營新定節目’<sup>52)</sup>에 따라 장용영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로써 “장용영의 설치는 오로지 행궁을 위한 것이므로, 외영이 주인이고 내영은 附庸”<sup>53)</sup>이라고 하듯, 장용영 체제는 이제 외영체제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로부터 기존의 화성방위체계는 크게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본래 화성의 군대는 <표 2>와 같이 유수부 승격 당시의 別驍士·馬兵·束伍軍 등 총 32초 747인에 불과하였다.<sup>54)</sup>

<표 2> 초기 화성군대의 편성

別驍士	馬兵	束伍軍	各色 標下軍	輜重軍	計	備 考
2초	4초	26초	547인	200인	32초 747인	

이러한 군대의 편성은 장용영 외영제의 확대 개편과 더불어 마·보병에 대한 개편작업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壯別隊로 불리운 화성의 마병<sup>55)</sup>은 친군위체제로 재편되면서 좌열과 우열로 나뉘고 각각 100인씩의 마병이 소속되도록 하였다. 이들에게는 훈련도감의 예에 따라 제주마 1필과 官保·資保 각 1인씩의 봉족 2인이 배정되었다.<sup>56)</sup>

51) 『正祖實錄』 권42, 19년 6월 병술.

52) 『正祖實錄』 권37, 17년 1월 계미.

53) 『園幸定例』傳教, 丙辰 2月初7日.

“壯營之設 專爲行宮 則外營爲主人 內營爲附庸”.

54) 『正祖實錄』 권37, 17년 1월 기미.

55) 『正祖實錄』 권38, 17년 7월 갑진.

56) 『正祖實錄』 권38, 17년 9월 갑인.

또한 보병은 기존의 속오군 26초 중 정예한 13초의 良丁을 선발하여 정군으로 삼고, 나머지 13초는 봉족으로 삼으며, 별효사는 別軍官으로 그 명칭을 고쳐 200인의 정원 중 100인만 남겨서 좌·우열로 편성한 뒤 유수영에 직속시켜 뒤를 차단하는 임무를 맡도록 하였다.<sup>57)</sup>

이와 같이 1793년(정조 17)에 일차적으로 정비되었던 화성방위체계는 다시 ‘華城協守軍制度’<sup>58)</sup>로 재편된다. 이 체제는 城池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 송도, 강화의 예와 같이 협수군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화성에 가까운 용인·진위·안산을 포함시켜 각 고을의 수령들을 協守將으로 삼은 뒤, 위급시 그 경내에 있는 수어·총용청의 속오군을 揀卒로 정하여 화성을 함께 방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용인현령을 東城, 진위현령을 南城, 안산군수를 西城의 協守哨官으로 각각 정하였다.

협수 군졸은 용인의 수어청 속오군 5초, 진위의 수어청 속오군 3초, 안산의 총용청 속오군 4초로 구성되며, 이 외에 성 부근의 사대부와 백성들에게도 평시의 조련 때에 信地를 알려 주어 위급할 때에는 즉시 입보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협수체제는 1797년(정조 21) 화성유수 徐有隣의 계청에 따라 총용청 남양방영에 소속되어 있던 시흥과 과천을 각각 북성협수장과 通衢遊兵將으로 포함시킴으로써<sup>59)</sup> 화성방위체계는 비로소 5읍 군현에 의한 협수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성중심의 장용외영군은 42초의 대군영을 이루어 이제 최대의 군영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 군사적 위상도 삼군문 못지 않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 나아가 ‘華城進軍制協守追節目及守城節目’<sup>60)</sup>을 제정하여 화성협수체계를 보다 더 구체화시켰다. 즉 각 속읍의 군사 수에 따라 장정 7초를 만들고 여기에 화성 경내의 입방군 13초를 더하여 1영 4사를 만든 다음 이를 전·좌·우·후의 각 사마다 5초가 되게 하였다. 나머지 22초의 인원은 그 원근을 고려하여 협수군으로 삼되, 용인·진위·안산·시흥은 각각 동·남·서·북문을 협수하고, 과천은 유병으로서

57) 『正祖實錄』 권38, 17년 8월 기축.

58) 『正祖實錄』 권42, 19년 5월 을해.

59) 『正祖實錄』 권47, 21년 9월 경인.

60) 『正祖實錄』 권47, 21년 12월 을축.

협수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이로써 화성방위체계는 수원을 둘러싼 군현이 마치 “물고기 비늘같고 머리 빗같이”<sup>61)</sup>되어 수원중심의 環狀協守體系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1798년(정조 22)의 ‘外營附近五邑軍兵合屬節目’<sup>62)</sup>에 의하여 五衛 屬五衛 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 2) 장용영 외영제의 구축

장용영 외영제는 1795년(정조 19)의 화성협수제도에 따라 용인·안산·진위의 세 고을로 화성을 협수하도록 만든 군제로서, 각각 그 경내에 있는 수어·총용청의 속오군을 塚卒로 정하여 협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용인과 진위의 수어청 속오군 각 5초와 3초, 안산의 총용청 속오군 4초를 화성으로 옮겨 소속시켰다.

기존의 용인·안산·진위군 외에 1797년(정조 21) 9월 총용청 소속이었던 시흥과 과천을 수원부에 예속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수원은 안산·용인·진위·시흥·과천의 사이에 위치하게 되어 사면으로 감싸 호위되는 협수처가 되었다. 이 같은 협수체계의 마련은, “대개 서로 빙 둘러싸고 수레바퀴와 덧방이 서로 도와주는 것과 같이 하려는 취지”<sup>63)</sup>에서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안산·용인·진위 등 세 고을의 협수군 12초와 시흥·과천의 속오군 5초, 안산·시흥의 壯哨 2초, 용인 등 세 고을의 수어청 아병 8초 등 총 27초로서 장용영 외영에 소속시켜 1영이 되게 하였다.<sup>64)</sup>

같은 해 12월에 이를 더욱 세분하여 군제를 개정한 ‘協守軍迫節目’을 통하여 入防과 司哨의 규식 및 협수와 兼把總의 제도를 정하여 에워싸 보호하고 막아 지키는 방도가 犄角之勢를 이루도록 하였다. 더불어 이속 5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파총을 겸임케 하여 협수군에 소속된 성정군 이외의 入防軍·牙兵·遊兵 등을 절제하도록 하였다.<sup>65)</sup>

61) 『正祖實錄』 권51, 23년 4월 무술.  
“環華城四五郡縣之移管於外營 如鱗比而毛櫛 卽有周之盛典也”.  
62) 『正祖實錄』 권49, 22년 10월 기유.  
63) 『正祖實錄』 권46, 21년 1월 경오.  
“蓋出於環連拱抱輔車相須之意也”.  
64) 『正祖實錄』 권47, 21년 9월 경인.  
65) 『正祖實錄』 권47, 21년 12월 을축.

이렇게 하여 다섯 속읍의 군정들은 비록 서울의 각 營이나 각 司에 소속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장용영 외영에 소속하도록 하여<sup>66)</sup> 화성부의 군제를 정비 강화시켰다.

정조는 이러한 화성의 군제를 주나라의 井田制度에 따른 伍兵과 兩兵에 비겨, 물고기 비늘과 머리 빗같이 질서 정연한 군대조직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sup>67)</sup>

장용영 외영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1798년(정조 22)의 ‘五邑軍兵合屬節目’<sup>68)</sup>에 따르면, 1793년(정조 17)에 수원부를 유수영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보군 26초 가운데 그 절반을 정병으로 뽑아 행궁에 입방하게 하고 그 나머지 절반은 보군으로 강등시킨 뒤 이들에게 미곡을 거둠으로써 정예 위주의 군제와 戶保法을 시행하였다.

여기에 용인·진위·안산·시흥·과천 등 5읍의 군병을 차례로 이속시켜 장용영 외영제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수원부는 지금까지 수원부와 인근 읍에 산재하였던 수어·총용청 소속의 일부 군액을 중심으로 한 입방군과 협수군 체제로 편성되어 오던 군총을 納布·無布의 良軍과 私軍의 대거 확보와 함께 새로운 오위 속오위체제로 재편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 확보된 속읍의 양군과 사군의 納포·무포군은 대개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수원부 속읍의 이속군액

區 分		龍仁	振威	安山	始興	果川	計
良軍	納布	1,006	797	343	299	391	2,836
	無布	172	92	77	121	139	601
私軍	納布	847	611	309	279	493	2,539
	無布	475	290	407	387	405	1,964
計		2,500	1,790	1,136	1,086	1,428	7,940

이러한 이들 5읍의 속오군 가운데 精壯한 자들을 추려내어 12초를 더 늘린 다음 이전의 13초와 합쳐 25초의 기준에 맞게 함으로써 1영 5사의 군제를 완비하였다. 또

66) 『正祖實錄』 권49, 22년 9월 갑자.  
67) 『正祖實錄』 권51, 23년 4월 무술.  
68) 『正祖實錄』 권49, 22년 10월 기유.

한 본부 및 속읍의 民兵으로 성을 지키는 제도를 처음 만들어 서로 분속 되게 함으로써 衛·部로 정하였다. 이리하여 1영을 전·좌·중·우·후의 5위로 나누어 이를 長樂이라 하고, 위는 다시 5부를 관할하고 부는 3통을 거느리게 하였다.<sup>69)</sup>

따라서 장용영 외영은 오위 속오위체제에 의하여 양정으로 편성된 長樂隊 오위와 용인·진위·안산·시흥·과천 등의 군현에서 이속된 속오위의 城丁軍으로 편성되었다. 이들 오위 속오위체제의 각종 병종들은 각각 전·좌·중·우·후위의 오위에 따라 배속되었다. 이를 표로써 나타내면 대개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오위 속오위 편성표

區 分	水原府	龍仁	振威	安山	始興	果川	計	
長樂前衛	正兵	635					635	
	城丁 (八達衛)	1,104 중245 통12, 타27		720 중265 통8, 타18 각색184			2,583	
長樂左衛	正兵		381	254			635	
	城丁 (蒼龍衛)	736 중40 통8, 타18	1,096 중150 통12, 타27 각색184				2,271	
長樂中衛	正兵	389	123	123			635	
	遊兵 (新豐衛)		275	170	250	213	52 각색56	1,016
長樂右衛	正兵	361			274		635	
	城丁 (華西衛)	1,464 중320 통16, 타36 각색169			360 · 통4, 타9 각색15		2,393	
長樂後衛	正兵	266				169	200	635
	城丁 (長安衛)	1,464 중224 통16, 타36					360 중166 통4, 타9 각색184	2,463
計	7,586	2,248	1,742	912	382	1,031	13,901	

\* 正兵：長樂隊, 城丁·遊兵：各衛 소속대.

중：중위 파견군. 통：統長. 타：塚長. 각색：衛將·部將·통장의各色標下 및 火夫.

69) 『正祖實錄』 권49, 22년 10월 기유.

장락오위는 매 위마다 衛將 1명, 部將 5명, 統將 3명, 隊正 9명을 두었으며, 성정군의 속오위는 위장 1명, 부장 5명, 통장 20명, 타장 45명을 각각 두었다. 각 위의 위장은 협수군현의 수령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전위 팔달위장은 진위현령, 좌위 창룡위장은 용인현령, 우위 화서위장은 안산군수, 후위 장안위장은 과천현령이 각각 맡았다. 그리고 시흥현령은 협수위장으로 옮겨 정하여 甬道에 속하게 하고, 중위 신평위장은 화서 경내의 당상 내·외장 또는 朝官 역임자 중에서 차출하고 더불어 속위의 각 부장은 본부나 속읍에서 차출하도록 하였다.<sup>70)</sup>

사방 각성의 담당구역은 해당 읍의 군정수에 따라 정하되, 본부 군정과 고르게 나눠 위부마다 숫자에 비해 그 담당구역이 길고 짧게 되는 등의 불균형이 없도록 본부 속읍군 할 것 없이 각성의 위장이 각부의 군사 숫자를 전·좌·중·우·후로 나누고 여기에 표하군 및 화부까지 합쳐 총 병력수를 都案으로 작성한 뒤 하나는 외영에 올려 보내고 하나는 城所로 올리게 하였다.<sup>71)</sup>

장용영 외영은 이러한 조직적인 군대 편성에 의하여 군사조련과 방어체계를 마련, 화성방위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도성 이상으로 화성을 중시한 정조의 화성건설과 화성방위체계의 완성은 수원중심의 환상협수체계의 완성이자, 나아가 4留守府를 등근 고리모양으로 연결하는 거점방어 형식의 수도방어체제로 확대 개편되는 것<sup>72)</sup>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정조초반의 진관체제적인 자전자수의 고립방어와 남북방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방위체제의 근본적인 개념 변화를 요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정조왕권의 안정적 기초를 시험하고자 시도되었던 화성건설은 삼군문과 수어·총융 양청의 군문 축소로 확대 개편된 장용외영의 군사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세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동시에 왕권확립의 기반이 되는 군령권 장악의 기회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조의 친위군대로서 그 역할을 다한 장용영의 지속적인 체제정

70) 『正祖實錄』 권49, 22년 10월 기유.

71) 앞과 같음.

72) 유봉학, 앞의 논문, 95쪽.

비와 군사력의 강화는, 화성중심의 協守軍 제도를 통한 수원 인근 고을이 하나의 방위체계가 되도록 구축하였고,<sup>73)</sup> 나아가 이는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방어 체제로서 확대 개편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 맺음말

대개 효종조의 北伐政策 이래 조선후기의 도성방위 개념은 기본적으로 북방 오랑캐의 침구에 대비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은 1728년(영조 4)의 戊申亂 이후 차츰 변하기 시작하여 대북방 방어개념보다는 오히려 자체내의 소요대비에 더 치중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는 도성외연에 대한 방어전략으로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특히 영조 31년의 을해옥사 이후 더욱 이러한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이를 계승한 정조는 도성 자체보다는 오히려 도성외곽방어에 더 치중하게 되었다. 이는 곧 도성의 삼군문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정조 자신의 신변과 왕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가운데 의도된 것이었다. 이에 정조는 자신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영우원 천장이라는 미명하에 화성건설을 내세우게 되었고, 여기에서 정조 왕권의 안정과 강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조는 왕권강화의 주요인이 되는 軍令權 장악을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데에서 화성건설을 선택하게 되었다.

화성의 내·외성 축조는 관방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원의 신도시 건설이라는 시대적 여건에 부응한 정조의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수행된 대역사였다.

이와 같이 정조가 온 심혈을 기울여 축조한 화성성역은 현릉원의 조성과 화성 행궁을 호위하기 위한 명목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조왕권의 강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더불어 정조의 이러한 정책을 뒷

받침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장용영이었다.

장용영 내영은 본래 도성의 전·중·후사 등 모두 3사 15초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를 정조 19년에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8개읍의 군사를 더하여 5사 25초 체제로 1영을 구성하였다. 이때 좌·우·후사의 군사는 대개 경기 향군으로서 수어·총융청의 기간병이었다. 이들이 장용영으로 이속됨에 따라 수어·총융 양청은 자연히 축소되어, 수어청은 도성의 본청을 혁파하는 대신 광주유수가 수어사를 겸하게 되었고, 총융청 또한 그 편제를 5초에서 4초로 축소개편함과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는 결국 경기 변상군을 주대상으로 하는 총·수 양청의 군사와 재정을 장용외영체제 확립에 이속시킴으로써 정조가 의도하는 삼군문체제의 약화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장용영 외영제는 1793년(정조 17) 수원부를 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장용영이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로써 장용영의 설치는 외영이 주인이고 내영은 부용이 되어 모름지기 장용영체제는 외영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성 중심의 군사적 위상도 삼군문 못지 않은 지위를 갖게 됨과 동시에 장용영 외영은 사실상 최대의 군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화성방위체계는 수원을 둘러싼 용인·진위·안산·시흥·과천 등 다섯 군현이 수원중심의 환상협수체계를 이루어 하나의 독자적인 방위체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어 1798년(정조 22)의 ‘五邑軍兵合屬節目’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동시에 이는 도성외곽방어체계가 4유수부를 환상으로 연결하는 거점방어 형식의 도성방위체제로 확대 개편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이는 정조 초반의 진관체제적인 자전자수의 고립방어와 남북방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방위체제의 근본적인 개념 변화를 요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73) 『正祖實錄』 권47, 21년 9월 경인.

안산·용인·진위·시흥·과천 등이 수원을 빙 둘러 싸 協守함으로써, 수원은 도성의 副都로서 그 자체적인 방어망을 갖게 되었다.

## Abstract

# Construction of Hyunryungwon(顯隆園) and a defense system of HwaSeong(華城)

Jang Pil-Ki

The construction of HwaSeong(華城) began by moving a SaDo-SeJa(思悼世子)'s grave(YeongUWon 永祐園) of YangJu(楊州) BaeBongSan(拜峰山) to HwaSan(花山) of Suwon(水原) in 1789.

A castle and temporary place construction proceeded together while installing JangYongYeong OeYeong(壯勇營 外營) in Suwon in 1793.

It was started in January for 1794, and the construction was finished according to this plan on 16th in October, 1796.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al castle and outside castle of HwaSeong was carried out in addition to a function of GwanBang(關防) by political intention of the King JeongJo(正祖) who satisfied times conditions called new city construction of Suwon.

Thus, the HwaSeong which King JeongJo leaned to heart and soul, and built was to have been made in order to escort Hyunryungwon(顯隆園) and temporary royal palace, but it was actually to have consisted in an elaborate plan for enhancement of royal authority.

What was able to back up these policies of King JeongJo just tied up JangYongYeong (壯勇營).

As for the JangYongYeong NaeYeong(壯勇營 內營), the front · back · middle regiment「前 · 中 · 後司」 of a native capital city was all composed with 3司 15哨, but it added military affairs of eight districts to neighborhood to do the source of Suwon to the center in 1794 and composed in 1營 with a system in 5司 25哨.

At this time the soldier of the right · left · back regiment[左 · 右 · 後司] was usually a basic soldier of SuEoCheong(守禦廳) · ChongYungCheong(摠戎廳) as Gyeonggi-do local soldier.

As they were a contrariety to JangYongYeong, the scale of SuEoCheong · ChongYungCheong was reduced naturally.

While SuEoCheong removed the headquarters of a capital city, it was held an additional post of SuEoSa(守禦使) GwangJu-YuSu(廣州留守). And it was worn at the same time a blow to be large financially with, also it reduced the organization with 4哨 in 5哨, and to reorganize ChongYungCheong.

This is to have become a curse to let you realize weaking of the center encampment that King JeongJo intends for with a duty military affairs and finance of ChongYungCheong · SuEoCheong which it gives, and target a duty soldier of Gyeonggi-do in order to enlarge a JangYongYeong OeYeong system finally.

It is what JangYongYeong is expanded as for the JangYongYeong OeYeong while letting Suwon promote to YuSuBu(留守府) in 1793, and was reorganized.

Therefore, as for the installation of JangYongYeong, OeYeong was main, and NaeYeong became a department, and by all means the JangYongYeong was moved to OeYeong system.

According to this, military a few phase of the HwaSeong was had the rank that it was not to be different of three encampment organization of Seoul.

As for the JangYongYeong OeYeong, it was had the largest encampment system truly at the same time.

A HwaSeong defense system was a surrounding with Suwon, and five districts such as Yongin · Jinwi · Ansan · Shihung · Gwachon achieved a ring-shaped cooperation system with Suwon, and it was formed one independent defense system.

This was finished through 'OEup GunByeong HapSok JeolMok(五邑軍兵

合屬節目’ in 1798.

It was to suggest that this was expanded with the zone defense formal capital city defense system that capital city outer wall defense system connected four YuSuBu to a ring-shaped.

Finally, this got out of concept as an isolation defense and defense of the north and south, it quarrelled independently, and to defend independently as the JinGwan system(鎭管體制) in early of King JeongJo, and it was to request a change of basic concept of a capital region defense system to do a capital city to the center.

Keyword : HwaSeong(華城), SaDo-SeJa(思悼世子), Hyunryungwon(顯隆園), HwaSan(花山), King JeongJo(正祖), JangYongYeong OeYeong(壯勇營 外營), YuSuBu(留守府), OEup GunByeong HapSok JeolMok(五邑軍兵合屬節目), JinGwan system(鎭管體制).

##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

박 수 현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머리말	3. 1920년대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기능
1. 구한말 권업모범장의 설립과정	맺음말
2. 1910년대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기능	

---

### 머 리 말

최근 일제 식민지시기를 바라보는 인식방법을 둘러싸고 학계의 논쟁이 뜨겁다.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 논쟁은 이미 1990년대 후반 『창작과비평』을 통해 촉발되었지만<sup>1)</sup> 지금까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경제학계 일각에서 제기된 ‘식민지근대화론’은 기존 역사학계의 식민지시기 인식의 주류였던 ‘수탈과 저항’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수탈도 있었지만 개발이라

---

1)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은 1990년대 후반 ‘창비논쟁’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창작과비평』을 통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논쟁의 주요 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석근,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창작과 비평』, 통권 96호, 1997년 여름호 ; 정태현, 수탈론의 속류화 속에 사라진 식민지, 『창작과 비평』, 통권 97호, 1997년 가을호 ; 신용하,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창작과 비평』, 통권98호, 1997년 겨울호 ; 안병직,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작과 비평』, 통권98호, 1997년 겨울호 ; 김동노,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 비평』, 통권99호, 1998년 봄호.

는 측면도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탈과 개발’의 관점에서 식민지시기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기 개발에는 조선인의 주체적 발전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개발’에 좀더 무게를 두고 기존 연구 결과의 산물인 일제의 수탈상을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요 근거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1920~30년대의 산미증식계획, 중일전쟁 이후의 조선공업화정책 등 일제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이 조선의 근대화를 촉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대적 제도가 도입되고 이전과는 다른 급속한 생산력 확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조선인들의 주체적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해방 이후 한국경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다.<sup>2)</sup>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지시기 연구방법론의 지평을 넓히고 그동안의 도식적이고 경직된 식민지시기 연구에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었다. 그동안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시기 연구는 ‘수탈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하에서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식민지 시기의 다양한 실상을 간과하고 경제 주체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방대한 자료조사나 정리, 통계 분석을 통한 실증적 사례 연구는 역사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로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시기 개발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보편적인 근대화 논리만을 내세운 점, 한국근대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적 측면만을 특권화한 점<sup>3)</sup> 등은 ‘식민지근대화론’이 지니는 큰 문제점이다. 무엇보다도 불법적인 일제의 식민지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일제가 주도한 ‘개발’을 지나치게 객관화하려 한 점은 ‘조선인의 주체적 발전’을 부각시킨다는 그들의 순수한 학문적 의도조차 의심할 정도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은 일본 자본주의의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또는 식민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기 근대적 ‘개발’은 일제가 필요로 하는 ‘식민지 개발’일 뿐이며 그 속에서 조선인의 주체적 발전은 왜곡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국주의 논리가 철저히 관철되는 이상 수탈은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마련이며, ‘개발’은 당연히 ‘수탈을 위한 개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기 근대적 변동과 개발이 조선인의 주체적 노력과 발전에 기인한 것이라는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의 주장은 제국주의 식민지배라는 외부적 요인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다.<sup>4)</sup>

실상 식민지체제라는 외부로부터 강제된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수탈이나 개발이나, 또는 조선인들이 식민지 경제정책에 주체적으로 나섰느냐 아니냐는 논쟁은 무의미한 논쟁일 뿐이다. 식민지 개발은 일제가 필요로 하는 식민체제 구축과정의 산물이며, 이러한 점에서 개발을 수탈과 분리해 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식민체제 구축과 재편과정에서 일제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수탈체제를 확립 내지는 강화하는 것이었고, ‘개발’은 그 수행과정에서의 수단과 명분이었다.

서두부터 ‘식민지근대화론’을 끄집어낸 이유는 이 글에서 다룬 권업모범장이 일제의 식민지 농업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즉 권업모범장은 농업분야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근대화론 논쟁과 관련해서 ‘개발’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권업모범장의 기능과 성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권업모범장이 기능면에서 농업개발기구로서의 근대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이하 농정)의 중심기구로서 농업수탈을 극대화하는데 조직과 역할이 주어졌고 이것이 권업모범장의 성격을 규정짓는 결정적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구한말부터 1930년대까지 일제 경제정책의 핵심은 농업부분이었다. 일제는 한편으로 조선의 농업구조를 식민지적으로 재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개발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농업구조의 재편이든 개발이든 일제 농업정책의 핵심은 수탈체제를 강화하여 농업수탈을 극대화하는데 있었다. 일

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안병직·이대근 등 편, 『근대조선의 경제구조』, 비봉출판사, 1989.;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の研究』, 1991.; 이영훈·宮嶋博史 등 공저,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1992.; 『근대조선 공업화의 연구』; 안병직·이영훈 편저,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안병직 편, 『한국경제성장사』, 서울대출판부, 2001. 등을 들 수 있다.

3) 고동환, 「근대화논쟁」, 『한국사시민강좌』 20, 일조각, 1997, 219~220쪽.

4) 박섭, 『한국근대의 농업변동』, 일조각, 1997, 23쪽.

제가 半봉건적인 재래의 지주·소작관계를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근대적 농업개발을 추진하는 상호모순적인 정책을 취한 것도 어떠한 방법이든 수탈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재래의 지주소작관계를 바탕으로 식민지 지주제를 형성하고, 1920년대에는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식민지 지주제의 강화와 함께 본격적인 농업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식민지기 농업에 대한 연구는 농업과 농촌사회가 일제 식민정책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sup>5)</sup> 1980년대까지는 식민지기 농촌사회의 모순구조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로 일제의 식민농정과 식민지 지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 결과 식민농정의 양상과 특성, 식민지 지주제의 성격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민족해방운동의 주체와 대상 편제를 밝히려는 실천적 관심과 밀접한 관련 하에 진행됨으로써 농촌사회의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실체도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식민지 농촌사회의 민족·계급 모순구조의 해명과 민족해방운동 주체와 대상 설정의 당위성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식민지 농업구조와 식민농정의 구체적 실상을 밝히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위에서 언급한 '식민지근대화론'도 이러한 편향된 연구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일제가 수탈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또 다른 측면, 즉 농업기술과 농업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소략한 편이다. 일제는 조선을 식량기지화 하기 위해 식민지 지주제 강화 등 조선의 농업구조를 재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적합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기술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농업기술의 개량과 일본 농법의 보급은 일제가 구한말부터 역점을 두었던 부문이었다.<sup>6)</sup>

5) 식민지기 농업과 농촌사회에 대한 연구동향은 정연태, 「일제의 식민농정과 농업의 변화」, 『한국역사입문(3)』, 한국역사연구회편, 1996.

6) 이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飯沼二郎, 「帝下朝鮮における農業革命」, 『朝鮮史叢』, 1982. ; 松本武祝, 「1920, 30年代の朝鮮農業構造」, 정연태, 「191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과 식민지 지주제」, 『한국사론』 20, 서울대국사학과, 1988. ; 『近代朝鮮の歴史像』, 日本評論社飯, 1988. ; 김도형, 「일제의 비료정책과 그 성격」, 『민족운동사연구』 4, 1989. ; 飯沼二郎, 「日帝下朝鮮における米の優良品種業」, 『朝鮮民族運動史研究』, 1993. ; 우대형, 『일제하 개량농법의 변화와 농촌구조의 변화』, 연세대 경제학과 박사논문, 1994. 등이 있다.

권업모범장은 바로 일제가 침략초기부터 식민지 농업기술 체계의 확립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구였다. 구한말 수원에 처음 설립된 권업모범장은 이후 일제의 농업기술체계를 수립하고 보급, 특히 일본의 농법을 조선에 이식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식민지 농업기술 체계의 확립이야말로 일제가 농업수탈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권업모범장은 식민농정 전개과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처럼 권업모범장이 일제의 농업수탈 구조와 식민농정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권업모범장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진한 실정이다.<sup>7)</sup> 따라서 이 글은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권업모범장의 성격을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일제의 농업수탈 구조와 식민농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구한말 권업모범장의 설립과정

권업모범장 설립 문제는 구한말 조선에 진출한 일본상인들의 요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조선에서 상권을 장악한 일본 미곡상들은 미곡 상품화를 보다 적극화하기 위해 미곡 생산량 증대와 조선미 품질 향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본 미곡상들은 조선 미곡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사개량을 통한 일본인 기호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중요했다. 개항 이후 조선 미곡의 대일반출이 급증하고 있었지만 조선미의 질이 미곡 수출에 큰 장애 요인이 되었고, 이 때문에 품질 유지를 위해 일본인 미곡상 사이에서는 조선 '粗惡米'의 수출을 막는 방법까지 강구되고 있었다.<sup>8)</sup>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미의 품질 개선은 일본인 미곡상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7) 권업모범장에 대한 연구로는 김도형, 「권업모범장의 식민지 농업지배」, 『한국근현대사연구』3집, 1995.가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권태억, 「통감부시기 일제의 對韓 농업정책」, 『露日戰爭 戦後 日本의 한국침략』, 일조각, 1986.과 정연태, 위의 글 등에서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8) 김도형, 앞의 글, 142쪽.

그리하여 1901년 8월 일본인 곡물상들의 권익단체였던 목포상업회의소와 부산 상업회의소는 조선 쌀의 개량을 목적으로 농사개량에 관한 청원서를 일본공사에게 제출하였으며, 1903년 6월에는 부산상공회의소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또한 조선 내 일본 상인들의 연합체인 일본인 상업회의소연합회도 ‘한국 농사개량에 관한 청원서’를 일본공사에게 제출하였다. 청원서의 내용은 한국의 농사개량과 그 실행기구로서 농사시험장의 설치를 한국정부에 강력히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sup>9)</sup>

일본 상인들의 요구는 조선 미곡의 상품성 향상을 통해 자신들의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지만, 농업수탈 체제를 구축하려는 일제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일제는 1903년부터 ‘한국토지농산조사’를 실시하여 조선 농업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1904~5년 사이에 조선 농업에 대한 광범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다.<sup>10)</sup>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사시험장 설치 계획까지 나오게 되었다. 농사시험장 설치 계획은 일본 농사시험장 場長인 古在吉直이 당시 조선의 재정고문인 目賀田에게 제출한 안을 참고로 하여 ‘한국토지 농산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수립된 것이다.

이러한 설치계획에 따라 일제는 한국정부가 주도한 농사시험장을 폐지시켰다. 대한제국 정부는 1904년 서울에 농상공학교를 설치하고, 1905년 12월에는 칙령 제60호로 「농상공학교 부속 농사시험장관제」<sup>11)</sup>를 발표하고 시험장을 독점에 설치하였다. 농사시험장을 설치한 목적은 근대적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농업기술자를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1906년에는 농사모범장 설치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농사모범장의 위치와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요구하였고, 대신 일본 정부 주도의 모범장을 한국정부측에 권유하였다. 결국 한국정부의 농사모범장 설치 계획은 좌절되었고 농상공학교 부속 농사시험장마저도 폐지되

고 말았다. 폐지된 농사시험장 부지에는 미곡과 관계없는 원예만을 시험하는 원예 모범장이 설치되었다.<sup>12)</sup> 한국정부 주도의 농사시험장 및 농사모범장 설치계획의 폐지는 농업정책을 주도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미 일제의 농사시험장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을 피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후 일제는 농사시험장 설치에 박차를 가하였다. 농사시험장 설치는 통감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이었다. 통감에 임명된 伊藤博文은 농사개량이 조선농업 발달의 급선무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지도기관의 설치를 강조하였으며,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동경제국대학 교수인 농학박사 本田幸介에게 조선 각지를 실사케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906년 4월 26일 「統監府勸業模範場官制」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권업모범장은 통감의 관리 아래 산업의 발달 개량에 이바지 할 모범, 조선물산의 조사, 산업상 필요한 物料의 분석·감정, 種苗·蠶種·種禽·種豚 등의 배부, 산업상의 지도·통신 및 講話를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場長 1인, 기사 6인, 기수 8인, 서기 4인을 두기로 하고 동년 5월에 장장 本田幸介를 비롯한 직원을 임명하였다. 이후 경지 매수와 도로 건설, 사무실·실험실·축사의 건축, 기타 업무상 필요한 제반 설비공사를 착수하면서 동년 6월 15일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sup>13)</sup>

이와 같이 권업모범장은 미곡의 상품성을 높여 이익을 도모하려는 일본 상인의 요구와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구축하여 수탈체제를 강화하려는 일제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것이다. 특히 통감부 주도의 권업모범장 설립은 일본인 중심으로 조선의 농업개량을 추진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다음은 권업모범장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당시 일제 농업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本田幸介가 ‘한국중앙농회’의 설립취지에서 밝힌 내용의 일부인데, 이를 통해 일제의 농업개량의 방향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

12) 김도형, 앞의 글, 143~146쪽.

13)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十五年誌』上卷, 1931, 1쪽.

9) 小早川九郎 編著, 『補整 韓國農業發達史』政策篇, 友邦協會, 1959, 39~40쪽; 김용달, 『일제의 농업정책과 조선농회』, 혜안, 2003, 38~39쪽.

10) 일제는 동경제대 농과대학팀으로 하여금 조선농촌사회에 전반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내용이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에 실려있는데, 이 책은 약 2,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조사서로 ‘조선농업의 縮冊版’이라 할 수 있었다. 정연태, 앞의 글, 426쪽.

11) 국회도서관,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V, 1971, 452~453쪽 참조.

한국의 농민은 오랜 稅政의 결과 근검저축 정신이 결핍되고 진취의 기력을 결여한 故로 그것을 분기시키고 농업의 진흥을 도모함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농민을 인도함에 모범으로써 한다면 한국 농민이 완고하고 우둔하다고 하지만 그를 각성시켜 농업의 개량을 도모하는 일이 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 모범은 진실로 많이 있지만 가장 첩경이고 유효한 것은 독실하고 경험 있는 우리 농민을 한국 내지에 이주시켜 스스로 쟁기를 잡아 한국농민에게 개량의 실례를 보임과 아울러 근검저축의 미풍을 양성시킴에 있다.<sup>14)</sup>

다만 일제가 명칭을 ‘농사시험장’이 아닌 모범을 보여준다는 의미의 ‘권업모범장’을 택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래 일본상인들의 요구나 실제 일제의 계획은 농업 개량을 위한 광범한 조선농업에 대한 조사와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농사시험장’의 설치였다. 그러나 기술과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전면적인 조사와 연구는 당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本田幸介가 권업모범장의 방향에 대해 “현재 조선에서 자본과 기술을 자본과 기술을 많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일본과 같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경비를 절약하는 소극적이 방법을 택할 것”<sup>15)</sup>이라고 말한 것도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당시 식민지 통치기반 구성에 주력했던 일제로서는 식민지 농업개량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없었다. 아래의 1906년 「農業振興實施四大要綱」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권업모범장은 명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일본의 농법을 시험하고 이를 권장하여 농사개량의 효과를 높이는 쪽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

1. 장려 사항이 여러 방면에 걸치지 않을 것
2. 그 실행이 簡易하여 비용 지출은 전혀 없거나 소액일 것
3. 그 효과는 的確할 것
4. 실시할 때는 구체적으로 지도할 것<sup>16)</sup>

14) 文定昌, 『朝鮮農村團體史』, 日本評論社, 1942, 15~16쪽; 김용달, 앞의 책, 47쪽.

15) 『韓國中央農會報』 3-2, 1909, 8쪽.

16) 小早川九郎 編著, 앞의 책, 42쪽.

이와 같이 권업모범장은 일제의 주도로 설립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정부로 이양되었다. 1906년 10월 한국정부가 권업모범장을 이양해 줄 것을 통감부에 요청하자, 통감부에서는 경영방침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한국정부에 이양한 것이다.<sup>17)</sup> 권업모범장이 한국정부로 이양된 데는 고종의 의사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고종은 당시 통감부 주도로 설립된 각종 實業기관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민의 협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권업모범장을 한국정부 관할 하에 두면 官民이 협력하여 實業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식한 듯 하다.<sup>19)</sup> 그러나 일제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조선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에 이양한다 해도 조직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었다. 경영방침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단 것도 이 때문이었다. 오히려 한국정부의 주장대로 한국정부에 이양하여 민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일제가 의도한 농업지배는 더 효과적일 수가 있었다.

권업모범장을 이양 받은 한국정부는 1907년 3월 22일 칙령 제17호로서 「勸業模範場官制」<sup>20)</sup>를 공포하고 권업모범장을 농상공부대신이 관할하게 하였다. 「권업모범장관제」는 「통감부권업모범장관제」와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했다. 다만 직원을 증원하여 장장 이하 기사 7인, 기수 12인, 서기 4인을 두기로 한 것이 달랐다. 이후 한국정부는 支場出張所를 두어 업무를 분장시키고 당분간 일본 기술자를 초빙하여 임시로 업무를 맡기도록 하는 등 창립업무를 마치고 동년 5월 15일에 본장인 수원의 권업모범장을 개장하였다. 개장식은 伊藤博文통감, 長谷川 대장 등 일본측 요인들과 한국정부 대신과 관리, 각 사회단체장, 기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sup>21)</sup> 개장식에 통감부의 핵심인물들이 대거

17)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十五年誌』上卷, 1쪽.

18) 김도형, 앞의 글, 148쪽.

19) 다음의 1907년 3월 14일 고종의 詔勅를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근자 部를 설치한 이래 당국 有司에서 專心하여 종사하였으나 아직도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挽近에 農場·工所·은행·회사 등 중종의 사업을 稍稍히 설립하기 하였으나, 대개가 官에서 건설한 것이어서 合力成就하자면 人民의 힘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오직 官民들이 同心合力하여 재부를 축적하고 자본을 만들어 힘써 實業을 도모한다면 內政의 修擧와 外債의 淸償을 가히 날짜를 정하여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국회도서관,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V, 1971, 457~458쪽; 김도형, 앞의 글, 148쪽에서 재인용.

20) 국회도서관,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V, 472~4473쪽.

21)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十五年誌』上卷, 2~3쪽.

참석할 정도로 권업모범장은 조선지배 정책상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 伊藤博文이 개장식 훈사에서 밝힌듯이, 일제는 조선에서 가장 시급한 일 중의 하나가 농업개량으로 보았으며 권업모범장을 그 중심기구로 인식하고 있었다.<sup>22)</sup>

권업모범장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정부의 「권업모범장관제」에 따라 정식 출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통감부가 만든 것을 한국정부의 명의로 출범시킨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제도와 운영은 「통감부권업모범장관제」를 거의 그대로 따랐고, 장장 本田幸介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 대부분도 이미 통감부 관할 하에 임명되었던 인물들로서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이들은 1907년 7월에 체결된 '정미7조약' 중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정부가 관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에 따라 1908년 1월에 한국정부의 관리로 정식 임명되었다.

수원 본장의 개장과 함께 업무가 본격화함에 따라 각 지역 출장소도 활발하게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개장 당시 출장소는 목포 1개소에 불과했지만, 1908년 1월 군산과 평양, 동년 4월 대구에 출장소가 설치됨으로써<sup>23)</sup> 모두 4개의 출장소로 늘어났다. 각 지역의 출장소 또한 일본인들이 조직을 장악하였다. 1908년 당시 권업모범장의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장〉 技監：本田幸介 〈수원본장〉 技師：豊永眞里 向坂幾三郎 宮原忠正 宮本政藏 草野獄男, 技手：水野木傳三 長岡哲三 貴島一 武間卓一 權錫圭 李必熙, 書記：山本尙郷 中村脇 〈목포출장소〉 技師：佐藤政次郎, 技手：鈴木信太郎, 書記：八重樫男 〈평양출장소〉 技師：花井藤一郎 〈대구출장소〉 技師：戸來秀太郎 〈군산출장소〉 技師：三浦直次郎<sup>24)</sup>

일제는 권업모범장의 출범과 조직 장악을 통해 비로소 조선의 농업을 식민지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일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문은 일본 농법의 보급과 품종개량 등 농사개량사업이었고, 권업모범장의 기능은 이를 위한 시험과 조사, 품종개량, 농사지도와 장려 등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권업모범장은 식민농정을 주도하는 핵심적 기구였다. 권업모범장이 당시 식민농정의 중심 기구였다는 것은 그 기능뿐만 아니라 인적 구성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장장인 本田幸介는 당시 식민농정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本田幸介는 동경제대 농과대학 교수 겸 일본 농상무성 기사를 지낸 인물로서 1904~1905년에는 일본의 한국농업 조사단으로 북부지방을 조사했던 인물이다. 통감 伊藤博文의 초빙으로 조선에 들어와 1906년 권업모범장장에 임명되었고, 1907년 수원 농림학교장, 1908년 동양척식회사 창립위원이 되었던 농업정책 전문가였다.<sup>25)</sup> 本田幸介는 조선 농업정책 추진과 기본방침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서, 伊藤博文에게 조선 농업정책의 기초방침 수립을 건의하여 1906년 「農業振興實施四大要綱」 4대 요강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sup>26)</sup>

또한 本田幸介는 식민지 농정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 농업단체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한국중앙농회'였다. 1906년 11월 인천에서 조직된 한국중앙농회는 조선인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대한농회'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조직한 민간 농업단체로서, 한국농업의 진흥·개량방안 강구, 일본인 농업 이민의 장려, 한국농업의 현황 조사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일제 식민농정의 보조 단체였다.<sup>27)</sup> 本田幸介는 이 단체의 창설을 주도한 핵심적 인물로서 창설과 함께 부회대로 임명되었다. 本田幸介 뿐 아니라 권업모범장 기사들도 한국중앙농회에 참여하였다. 이후 한국중앙농회는 권업모범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제 식민농정의 대행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일제는 1909년 2월 목포출장소와 군산출장소를 폐지하고 대신 수원 본장과 대구·평양의 출장소의 규모를 확장하는 등 권업모범장의 조직 정비를 단행하였다.<sup>28)</sup> 이에 따라 수원 본장의 면적은 73.7정보에서 1908년에는 121.8정보, 1909에는 149.8정보로 늘어났다. 목포출장소는 1908년 3월 「臨時棉花栽培所官制」의 공포에 따라 면화재배의 개량 지도와 종자의 배부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다가

25) 『朝鮮農會報』 16-6, 1921, 42~43쪽 참조.

26) 김도형, 앞의 글, 157쪽.

27) 김용달, 앞의 책, 46~48쪽 참조.

28)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十五年誌』 上卷, 3쪽.

22) 『勸業模範場開場式當日伊藤博文訓辭』, 위의 책, 15~16쪽.

23) 위의 책, 3쪽.

24) 『韓國中央農會報』 2-11, 1908, 6~12쪽; 김도형, 앞의 글, 149~150쪽.

이 때 폐지된 것이다. 일제가 전라도 지역의 출장소를 폐지하고 대신 대구·평양출장소를 확장한 것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농사개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일제는 권업모범장의 조직 정비와 함께 실질적으로 농사개량을 추진하기 위해 1908년 3월 「種苗場官制」를 공포하고 각지에 종묘장을 설치하였다. 종묘장은 우량 품종의 육성·배부, 각종 작물의 모범 및 시험 재배, 監督田·監督桑苗圃의 설치, 농사에 관한 각종 강습·傳習·지도, 각종 농사지도<sup>29)</sup> 등을 수행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권업모범장의 기능을 보조하고 실행하는 기구였다.

이와 같이 일제는 통감부시기부터 권업모범장의 출범과 조직 정비 등을 통해 조선 농업을 식민지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예산부족과 각 지역에서의 조선인들의 저항 등으로 인해 농사개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권업모범장의 기능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인 조선 농업에 대한 광범한 연구·시험·시험조사보다는 일본의 농법을 조선에 강제적으로 이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2. 1910년대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기능

1910년 조선을 식민지화 한 일제는 한편으로는 조선농촌의 지배체제 재편을 통해 식민지 지배질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농업구조의 식민지적 재편을 통해 일본의 식량문제 해결 및 일본 자본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려 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전자는 토지조사사업, 후자는 농사개량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식민농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농사개량 중심의 식민농정은 통감부시기의 농정 기조의 틀은 유지하면서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 합병 직후 농사개량의 중심 기구인 권업모범장의 조직 정비와

기능 강화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10년 9월 30일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官制」, 10월 1일에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 事務分掌規定」을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官制〉

제1조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은 조선총독부의 관리에 속하고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一. 산업의 발달 개량을 도울 조사와 시험
- 二. 물산의 조사와 산업상 필요한 物料의 분석 및 감정
- 三. 種子, 種苗, 蠶種, 種禽과 種畜의 배부
- 四. 산업상의 지도, 강습 및 통신

제2조 권업모범장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場長

技師 전임 10인 奏任(1인은 勅任으로 할 수 있다)

書記 技手 전임 35인 判任

제3조 場長은 技師로서 총당하고 조선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아 場中 일체의 사무를 掌理하고 부하직원을 감독한다.

제4조 기사는 장장의 명을 받아 기술을 관장한다.

제5조 서기와 기수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및 기술에 종사한다.

제6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권업모범장의 支所 또는 출장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7조 권업모범장에 농림학교를 附置한다. 농림학교는 농림업에 필요한 실무를 교습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농림학교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長

教諭 전임 4인 奏任

助教諭 書記 전임 5인 判任

제9조 교장은 권업모범장장으로서 총당하고 조선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교무를 掌理하고 부하 직원을 감독한다.

제10조 교유와 조교유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습을 관장한다.

제11조 서기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29) 『總督府施政年報』 2, 1910, 278쪽.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sup>30)</sup>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 事務分掌規程〉

제1조 권업모범장은 本場을 수원에, 支場을 대구·평양·용산·목포 및 독섬에 둔다.

제2조 본장에서 보통농사, 토지개량, 축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대구지장에서는 보통농사, 축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평양지장에서는 보통농사 및 축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용산지장에서는 잠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목포지장에서는 면화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독섬지장에서는 원예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지장에 支長場을 둔다.

지장장은 장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장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본장 및 지장에서는 각기 주관 사항에 관해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一. 위탁에 관한 사항

二. 질문응답에 관한 사항

三. 講話에 관한 사항

四. 조사에 관한 사항

제5조 장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2조에 규정한 이외의 사무를 본장 또는 지장에 分掌시킬 수 있다.

제6조 場長, 支所長 또는 所長이 사고가 일을 때에는 上席 기사 또는 기수가 그것을 대리한다.

제7조 농업에 관하여 여비를 부담하여 場員을 출장 순회시킬 것을 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장에 있어서는 장장이 그것을 許諾하고, 지장에서는 지장장이 그것을 許諾한다. 지장장이 許諾한 경우에는 그 뜻을 장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場長, 支所長 및 所長은 견습생을 入場시킬 수 있다.

견습생의 비용은 自辯한다.

견습생에 관한 규정 및 그 인원은 장장이 그것을 정한다.

제9조 장장 및 지소장은 총독의 인가를 받아 處務細則을 설치할 수 있다.

30)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9월 30일.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sup>31)</sup>

이와 같이 일제는 직제 개정을 통해 권업모범장의 조직을 정비하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기사·서기·기수 등 전문인력의 수를 크게 늘렸으며, 종전의 출장소를 支場으로 개칭하여 조직을 재정비 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대구·평양 2개의 출장소가 지장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독섬 원예모범장·용산 여자잠업강습소·목포 임시면화재배소를 지장으로 변경하여 모두 5개의 지장이 되었다. 대구지장에는 三浦直次郎, 평양지장에 花井藤一郎, 목포지장에 山本小源太, 독섬지장에 久次米邦臧, 용산지장에 岩田次郎이 각각 임명되었다. 또한 수원 본장 인근의 농림학교를 부설 기구로 병합하고 학교장은 본장 장장인 本田幸介가 겸임하였다. 이로써 수원 권업모범장은 산하에 5지장 1학교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sup>32)</sup> 권업모범장의 조직 정비와 함께 이에 필요한 국고 지원도 크게 늘어났다. 1911년 권업모범장에 대한 國費는 206,416원으로 이는 총독부가 농업장려 시설비로 배정한 국비 중 46.7%에 해당하는 비용이었다.<sup>33)</sup>

일제가 강점 직후부터 권업모범장의 조직 정비를 단행한 것은 통감부시기부터 추진해 온 농사개량, 특히 米作개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일제는 조선을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사개량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강점 직후부터 총독훈시나 관계법령의 제정 등을 통해 그 중요성을 천명하였으며, 이와 함께 농사개량을 추진하는 중심 기구로서 권업모범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910년 10월 寺內총독은 시정방침 훈시에 농사개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1912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훈령으로 우량미종의 보급, 건조조제의 보급, 관계수의 공급, 시비의 장려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작개량의 장려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sup>34)</sup> 이러한 방침을 토대로 1912년 12월 농업기술관 회동에서 미작개량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지시되었다. 그 내용은 통감부시기 권업모범장 및 기타 기관에서 試

31) 『朝鮮總督府官報』 1910년 10월 1일.

32)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十五年誌』 上卷, 3~4쪽.

33) 『朝鮮의 農業』, 1921, 112쪽.

34) 小早川九郎 편저, 앞의 책, 189, 232, 249쪽.

작을 거치지 않고 일본품종을 장려함으로써 조선농민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권업모범장 본장·지장 또는 도종묘장의 시험성적에 의거하여 작물의 장려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5)</sup>

권업모범장이 강점 직후부터 식민농정을 추진하는 중심기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 기능을 극대화하고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계속 이어졌다. 1911년 4월 7일에는 관제 개정을 통해 권업모범장 직원 수가 35명에서 49명으로 늘어났다.<sup>36)</sup> 1912년 4월 1일에는 목포지장의 업무를 면화재배시험과 면화개량에만 국한시켜 綿採種圃사업은 道에 이관하였으며, 원산에 새로이 출장소를 설치하여 北鮮지방의 원예사업의 개량지도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1914년 3월 3일 총독부훈령 제7호로 '사무분장 규정'이 개정되어 대구·평양·용산지장이 폐지되었다. 또한 원산출장소가 德原支場으로 개칭되고 洗浦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대구·평양지장의 폐지는 종전 이 두 지장의 핵심 사업인 농사개량 지도에 관한 업무는 도종묘장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道로 사업을 이관한데 따른 것이다. 용산지장의 폐지는 1913년에 본장에 原蠶種製作所가 설치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용산의 여자잠업강습소도 수원으로 이전하였다. 이어 권업모범장의 업무 분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1917년 6월에 '사무분장 규정'이 개정되어, 목포지장은 목포면작지장, 독섬지장은 독섬원예지장, 세포출장소는 세포목양지장, 原蠶種製作所는 잠업시험소로 개칭하였다.<sup>37)</sup> 각 지장을 명칭을 사업업무에 따라 개칭한 것은 권업모범장의 업무 증가에 따라 각 지장의 고유 업무와 그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권업모범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권업모범장은 이러한 조직 정비를 통해 식민농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갖추어나갔다. 그 주요 업무는 水稻品種·잠업·면화·원예작물 등의 시험·조사, 품종의 육성과 배부, 농사 지도와 장려 등 농사개량에 관한 광범한 사업이었다. 이 중에서도 권업모범장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쌀 품종개량과 보급이었

다. 실상 구한말 권업모범장이 설립된 근본적인 배경도 일본 상인들의 쌀품종 개량에 대한 요구였으며, 조선을 식량 공급기지화 하려는 일제로서도 쌀 품종 개량과 보급은 시급한 문제였다. 이 때문에 권업모범장은 설립 이후 줄곧 쌀 품종 개량과 개량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1910년대 초까지는 품종개량의 실적은 저조하였으며, 일제가 초기부터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권업모범장이 품종개량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1912~13년부터였다. 품종개량은 기사 武田總七郎의 주도로 품종육성과 시험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sup>38)</sup> 그러나 권업모범장에서 추진한 품종개량은 일본 품종의 시험 경작을 통해 조선에 적합한 품종을 개량하고 이것이 조선의 재래품종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을 뿐이었다.

이후 일본 품종은 우량품종이라는 이름 재래품종을 밀어내고 급속히 보급되어 갔다. 그리하여 1912년 현재 일본 품종의 보급률이 3%에 불과하던 것이 1919년에는 53%에 달했고 특히 삼남지방의 보급률은 60~80%에 달했다. 쌀의 품종개량 속도는 콩·보리·밀 등의 품종개량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져, 1919년 당시 콩은 16%, 보리는 7%, 밀은 3.7%에 불과하였다.<sup>39)</sup>

그런데 일본품종이 보급이 급속하게 확산된 것은 지주·농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또는 재래품종보다 그 질이 월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1910년대 조선 지배의 특징인 강압적인 무단통치가 농사개량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이었다. 농사개량에는 항상 헌병과 경찰이 개입되었으며, 이들은 강압적인 방법과 철저한 감독·지도로 일본품종의 보급에 앞장섰다. 다음은 그 실상에 대한 내용이다.

금일 조선을 여행하는 사람은 수리조합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한 오지에 이르기까지 우량품종이 보급되고 改良苗埕가 만들어지고 正條植이 철저히 행해지고 피뽕기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어서, 조선 농농사의 약진적 발전을 경이의 눈으로 지켜보게 된다. 그러나 그 발전의 이면에는 관헌의 놀랄만한 강

35) 朝鮮農會, 『朝鮮農務提要』, 1936, 1077~1078쪽; 김도형, 앞의 글, 164쪽.

36)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4월 120일.

37)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十五年誌』 上卷, 5~6쪽.

38) 김도형, 앞의 글, 176~177쪽.

39) 鮮米協會, 『朝鮮米の進展』(1935), 111~112쪽; 小早川九郎 편저, 앞의 책, (발달편) 부록 <표 17>; 정연태, 앞의 글, 444~445쪽.

권적 농업지도의 역사가 깔려있는 것이다. 지도자의 올바른 지시에 따르지 않는 못자리는 짓밟혀 부서지고, 정조식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밭을 뽑아버리고 다시 심도록 강요한다. 피땀기는 수없이 통일적인 계획하에 농민을 동원하여 강행한다. 소위 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경찰의 說諭를 받아 강제적으로 행하게 된다. 품종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정한 장려품종이 정해지고, 이의 연차적 보급 생산계획이 계통적으로 정연하게 확립되고, 정해진 품종 이외의 재배는 금지되어 농민의 의욕과 관계없이 강력하게 실행된다.<sup>40)</sup>

일제는 이러한 강압적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품종을 조선에 이식하였으며, 여기에는 권업모범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컸다. 권업모범장은 조선에 적합한 일본품종의 시험·조사뿐만 아니라 그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관헌들과 함께 농사지도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일본품종의 조선 이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즉 보급 초기에는 재래품종과 비교할 때 생산력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농법이 조선의 농업현실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sup>41)</sup> 일본품종은 施肥와 水利개선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수확량이 증대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재래품종과 별 차이가 없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실정이었다. 일본품종이 주로 삼남지역을 중심으로 우량한 토지 지역에서 큰 효과를 본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결국 토지개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품종개량은 한계를 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조선의 논농사 지역은 대부분 天水畵이었다. 1920년 현재 일제가 조사한 灌溉設備상황을 보면 전체 논면적 150여 만 정보 중에 관개설비를 갖춘 지역은 30여 만 정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0여 만 정보는 천수답이었다.<sup>42)</sup>

일제도 처음부터 토지개량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1906년 3월 「水利組合條例」를 공포하고<sup>43)</sup> 수리조합사업을 적극 권장한 것도 그 일환이었

다.<sup>44)</sup> 그러나 토지개량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910년대까지 일제는 적극적인 조성책을 펼 수가 없었다. 더욱이 1910년대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사업(철도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sup>45)</sup> 농업방면에 투자할 재정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농정은 적은 자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량품종의 보급 등의 농사개량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토지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재래의 堤堰·泐의 수축에만 집중되었을 뿐이었다. 제언·보의 수축사업이 기술과 자금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그 효과는 비교적 컸기 때문이다.<sup>46)</sup> 기술과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리조합사업에 대해서는 法으로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 그쳤고, 그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는 지주의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08~1917년 동안 설치된 수리조합은 14개소에 불과했고, 수리조합 蒙리구역 총면적도 전체 畵면적의 약 1.7%, 전체 관개면적의 약 7.8%에 지나지 않았다.<sup>47)</sup>

이렇게 1910년대 품종개량을 통한 쌀 증산이 한계에 부딪히자 일제는 식민농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게 된다. 1920년부터 토지개량사업의 중심의 '산미증식계획'의 추진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1910년대 식민농정의 중심 기구로서 농사개량사업의 참모 역할을 수행한 권업모범장도 그 조직과 기능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즉 농사개량 지도·장려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조선 농업에 대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미작개량 중심의 조사연구에서 벗어나 농업 제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요청되었다. 그 일환으로 1919년 4월 관제 개정을 통해 기사 2인, 서기 2인, 기수 5인을 증원하여 북부지방의 田作개량과 西鮮지역의 在來棉재배·개량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sup>48)</sup>

44) 수리조합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박수현, 『일제하 수리조합 항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1, 제1장 참조.

45) 河合和男, 『朝鮮における産米増殖計劃』, 未來社, 1983, 92쪽.

46) 朝鮮總督府, 『朝鮮總覽』, 1933, 386쪽.

47) 위의 책, 393쪽.

48)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十五年誌』 上卷, 8쪽.

40) 久間健一, 『朝鮮農業の近代的様相』, 1935, 7~9쪽; 정연태, 앞의 글, 429~430쪽.

41) 김도형, 앞의 글, 193쪽.

42) 朝鮮總督府, 『朝鮮の土地改良事業』, 1928, 2쪽.

43) 度支部令 제3호, 1906년 3월 26일 공포. 『官報』 1906년 4월 4일.

### 3. 1920년대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기능

1920년대 일제의 식민농정의 핵심은 산미증식계획이었다. 1920년에 시작되어 1934년에 중단된 산미증식계획은 1910년대의 식민지농정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동원되었으며 조선의 농업구조를 뒤바꾸어 놓을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크게 토지개량사업과 농사개량사업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는데, 계획의 핵심은 토지개량사업이었다. 그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조선의 실정상 토지개량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쌀의 증산은 물론이고 일본 품종의 보급이나 비료 증시 등의 농사개량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이미 밝혀진 대로 일본 국내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급속한 공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쌀 생산이 정체되었고, 이에 따른 쌀 수급관계의 불균형은 가격 폭등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1918년 '쌀소동'이 일어났다. 일제는 쌀값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소동' 직후인 1918년에 '임시국민경제조사위원회'(1919년 '임시재정경제조사회'로 바뀜)를 설치하고 1919년에는 「開墾助成法」, 「主要食糧増殖獎勵規則」 등을 시행하지만,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조선 대만을 축으로 하는 植民地米 증식계획이었다.<sup>49)</sup> 이에 따라 일제는 '조선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여 답 80만 정보의 토지개량을 30년에 걸쳐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먼저 제1기 계획으로서 15년을 기해 42만 7,500정보의 토지개량사업을 완성하고 경종법을 개선하여 약 920만석의 산미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sup>50)</sup> 그 방안으로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토지개량사업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sup>51)</sup>

그러나 1925년까지의 산미증식계획은 금리 인상, 물가 등귀, 예산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sup>52)</sup> 1926년부터 종래의 계획을 수정하여 새롭게 추진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12년(완성은 14년)에 걸쳐 총 35만 정보의 토지개량을 시행하고 이와 함께 농사개량사업을 추진하여 822만여 석의 산미를 증산한다는 것이었다. 이 중 핵심이 되는 토지개량사업은 약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리조합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사업비 조성은 국고보조 6,500여만 원, 기업자 조달금 3,900여 만원, 나머지는 일본정부의 저리 알선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다.<sup>53)</sup> 또한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와 동양척식주식회사 산하의 '토지개량부'를 설치하여 공사의 설계, 공사의 시행, 사업의 유지 관리 등 토지개량사업에 필요한 것을 대행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들어 산미증식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제 농정의 중심도 농사개량사업에서 토지개량사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1910년대 농사개량사업의 중심 기구였던 권업모범장도 농정의 변화와 시대의 추세에 따라 그 조직과 역할의 변화가 모색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1월 관제를 개정하여 기수 2인을 증원하고 이를 당시 민간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던 양돈·양계와 牧馬사업에 충원하였으며, 동년 4월에 사리원과 용강에 西鮮支場과 龍岡棉作出張所를 설치하여 각각 田作과 면작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1921년 6월 관제 개정을 통해 기사 3인과 5인을 증원하여 종전과 달리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곤충 등 種藝·化學 전반에 걸친 시험연구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또 시대적 추세에 맞게 토지개량에 필요한 농기구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sup>54)</sup>

그러나 1920년대는 일제가 토지개량사업을 통한 쌀 증산에 역량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농사개량사업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권업모범

49) 暉峻衆三, 『日本農業史』, 有斐閣選書, 1985, 123~127쪽.

50) 朝鮮總督府, 『朝鮮の農業』, 1941, 28쪽.

51) 일제는 산미계획의 수립과 함께 「土地改良事業補助規則」 제정하여 수리조합뿐 아니라 개인 또는 공동이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에도 보조를 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畚의 灌溉改善은 사업비의 2할 이내, 田을 畚으로 할 경우는 2할 5푼 이내, 田 이외의 토지를 畚으로 할 경우는 3할 이내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土地改良事業補助規則」(朝鮮總督府令 제197호) 제3조. 『朝鮮土地改良關係例規』, 479쪽.

52) 1925년까지의 토지개량사업은 일제가 계획한 착공면적 165,000정보 중에 59%인 97,500정보만이 달성되었다. 菱本長次, 『朝鮮米の研究』, 1938, 34쪽.

53) 위의 책, 112쪽.

54)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十五年誌』上卷, 8쪽.

장의 기능과 역할도 이전에 비해 약화되었다.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체제도 1920년대 중반까지는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직 규모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1923년 5월의 관제 개정 때는 기사 1인과, 기수 3인이 감원되었으며, 1924년에는 기사 5인, 屬 3인, 기수 9인이 감원되는 등 농사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축소되었으며 독섬·세포 두 지장도 폐지되었다.<sup>55)</sup> 권업모범장의 기능이 약화된 데는 일제 농정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그동안 일제 식민농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오랜 기간 장장을 지냈던 本田幸介의 퇴임과도 무관하지 않았으리라 보여진다. 本田幸介가 1919년 12월 10일 장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일제 농정에서 차지하는 권업모범장의 위상과 역할은 이전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후 장장은 북해도제국대학 교수인 本左五郎에서 1923년 3월 구주제국대학 교수인 大工原銀太郎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1926년 3월 구주제국대학 교수 加藤茂苞로 교체되었지만,<sup>56)</sup> 모두 本田幸介에 비해 일제 농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낮았다.

이렇게 권업모범장은 산미증식계획의 추진과 함께 1910년대와 같은 식민농정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권업모범장을 실질적인 시험·연구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총독부 당국자나 권업모범장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권업모범장을 식민농정을 보좌하는 연구기관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산미증식계획의 시작과 함께 조직 개편을 통해 연구기관으로서의 변화를 시도한 바 있지만, 본격적인 개편 움직임은 제1차 산미증식계획이 실패로 끝난 이후부터였다. 1926년 3월 장장으로 취임한 加藤茂苞은 취임 초부터 연구기관으로서의 권업모범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년 12월 ‘전조선지주간담회’에서는 권업모범장을 ‘시험연구기관’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하였다.<sup>57)</sup> 총독부 당국자들도 시험·연구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수원 권업모범장의 내실을 통한 연구기관화 또는 새로운 시험기관의 설치를 강조했다. 이렇게 연구기관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또한 권업모범장을 연구기관으로 개편하려는 요구가 증대되자, 1928년 권업모범장에서는 총독부에 정식으로 권업모범장을 농사시험장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sup>58)</sup>

이에 따라 총독부는 1929년 9월 17일 칙령 제279호로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官制」를 공포하여 권업모범장을 ‘농사시험장’으로 변경하였으며, 1930년 1월 8일에는 총독부 훈령 제7호로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 事務分掌規程」을 공포하여 농사시험장의 조직과 업무를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통감부시기부터 일본 농법의 강제 이식을 목표로 농사개량의 장려·지도를 주도했던 권업모범장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官制〉

제1조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은 조선총독의 管理에 속해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 一. 농업·蠶絲業 및 축산업의 개량발달에 관한 조사와 시험
- 二. 토양·비료·농산물·桑葉·生絲·축산품 기타 농업·잠사업 및 축산에 관계된 物料의 분석 감정과 조사
- 三. 種子·種苗·種畜·種禽 및 種卵의 생산과 배부
- 四. 原蠶種의 제조와 배부
- 五. 강습 및 講話

제2조 농사시험장은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 場場
- 技師 전임 14인 奏任(1인은 勅任으로 한다)
- 屬 전임 6인 判任
- 技手 전임 30인 判任

제3조 장장은 기사로 충당하고 조선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아 場務를 처리한다.

제4조 기사는 장장의 명을 받아 기술을 관장한다.

제5조 속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6조 기수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기술에 종사한다.

제7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농사시험장 支場 또는 출장소

55) 위의 책, 9~10쪽 ; 김도형, 앞의 글, 171쪽.

56) 위의 책, 8~9쪽.

57) 『朝鮮農會報』 21-4(1926), 2쪽 ; 김도형, 앞의 글, 173쪽.

58) 김도형, 앞의 글, 173쪽.

를 두어 本場의 사무를 分掌할 수 있다.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sup>59)</sup>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 事務分掌規程〉

제1조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에는 서무과, 種藝部, 化學部, 病理昆蟲部, 畜산부, 잠사부, 및 여자잠업강습소를 둔다.

제2조 서무과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 一. 문서의 授受발송과 보관에 관한 사항
- 二. 인사에 관한 사항
- 三. 회계에 관한 사항
- 四. 官印의 管守에 관한 사항
- 五. 他部의 主管에 관한 사항

중예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 一. 농작물 및 원예작물의 시험과 조사에 관한 사항
- 二. 종묘의 생산과 배부에 관한 사항
- 三. 개간 간척 및 토지개량에 관한 사항
- 四. 기타 種藝 및 토지개량에 관한 사항

화학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 一. 토지와 비료의 시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二. 농업과 관계된 物料의 분석 감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三. 기타 農藝化學에 관한 사항

병리곤충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 一. 식물병충해의 시험과 조사에 관한 사항
- 二. 기타 식물 병리와 곤충에 관한 사항

축산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 一. 축산의 발달 개량에 관한 시험과 조사에 관한 사항
- 二. 종축, 종금 및 종란의 생산과 배부에 관한 사항
- 三. 기타 축산에 관한 사항

잠사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

- 一. 잠사업의 발달 개량에 관한 시험과 조사에 관한 사항
- 二. 원잠종의 제조와 배부에 관한 사항

59) 1931년 6월 19일 개정,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十五年誌』上卷, 16~18쪽.

三. 기타 잠사업에 관한 사항

여자잠업강습소는 여자잠업강습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이리에 南鮮支場, 사리원에 西鮮支場, 갑산에 北鮮支場, 목포에 木浦棉作支場, 김제에 金堤干拓出張所, 龍岡에 龍岡棉作出張所, 車輦館에 車輦館蠶業出張所를 둔다.

제4조 南鮮支場은 稻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西鮮支場은 田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北鮮支場은 북선농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木浦棉作支場과 龍岡棉作出張所는 면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金堤干拓出張所는 간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車輦館蠶業出張所는 잠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 장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前條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무를 지장 또는 출장소에 분장할 수가 있다.<sup>60)</sup>

농사시험장은 위의 ‘관계’와 ‘사무분장규정’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시험·연구기관으로서 권업모범장에 비해 조직이 크게 확대되었다. 직원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담당 부서도 확대 개편하여 연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化學부와 病理昆蟲部를 설치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강화하였다. 화학부의 토지 및 비료에 관한 사항이나 병리곤충부의 식물병충해 분야는 농업연구기관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분야였다. 또한 중예부를 두어 농사개량 뿐 아니라 토지개량에 관한 사항도 본격적으로 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농업 전반에 걸친 종합연구기관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토지개량사업은 당시 일제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농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도 지니고 있었다.<sup>61)</sup>

그러나 농사시험장은 1934년 산미증식계획의 중단, 1937년 이후 전시체제에 따른 농산물 수탈의 강화 등 정세의 변화에 따라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연구결과의 실제 적용도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60) 1931년 3월 총독부훈령 제9호로 개정.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十五年誌』上卷, 18~20쪽.

61) 농사시험장 각 부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事業一覽』, 1931, 6~31쪽 참조.

## 맺음말

권업모범장은 1906년 4월 「통감부권업모범장관제」 공포와 함께 출범하였다. 권업모범장의 출범은 당시 국내에 진출한 일본 상인들의 요구와 일제의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일본 상인들은 조선 쌀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사시험장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는 조선을 식량 공급기지로 재편하려는 일제의 정책과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권업모범장은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범'이란 일본 농업과 품종의 우수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였다. 즉 권업모범장은 일본 농업의 우수성을 보여주어 조선에 일본 품종을 강제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원 권업모범장이 정식으로 開場된 것은 1907년 5월이었다. 1907년 초 통감부 소속의 권업모범장이 한국정부로 이양되면서 「권업모범장관제」의 공포, 조직 재정비, 시설 확충 등 창설 업무를 마무리하고 정식 개장하게 된 것이다. 직원은 場長 외에 기사 7인, 기수 12인, 서기 4인을 두었다. 한국정부로의 이양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이를 일제가 받아들인 것은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운영을 장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선전효과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한국정부의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통감부의 지휘통제를 받았다. 「권업모범장관제」도 「통감부권업모범장관제」를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이었고 직원 대부분도 일본인이었다. 이후 각 지역에 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08년부터는 각도에 권업모범장의 기능을 보좌하고 실행하는 種苗場이 설치되었다.

일제는 이렇게 권업모범장의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조선의 농업을 식민지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 일제가 농업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일본농법의 보급과 품종개량을 통해 조선의 농업을 식민지적으로 재편하는 것이고,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권업모범장이었다. 권업모범장의 가장 주된 사업의 일본품종을 우수성을 선전하고 이를 조선에 강제 이식하는 일이었다. 권업모범장은 곧 식민농정을 주도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욱

이 장장인 本田幸介는 당시 일제 농정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당시 권업모범장이 주도했던 농사개량사업은 예산 부족, 조선인의 저항 등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권업모범장의 조직이 강화되고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1910년대였다. 일제는 강점 직후인 1910년 9월 통감부 시기의 관제를 재정비 한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관제」를 공포하고 이어 동년 「조선총독부권업모범장관제 사무분장규정」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기사·서기·기수 등의 전문 인력을 크게 증원하고, 출장소도 支長으로 개칭하고 그 수를 늘렸다. 또한 그 부설기구로서 수원농림학교를 두었다. 국비 지원도 대폭 강화하여 1911년 현재 당시 총독부가 농업장려 시설비로 배정한 국비의 46.7%에 해당하는 206,416원이 권업모범장에 지원되었다. 일제가 이렇게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지원을 강화한 것은 1910년대 식민농정의 핵심을 농사개량사업에 두었고, 이를 위해서는 권업모범장의 역할이 막중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제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일본 품종의 보급을 통한 米作개량이었다. 이 때문에 권업모범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조선에 적합한 일본품종을 시험을 통해 개량하고 보급하는 일이었다.

그 결과 1910년대 일본 품종의 조선 보급률은 1912년 3%에 불과하던 것이 1919년에는 53%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일본품종의 보급 확산은 조선 지주·농민의 자발적 의사나 또는 일본품종이 재래품종보다 그 질에서 월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1910년대 무단통치의 특징인 헌병경찰의 강압적인 감독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권업모범장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 권업모범장은 일본품종의 시험조사 뿐 아니라 관현들과 함께 농사지도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권업모범장의 일본품종 개량과 강압적인 지도에 따른 일본품종의 조선 이식은 1910년대 후반에 들어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일본 농업과 품종이 조선의 농업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생산력의 한계를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일제의 식민농정은 농사개량 중심에서 토지개량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고, 농사개량의 중심 기구였던 권업모범장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증식계획은 권업모범장의 조직과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산미증식계획은 이미 알려진 대로 대규모 토지개량사업에 역점을 둔 일제

의 대표적인 식민농정이었다. 상대적으로 농사개량사업이 농정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적을 수밖에 없었고, 권업모범장의 기능과 역할 또한 점차 축소되었다. 산미증식계획의 추진과 함께 몇 차례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그 방향은 기능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인원 감축 등 조직을 축소하는 쪽으로의 개편이었다.

이에 따라 1920년대 중반부터 권업모범장을 실질적인 시험 연구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총독부 당국자나 권역모범장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1928년 권업모범장에서 총독부에 시험과 연구를 전담하는 ‘농사시험장’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29년 9월 「조선총독부농사시험장관계」가 공포됨으로써 통감부시기부터 일본 농법의 강제 이식을 목표로 농사개량의 장려·지도를 주도했던 권업모범장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연구기관인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

## Abstract

#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 of Suwon Kwenupmobumjang(勸業模範場)

Park Su-Hyeon

Kwenupmobumjang in 1906, April, was based on the political necessit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at the request of Japanese merchant. Kwenupmobumjang, was not for the purpose of researches and investigation but it was showing only model. Namely, Kwenupmobumjang showed the excellency of Japanese agriculture, after that, it was going to transplant Japanese kind to Chosun by compulsion. But before in 1910, an farming reforming business had much limits – a budget insufficiency, resistance of Chosun’s, etc – to propel in earnest. In 1910’s, Kwenupmobumjang’s organization and function became intensive greatly. Therefore, the supply of Japanese kind in Chosun was increased largely. The military police’s coercive supervision and direc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here. The end of 1910’s, there were marginal productivity. Japanese agriculture and kind could not fit into Chosun’s agriculture. So Japanese’s colonial agriculture policy had to convert farmland improvement into land improvement.

Kwenupmobumjang, a center of farmland improvement need to reorganize. It’s started in 1920 and A plan for increasing Rice Crop brought out very big change into Kwenupmobumjang’s organization and function. And this policy was representative colony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The farming reforming business was of small number in position and specific gravity of the agricultural policy, and Kwenupmobumjang’s faculty and function was reduced by

degrees. Sanmijungsic plan's propulsion and reorganization were accomplished as curtailing the expenses. Finally, in setember 1929, Kwenupmobumjang got its all work done, and reorganize an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

Keyword : Kwenupmobumjang(勸業模範場), Japanese agriculture, farming reforming business, a plan for increasing rice crop,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

##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구성원과 식민지 농업지배

김도형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머리말	3. 산미증식계획의 실시와 권업모범장의 구성원
1. 한말 권업모범장의 설립과 구성원	4. 권업모범장 구성원의 농업기술 연구
2. 1910년대 농업정책과 권업모범장의 구성원	맺음말

---

### 머리말

한말·일제하 경지면적을 확충을 통한 외연적 확대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제는 식민지 농업수탈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본식 농업기술체계를 보급하여 식민지의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이같이 일제는 체계적으로 일본식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수탈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설립한 농업기구가 勸業模範場이다.<sup>1)</sup>

일제하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곳은 조선총독부의 농정당국이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일제의 권업모범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기술기구와 朝鮮農會·金融組合 등의 농업관련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일제의 농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두

---

1) 金度亨, 「勸業模範場の 식민지 농업지배」 『한국근현대사연구』 3, 1995 참조.

뇌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하면, 후자는 이를 농업현실에 전파하는 모세혈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일제의 농업관계자도 말하였다시피 권업모범장 등 농업기술기구는 조선농업의 '參謀部'로 기능하였으며, 조선농회는 '別動隊'로 활동하였다.<sup>2)</sup> 이처럼 권업모범장이 두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농업을 시험할 수 있는 연구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권업모범장은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 부속기관을 포함하여 3백명 이상의 인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농업기술 기관이었다. 1906년 6월 권업모범장이 개설될 때 技師·技手·書記 등 18명에 불과하였지만, 1910년 9월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관제」와 「사무분장규정」이 공포되었을 때 기사 10명, 기수·서기를 포함하여 35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권업모범장이 본격적으로 시험과 연구를 할 수 있는 1929년 말 農事試驗場으로 확대 개편될 당시에는 보조인력까지 포함하여 3백 여명의 인력을 갖추게 된다.<sup>3)</sup>

권업모범장의 기사와 기수 등은 농업기술을 시험·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농업을 식민지 농업으로 재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권업모범장의 전문 연구인력들은 품종과 비료에만 의존하는 일본식 농업기술 체계를 보급하여, 한국의 농업구조를 米單作의 기형적 구조로 변질시켰다. 또한 이들은 한국의 전통농법이 근대농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농업구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권업모범장에서 시험과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연구인력과 그 보조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권업모범장은 일제하 최대의 농업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연구 역량에 따라 한국의 농업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권업모범장의 구성원 전체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인 경향만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 1. 한말 권업모범장의 설립과 구성원

한말 근대화과정에서 대한제국정부에서도 농업기술기구를 설립하여 근대적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정부 중심의 농업기술기구의 설립계획은 좌절되고 일제에 의해 권업모범장이 설립되었다. 즉, 일제는 한국정부 주도의 農事模範場 설립계획을 무산시키고, 1906년 4월 「勸業模範場官制」를 발표하고, 그해 6월 15일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개설하였다.

일제 통감부에 의해 설립된 권업모범장에는 場長 이하 技師(전임 6인)·技手(전임 8인)·書記(전임 4인)를 두었으며, 면화재배협회의 위촉에 의해 목포에 出張所를 두어 면화재배사업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처럼 설립 초기 권업모범장의 전임 구성원은 20명 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목적도 「권업모범장관제」를 보면, “한국산업의 발달 개량을 돕기, 모범 및 시험, 한국물산의 조사와 아울러 산업상 필요한 物料의 분석 감정, 종묘·잠종·종금·종돈 등의 배부, 산업상의 지도·통신 및 강화를 담당한다”<sup>4)</sup>고 하여 한국농업에 대한 연구조사·시험을 통해 농업의 개량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권업모범장관제」에서 말한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 일제는 ‘模範’이라는 명칭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농사시험’보다는 ‘권업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권업모범장이 설립된 직후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약속대로 1906년 10월 26일 한국정부에서는 권업모범장을 이양해 줄 것을 통감부에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그해 11월 통감부의 경영방침을 변경하지 않을 것 등 조건을 부처 권업모범장을 한국정부에 이양하였다. 그리고 1907년 3월 22일 「권업모범장관제」<sup>5)</sup>가 황제의 재가를 얻었으며,<sup>6)</sup> 그해 5월 15일 수원에서 권업모범장 本場의 개장식이 거행되었다. 이때 권업모범장의 관제에 의하면 장장 이하 기사(전임 7인), 기수(전임 12인), 서기(전임 4인)를 두고 있어 통감부 소속 때보다 인원이 확대되었다.

4) 統監府, 『明治 39·40年韓國施政年報』, 23쪽.

5) 「勸業模範場官制(광무 11년 2월 9일 勅令 제17호)」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V,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1, 472-473쪽.

6) 『高宗實錄』 광무 11년 3월 22일.

2) 小早川九郎 編著, 『補訂 朝鮮農業發達史』 政策篇·發達篇, 友邦協會, 1959·1960.

3) 김도형, 「1930년대 초반 농업기술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참조.

그러나 실제로 권업모범장은 장장 이하 기사·기수 등 주요 구성원들이 거의 모두 일본인들이었다. 1908년 1월 현재 구성원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韓末 勸業模範場의 構成員

소 속	직 위	이 름
水原本場	技監	本田幸介
	技師	豊永眞里
	技師	向坂幾三郎
	(兼)技師	宮原忠正
	(兼)技師	宮本政藏
	技師	草野嶽男
	書記	山本向郷
	技手	野木傳三
	技手	長岡哲三
	書記	中村脇
	技手	貴島一
	技手	權錫圭
	技手	李必熙
技手	武間卓一	
平壤出張所	技師	花井藤一郎
大邱出張所	技師	戸來秀太郎
群山出張所	技師	三浦直次郎
木浦出張所	技師	佐藤政次郎
	技手	鈴木信太郎
	書記	八重樫

출전 : 『韓國農業參考事項』, 『韓國中央農會報』 2-11, 1908. 1, 6-12쪽.

위의 〈표 1〉과 같이 1908년 현재 권업모범장에는 장장을 포함하여 20명의 인력을 두고 있었다. 그 가운데 행정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 3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전문 농업기술인력은 17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농업기술자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으며, 한국인으로는 본장에 權錫圭과 李必熙 단 두명의 기수가 뿐이었으며, 1909년 대구출장소에 洪在夏가 기수로 있었다.<sup>7)</sup> 위의 기술인력 가운데 장장 혼자

7) 박은경, 『일제하 조선인 관료 연구』, 학민사, 1999, 316쪽.

고오스케(本田幸介)과 기사 토요나가(豊永眞里)가 농학박사였고, 사키사카(向坂幾三郎)는 농학사로서 토양비료 전문가였으며, 미야바라(宮原忠正)는 잠사업 전문가였고, 노기(野木傳三)는 원예·소채 전문가였다.

이와 더불어 1908년도에 들어 중앙에 권업모범장과 지방에 道種苗場 및 각 지방 농업기술관이 배치되었다. 이 기간 권업모범장 농업지배기구의 인적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권업모범장에는 技監 1명·技師 8명·技手 10명, 종묘장에는 진주에 기수 2명이 있었고, 농상공부에는 농무국장 이하 기사 5명, 기수 9명이 있었으며, 지방 농업기술관으로서는 의주·평양·목포·진주·전주·경성·군산·함창·영변·함흥에 기수 각 1명씩 모두 10명을 두고 있었다. 이외에 지방잠업기술관으로 용산에 기사 1명, 광주·군산·강서·함창에 기수 각 1명씩 4명을 두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국장 및 기감을 제하고도 기사 14명, 기수 57명이나 되었다.<sup>8)</sup> 일제의 한국 농업수탈을 위한 제 시설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2. 1910년대 농업정책과 권업모범장의 구성원

1910년 8월 일제에 강점됨과 동시에 권업모범장은 조선총독부의 관할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지방의 종묘장은 지방청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해 9월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관계」가 발표되었으며, 「사무분장규정」이 공포되었다. 권업모범장에는 전임 기사 10명, 전임 서기·기수 35인을 두고 있어 한말 때보다 실질적으로 조직이 확대·개편되었다. 그리고 수원농림학교를 부속시키면서 식민지 농정의 ‘參謀部’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권업모범장은 종래의 ‘出張所’를 ‘支場’이라 개칭하면서, 농림업에 필요한 실무를 교습하기 위해 농림학교를 두었으며, 대구·평양·독섬(蘆島)·용산·목포의 5개소에 지장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권업모범장은 1本場, 5支場, 1學校로 구성되면서 식민지 농업수탈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수원 본장의 사무분

8) 小早川九郎, 앞의 책(政策篇), 145-146쪽.

장은 庶務係, 種藝係, 畜産係로 조직되었다(昆蟲病理係는 1918년에, 分析係는 1927년에 설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업기술 인력이 대거 확충되었는데, 1910년도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에 보면 권업모범장의 구성원은 총 48명에 이르렀다. 수원 본장의 경우 장장을 비롯한 기사가 6명, 기수 7명, 서기 3명으로 16명이었으며, 대구지장에는 기사 2명, 서기 1명을 두고 있었으며, 독섬지장에는 기사 1명, 기수 2명, 서기 2명이 있었으며, 목포지장에는 기사 1명, 기수 9명이 있었으며, 용산지장에는 기사 1명, 기수 2명, 서기 1명이 있었으며, 평양지장에는 기사 1명, 기수 1명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수원농림학교에는 권업모범장 기사를 겸직하고 있는 4명을 비롯하여 敎諭 4명, 助教諭 4명, 書記 1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한국인으로 비록 기사는 없었지만 수원 본장에 權錫圭, 독섬지장에 吳仁東, 목포지장에 姜大猷·康大翼·金允玉·朴宗奎,<sup>9)</sup> 용산지장에는 朴勝運 등 7명의 기수가 있었다. 그리고 농림학교에는 助教諭로 李容勳·李貞圭·林漢龍 등 3명이 있었다.

권업모범장 구성원 가운데 서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험과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농업기술자는 기사·기수·교유·조교유들을 모두 합치면 42명 정도가 된다. 물론 그중에 기수는 기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교유와 조교유는 농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들도 모두 농업기술을 연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제에 강점됨과 동시에 1910년 10월 5일 권농방침으로 테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은 각도 장관에 대한 훈시에서 농사개량 방침을 재천명하였다.<sup>10)</sup> 그중 이른바 '優良米種' 보급의 과제가 권업모범장에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1912년 12월 농업기술관회동에서 「米作에 關한 件」이 지시되었다. 우량품종은 반드시 권업모범장 본·지장 또는 도종묘장의 시험성적에 의거하여 작물을 장려할 것을 지시하였다.<sup>11)</sup>

일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1910년대 농업개량의 사명을 담당할 기관으로 권업모범장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후 권업모범장은 이른바 '우량품종'을 위주로 하

는 일본농업 기술체계의 보급자로서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11년 2월 6일 권업모범장은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여 용산지장에 女子蠶業講習所를 두었으며, 4월 7일 관제를 개정하여 직원수를 35명에서 49명으로 증원하였다.<sup>12)</sup>

이같이 1912년의 「지시」에 의해 농업에 대한 기본방침이 정해지면서 1910년대 권업모범장의 사업은 농업상의 문제에 대한 시험과 연구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권업모범장의 기구조직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연구와 시험을 담당할 인력인 기수의 인원이 축소되는 등 관제개정이 뒷따랐다. 즉 1912년에 3월 관제 개정으로 기사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되었으나, 기수와 서기는 26인으로 감축되었다.

그후 1914년에 이르러 지방제도의 개편 등 식민지체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권업모범장은 지도·장려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비로소 시험·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서 기능할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농업수탈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개편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따라 1914년 3월 「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면서 농업기술의 지도·장려기관인 大邱支場 및 平壤支場이 폐지되었고, 연구적 성격을 가진 원산출장소는 규모를 확장해서 德原支場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잠업의 연구·시험을 강화하기 위해 용산지장을 폐지하고 새로이 「原蠶種製造所」를 설치하였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연구·시험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농업의 기초적인 지도장려사업은 도종묘장 등 지방농업기구에 대폭적으로 이양되었다. 나아가 이전 시기 주먹구구식의 농업시험과 조사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시험·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15년부터 정규 육종사업을 시행하여, 일본에서 도입된 早神力·多摩錦 등에 대한 純系淘汰가 행해졌고, 인공교배 육종에 대해서도 이때부터 소규모로 이루어졌다.<sup>13)</sup>

이와 함께 1916년 농업기술관회동 때 권업모범장에서는 「純系選擇施行標準協定の 件」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종묘장에서 米의 純系選擇 표준을 정하게 하였다.<sup>14)</sup>

12)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4월 12일자, 75쪽.

13) 嵐嘉一·吉野三男, 「舊朝鮮農業の立地·慣行技術·農政事情ならびに試験研究機關の概観など」, 農林省熱帯農業センター, 『舊朝鮮における日本の農業試験研究の成果』, 農林統計協會, 1976, 141쪽.

14) 「純系選擇施行標準協定ノ件」: 1916년 권업모범장 제출, 1927년 2월 개정, 「事項」 朝鮮農會, 『朝鮮農務提要』, 1936, 1246쪽.

9) 康大翼과 朴宗奎는 1909년 농상공부 임시면화재배소 기수로 있다가, 권업모범장 기수가 되었다.

10) 小早川九郎, 앞의 책(政策篇), 189쪽.

11) 「米作ニ關スル件」: 1912년 12월 「指示」 朝鮮農會, 『朝鮮農務提要』, 1936, 1077-1078쪽.

이처럼 권업모범장의 업무가 증가하자, 1916년 4월 기수·서기의 인원을 24명에서 26명으로 증원시켰다.<sup>15)</sup> 1917년 6월 16일 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어, 종래 출장소였던 蘭谷을 牧馬支場으로 승격시켜 본격적으로 牧馬事業이 실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원잠종제소소를 蠶業試驗所로 고쳤고, 각지 지장의 명칭을 고쳐 木浦棉作支場, 蠶島 및 德源園藝支場, 洗浦牧羊支場이라고 칭하게 되었다.<sup>16)</sup> 이처럼 권업모범장의 지장 등이 시험과 연구를 통해 한국농업을 개발시키는 쪽으로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권업모범장이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1918년 3월 30일자로 관제가 재개편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는 제1차대전이 끝나면서 전쟁특수가 식어 가면서, 농업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져 가는 기간이었다.<sup>17)</sup> 즉 이제 권업모범장은 단순한 농사개량 장려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의 제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그 조직이 연구중심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본장에 곤충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종예계가 담당해 왔지만, 1918년에 昆蟲病理係를 두고, 오로지 병충해에 관한 시험조사를 행하도록 하였다.<sup>18)</sup> 이에 따라 기사 9명을 1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그리고 농림업 교습을 담당해 왔던 농림학교를 권업모범장 소관에서 이탈시켰다.<sup>19)</sup> 이에 농림학교는 農林專門學校로 승격되었으며, 그해 3월 「조선총독부 수원농림전문학교 관제」가 발표되어 1918년 4월 15일에 개교하였다.<sup>20)</sup>

15)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官制中改正」 『朝鮮彙報』 1916. 5, 206쪽.

16)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事務分掌規程」 『朝鮮彙報』 1917. 8, 440쪽; 「勸業模範場の支場設置」 『朝鮮彙報』 1917. 8, 166쪽.

17) 小早川九郎도 1918년부터 '조선농업의 전개기'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농업수탈을 위한 제반시설이 정비되었다고 하였다.

18)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一覽』, 1931, 22쪽.

19) 「朝鮮總督府勸業模範場官制中改正の件勅令」, 『朝鮮農會報』 13-5, 1918. 5, 59쪽.

20) 「水原農林專門學校開校式」, 『朝鮮農會報』 13-5, 1918. 5, 63쪽.

### 3. 산미증식계획의 실시와 권업모범장의 구성원

1910년대 말 권업모범장이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1918년 3월 「관제」가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권업모범장의 역할이 연구·시험 기관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제의 농업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918년 일본내에서 일어난 이른바 '쌀폭동'이다. '쌀폭동'은 곧 수습되었지만 일제에게는 식민지 한국이 안정적 식량공급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그러자면 식민지에 대한 농업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1910년대까지 권업모범장의 주된 사업은 지도·장려를 통해 '모범'을 보이는 수준이었고, 방법상으로는 한국의 전통적 농업기술과 품종을 馴熟하고 일본식 농업기술체계와 일본품종을 강제적으로 이식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하여 1920년부터 일제가 실시한 대규모 농업정책이 産米増殖計劃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일제가 한국에서 대량으로 쌀을 생산하여 대량으로 반출하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계획을 실시하는 데는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연구·시험 기구의 확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다. 1919년 12월 제2대 장장이 된 하시모토 사고로(橋本左五郎)도 권업모범장을 기존의 '장려·지도적 성격'에서 '시험·연구적 성격'으로 그 위상을 강화시켜 나아가고자 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에서도 1920년 4월부터 산미증식계획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殖産局에서 水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해 11월 土地改良課를 설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土地改良補助規則」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각 지방에는 1921년 4월부터 農務課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쌀증산을 위한 제도적 완비가 진행되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권업모범장의 대규모 확장은 뒤따르지 않았으며, 사업내용도 확충되지 못하였다. 대규모 쌀증산책이 실시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을 관장하는 권업모범장은 조사시험 등 응급적 사항 대해서는 시험·연구가 가능하였으나, 토양, 비료 또는 병리, 곤충 등 농업 전반에 걸친 과학적 연구와 농산제조물 등의 시험연구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었다. 그후 1922년 5월 관제가 개정되어 기수

8명만을 증원하였을 뿐이다. 이것도 1923년 5월 행정·재정정리사업으로 도리어 기사 1명, 기수 3명이 감축되었다.<sup>21)</sup> 그리고 그해 3월 「사무분장규정」이 개정되면서 덕원원에지장이 폐지되었으며, 용강면작출장소는 목포지장에 속하게 하여 木浦支場龍岡棉作出張所로 개칭되었다.<sup>22)</sup>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의 실시와 함께 1920년 1월 권업모범장 관제를 개정하여 기수 2명을 증원하였으며, 그해 3월 27일 권업모범장 지장 및 출장소를 증설하였다.<sup>23)</sup> 즉 그해 4월 13일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에 西鮮支場을 설치하였으며, 4월 14일 평안남도 용강군 용강면에 龍岡棉作出張所를 설치하였다. 서선지장장에는 다케다(武田總七郎) 기사를 임명하여 밭농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용강면 작출장소장에는 코노(河野龍三) 기수에게 면작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1923년 5월 3일 九州帝國大學 교수인 다이구하라 긴타로(大工原銀太郎)가 제3대 장장에 취임하였다. 다이구하라는 農藝化學者로 일찍이 독일에 유학하고 토양·비료학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도 말한 바와 같이 “조선의 농업에 관해서는 심히 연구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권업에 관하여는 전혀 素人이다”<sup>24)</sup>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농업 실정에 대해서 식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권업모범장이 일본의 농업시험장과 비슷한 농업기술 연구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권업모범장의 성격도 당연히 “연구기관에 몸을 두고 있는 자는 연구적 태도로써 연구에 종사해야만 한다”<sup>25)</sup>고 강조하면서 권업모범장을 농업 전반에 걸친 연구기관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었다.<sup>26)</sup>

한편 다이구하라가 장장으로 취임할 시기는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면서 토지가 개량되고 우량품종이 보급됨에 따라 시비량의 증가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한국농업에서 시비량 증가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化學肥料 쪽으로 나

아가는 것이 시대적 대세였다. 그러나 화학비료는 종류의 선정, 시용방법을 틀리게 하였을 때 도리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토양과 비료학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었다. 그런데 이때까지 권업모범장에서는 비료 및 토양에 관한 연구와 시험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토양·비료학의 대가인 다이구하라를 장장을 임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권업모범장에서는 비료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비로소 창시되게 되었다.<sup>27)</sup>

다이구하라 장장 시절 권업모범장은 1923년에 이어, 1924년 12월 다시 행정정리에 따라 기사 5명, 屬 3명, 기수 9명이 감원되는 등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었다.<sup>28)</sup> 이와 더불어 「사무분장규정」도 개정되어 독도·세포 양 지장도 폐지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업모범장의 위상이 축소된 것은 당시 산미증식계획이 가지는 성격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제는 제1차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면서 토지개량사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개량을 등한시하였다.<sup>29)</sup> 따라서 권업모범장의 기능과 역할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이로 인해 제1차 산미증식계획은 토지개량과 더불어 농사개량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sup>30)</sup>

이처럼 권업모범장이 대규모 쌀증산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그 위상이 도리어 위축되면서, 일제는 1926년 4월부터 제2차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2차 산미증식계획 실시를 앞두고 권업모범장 장장 다이구하라가 1926년 3월 19일 구주제국대학 총장으로 감에 따라, 제4대 권업모범장 장장에는 가토 무호(加藤茂苞)가 취임하였다. 가토 장장은 1903년부터 농상무성 키나이(畿内)支場に 재직하면서 멘델의 유전법칙에 의해 일본 최초로 稻品種을 人工交配하였고, 그에 의해 육성된

27) 安藤廣太郎, 「大工原博士の追憶」 『故大工原銀太郎博士記念號 同學會報』, 1934, 4쪽.  
 28) 『朝鮮總督府官報』 1925년 1월 4일자 호외, 4쪽.  
 29)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총독부 당국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산미증식계획의 진전이 늦어지는 까닭은 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物價가 昂騰함과 함께 公事비가 비교적 多額을 요하는 것과 사업자금의 金利는 年 9分 5厘 내지 1할 1分の 이율이었다. 이같은 高率인 자금을 가지고서 이익이 비교적 菲薄한 이러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採算上 企業者の 커다란 苦痛일 뿐만 아니라, 施肥의 증가가 그것에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增收가 豫期에 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의기를 沮喪시키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朝鮮總督府, 『朝鮮産米増殖計劃要綱』, 1926, 28쪽).  
 30) 金度亨, 「일제의 비료정책과 그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 1988, 152쪽.

21) 『朝鮮總督府官報』 1923년 5월 5일자 호외, 1쪽.  
 22) 『朝鮮總督府官報』 1923년 3월 31일자 호외, 5쪽.  
 23) 『勸業模範場支場及出張所増設』 『朝鮮農會報』 15-5, 1920, 5, 31쪽.  
 24) 大工原銀太郎, 「朝鮮の農業には研究の餘地多し」 『朝鮮農會報』 18-6, 1923, 6, 1쪽.  
 25) 大工原銀太郎, 위의 글, 2쪽.  
 26) 大工原銀太郎은 사실상 농예화학의 전문적인 학자였기 때문에 조선의 농업사정에 대해서는 어두웠다. 따라서 그가 권업모범장 장장이 된 이후 조선의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농업수탈을 증대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고 보인다.

벼품종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sup>31)</sup> 그후 농학박사로서 구주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1923년 2월에 총독부 제3회 농업기술원강습회 초청강사로 참석하였으며,<sup>32)</sup> 권업모범장의 촉탁을 받아 한국내 각지를 순회하면서 벼농사 상황을 조사한 바가 있다. 따라서 그는 한국농업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그는 취임과 동시에 벼품종 개량을 위해 나가이(永井威三郎)를 종예부 주임으로 임명하여 벼의 품종개량에 힘을 기울였다.<sup>34)</sup>

이처럼 가토가 장장이 된 배경은 당시 한국의 농업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제1차 산미증식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농사개량을 통한 생산력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일제는 우량품종을 육성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연구기관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될 것은 필연적이었다. 제2차 산미증식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취임한 가토 장장은 “이때를 당하여 권업모범장의 연구가 여러 사항에 대해 기대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권업모범장으로서는 일대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믿는다. 여하한 대계획·대사업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연구와 연락되지 않는 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다”<sup>35)</sup>라고 하여 권업모범장의 시험·연구와 실지 적용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차 산미증식계획도 실패하고 만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가토가 제4대 장장으로 취임하면서 권업모범장은 한국농업의 지도·장려적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연구·시험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으며, 1926년 12월 권업모범장 주최 全鮮地主懇談會의 연설에서 그는 모범장의 위상을 ‘시험연구기관’이라고 설정하였다.<sup>36)</sup> 이러한 연구기관으로의 위상 강화를 꾀하기 위해 1927년 7월 기사전임을 11명에서 14명으로, 기수전임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시켰다.<sup>37)</sup>

31) 「加藤農事試驗場長富民協會より表彰さる」『朝鮮農會報』5-11, 1931. 11, 108쪽.  
 32) 「農業技術員講習會狀況」『朝鮮』1923. 3, 171쪽.  
 33) 加藤茂苞, 「朝鮮米作の改良に就て」『朝鮮農會報』19-2, 1924. 2, 11쪽.  
 34) 佐藤健吉, 「試驗研究並びに普及上の成果-稻作關係-」『舊朝鮮における朝鮮日本の農業試驗研究の成果』, 農林統計協會, 1976, 233쪽.  
 35) 加藤茂苞, 「就任に際して」『朝鮮農會報』21-4, 1926. 4, 2쪽.  
 36) 加藤茂苞, 「産米の増殖に就て」『朝鮮農會報』1-1, 1927. 4, 49쪽.  
 37) 『朝鮮總督府官報』1927년 7월 15일자, 133쪽.

#### 4. 권업모범장 구성원의 농업기술 연구

권업모범장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권업모범장은 일제하 최대의 농업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농업기술자들이 농업기술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권업모범장은 「사무분장규정」에 의해 정원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대개가 규정대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 표는 1911년부터 1929년까지 권업모범장 수원 본장의 직원수이다.

〈표 2〉 권업모범장 수원 본장의 직원수

年度	技師	技手	書記	屬	囑託	合計
1910	6	7	3			17
1911	6	9	3			18
1912	7	8	3			18
1913*	8	7	3			18
1914	8	6	3			17
1915*	12	10	6			28
1916	9	6	4			19
1917	8	7	4			19
1918	8	5	3			17
1919	9	4	3			16
1920	8	6	4			18
1921	7	7	3			17
1922	7	10	3			20
1923	9	14		3	1	27
1922	10	9		4	2	25
1923	9	14		3	1	27
1924	10	9		4	2	25
1925	9	12		3	1	25
1926	10	13		3	2	28
1927	14	13		3	1	31
1928	19	13		3	2	37
1929	12	14		3	3	32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통합시스템 「조선총독부직원록」에서 작성.  
 원자료 :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는 「日本 職員錄」.

위의 <표 2>는 수원본장만의 직원수이기 때문에 권업모범장 전체 구성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1929년 9월 17일자로 「권업모범장관제」가 폐지되고, 칙령 제279호로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官制」가 새로이 제정되었을 때, 기사 15명, 속 6명, 기수 26명을 둘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권업모범장의 정규 직원은 40명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업모범장에는 관제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囑託·雇員·助手 등의 보조인원이 훨씬 더 많았다. 다음 표는 1938년 11월 현재 농사시험장의 직원수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권업모범장 시절의 구성원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표 3> 農事試驗場 職員數 (1938년 11월 현재)

區分	技師	屬	技手	囑託	雇員	助手	副手	見習生	傭夫	牧夫	其他	計
本場	9(10)	4	22(2)	1(1)	49	22	19	11	16	2	43	198(14)
南鮮支場	1		2		3	5		8	1		2	22
西鮮支場	2	1	4		4	7	3		3		2	23
北鮮支場	1	1	7		7	2			3		2	27(2)
木浦棉作支場	1	1	4	(2)	3	6		6	2		1	24
龍岡棉作支場	1		2		2	5		3	4			2(4)
金堤干拓出張所			1	4(4)	2			1				4
車輦館出張所			1		3	2	2		1			9
合 計	15(10)	8	3(2)	6(8)	73	49	24	29	30	2	50	328(20)

출전: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の農業』(1940年版), 219쪽. \*( )안은 兼職.

위의 <표 3>과 같이 1938년 11월 현재 실질적으로 연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는 25명, 기수는 45명이었다. 그외 屬·囑託·雇員·助手·副手 등 연구보조인력과, 見習生·傭夫·牧夫 등 용역을 담당하는 인력을 합쳐 모두 348명이나 되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연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기술자들에 대하여 살펴보자. 다음은 농사시험장이 1931년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二十年誌』에 권업모범장 창설부터 근무했던 사람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 4> 권업모범장의 창립 이래 직원(奏任 이상)

1931.6.현재까지

姓 名	在官事務分掌	退職當時官名	任命日	退職日
本田幸介	場長	技師	1906.5.12	1919.12.10
三浦直次郎	群山出張所	技師	1906.5.16	1913.1.10
佐藤政次郎	木浦出張所	技師	1906.5.4	1910.2.15
町田笑吉	分析係主任	技師	1906.6.19	1908.3.31
宮原忠正	蠶業試驗場長	技師	1906.6.26	1924.10.8
向坂幾二郎	種藝係主任	技師	1906.8.7	1923.3.27
久次米邦藏	蠶島園藝支場長	技師	1906.9.18	1924.12.9
花井藤一郎	平壤支場長	技師	1908.1.1	1911.5.20
戶來秀太郎	大邱支場長	技師	1908.1.1	1911.12.16
宮本正藏	平壤支場長(임시)	技師	1908.1.1	1912.4.26
豊永眞里	分析係主任	技師	1908.1.1	1912.4.1
草野獄男		技師	1908.1.1	1912.3.21
指宿武吉		技師	1908.6.1	1910.10.1
野木傳三	種藝係主任	技師	1909.3.21	1918.4.26
山本小源太	木浦支場長	技師	1910.10.1	1914.8.17(휴직)
岩田次郎	女子蠶業講習所	技師	1910.10.1	1921.3.30
吉永良一		技師	1911.11.19	1930.2.21
三宅鏗吉	平壤支場長	技師	1911.11.21	1928.4.4
村西貞良		教諭	1912.2.12	1929.10.27
菊池爲行	畜産係主任	技師	1912.5.10	1924.12.9
東野稔		教諭	1912.6.6	1913.10.16
鏡保之助		技師	1912.6.26	1920.6.25(휴직)
武田總七郎	西鮮支場長	技師	1912.7.13	1924.12.8
立花運年	大邱支場長	技師	1912.11.4	1913.4.10
片秀次	大邱支場長	技師	1913.4.10	1914.4.4
三原新三	木浦棉作支場長	技師	1913.4.10	1930.7.30
岩崎行高	蠶業試驗所	技師	1918.6.4	1920.7.15
中田覺五郎	病理係主任	技師	1918.6.4	1924.1.10(휴직)
橋本左五郎	場長	技師	1919.12.10	1923.3.15
住吉正喜	蠶業試驗所	技師	1920.9.14	1923.4.9.
鈴木眞吉	分析係主任	技師	1920.10.4	1923.12.9
岡本半次郎	病理昆蟲係主任	技師	1920.10.13	1923.12.9
加藤木保次	種藝係	技師	1922.5.30	1924.12.24
齋藤鐵造	土地改良係主任	技師	1923.1.15	1924.4.11
大工原銀太郎	場長	技師	1923.5.3	1926.3.19
杉弘道	種藝部	技師	1925.1.30	1929.4.30
長曾我部健男	種藝部	技師	1929.4.30	1929.12.10

출전: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二十年誌』, 1931, 24-26쪽.

위의 <표 4>는 권업모범장 설립 이후 奏任 이상의 직원표이다. 이중 장장을 지낸 사람은 혼다 고오스케(本田幸介)·하시모토 사고로(橋本左五郎)·다이구하라 긴타로(大工原銀太郎)이고, 그후 농사시험장 장장을 지낸 가토 무호(加藤茂苞)은 모두 동경대 출신이며, 농학박사들이다.

초대 장장 혼다 고오스케는 동경대 농대 축산학 교수로서 일찍이 1903년 일본 농상무성 조사단의 일원으로 황해도·평안도·강원도의 농업을 조사하였고, 1905년에도 함경·평안·황해 3도에 대해 다시 한번 농산조사를 담당하면서 한국농업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초대 권업모범장의 장장이 되었다. 그는 1907년부터 1919년까지 15년간 장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한국농정의 기본방침과 세부사항을 결정할 최고의 위치에 있었으며, 1910년대 일제의 농정은 대부분 그에 의해 수립·추진되었다.<sup>38)</sup>

제2대 장장 하시모토 사고로는 수원농업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19년 12월 권업모범장 장장이 되었다. 그가 장장으로 있는 동안 기본적으로 초대 장장 혼다의 방침을 따르면서 커다란 역할을 하지 못하고, 1923년 3월 퇴임하였다. 그후 제3대 장장으로는 구주제국대학 교수인 다이구하라 긴타로가 취임하였다. 다이구하라 장장은 독일에 유학하였으며, 農藝化學者로 토양·비료학을 전공하였다. 그가 장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권업모범장에 토양과 비료학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토양·비료학의 대가인 그가 장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다이구하라 장장이 1926년 3월 구주대 총장으로 감에 따라, 제4대 장장에는 가토 무호가 취임하였다. 앞에서 언급 바와 같이 그는 한국의 농업에 대해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육종학의 대가였기 때문에 장장이 될 수 있었다. 그후 그는 권업모범장을 순수하게 농업기술만을 연구·시험할 수 있는 농사시험장으로 개편하였다. 1932년 7월에 권업모범장을 농사시험장으로 개편하는데 중추적인 역

38) 혼다 고오스케가 1930년 4월 2일 사망하였을 때 『朝鮮農會報』에서는 “1906년 통감부 권업모범장을 설립함과 함께 그 장장에 취임하였다. 선생(本田幸介-필자)은 여기서 그 職은 하나의 모범장장이었지만, 통감의 명에 의해 조선농업정책의 기초방침 수립에 부심하여 그것을 통감에게 進言獻策한 바가 있었다. 당시에 있어서 선생의 大精神은 금일 또한 그것을 전통으로 반도 농업정책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一記者, 「朝鮮農界の恩人本田博士を思ひて」, 『朝鮮農會報』 4-5, 1930.5, 15쪽).

할을 해 온 가토 장장이 물러나고, 대신에 새로운 장장으로 구주대 農學部長인 유가와 마다오(湯川又夫)가 임명되었다. 유가와 장장은 동경대 농과대학 농예화학과를 졸업하고, 1909년 동경대학 조교수가 되었으며, 1917년 농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19년부터는 연구를 위해 美·英·獨·瑞 등 각국을 유학하고 돌아왔으며, 1932년 1월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기사에 임명되면서 한국농업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 후 그해 7월 농사시험장 장장이 되었다. 그가 장장될 때 한국농업은 다수확을 목적으로 한 多肥栽培가 실시되면서 화학비료의 사용이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도열병이 만연되면서 농업생산 증대에 지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격 인물로 농예화학 전문가인 유가와가 장장에 임명되었다.

위와 같이 장장들은 모두 학자출신으로 일제는 당시 한국농업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을 장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장장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별로 한국농업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조선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실질적 일제의 농업기술을 담당한 농업기술자들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 표는 1931년 5월 현재 권업모범장의 후신인 농사시험장의 직원표이다.

<표 5> 農事試驗場 職員(1931년 5월 현재)

姓名	所屬	職位	職位	兼職	姓名	所屬	職位	職位	兼職
加藤茂苞	本場	場長	技師	農學博士	久納佑孚	同		技手	
滿田隆一			技師	九州大教授	福田順	同		技手	
八田吉平	同		技師	水原高農教授	野瀬直毅	同		技手	
鈴木竹麿	同		技師	總督府技師	掘越二郎	同		技手	
永井威三郎	同	種藝部主任	技師	農學博士	高崎達藏	同		技手	
中田角五郎	同		技師	九州大教授(農學博士)	今井次郎	同		技手	
油井岱治	同	畜産部主任	技師		西嶋辰雄	同		技手	
江角金五郎	同		技師		岩脇龍也	同		技手	
田中明	同		技師	總督府技師	澁谷佐市	同		技手	
川口清利	同		技師	水原高農教授	和田滋穂	南鮮	南鮮支場長	技師	
西川久	同		技師	農學博士	佐藤健吉	同		技師	
中嶋友輔	同		技師	水原高農教授	原史六	同		技手	
三須英雄	同	化學部主任	技師		永友辰吉	同		技手	
尾崎史郎	同		技師	總督府技師	高橋昇	西鮮	西鮮支場長	技師	

姓名	所屬	職位	職位	兼職	姓名	所屬	職位	職位	兼職
葛野淺太郎	同		技師	水原高農教授	白木新五郎	同		技師	
中山昌之介	同	病理昆蟲部主任	技師	梅田郁彦		同		屬	
菅野八郎	同		技師	平田榮吉		同		技手	
中村鐵夫	同		技師	澤村東平		同		技手	
趙伯顯	同		技師	水原高農教授	星野徹	同		技手	
吉田彦八	同	庶務課主任	屬		小野寺二郎	北鮮	北鮮支場長	技師	
勝木清	同		屬		中馬正義	同		屬	
市山員衛	同		屬		田村嘉機	同		技手	
河田弘	同		屬		雨森恒雄	同		技手	
園田宗介	同		技手		津谷字米三	同		技手	
內田幸夫	同		技手		增淵次助	木浦	木浦棉作支場長	技師	
青山哲四郎	同		技手	總督府稅關技手	井野辰二	同		屬	
大前巖	同		技手		神邊利重	同		技手	
中島三郎	同		技手		石井辰美	同		技手	
藤田四郎	同		技手		和田滋穂	金堤	金堤出張所長	技師	
村田七兵衛	同		技手		一木寬	同		技手	
船越秀雄	同		技手		增淵次助	龍岡	龍岡出張所長	技師	
中川泰雄	同		技手		都築秀男	同		技手	
村松茂	同		技手		田中明	車輦館	車輦館出張所長	技師	
坪內俊三	同		技手		藤田四郎	同		技手	
松永信義	同		技手		松永信義	同		技手	

출전 :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二十年誌』, 1931, 20-24쪽.

위의 <표 5>는 권업모범장의 후신인 농사시험장 본장과 지장의 직원들이다. 대부분 권업모범장 때부터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屬과 같이 직접 농업기술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사와 기수 등 농업기술자만 살펴보도록 하자. 위의 표에서 기사들은 대부분 농업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한국인은 趙伯顯<sup>39)</sup> 한사람 뿐이었고, 전부가 일본인들이었다. 이를 통해 일제는 농업기술을

39) 趙伯顯은 1900년 서울에서 한말 육군참장을 지낸 趙性根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으며, 호는 華農이다. 그는 1916년 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 수원농림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가서 1925년 九州大 농대 농예학과를 졸업하였다. 그해 수원농림 교수가 되었으며, 1930년 권업모범장 기사를 겸임하였다. 그후 수원농림과 농사시험장에서 강의와 연구를 하였다. 그후 해방과 동시

일본인만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하 농업에 대한 전문적 기술은 주로 수원농림고등학교가 중심이 되었다. 지방의 농림학교와 간이 농업학교가 있었지만 이들 농림학교에서는 단순한 농사기능만을 습득시켰을 뿐 농업기술을 시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교육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당시의 신문기사는 “조선이 農國임을 불구하고 외국 유학은 많으나 농학박사는 되지 아니하고, 농림학생은 많지만은 임야와 전답은 荒蕪昆蟲國이 되어 있고 새 農具는 볼 수 없다”<sup>40)</sup>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일제는 한국인에게는 농업기술을 시험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주지는 않고, 단순히 농사의 기능만을 주입 하였던 것이다.<sup>41)</sup>

위의 1931년 당시 농사시험장 직원표에는 유가와(湯川又夫)·미즈다(滿田隆一)·나카다(中田覺五郎)가 구주대 교수를 겸직하고 있으며, 수원고농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자는 하치다(八田吉平)·가와구치(川口清利)·쿠즈노(葛野淺太郎)·조백현 등이고, 총독부 기사를 겸임하고 있는 자들은 스즈키(鈴木竹麿)·다나카(田中明) 등 2명이 있었다. 그리고 농학박사로써는 혼다(本田幸介)·하시모토(橋本左五郎)·다이구하라(大工原銀太郎)·가토(加藤茂苞)·유가와(湯川又夫) 장장들을 제외하고도, 권업모범장 초기 기사였던 토요나가(豊永眞里)와 위의 표에 나와 있는 나가이(永井威三郎)·나카다(中田覺五郎)·니시가와(西川久) 등이 있었다. 그리고

에 1945년 9월 수원농림전문학교 교장이 되었으며, 그해 11월 대구농림전문학교 교장을 겸임하였다. 1946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장이 되었고, 1954년 한국농학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이 되어 4회를 연임하였다. 저서로는 『土壤과 肥料』, 首都文化社, 1952. 『高等農業(上·中)』, 首都文化社, 1964. 『農學概論(譯)』, 合同圖書, 1955. 『農學入門(譯)』, 民衆書館, 1955. 『牧野經營法(譯)』, 翻譯島嶼株式會社, 1958. 『土壤學(譯)』, 翻譯島嶼株式會社, 1961. 등이 있다(韓國農學會, 『韓國農學會誌-趙伯顯先生回甲紀念特輯號』, 1961). 일제하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朝鮮産野生食用植物の食品的價値に就きて』·『豆萌製造中に起る諸成分の變化に就きて』, 朝鮮總督府 水原高等農林學校 創立二十五周年記念祝賀會, 『創立二十五周年記念論文集』, 1932에 所收. 『毛管通水速の實驗式に就て』, 『水原農學會』 創刊號, 1936. 등이 있다.

40) 「우리 農事는 주러간다」 『東亞日報』 1924년 9월 29일자.

41) 이 때문에 조선인으로 농학박사는 1936년에 禹長春이 최초였다. 禹長春 박사는 1919년 7월 동경대 농학부 實科를 졸업하고, 東京府立農事試驗場 기수가 되었으며, 1926년 8월 埼玉縣立農事試驗場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油菜를 연구하여 1936년 5월 농학박사를 받았다(『京城出身の鮮人農學博士』 『朝鮮農會報』 10-6, 1936. 6, 91쪽).

그후 농사시험장의 기사들 중에는 농학박사학위 취득자가 상당히 많았는데, 1932년 동경대에서 농학박사를 취득한 다카하시(高橋昇)가 있었으며, 사와무라(澤村東平)는 京都大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등 대부분의 기사들이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들은 주로 권업모범장 등 농업기술기관에서 시험과 조사를 통해 연구성과를 내놓았고, 이를 정리하여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의 연구성과는 대개 권업모범장·농사시험장의 『회보』나 『연구보고서』를 통해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농업관계잡지라고 할 수 있는 『朝鮮農會報』에도 농업관계 글을 소개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본의 農藝化學會나 遺傳學會와 같은 전문 학회지에 발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권업모범장의 농업기술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연구역량을 갖춘 기사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사들은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성과는 곧 일제의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권업모범장에 있던 농업기술자들은 한국농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제가 한국농업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농업기술자들의 주연구 대상은 역시 한국의 벼농사에 매우 편중되어 있었다. 요컨대 한국의 쌀증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들은 벼품종·재배법 등에 연구와 시험을 집중하였다. 이들이 벼농사에만 연구와 시험을 집중함으로써 일제하 한국의 농업구조는 米單作化가 촉진되었으며, 농업기술을 파행적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권업모범장의 시험과 연구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시험과 연구는 식민지 한국의 농업적 요구보다도 식민지 본국의 요구에 의해 연구의 종류와 대상·방법이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1910년대 권업모범장을 비롯한 농업기술기구에서는 일본품종·기술을 이식하여 농업수탈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그후 일제는 자신의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량반출을 목표로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면서 권업모범장은 시비법의 개량과 벼품종의 개량에 연구와 시험을 집중하였다. 특히 1920년 후반 단위면적당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벼품종의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둘째로 권업모범장의 시험과 연구가 한국의 전통적 관행기술을 경시하고,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일제의 농업기술자들은 식민지 농업기술의 생태학적 합리성과 일본식 시험연구 방법을 하나로 융합하여 한국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기 보다 일본의 농업기술과 맞는 공통부분만을 발전시켰다.<sup>42)</sup> 다시 말해, 권업모범장은 ‘모범장’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한국농업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농업기술적으로 지배하고자 하였다. 즉 한국의 농업에 직접 관여했던 일본인도 “권업모범장 등의 기술기관은 그 본질상 시험이라든지, 조사라든지를 경시하였다”고 말한 바와 같이 권업모범장 시기까지 일본식 농업기술을 이식하는 작업만을 하였던 것이다.<sup>43)</sup>

셋째로 권업모범장의 시험과 연구가 벼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제가 대량의 쌀을 생산하여 대량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농정의 구조에서 연유하는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일본의 밭농사(田作) 기술에 대한 개발능력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한국 밭작물의 발전도 부진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일제는 1931년부터 이른바 ‘田作改良増殖計劃’을 추진하면서, 농사시험장에 새로이 기사 1명, 기수 2명, 고원 4명을 배치하였다.<sup>44)</sup> 이는 일제하 농업기술정책이 기본적으로 벼농사에 심히 편중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로 농업기술기구의 시험과 조사는 한국의 농업발달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표는 일제의 농업발달과 식량증산에 있었다는 점이다. 권업모범장은 시험과 연구를 통해 한국농업의 생산력 증가만을 지향하였을뿐,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농업발달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업모범장의 연구와 시험의 목표는 분명히 한국농업의 발달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고, 식민지에서 농업생산을 증대하여 농업수탈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연구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즉, 권업모범장에서의 시험과 연구는 한국의 농업조건에 적합한 농법을 개발하는 것도 있었지만, 다분히 학술적인 면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일본내에서 시험연구가

42) 蘇淳烈, 『植民地後期朝鮮地主制の研究-全羅北道を中心に-』, 京都大學農學研究科 博士論文, 1994, 107-108쪽.

43) ‘한국산업의 발달 개량을 돕는 모범’을 보이는 데 목적이 있었지, 실질적으로 시험·조사·연구 등은 홀시되었다고 한다(小早川九郎, 앞의 책(政策篇), 62쪽).

44) 小早川九郎, 앞의책(政策篇), 487쪽.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연구와 시험이 한국의 권업모범장에서는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본내에서 육성한 수도 신품종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품종시험·재배시험·비료시험·병충해시험 등 숫한 시험을 거쳐야만 비로소 하나의 품종으로 완성된다. 그런데 일제는 권업모범장을 통해 한국의 ㅅㅅ를 무상의 시험답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며, 한국의 광활한 토지를 하나의 시험지로 상정하고 검정되지 않은 품종을 임상시험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른 한국농민들의 피해는 수량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액수이다.<sup>45)</sup>

## 맺음말

1906년에 일제가 한국의 농업지배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권업모범장은 1929년 '모범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농업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연구기관인 농사시험장으로 개편되었다. 권업모범장으로 존재한 약 23년간 4명의 권업모범장 장장이 있었다. 이들 장장들은 모두 동경대 출신의 농학박사들이었으며, 학자출신으로 당시 한국농업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임명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분야별로 한국농업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주입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업모범장의 농업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기사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한국인 기사로는 조백현 한 사람 뿐이었으며, 기사를 보조하는 한국인 기수들도 10명 내외에 불과하였다.

권업모범장의 기사들은 대부분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연구역량을 갖춘 인력들이었다. 그러나 조직은 일본인 중심으로 조직되어 농업기술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면서, 한국인에게는 농업기술을 시험·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주지는 않고, 단순한 농사 기능만을 주입하였다. 이들 농업기술자들은 한국농업 전반에 대한 연구와 시험을 통해 일제가 한국농업을 지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권업모범장의 농업에 대한 시험과 연구를 통해 그 구성원들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우선 권업모범장의 시험과 연구는 식민지 한국의 요구보다도 식민지 본국의 요구에 의해 시험연구의 종류와 대상·연구방법이 결정되었다. 둘째로 농업기술기구의 시험연구가 전통적 관행기술을 경시하고, 일본으로부터 직수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셋째로 농업기술기구의 시험과 연구가 벼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넷째로 농업기술기구의 시험과 조사는 한국의 농업발달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표는 일제의 농업발달과 식량증산에 있었다.

이처럼 권업모범장 구성원들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충실히 복종하면서 식민지 농업수탈의 전위대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권업모범장의 농업기술자들의 주 연구 대상이 벼농사에 편중되면서 일제하 한국의 농업구조는 미단작화되었다.

45) 예컨대 일제는 1930년 초반 耐肥性和 耐病性이 강한 품종으로 은방주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1932년의 대구모 도열병 발생으로 전북지방의 농업이 폐작하고 말았다. 이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고 그 외에 不良種子·不良品種·不良肥料 등의 피해는 수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Abstract

# The Members of Agricultural Experiment Organization Under the Japanese Rule (1906–1929)

Kim Do-Hyung

Among the various reasons that Japan colonized Korea, the first reason was the need to find a solution to the food shortage troubles in Japan. Japan in order to rectify the problems of food and resource scarcity in Japan increase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In achieving this purpose, Japan enhanced colonial tenancy, but on the other hand promoted the development of improved agricultural techniques in Korea. Especially, for guaranteeing a constant food supply to the metropole, Japan erected the Agricultural Experiment Organization in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thod by which agricultural technology was introduced into Korea and how this transformed Korean agriculture into a typical Colonial Agriculture, I analyzed the Agricultural Experiment Organization. This study was aimed at the Kwon-up mo-bum jang(KUMJ).

The KUMJ established in Suwon, 1906. Japan annexed Korea in August 1910. Afterwards, Japan established the KUMJ Organization Law. The system was reorganized by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and the KUMJ had 5 district offices(支場), Taegu, Pyongyang, Doksum, Yongsan, Mokpo, had 1 Agricultural Technical Education school.

Thereafter, the KUMJ Organization Law for the second time revised in March 1918. This revised had newly created Dept. of insect pathology and

increased agricultural experts. And Suwon agriculture and forestry school that had been affiliated to the KUMJ was raised to the status of junior college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n April 1918. But the KUMJ undergoing of the organization of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broke out change of Japanese agricultural policy in 1918. That is the Rice Riots of 1918. Japanese government was shocked by it, being realized that in order to prevent repetition of the Rice Riots. So Japan had to plan increasing the amount of rice production. Especially Japan gave attention to Korean agriculture in which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amount of rice production by all means. The potentiality of Korean agriculture is to increase the rice production by the methods, bring land improvement and improvement of agricultural technique. Japan was to carry out the Rice Production Development Program in Korea in 1920.

On the other hand, the KUMJ during the first Rice Production Development Program(1920–25) had not accomplished a particular kind. Because the KUMJ managed to important experimentation and investment of agriculture by a half of 1920s.

That while Honda kosuke, the president of the KUMJ from founding, resigned from president of KUMJ. Secondly Hashimoto sagoro who was a prof. of Suwon junior college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as appointed president of the KUMJ in December 1919. And Hashimoto sagoro resigned from president of KUMJ, Daiguhara gintaro, who was a prof. of Kushu Daikoku University, became new president in May 1923. With promoting Second Rice Production Development Program(1926–34), Daiguhara was appointed president of Kushu Daikoku University and Kato muho, who was a prof. of Kushu Daikoku University, took president of the KUMJ in March 1926. Kato, as President of the KUMJ, had been to succeed the first artificial cross-fertilization in Japan and he had developed amount of improved rice varieties.

In the first half of Japanese Imperialism, Japan educated the Japanese

agricultural techniques and plants improved seeds. During the this time the KUMJ was not developed new agricultural technique. Japan forced to its agricultural tradition for the increase of Japan agricultural technique, Korean traditional agricultural technique was destructed totally, deepened the unbalance by only rice development.

Keyword : Food shorgage trouble, agricnetural prodnotion, rice production developement program.

## 일제하 수원 권업모범장의 운영실태

김 주 용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

머리말	3. 사업실태와 식민농정
1. 권업모범장의 설치	맺음말
2. 권업모범장의 조직운영	

---

### 머 리 말

식민지 농정의 특징은 지배와 수탈에 있다.<sup>1)</sup> 비교사적인 측면에서 영국의 인도 식민지 통치 농정과 일제의 조선 농업 통치 실태는 식민지배라는 틀은 같지만 세부적인 측면과 그 후과는 상이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원권업모범장의 설치는 일제가 한반도에서 실행한 농정을 가장 집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식민지 농정의 참모본부로서 권업모범장의 역할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1906년 일제 통감부가 대한제국에 대한 농업정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설치하

---

1) 일제의 식민지 산업정책의 중심이 농업에 있으며,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각종 산업단체, 지주회, 권업모범장, 기타 일본인 중심의 이익단체들을 통해 쌀과 면화의 증산을 독려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일본 본국자본의 식민지 투하로 이어지는 일련의 식민지 금융기구를 통한 수탈체제의 확립이었다(도면희, 「일제의 침략정책(1905~1910)에 대한 연구성과와 과제」, 『韓國史論』 25, 국사편찬위원회, 1995, 310~311쪽).

였던 권업모범장은 농업기술의 시험 조사 및 지도를 주된 사업으로 전개하였고 1929년에는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으로 바뀌었다. 비단 명칭의 전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능의 질적, 양적 확대가 수반되었다. 일본정부 주도로 권업모범장이 설치되었던 이유는 대한제국 주도의 농사시험장이 설치된다면 일제로서는 상당한 부담감 즉 자신들의 뜻대로 농업정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농업부문의 식민지적 재편을 완료한 일본제국주의가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급성장한 일본독점자본의 요구에 부응, 조선을 자국의 식량공급기지로 삼기 위하여 1920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한 식민지경제정책, 일본에서는 제1차세계대전을 계기로 산업자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독점자본의 강화에 따라 대중생활은 궁핍화하였고 특히 농촌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이 때문에 농업생산력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제1차세계대전 중에 이미 증대되고 있던 조선미에 대한 수요는 대전 후 더욱 격증하였다. 이에 일제는 조선을 과잉상태의 독점자본을 투하할 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또한 자국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식량공급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1920년부터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였다.

권업모범장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 농정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출발하였다.<sup>2)</sup> 권업모범장이 일제의 식민농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성과는 많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권업모범장의 본장인 수원권업모범장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권업모범장의 사업실태를 살펴보면서 식민지농정의 큰 틀을 이해하는 데 그 중점으로 두었다. 이를 통해 일제가 조선에서 실행하였던 식민지농정의 특징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다만 운영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권업모범장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金度亨, 「勸業模範場의 식민지 농업지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5.  
 金度衡, 『日帝의 農業技術機構와 植民地 農業支配』, 國民大 大學院 國史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이은웅, 「農事試驗研究와 農業教育」 『한국농업연구 200년 -전통과 계승방안-』, 농촌진흥청·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999.

## 1. 권업모범장의 설치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통치는 원료의 공급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1906년 설치된 권업모범장은 제국주의 국가의 이상을 실현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출발하였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만성적인 쌀부족 국가로 전락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부족한 쌀 보충이라는 데 통치의 무게 중심을 두게 되었다. 1910년대 이후 일제가 조선에서 추진하고 집행하였던 식민통치의 근간도 이러한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식민지배의 안전판을 마련한 일제는 한반도에 자국의 경제시스템을 이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러일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행된 ‘화폐개혁’은 대한제국의 경제주체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신기술을 전파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이 바뀌게 되었다. 특히 일본인은 한국의 농업 가운데 농업 및 쌀의 생산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sup>3)</sup> 권업모범장은 이러한 신기술의 전파와 식민지 농정의 야전사령부로서의 기능이 부여되면서 설치되었다. 1906년 권업모범장은 일제가 조선의 부력증진을 위해 농업의 개량발달을 도모하는 것이 급무라고 인식함으로써 설치되었던 것이다.<sup>4)</sup>

한국정부는 근대적 농사기술을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1905년 12월 29일 칙령 제 60호 농상공학교 부속 농사시험장관제를 발포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에서는 농업개량을 위해 농상공학교 부속 농사시험장뿐만 아니라 1906년 초에 농상공부 주관하에 농사모범장 수립 계획을 세웠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였다.<sup>5)</sup> 일제가 한국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농사모범장 설립을 철저하게 방해하였던 것은 한국농정에 대한 지배력의 약화를 우려한 것과 이후 전개될 식민지적 농정의 차질 우려에서

3)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8 政治編(亞細亞文化社, 1984), 102~104쪽. 당시 일본인은 한국의 농법을 중국과 비교해서 유치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단순한 농구의 사용과 비료의 사용 방법이 조악하여 그 생산량에 있어서 일본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수전과 쌀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다른 농작물 및 농법을 압도하였다. 이는 한국의 주된 농업생산물이 쌀이기도 하였지만 일본의 처지 즉 만성적인 쌀 부족국가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4)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二拾五年誌』(1931), 1쪽.

5) 김도형, 앞의 글(1995), 144쪽.

비롯되었다.<sup>6)</sup> 일본 경영의 권업모범장은 이미 대한제국의 영업 범위를 초월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사례는 당시 일제가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식민지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장치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1906년 4월 26일 칙령 제11호에 의해 통감부권업모범장제가 발표되어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설치되었다.<sup>8)</sup> 이 과정에서 동경제국대학 교수인 本田幸介의 역할이 컸다.<sup>9)</sup> 권업모범장 本場은 통감의 관리 하에 조선산업의 발달 개량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모범 조선물산의 조사<sup>10)</sup> 및 산업상 필요한 物料의 분석 감정, 종묘, 잠종, 종금, 종돈 등의 배부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산업의 지도 통신을 담당하였다. 인적구성은 場長(기사를 이에 충원함), 기사(전임 6인), 기수 (전임 8인) 서기(전임 4인)로 이루어졌으며 1906년 5월에 이르러 구장에 농학박사 本田幸介와 기타 직원을 임명하여 창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소요된 경비는 17만 여원이었다. 경지의 매수 정리, 도로의 축조, 기구 기계 매입, 사무소·실험실·축사 등 건축 기타 업무상 필요한 제반의 설비에 착수하여 1906년 6월 15일 사업을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기사 町田笑吉은 분석 감정 주임에, 기사 宮原忠正은 잠업 주임에, 토지 이용 및 개량주임기사 向坂幾三郎은 種藝 주임 및 축산주임을 임명하였고 농상무성 농사시험장장(기사) 古在由直을 겸임기사, 또 목포출장소 주임에는 기사 三浦直次郎, 게다가 농상무성농사시험장 安藤廣太郎을 면화재배사업 촉탁으로, 독섬 원에

모범장에는 기사 久次米邦藏을 배치하였다.<sup>11)</sup>

1906년 10월 한국정부 사이에 양도 문제가 제기되어 통감부에서는 권업모범장 사업의 경영방침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양도한다는 뜻을 한국정부에 통고하여 한국정부는 1907년 3월 22일 칙령 제17호로서 권업모범장 관제<sup>12)</sup>를 발표하였다.<sup>13)</sup> 권업모범장은 농상공부 대신이 주관하였으며 담당 사업은 통감부 소관 당시와 다를 바가 없었다.<sup>14)</sup> 직원에는 기감(장장겸임) 1인, 기사 7인, 기수 12인, 서기 4인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지방출장소를 설치하여 사무를 분장하게 되었으며 직원 중에 일본 학술가를 초빙하기도 하였다. 1907년 5월 개장식을 거행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되었다.<sup>15)</sup> 본장 이외 출장소로는 목포, 군산, 평양에 두었으며 기사를 각각 배치하였다. 특히 목포출장소의 설치로 권업모범장의 사업 규모와 질이 확대되고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즉 면화재배협회로부터 면화재배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경영 감독하는 임무가 부여된 것이다.<sup>16)</sup>

1908년 10월 1일 한국 황제 순종은 산업장려를 친견한다는 명목으로 수원 본장을 순시하였고<sup>17)</sup> 다음해 6월에는 양잠 장려를 시행하라고 하였다.<sup>18)</sup> 이어 1909년 전라북도에 종묘장을 신설하고 목포에 면화재배소 및 군산에 출장소를 비롯한 각지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규모를 확장하였다.<sup>19)</sup>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조선총독

11)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25年誌』, 1쪽.  
 12) 『韓末近代法令資料集』 4, 國會圖書館, 1971, 472~473쪽.  
 13) 일제로서는 권업모범장 경영을 한국정부에 이양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대외적으로 모범장의 운영에서 손을 떼고 한국의 농정을 한국정부가 스스로 실행한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함이었다(김도형, 앞의 글, 1995, 148쪽).  
 14) 김도형, 앞의 글, 1995, 148~149쪽.  
 15)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25年誌』, 3쪽.  
 16) 면화물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평안도 용강에 면작출장소가 설치되기에 이른다(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農事試驗場一覽』, 1931, 50~51쪽).  
 17) 『韓皇帝模範場臨幸記』, 『韓國中央農會報』 2-20, 1908. 10, 46~47쪽. 원래 순종은 隆陵·健陵에서 親祭를 올린 후 수원권업모범장을 순람한 것이다(『日省錄』 隆熙 2년 10월 2일).  
 18) 농잠업 개량과 잠사업에 대해서는 황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보인 품종이며 사업이었다. 1908년 한국농업기술관회의에서도 자문사항으로 이러한 안건이 다루어졌다(『韓國中央農會報』 2-22, 1908. 11, 36~37쪽).  
 19)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소, 앞의 책, 3쪽.

6) 대한제국이 농업시험장을 설치하려 했던 계획과 일제의 방해에 관한 부분은 김도형, 앞의 글(1995), 145쪽 참조.  
 7)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25年誌』, 2~3쪽 참조.  
 8) 권업모범장 개장식 때 본전장장의 식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부원을 개발하고 증진함에 있어서 國利福民의 진흥은 실로 가장 급한 임무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첩경은 실제로 개량의 모범을 보여 농민을 유도 계발함에 있다. 일본제국정부는 이에 따라 먼저 국본을 배양하여 선린유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06년 4월 권업모범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업무를 개항하면 첫째 산업의 개량 발달에 관한 규범 및 시험, 분석 감정을 행하고 둘째 종묘, 종금, 종돈을 배합하며 셋째 산업상 필요한 제반 조사 지도 통신 및 강화를 위하는 데 있다. 이에 불초 幸介가 장장의 증임을 이어 통감의 지시 하에 창립의 업무를 맡아 용지의 매수, 경지의 정리, 도로의 축조, 기구 기계 건물 등 제반 설비에 착수하여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들어간 경비는 17만 여원의 거액에 달한다(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앞의 책, 13쪽).  
 9)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25年誌』, 1~2쪽 참조.  
 10) 일본의 쌀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식량공급차원에서 필요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였다.

부권업모범장관계가 발표되어 종래 수원에 있는 농림학교는 본장에 부속되었으며 지장은 대구, 평양, 목포, 독섬, 용산 5개소에 설치되었다.

한편 대한제국기의 농업의 심각성에 대하여 농구개량과 비료제조 및 곡물 중 선택 문제가 제기되었다.<sup>20)</sup> 이러한 문제는 그 이전부터 일본인의 한국 농법 및 생산력의 저열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나타났다. 적어도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근대 농법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sup>21)</sup>

1910년 한일합병은 새로운 농업정책과 농업입법이 제도화되어 식민지적 수탈을 가능케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의 농업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특히 권업모범장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농업은 조선 산업 가운데 대종이라 칭할 수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자가 인구의 8할이다. 그 총생산액은 병합 당초 2억4천8백만원을 초과하고 수이출액 총액의 7할 이상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의 개량 발달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의 부력 증진상 가장 긴요한 일이다.<sup>22)</sup> 때문에 보호정치 확립 이래 농산진흥의 대안목을 가지고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다. 첫째 기후, 토질의 적합 여부에 비추어 적응작물을 분포할 것. 둘째 재래 작물의 품종을 개량할 것. 셋째 유리한 신작물을 수입하여 재배 보급을 꾀할 것. 넷째 비료의 증시를 꾀할 것. 다섯째 수리관개의 설비를 개선할 것. 여섯째 미간지의 이용을 증진할 것. 일곱째 가축, 가금 및 기타 제품의 개량증식을 행할 것. 여덟째 양잠 기타 부업의 장려를 행할 것.<sup>23)</sup>

아울러 이것의 실행에 있어서는 당시 농민의 지식 정도가 낮은 농법이 자못 유치하여 농가경제 역시 빈약한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4대 요강으로 근본 방침을 삼는다.

20) 鄭鎭弘, 「農業의 改良」(『대동학회월보』 제2호, 1908. 03. 25).

21) 도면회, 앞의 글, 320쪽.

22) 일본 통치자들의 기본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즉 식민통치의 근간을 결과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역사인식론 확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다. 일제의 의도대로 진행된 농업정책은 연구자들 사이에 조선 농업의 외연확대에 초점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하였다.

23) 일제가 지속적으로 농민들에게 부업을 강조한 것은 농토에 대한 유리 방지 및 그밖의 정책 수립에 안전하기 때문이다.

첫째 장려 사항의 다변화를 꾀할 것, 둘째 그 실행 간이로서 비용의 지출은 모두 없거나 또는 소액으로 할 것. 셋째 그 효과의 정확성. 넷째 실지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할 것. 이상의 방침 하에 권업모범장 및 도 종묘장 등 권농기관을 설치하여 우량 종묘, 잡종, 종축의 배부, 경작 또는 사육방법의 실지 지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농산물의 개량 증식을 기도할 것이다.<sup>24)</sup>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일제가 권업모범장을 설치하여 그 효과적인 측면을 내다보면서 식민지 농정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이는 이미 대만의 식민지 경영에서 차용한 노하우도 한몫 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대만은 주식인 미곡증산을 꾀하기 위하여 타이베이 근교의 총독부 농사시험장에서는 일본인 기사에 의해 일본종미의 이식재배가 행하여 졌고 대만재래종인 인디카종에서 재보니카종으로의 전환이 장려되었다.<sup>26)</sup> 이처럼 일본은 대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조선에서도 그와 동일한 정책을 실행하였다. 일제의 권업모범장 설치의 호혜적인 쌍방정책의 원형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일제의 농업식민정책은 토지침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지만 이에 연동작용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었다. 즉 토지효용성의 극대화를 통하여 식민지 농업정책이 일본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순조롭게 연착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구문제, 식량문제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sup>27)</sup>

## 2. 권업모범장의 조직운동

식민통치의 근간으로 설정된 농업정책은 토지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그 윤곽이

24) 朝鮮總督府, 『施政30年史』, 35~36쪽.

25) 일제의 대만 식민지 경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1901년 7월 4일 대만공공비전규칙이 발표되었고 게다가 대만 공공관개수리 규칙에 의해 경지개발이 진전된 결과 대만의 수전경지 면적은 비약적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인도의 예를 보면 농업정책의 순위에서 품종개량 보다도 관개사업 정책이 먼저였다. 이는 기존 교통망 정비에 투자한 인도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변화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었다(박섭, 『식민지의 경제변동』 한국 ; 인도, 문학과 지성사, 2001, 214쪽).

26) 末光欣也, 『日本統治時代の臺灣』, 151쪽.

27) 최원규, 「일제의 초기 한국식민정책과 일본인 농업이민」, 『동방학지』 77·78·79합집, 1993.

대체로 드러났다. 이식적 자본주의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일본제국주의는 농업정책의 운명을 식민지정책의 운명과 동격화시켰다.<sup>28)</sup> 다만 이러한 외적 요건의 성숙은 필수적으로 농업 구조의 재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권업모범장이 설치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sup>29)</sup>

수원권업모범장의 규모는 총면적 87여 정보이며 그 가운데 水田 59정보는 궁내부 소속지를 임차하여 민유지를 매수한 것이었다. 1906년 10월 정리사업 설계를 마치고 11월 2일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해 말까지 도로 및 경지정리사업 체계가 완성되었다.<sup>30)</sup> 이후 수원모범장의 면적은 더욱 확장되어 1908년말에는 121.8정보, 1909년말에는 149.8정보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증대된 수원권업모범장은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9월 30일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관제」가 발표되면서 식민지 농업정책의 실현장으로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sup>31)</sup>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관제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은 조선총독부의 관리에 속하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첫째 산업의 발달 개량을 원조할 조사와 시험, 둘째 물산의 조사와 산업상 필요한 物料의 분석 및 감정, 셋째 종자, 종묘, 蠶種, 種禽의 배부, 넷째 산업상의 지도, 강습 및 통신

제2조 권업모범장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場長

기사 전임 10인 주임(1인을 칙임으로 한다)

서기·技手 전임 35인 판임

제3조 장장은 기사로서 총당하고 조선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장중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부하 직원을 감독한다.

제4조 기사는 장장의 명을 받아 기술을 관장한다.

제5조 서기와 기수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 및 기술에 종사한다.

28) 정연태, 『일제의 한국농업정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29) 권업모범장 개장식 때 伊藤博文의 훈시에서도 일본에 의한 한국농업의 개량을 강조하였다(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25年誌』, 15쪽).

30) 김도형, 앞의 글, 1995, 147쪽.

31) 김도형, 앞의 글, 1995, 152쪽.

제6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권업모범장의 지소 또는 출장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7조 권업모범장에 농림학교를 附置한다. 농림학교는 농림업에 필요한 실무를 교습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농림학교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長

教諭 전임 4인 주임

조교유·서기 전임 5인 판임

제9조 교장은 권업모범장으로서 총당하고 조선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교무를 掌理하고 부하 직원을 감독한다.

제10조 교유와 조교유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습을 관장한다.

제11조 서기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sup>32)</sup>

1910년 식민지 농정의 근간이 되는 권업모범장에 대한 새로운 직제 개편은 주로 미작개량을 통한 생산력 증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sup>33)</sup>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관제는 농림학교의 부속을 골자로 이루어졌다. 관제의 많은 조항이 농림학교<sup>34)</sup>와 관련된 부분이다. 본장에 부속된 농림학교는 원래 대한제국 학부에서 실업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1906년 9월에 창립되었다. 이후 농림학교의 확장 목적에 따라 수원 권업모범장 부지에 새로운 교사가 신축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sup>35)</sup> 이와 더불어 권업모범장은 지소와 출장소를 설치하면서 그 조직이 확대되었다.

권업모범장의 조직이 재정비되고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게 된 것은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sup>36)</sup> 제1차 계획은 1921년부터 1925년까지 5개

32) 『朝鮮總督府官報』, 1910. 9. 30.

33)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25年誌』, 27~28쪽.

34) 1918년 朝鮮總督府 농림학교는 수원농림전문학교로 승격된다. 4월 14일 개교식에 총독을 비롯하여 이완용, 학무국장 등이 참석하였고 이 때 총독은 조선농업의 발전과 기술자 양성을 본교 교육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朝鮮農會報』 13-5, 1918.5, 63쪽). 특히 일제의 농림학교 출신에 대한 기대는 농업조직의 재편과 함께 매우 컸다(永岡堯, 『農事改良に就き農學校出身者に對する希望』, 『朝鮮農會報』 9-8, 1914. 8, 8~12쪽).

35)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25年誌』, 4쪽.

36) 朝鮮總督府, 『官報』, 1925. 1. 4. 1924년 12월 24일 조선총독부 권업모범장 관제가 개정되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인원이 축소되기도 하였다.

년 계획이었고, 제2차는 1926년부터 1935년까지 10개년 계획이었다. 그러나 10개년 계획은 1934년 중단되었는데 이는 조선미의 대일수출 증대로 인한 일본농업의 위기 때문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식민지 조선과 일본에 극단적인 효과<sup>37)</sup>로 나타났다. 즉 조선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전국민의 궁민화 현상을 보였으며 일본은 쌀값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sup>38)</sup> 권업모범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총독부의 농사개선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 1929년에 농사시험장으로 개칭되었다.<sup>39)</sup> 제2차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농업관계자들도 당시 권업모범장의 연구기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총독부 관리들도 “조선의 농업도 지금 상당 정도 발달하여 왔으므로 그 이상 발달을 기하자면 조선에 특유한 사정을 배경으로 한 엄정한 시험을 행하고 그 성적에 의하여 방책을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원에 있는 모범장의 충실을 꾀하는 외에 필요에 응하여 지방에 지장을 증설하고, 혹은 모범장 이외에 새로이 시험기관을 특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농사시험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권업모범장에서는 1928년 개최된 농업기술관 회의에서 농사시험기관의 개선추진에 관한 건을 제출하여 농사시험장으로서의 전환을 조선총독부에 요구하였다.<sup>40)</sup> 1929년 9월 칙령 제279호로 발표된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관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은 조선총독의 관리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

- 一. 농업, 잠사업 및 축산업의 개량발달에 관한 조사 및 시험
- 二. 토양비료, 농산물, 桑葉, 생사, 축산품 기타 농업, 잠사업 및 축산에 관계있는 물료의 분석 감정 및 조사
- 三. 종자, 종묘, 종축, 종금 및 종란의 생산과 배부
- 四. 원잠종의 제조 및 배부
- 五. 강습 및 강화

제2조 농사시험장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 場長
- 技師 전임 14인 주임 내 1인을 칙임으로 할 수 있다.
- 屬 전임 6인 판임
- 기수 전임 30인 판임
- 제3조 장장은 기사로서 이에 충당하며 조선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아 場務를 처리한다.
- 제4조 기사는 장장의 명을 받아 기술을 담당한다.
- 제5조 속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 제6조 기수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기술에 종사한다.
- 제7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농사시험장의 지장 또는 출장소를 두어 본장의 사무를 분장한다.<sup>41)</sup>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관제도 이전 권업모범장 관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원 가운데 기사의 정원수가 증가하였고 지장의 명칭 및 출장소가 증가하였다. 농사시험장으로 전환된 이후 1931년 농사시험장 본장, 지장, 출장소의 직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1931년 농사시험장 인원표

區分	기사	속	기수	촉탁	고원	용인	계
본 장	9(11)	4	19(1)	4(5)	29	76	141(17)
남 선 지 장	2	-	2	-	3	4	11
서 선 지 장	2	1	4	-	6	13	26
북 선 지 장	1	1	4(1)	-(1)	9	7	22(2)
목포면작지장	1	1	2	-	-	5	9
김제간척출장소	-	-	1	-	-	2	3
용강면작출장	-	-	1	-	2	1	4
車輦館잡업출장소	-(1)	-	1	-	3	7	11(1)
계	15(12)	7	34(2)	4(6)	52	115	227(20)

\*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一覽』, 1931, 3쪽.

41)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25年誌』, 17~18쪽.

37) 河合和男, 『朝鮮産米増殖計劃』, 未來社, 1986, 136쪽.

38) 河合和男, 앞의 책, 38~39쪽.

39) 김도형, 앞의 글, 1995, 174쪽.

40) 「本府農業技術官會議狀況」, 『朝鮮農會報』 2-4, 1928. 4, 68쪽(김도형, 앞의 글, 173쪽 재인용).

농사시험장으로 전환된 이후의 본장의 운영 특징은 인적 자원에서 고급 두뇌들이 이전보다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이다.<sup>42)</sup>

### 3. 사업실태와 식민농정

식민지 조선의 농업은 경제의 중심이며 산업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었다. 따라서 농업정책의 성패는 식민지 통치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였다. 특히 조선 농업의 기술적 개량은 생산력의 발달과 연결되며 이를 통한 식량 수급의 안전판 확보에 관건으로 작용하였다.<sup>43)</sup> 농업의 과학화를 통한 농업지식인 양성 및 이들을 통한 연구조사와 그 기반 확충이 식민지 조선농업의 방향이라는 것이다.<sup>44)</sup> 하지만 이러한 일제의 방침은 자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초대 권업모범장 장장이었던 本田幸介는 조선 농업의 현실을 진단하면서 장래 권업모범장의 경영실태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당국의 농업은 아직 개인 경제를 벗어나지 못하여 물산이 모두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상 손해가 많아 장래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라 기후토질에 적합한 적응작물을 배치하여 생산력을 증가해야 한다.

둘째 농산물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산액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열악하여 이를 개량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기후와 토질에 비추어 신작물을 수입하여 물산을 증가시키기를 기대하며 고래 신작물의 물산으로 고정함에는 큰 곤란과 수많은 세월이 필요함은 역사상 보이는 바와 같아 바라건대 권업모범장은 그 적부를 考究하여 차질 없이 진행한다.

넷째 농산물이 풍부하지 않은 큰 원인은 비료의 결핍에 있어 그 공급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초미의 일이다.<sup>45)</sup>

다섯째 수리의 시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력은 크게 문제가 되었고, 불시의 재해를 입어 생산 감소를 보게되니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점차 개량을 가한다면 생산의 안정과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토지 이용의 방법이 완전하지 않아 유용한 땅을 방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생산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일곱째 가축, 가금 및 그 제품에 관한 사업도 개량 증식의 여지가 자못 많아 그 일반의 개량은 많은 세월과 자본이 필요함으로써 우리가 실행하여야 하며 양계, 양돈의 개량은 비교적 용이하다.

여덟째 양잠은 기후 관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종래 거의 의견이 같아 그 보급을 펼치면 생산은 현저하게 증산될 것이다.

아홉째 농업의 부업은 생산상 필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장래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점은 한국 농업상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것으로 만약 이것을 개량하면 능히 생산을 배가시킬 수 있다. 본장에서 장래 행할 사업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그 실행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를 만나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sup>46)</sup>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 그 가운데 농업정책에서 중점 장려 품목은 쌀과 면화였다. 물론 牛도 중점 종목에 속하였지만 크게 쌀과 면화를 장려하는데 그 정책의 틀이 모아졌다. 권업모범장에서의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권업모범장의 사업 가운데 하나는 종자개량 즉 다수확 품종 개량이었으며 쌀과 면화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합병 이전 통감부에서는 가장 먼저 일본의 다수확 벼 품종을 도입하였으며 1901년~1910년에 11개의 다수확품종이 도입되었다.<sup>47)</sup> 도입주체는 대농장 또는 농업단체였다. 권업모범장에서 일본 품종을 재배하고 복제하여 일반 농가에 보급하였다. 한일합병 이후 품종 개량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1922년에서 1940년 사이에 5차례에 걸쳐 벼 품종 갱신계획이 세워 졌다. 뿐만 아니라 보리, 밀 콩 면화의 품종 개량 사업이 전개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2)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25年誌』, 17~18쪽.

43) 石塚峻, 「農業獎勵方針に就て」, 『朝鮮農會報』 17-3, 1922. 3, 15쪽.

44) 永岡堯, 앞의 글, 10~13쪽.

45) 박섭, 앞의 책, 224쪽.

46)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25年誌』, 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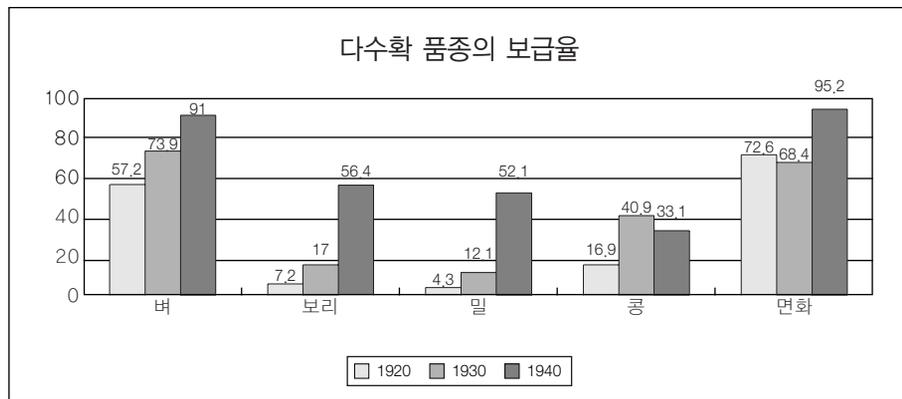
47) 1913년 권업모범장에서 12종의 일본신품종이 시험 재배되었다.(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勸業模範場報告』 8, 1914, 11쪽.

〈표-2〉 다수확 품종의 보급률<sup>48)</sup>

(단위: %)

작물종류	1920	1930	1940
벼	57.2	73.9	91.0
보리	7.2	17.0	56.4
밀	4.3	12.1	52.1
콩	16.9	40.9	33.1
면화	72.6	68.4	95.2

\* 朝鮮總督府 農林局, 『農業統計表』, 1940.



위의 표에서 벼와 면화에 품종 개량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공식적인 품종개량은 식민지 농정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변이였다. 예컨대 1912년 미작 개량의 장려에 관한 건에서의 주요 정책은 우량 품종의 보급과 건조 제작의 개량, 灌溉水の 공급, 시비의 장려와 같이 주로 생산가치의 비교우위에 그 정책의 중점이 모아졌다.<sup>49)</sup>

품종개량이 대두된 것은 한국의 식민지 합병 이후 조선의 재래종에 대한 일제의 적극적인 실험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론적 의문이 들 수 있다. 일본에서 품종이 도입되자 품종에 알맞게 재배 방법

이 바뀌어야 했다. 이를 통해 재배 방법에 변화가 일어났다. 벼에 대해서 보면 못자리에 통로를 만들어 모를 관리하기 하게 했으며 1평당 파종량을 줄여서 모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여 가을에 한 포기당 수확량이 많아지게 하였다.<sup>51)</sup> 벼에 대한 일제의 집착은 식민지 농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조선총독부의 강력한 우량종 보급정책 아래 우량 품종의 면적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1912년 수도작 면적의 2.2%에 불과했던 우량품종의 보급비율은 불과 4년 후인 1916년에는 보급률이 30%에 달하였고 1920년에는 50%를 상회하였다. 우량품종 재배의 증가와 함께 수도작 재배 면적의 확장으로 수도작의 생산고는 크게 증가하였다. 1912년 10,770,000석 수준이었던 수도작의 생산량은 1940년에는 20,000,000석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수도면적의 90%가 우량품종이었다.<sup>52)</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원 권업모범장 중예부에서는 수도 육묘의 경종법 개선과 우량종 건조법 개선에 주력하였다.<sup>53)</sup> 또한 우량품종의 개량이 조선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하여 농민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이 당시에 많이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농학사 向坂幾三郎은 품종개량과 그 보급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 우량 품종의 개량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선은 농업본위의 나라이며 농산의 증식을 도모하며 치부의 자원을 개척할 경우에 있으니 부운 및 군수는 이 불편을 느껴 농민에 대하여 불편한 사업을 장려하지 못할지니 이 역시 불편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즉 불편을 불편으로 인식하지 않고 장려를 하면 농민은 장래 자기를 이롭게 함을 자각하여 불편 2자를 망각하고 오늘날 부운, 군수의 개량장려의 지위에 있어 불편 2자를 뇌리에 秘藏하는 정도보다 가벼울 뿐만 아니라 환영 2자로 변하여 보급함에 다할 것으로 확신한다. ...농사개량의 장려를 함에 확실한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게 간섭하는 것이 필요하니 즉시 장려하는 사람은 단지 종자를 보급하고 種類의 개량은 이에 만족하다고 하면 실적을 거두기 어려우니 한번 불량한 결과로 본즉 가령 양호한 성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량한 때를 생각하는 것이

48) 박섭, 앞의 책, 223쪽 재인용.

49)李大淳, 「일제하 수도품종 보급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 17-1, 1990, 112쪽.

50)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25年誌』, 28쪽.

51) 박섭, 앞의 책, 22쪽.

52) 이두순, 앞의 글, 113쪽.

53) 朝鮮總督府 農事試驗場, 『一覽』, 7쪽.

인정이나 장려하는 사람은 뇌리에 불편 2자를 제거하고 친절히 권유하여 개량의 실효를 기해야한다.<sup>54)</sup>

품종개량 의지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식민지 이후에는 그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1906년부터 일본 품종을 우량품종이라 명명하여 그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권업모범장에서는 장내 시험지에서 직영하거나 혹은 감독하에 한인 소작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였다.<sup>55)</sup> 1906년 여름 수원군 서둔답에 早新力 1.2 정보를 재배하였으며, 1907년 권업모범장에서는 감독전 면적의 3분의 1에 조신력을 재배하게 하였다. 이러한 도작시험에 의해 시작 수전 1半步 당 평균 수확고는 수원본장 택중전 벼 2.9석, 원중전 벼 3.36석, 보통전 1등구 벼 4.5석을 산출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한국 재래종에 비하여 일본종인 조신력이 평균 3할 정도의 증수를 나타낸 것이다.<sup>56)</sup> 1913년 당시 권업모범장 본장에서는 일본벼 즉 우량종 12종을 시배하였다. 개량법의 기준은 품종의 개량, 종자의 정선, 재종량의 감소, 苗代의 개량, 插秧株數의 증가, 관수의 절감, 제초회수의 증감 등이었으며 제1구 早新力을 비롯하여 12구까지 삼종하여 그 생육상태에 따라 이식하였다.<sup>57)</sup>

이러한 연구를 통해 1910년대에는 早新力이 우량품종이었으며 1920년대와 30년대 전반에는 穀良都가, 1930년대에는 銀坊主가 우량품종으로서 파종면적 1위를 차지한 품종이었다.<sup>58)</sup> 특히 1922년부터 40년 사이에 5차례에 걸쳐서 벼 품종 개

신 계획이 세워졌으며 계획 연면적이 551만 정보, 실적은 586만 정보로서 106%의 달성률을 보였다. 실적은 벼 작부 면적의 3배를 넘었는데 이것은 몇 차례에 걸쳐 다수확품종의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sup>59)</sup> 나아가 우량품종을 시배하는 소작인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져 사기 진작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1920년 11월 23일 권업모범장에서는 소작인 立毛品평회 포상수여식이 거행되었다. 당일 답부 현업사무소 앞에 식장을 설치하여 소작인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향판 기사의 성적 심사 보고에 따라 상장이 수여되었다.<sup>60)</sup>

수원 권업모범장의 운영방향과 주요사업은 산미증식계획을 계기로 확연히 전시기와 구분된다. 1910년대까지 권업모범장에서는 농업 전반에 관한 실험, 시험을 통한 과학적 연구를 통한 성과물이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특성상 남과 북의 기온차, 지형차가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농작물에 있어서 産米에 편중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sup>6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미증식계획은 일본 자본주의 존립에 필요한 저미가,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1922년 『조선농회보』에 실린 글 가운데 산미개량에 관한 것이 압도적이었다. 예컨대 조선산미의 개선은 조선농촌경제 개선에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던 경기도 부천군농사장려회 평의원 萬治豊喜의 글처럼 당시에는 이것이 대세였다.<sup>62)</sup> 조선농회 상무이사인 足立丈次郎은 식량문제가 세계각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여 식민지 조선에 일본종을 이식하여 산미증식계획을 진행한 것은 조선 농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기도 하였다.<sup>63)</sup> 이러한 인식은 식민지농정과 산미증식계획에 탄성을 부여하였다.

권업모범장에서는 산미증식계획의 실시에 의해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

54) 向坂幾三郎, 「稻作改良에 對하야」, 『朝鮮農會報』 제7권 3호, 1912, 1~3쪽.

55) 1908년 권업모범장 감독 畠은 早新力의 성적이 양호하였다고 한 반면 인근 5개 농촌에서의 실적은 그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向坂幾三郎, 앞의 글, 2쪽).

56) 김도형, 앞의 글(1995), 157~158쪽. 일본에서 품종이 도입되자 도입품종에 알맞게 재배방법이 바뀌어야 했다. 그리하여 재배 방법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벼에 대해서 보면 못자리에 통로를 만들어 모를 관리하기 편하게 했으며 1평당 파종량을 줄여서 모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여 가을에 한포기당 수확량이 많아지게 했다. 20cm 정도로 심경하여 토양의 질을 좋게 하며 비료를 많이 줄 수 있게 하였다. 모의 줄을 정확하게 맞추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상의 기술적인 변화가 오직 일본의 지배에 기인하여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박섭, 앞의 책, 223쪽).

57) 朝鮮總督府 勸業模範場, 『勸業模範場報告』 8, 1914, 10~12쪽.

58) 早新力은 관개시설이 충분하에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여 이후 식민지 수리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신력은 재래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內肥성이 강하고 다수품종이었다. 그러나 병해 가운데 특히 도열병에 약하였으며 일본의 다수품종에 비해서 내비성이 약했다. 穀良都는 조

신력에 비해 내비성이 강하고 미질이 극히 양호한 품종이었으나 金肥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화학비료인 硫酸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內病, 내비성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즉 多肥 하의 다수확재배에는 취약점이 있었다. 은방주는 조신력, 곡량도 보다 더욱 내병, 내비성이 강한 품종이었으며 당시 수준에서의 다비다수확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었다(李斗淳, 앞의 글, 122쪽).

59) 박섭, 앞의 책, 222쪽.

60) 『朝鮮農會報』 15-12, 1920.12, 36쪽.

61) 富田儀作, 「農作의 獎勵は産米に偏重する勿れ」, 『朝鮮農會報』 20-1, 1925.1, 2쪽.

62) 萬治豊喜, 「産米改良의 四大項目に就て」, 『朝鮮農會報』 17-1, 1922.1, 56~58쪽.

63) 足立丈次郎, 「鮮米의 改良に對する要望」, 『朝鮮農會報』 17-4, 1~4쪽.

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1923년 3월 3일 신임 제3대 장장으로 九州제국대학 교수인 大工原銀太郎이 취임하면서 권업모범장의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 규정력이 강화되었다. 그는 조선농업에 대하여 무지하였으나 식민지 조선을 시찰하고 조사연구하여 조선농업의 개량 발달에 진력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가 심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sup>64)</sup> 大工原銀太郎이 장장으로 취임할 기기는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면서 토지가 개량되고 우량품종이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시비량의 증가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고 있을 때였으며 시비량 증가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화학비료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대세였다. 그러나 화학비료는 종류의 선정, 시용의 방법을 틀리게 하였을 때 도리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토양과 비료학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조선농업의 요구가 토양·비료학의 대가인 大工原銀太郎을 장장에 임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권업모범장에서는 비료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비로소 창시되게 되었다.<sup>65)</sup>

한편 일제는 농사개선을 위하여 1928년에 권농공제조합을 창설하였고,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1929년에는 수원권업모범장을 농사시험장으로 개칭하고, 남부지방의 미작개량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1930년 이래 이를 각지에 확장시켰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조선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품종개량을 실시하고 재배법을 개선하여 일반농가에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농사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아 단위면적에서의 미곡생산량을 증대시켰다.

1910년대 식민지 통치는 토지사업 및 금융기구의 재편으로 시작되어 일본제국 주위의 자국 시스템 이전과 지배체제에 필요한 기초사업마련에 그 특징이 있다. 농업정책도 식민지 산업정책의 중추로서 진행되었다. 특히 일본 본국의 식량 마련과 이를 통한 원료공급의 원활함을 꾀하기 위해 권업모범장을 핵으로 하여 각종 일본 품종을 도입하여 시배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조선총독부 재정의 재원으로 지세를 확보함과 동시에 식민지 농촌의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권업모범장은 식민농정이 시행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두뇌집단으로서의 역

할을 담당한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이 실시되면서도 변하지 않았다.

## 맺음말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기 이전부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것은 토지였다. 물론 금융과 철도라는 자본주의 성립의 양대 축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일제는 명치유신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에 의해 만성적인 쌀 부족국가로 전략하게 되고 식민지 조선에서의 농업정책도 이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본고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농정에서 야전사령부 역할을 담당한 권업모범장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권업모범장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략하면서 농업지배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 그 사업의 기본 방향도 식민지 농정을 집행하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먼저 권업모범장은 몇 차례에 걸쳐 관제규정이 바뀌면서 1929년에는 명칭까지도 농사시험장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사업분야에서는 관제규정의 변경에 비례하여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특히 우량품종 개량과 보급은 1906년 권업모범장 설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다. 이것은 일제가 본국의 식량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로서 기능한 것이며, 나아가 식민지 조선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산미증식계획과 같이 대규모 쌀 반출계획은 권업모범장의 실험 시험적 기능을 더욱 강화시켰다.

두 번째 권업모범장은 우량종 개량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가시킬 수 있는 비료의 개발에도 진력하였다. 일제는 우량품종이라고 명명한 일본 국내종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하여 이를 한반도에 맞는 품종으로 개량하여 보급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시비문제가 대두되면서 권업모범장에서는 비료 및 토양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1927년 조선비료취체령의 시행과 함께 판매비료의 의뢰 분석을 행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 잠업을 개선 장려하였다. 권업모범장에서는 잠업에 대한 시험·연구를

64) 大工原銀太郎, 「朝鮮の農業には研究の餘地多し」, 『朝鮮農會報』 18-6, 1쪽.

65) 김도형, 앞의 글, 1995, 171쪽.

통하여 조선의 풍토에 순화된 일본종 우량잡종을 새로이 장려품종으로 지정해서 한층 강력하게 그 보급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잡종의 제조 및 배부사업이 용산지장에서 수원본장 잠업시험소로 1914년 이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잡업에 대한 일제의 관심의 일본 잡종의 조선 보급이라는 명제하에 권업시험장의 한 사업 분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면화재배 및 종축, 축우 개량 사업에도 주력하였다. 이렇듯 권업모범장은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 농업 기술과 품종을 이식하는 데 그 사업을 집중하였다. 따라서 권업모범장의 시험을 비롯한 여러 사업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농업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기 일본제국주의의 농업기술 이전과 그로 인한 일본인 이민 토대의 마련을 위해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Administrative Actual Condition of the Kwenupmobumjang(勸業模範場) in Suwon(水原)

Kim Joo-Yong

Before th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the land wa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things. And so did the finance and train, the two axes of the capitalism. But since the new Meiji Leadership(明治維新), population had been rapidly increased, so Japan had got short of the rice. Therefore the agricultural policy toward the colonial Chosun had been directed how to produce the rice much more.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administrative actual condition of the Kwenupmobumjang(a kind of agricultural institute), which had been functioned as the field headquarters under the Japanese rule.

Japan built the Kwenupmobumjang to control firmly the agriculture of Korea Empire(大韓帝國). The Kwenupmobumjang had changed the provisions of official regulation and renamed as the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tion(농업시험장) in 1929. But the business fields had not suddenly changed in proportion to the changes of the official regulations. Especially, since the foundation of the Kwenupmobumjang in 1906, the improvement and the supply of good breeds had been continued. So it had served to supplement the shortage of provisions. In effect, the food situation in Chosun had taken an unfavorable turn. The plan to carry out the rice on a large scale such as the Plan for the Rice Product Multiplication(산미증식계획) had reinforced more and more the

experimental function of the Kwenupmobumjang.

The Kwenupmobumjang had improved not only the good breeds but also the fertilizer. Japanese good breeds had been naturalized in colonial Chosun, so Japanese imperialism had sought to improve and supply them in Korea.

The Kwenupmobumjang had encouraged to raise silkworms. The Kwenupmobumjang had tested and researched the silk-raising. And Japan had appointed Japanese good breeds as the encouraging ones which were naturalized in Chosun, and attempted to supply them. As so, the busines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silk-raising transferred from the Yongsan Chaper(용산지장) to the Headquarters of Suwon in 1914. Like this, the silk-raising industry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wenupmobumjang in the interests of Japanese imperialism.

Besides, the cotton growing, breeding stocking, and improving domestic cow had played significant role in the Kwenupmobumjang. Like this, it had concentrated on the business which had transplanted Japanese agricultural skill and breed to colonial Chosun. Therefore, I suggest that various businesses which had been experimented in the Kwenupmobumjang essentially intended not to improve agricultural techniques but to introduce Japanese ones and to prepare to emigrate from Japan to colonial Chosun.

Keyword : Korea Empire agricultural Experimental sta-rice product  
Multiplication Kwenupmobumjang.

## 수원학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종합토론 녹취록

정리 (최자운 :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조병로** :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조병로입니다. 먼저, 발표자의 토론 질의에 대해서는 5분씩 질문을 하시고 추가 보충은 3분씩 드리는데, 대안 제시형으로 싸우지 마시고, 대안을 좀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해서, 주제당 한 8분씩, 종합해서 8분씩 드리고, 방청객에서 10분 드리고, 가능하면 6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오바되더라도 수원문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조금 늦게 30분은 잡아먹었는데, 30분을 늦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가능한한 단축해서 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수원지역 민족운동사 연구동향의 박환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조금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이상일 국사편찬위원회박사께서 먼저 간단한 질의와 가능하면 대안제시형의 형태로 질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일** : 네. 국사편찬위원회 근무하는 이상일입니다. 발표요지 35쪽에 보면 준비한 토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환 교수님은 발제문 「수원지역 민족운동사 연구 동향」에서 지금까지 수원지역의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성과를 3·1운동과 1920년대 민족운동 연구동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근 주목되고 있는 구술사, 인물사 등에 대하여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수원지역의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 30, 40년대의 연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셨으며,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현장 답사, 면담 등 현장성에 중심을 두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셨고,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운동과 생활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역 민족운동에 대한 연구성과는 오늘 발표해 주신 박환 교수님에 의해서 정리가 이루어졌고, 수원지역 지방사연구의 현황은 경기대학교 최홍규 교수님이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준혁 학예연구사님께서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자는 연구현황에 대한 것보다는 오늘 세미나의 대주제인 수원학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수원지역 근현대사연구의 방향에 대한 생각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 이후 지방사와 생활문화사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부활이라는 국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중앙사·국가사 연구에만 치중했던 한국사학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90년대 초 일본에서는 세계 속의 동경의 위치를 가늠하고, 세계와 더불어 동경의 기여할 바를 모색하며, 동경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동경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3년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서울학연구소가 개소되어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상호조명하고, 교차되는 영역의 학제간 연구를 추구해 온 '서울학'은 오늘의 서울이 만들어진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데 그 학문적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최근에 각 지역의 동향을 살펴보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이 있고, '춘천학'과 '안양학'은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학 연구에 대한 연구도 이미 시작한 상태이다. 도단위 연구소로는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 강원발전연구원의 강원학이 있고 경기도도 최근 내년 설립을 목표로 경기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지금까지 『수원시사』를 비롯하여 『수원지명총람』, 『우리고장 수원』, 『수원의 옛 지도』,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 등 역사관련 많은 연구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화성행궁 복원사업, 효(孝)박물관, 수원화성 문화제 등 역사관련 문화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 역사박물관이 없다는 사실은 수원학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특히 수원은 지난 10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한 도시로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원이 21세기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100년간 수원의 역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한국사학계는 지역사나 민중생활사, 미시사, 여성사, 역사의 대중화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과정에서 근현대사 자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활문화사 자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고, 이에 따라 자료의 유형도 공적(대한제국, 총독부, 국가, 지방자치단체)기록자료 일변도에서 사적인 기록(개인의 일기라든가 회고록, 편지 등), 사진, 영상자료, 근현대 유물·유적(건축물, 생활시설이나 도구, 조형물이나 금석문), 구술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의 확대가 요청되고 있으며 연구 분야도 민족운동, 항일운동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운동, 교육, 지방 산업경제 등 다양화하여 진정한 근현대 향토사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수원지역의 근현대사연구도 최근 이러한 한국 사학계의 추세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병로 : 네 감사합니다. 비판적 질의를 보다는 대안 제시형의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론 부분에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보아서 대답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근현대에서 하는 증언 자료 채록, 각종 사진집, 영상물의 간행, 각종 기사증인 이러한 것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자료관 내지는 자료원의 제시를 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되며, 앞으로 발제자께서 수원시 각종 자료를 보관하는 역사박물관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각종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료발간 및 자료실이 만들어져서 제공된다면 그와 같은 질의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같이, 노력해볼 필요를 느끼면서, 저희 문화원에서도 역사박물관 추진계획에 우리들의 생각을 넣어서 시설물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통상 17, 18세기 연구사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차차 근현대시의 수원시의 신도시 조성 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도 수원역사 건설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다시 말하면 그, 정조시기에 만들었던 각종 농장지대가 근현대식으로 오면서 일제하에 농업시설로 오면서 오늘 한국 농업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그런 연계고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기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개발해서 연구를 차차 진행할까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표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현선교수께서는 구비문학 전문가이십니다. 예상외로 문학 예술에 대한 연구가 부진 한 것을 저도 실감을 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원대학 국문과에서 고전문학을 하시는 김미란교수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미란 :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 국문과의 김미란입니다. 제가 수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수원대학에 부임하면서 부터였는데요. 서울에서 다니다가, 몇 년전에 수원으로 왔어요. 처음에 올때는 좀, 오래 살 수 있을까 하고 왔습니다만은, 지금은 5, 6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인제,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수원학 관련 세미나에 초대를 받고 보니까, 정말로 수원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는데로 김현선 교수님의 연구논문을 듣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문은 46쪽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과 가까이에 있다는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면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불리한 면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원학 관련 세미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는 김현선 선생님의 논문의 의미를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대로 정리를 했구요. 두 번째 문단에서 굿이나 설화, 연구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바로 인제, 수원 지역의 뿌리를 박고 살았던 민중들의 심성의 밑바닥, 이런 것을 연구한다는 것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원 깍쟁이 얘기가 나오고, 사실 저도, 수원과 인연을 맺기 전부

터도, 수원 사람들은 깍쟁이다. 발가벗겨도 몇 십리를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소개한 설화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대개 이제 왜 이런 설화가 생겼을까. 이런데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기가, 제가 과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어요. 왜, 어떤 요인 때문에 수원 사람들이 이렇게 독하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인한 생활력, 개성사람보다도 더욱 강인한 생활력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런 것은 언제부터 되었는가, 아까 점심시간에도 들었는데, 여기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심성이 고우시고 그러신 분들이다. 또 여기에 이주한 팔부자 중에 어떤 분이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지으셨다. 이런 등등의 이런, 등등의 말씀을 들었어요.

설화의 속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런 것과 관련해서 그, 기록문학에서의 수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수원지역이 어떤 성격의 지역이었다가, 또 정조임금과 결부되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질이 조금, 외부에 알려지는 기질이 바뀌었는가 이러한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록문학에서의 수원에 대한 시각, 수원 출신의 문사들의 글도 있을 것이고, 외지인으로서 수원을 바라본 문사들의 글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 문단에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수원지역과 관련을 맺었던 문사들을 찾아봤어요. 우선 그냥, 제가 손 쉬운대로 수원부사라든가, 수원유수를 지냈던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문집을 가지고 있는 문사들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사들을 눈에 띄는대로 찾아서 아래에 소개를 했는데요.

이런 문집들에 나오는, 수원 관련 자료들도 찾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흥미있던 거는 이, 수원부사를 역임했던 분들이 승진해서 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판서나 감사, 즉 장관급이나 도지사급으로 승진해서 간 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이 수원부가 대단히 위상이 높았던 부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시는 분 중에, 수원을 관리들이 오려고 했었다. 이런 말씀도 듣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흥미있는 연구결과도 저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수원부의 위상 같은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두서없지만, 궁금한 것은 수원의 무가의 내용상의 특징같은 것이 있는지, 고거는 한 가지 좀 여쭙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앞으로 좀 이런 것이 보완되면 오늘 발표하신 구비문학적인 자료, 기록문학적인 자료, 이런 것이 종합될 때 균형감 있는 그 다음에, 수원을 좀 더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조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선 : 예.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5분 정도라고 하셨죠? 김미란교수님은 성함으로 뵈고, 실제로 뵈는 적이 있었는데 제 토론에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드리고 이 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바와 좀 더 보완 됐으면 하는 사항들을 네 가지 정도로 말씀주셨는데, 장차 그것은 이 글을 인쇄물로 가져갈 때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의문점을 주신 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서 선생님께 어리석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제가 결례를 하더라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왜 각쟁이라고 왜 생겼는가 왜 이런 설화를 했는가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만 짐작컨대, 수원이 교통의 요충지라고 이해가 되요. 전통적인 교통로에서 수원이 지나고 있는 드센 면이 항상 보이거든요. 떡정거리, 병점까지 연결 지어서, 그런 어떤 와중에 생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 것이 이해는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가는 지금 밝히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 점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반되게 어느 지역이나 심성이 고운 분들이 계신데, 그 양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인제, 두 번째 말씀은 기록문학적인 측면이죠. 기록문학적으로 수원쪽의 특징 같은 것을 밝힐 수 있을까 하는건데, 다시 갈라서 말씀을 하면, 하나는 한문으로 된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한문 이후에, 또는 한문과 동시에 국문으로 기록된 자료일텐데, 그런 것들을 모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점에 주목하고 싶으나 하면, 근기남인들의 행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여기에 인제, 경기도에서 낸 기백열전이라는 책들을 보면,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 고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정계진출의 요충지였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하고, 여기서 토박이로, 또는 불박이로 자리하면서 한문으로 저작을 하신 분들을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박이로 계시면서 양성을 하고, 실학의 요충지 노릇을 수원에서 일정 부분 했습니다. 화성지역까지 합쳐서. 그들이 어떤 성리학적 성향을 가졌고, 또 양명학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은 좀 더 밝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좀 더 바람직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했으나 사실은 앞에, 최홍규 선생님이나 개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차별화하는 방향에서 저는 이쪽을 택했는데, 그 점이 빠져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제, 또 한가지는 국문글쓰기의 본격화 된 시대에 나온 예술가들, 문학가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도 좀 보완하면서 나해석 같은 인물이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 흥난파, 이런 사람 까지 합쳐서 전체를 밝히면서 보완해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마지막으로 수원지역의 무가가 특징이 있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매우 다릅니다. 실제 강신을 해서 하는 하는 만신들의 무가 하고, 그들이 하는 것이 다른데, 그걸 그냥 소리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서울지역 만신들은 서울식, 그러니까, 그런 내림굿을 가진 만신들은 서울식의 어법으로 소리를 해요. 그래서 뭐, 어 굿자, 이런 만신이 아니시냐, 이렇게 해서 말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수원지역에 불박이로 자리하면서 토박이로, 더 나아가서 집안을 형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격조가 있고 육자배기 토리로 소리를 하는데, 도살풀이 장단에 맞춰서 하는 것들은 아주 멋지고 아름답죠. 그래서 이걸 소리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음악적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차별화 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병로 : 사회자 권한은 아니지만은 방청객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원지역의 구비문학 자료가 어떤 것이 있으며 육자배기 토리하고, 도살풀이장단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기원의 발생의 기원의 발생, 선후관계는 있는지 유난히 육자백이라고 경기남부 지역의 도살풀이 장단의 특성, 고유성이 어떤 건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선 : 네 수원지역의 구비문학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고,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낸 한국구비문학대계 수원시, 화성편이 거의 유일합니다. 인하대학에 계시던 성기옥 선생님께서 조사하셨는데, 그 후에 낸 저작들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거의 베꼈습니다. 그래서 수원 돈 많고, 백만을 호가하면서 훌륭한 도시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참담하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저도 경기도 수원시민은 아니지만, 수원에 대체로 25년동안 항상 교통비를 지불하고 왔다갔다 했는데, 1/3정도의 수원시민의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그만큼 냈을 테니까요. 그런데 너무 불행한 일이지요. 이거는 지나치게 기록 위주, 정조위주, 화성 위주의 사고 때문에 빚어진 참극이다. 이렇게 극복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참으로 참담하죠. 평택이나 오산이나 용인하고 비교해도 이진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 사람들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수원시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인제 궁금한 점이 도살풀이, 아주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그게 뭔지 궁금하실텐데, 이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통 우리 아이 낳는거를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낳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점지해서 키우고 아이를 낳는 거의 소관을 보통 삼신이 맡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죠. 전통사회에서는 그때 삼신이 어떻게 아이를 갖게 했는가 하는 것을 쭉 이렇게 노래를 하는게 있어요. 그거를 도살풀이장단이라고 하는데, 다섯달이 되면 사람이 반집이 된다고 그러고, 열달이 되면 한집이 되어서 몸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고때 도살풀이장단을 육자배기 토리로 부르죠. 다섯달에 찬집 받아...요렇게 불러 나가는데 요렇게 부르는 방식이 고나해 이렇게 해서 육자배기로 하는 전라도 소리하고 같다는 거죠. 조병로선생님 말씀은 그 육자배기 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이건 우리들이 훨씬 이전부터 굳어진 놀라운 전승력이죠.

다시 좀 더 추정까지 보태서 말씀하면 고 백제권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남한강 이남을 자꾸 말하는 그와 같은데, 이유도 수원이 그거의 중심지였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정신적 문화의 충위를 단절하고, 오로지 한문으로 기록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고 누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어온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분이 두 분 살아계세요. 그런 분들

좀 더 높이 내세우고 수원을 빛낼 수 있는 자성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조병로 : 혹시 있습니다. 좀, 싸워봅시다. 토론이 되어 되고, 싸움이 있어야 재밌는거니까. 방청객을 위해서, 또 전망있는 주제를 축출하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비교적 이해가 되는 질의와 응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표인 수원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 다소 기초발표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김준혁 선생님 이 수원지역에서 화성사업소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발표 고맙구요. 이어서 서울여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김태환교수님께서 부탁올리겠습니다.

김태환 : 소개 받은 김태환입니다. 일단 이 수원지역 지역사 연구 현황과 과제의 토론을 부탁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제가 수원지역 지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수원지역 지역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 논문에 대한 정리한 수준이기 때문에 토론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래 제가 준비한 것을, 토론문은 65페이지에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발표문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발표문을 보고 다음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게 수원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수원학이란 무엇이고, 수원지역사 하고 하는 학문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토론문은 네 개의 질문인데,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학에서 수원 지역사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방 자치제의 확산에 따른 지역화의 경향으로 정체성의 확립이 지방 행정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면서 지방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별로 '서울학연구소', '부산학연구소', '충청학연구소', '경기학연구소'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지역내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부의 논리로 만들어져,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원학'이란 무엇이며, '수원시시사편찬위원회' '수원문화원' 등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 분명히 하여야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원학'이라는 범주 내에서 '수원 지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원 지역사의 범위와 시대는 어디까지인가입니다.

발표문에서 3장 신읍치 이전의 연구 성과를 말씀하시면서 신읍치 건설 이전 시대에 대해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화성시의 역사'로 연구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사 연구가 오늘날의 행정구역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항상 노정되는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수원학의 권역을 '범수원권'으로 확장하여 지역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고려하면서 연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세번째로 수원 지역사의 다양한 연구주제 부재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원에 대한 연구는 화성과 정조, 그리고 장용영 등 일부 주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 연구가 각 지역, 각 지방의 사회구조의 차이점만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완결된 각 지역사회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전체의 구조 나아가 국가의 구조까지 이해한다고 하는 점에 목표가 있다면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역사 연구가 심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발굴·조사·정리문제는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원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다양하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조사, 이에 기반한 새로운 해석은 '수원학'의 정체성 확보에는 물론 연구의 심화에도 필수불가결합니다.

또한 연구인력이 향토사 연구자, 전문연구자, 교사, 문화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입지를 가지고 현실에 접근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연구자간의 교류와 소통 뿐만아니라, 수원 지역사를 둘러싼 제반 연구 단체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수원 지역사'와 '수원학'을 비춰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번째, 인물사 연구에 수반되는 '미화' 및 '감추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입니다.

특정 인물에 천착해서 연구를 진행하다보면, 그 사람의 일부 모습만을 들어 전체를 포장하는 오류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당시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근현대 인물들을 연구할 때 '민족' 문제와 '사상'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상이한 평가가 공존합니다. 수원 지역의 인물을 현양함으로써 수원 사람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발표자께 드리고자 합니다.

김준혁: 며칠 전에 토론문을 보내주겠다고, 제 메일로 김태환선생님이 보내주셨는데, 간단한 거라고 해서 간단한줄 알았는데, 어려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원학이 무엇이고 수원학에 대해서 수원 지역사 연구가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인물과 관련된 부분들. 대체적으로 앞서 토론을 박환 교수님 해 주셨던 이상일선생님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수원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연구자로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수원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원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수원학이다. 그 속에서 화성과 관련된, 즉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둘러싸고 있는 정조의 정치 사상 화성의 건축학적 의미 세계문화유산의 의미, 이런 화성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어떤 거대 집합 안에 화성학은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문제, 예술문제, 문학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도, 수원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 속에서 수원지역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시대를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의 역사다.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가, 혹은 남북간의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분단되어있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현재 세계사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고, 대학에서도 실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가 중앙대학인데, 교양 선택으로다가 2학점, 역사과목 2학점만 이수하면 졸업이 되는, 이런 풍토 속에서 정말 이게 올바른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올바른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수원이라고 하는 미래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를 우리가 지역사를 정리하고 현재, 현재사로서의 지역사를 계속 연구해야 된다.

그 속에서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기능은 시에서 투자되는 정부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개별 연구자들이 할 수 없는 마을지를 계속 양산해내고 근현대 인물들을 계속 만나서 구술을 받아내는 일들, 그리고 시사편찬을 5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수원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대중적인 문화들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서 수원시민들의 의식을 높여내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창립되는 수원문화연구소는 무엇이나. 바로 수원학을 위한 기초 연구소로서 수원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즉, 수원의 중요한 정체성들을, 핵심 키워드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되어야만이,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수원의 연구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김태환선생님이 말씀 하셨듯이 화성시의 어떤, 그 역사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 수원이라고 하는 삼한 시대 모습서부터 신읍치 이전의, 혹은 18년에 화성유수부가 수원도호부로 다시 바뀌고, 다시 수원군으로 바뀌어나갔던 이 시점. 1949년 8월 15일 수원을 이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갈라지기는 하였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통합된 역사였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역사편찬과 연대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수원지역사 연구에 있어서 다양성의 문제들인데, 저는 김현선 선생님처럼 대가들이 계시지만, 그, 제가 팔달산을 왔다갔다 하면서 팔달산에 큰 굴이 두 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울산에서 그 굴에 와서 초를 켜놓고 그 명태포에 몸을 두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광교산에 올라 갔는데 문안 바위 갔더니 거기 게 하도 쫓농하고 소주병이 깔려 있었어요. 민간신앙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지금

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 신앙 부분들, 나머지 종교 부분들. 또 나타났던 문헌에 통해 보았을 때 다양한 음식문화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복식 문화, 또 김태환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시는 식생활과 관련된 문화들. 이런 문화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화성과 중심으로 했던 연구 풍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미화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어떤, 현재 입장에서 그 친일이다. 아니면 뭐, 친일하지 않았다. 난파 같은 부분도 음악성의 훌륭한 부분이다. 여러 가지들 많이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그것은 좋은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어떤 잘못된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수원시민들의 분열을 초래한다거나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시대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연구자가 정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학문에 대한 의견개진을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구술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본인이 자기 이야기 할 때 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뽕도 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안에 대한 부분들도 과장되게 이야기 하는 것들을 연구자들이 정확하게 짚어내주고, 정리해낼 수 있는 일들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병로 : 감사합니다. 뭐 좀 반론이 예상이 되는데, 강대련, 나혜석, 난파 등등의 친일적 요소의 객관성과 시민 화합적, 미화적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건지 반론을 해봅시다.

김태환 : 큰 반론은 없구요. 종합토론 때 또 문제가 되면은 그때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로 : 앞에 세 가지 발표는 수원의 역사문화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이에 생태 환경적인 문화 산업화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발표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염태영대표께서는 저도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수원지역, 경기도 지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NGO운동가로서 지속, 가능 개발한 아젠다 운동을 같이 한 입장인데, 수원의 역사성, 생태환경적 입지 조건을 북고남저형의 분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심어준데 대해서 상당히 그, 역사성과 현재성, 현대 생태환경성에 대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 수원시의 도시화, 개발화와 관련해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태환경적인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개발 연구원의 김동영선생님께서 토론에 참여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동영 : 네 김동영입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물론 수원을 포함해서 환경 보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책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전공분야는 대기 오염분야인데, 그러면서 최근에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환경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수원시가 어떤 방향에서 무슨 사업을 이런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좀,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과제인데, 그런 과제를 제가 하다가 보니까 오늘, 수원의 환경문제에 토론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수원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지식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쳐서 토론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수원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염태영선생님께서 발표자료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준비해오신 자료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 사진이나 이런 시각적인 자료도 많이 담고 있어서 언제 한번 따로 기회를 내서라도 들어보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쉬워서 주마간산식으로 지나가서 너무 아쉬웠구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적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수원의 환경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 보조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환경 관련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게, 수원시의 환경 여건이 어떻게 자료가 있는데, 토론자료에는 자세히 실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게 환경 분야를 이해하는데 애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수원시 환경여건의

장점이 뭐냐. 수원시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강점은 뭐냐, 수원시가 아무래도, 경기도 행정업무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 교통망을 바탕으로 해서 수도권 남부지방의 관문이기도 하고, 화성의 다수의 문화자원을 보유한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생태적으로 물의 근원지로서의 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중심지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핵심적인 기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환경생태적으로도 거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약점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수원시가 100만 인구를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좀, 과포화도시예요. 우리가 수원이라고 하지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흉악한 환경 문제를 수원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 문제, 공기문제, 쓰레기문제, 기타등등 해서, 개선하기에도 참 지난한 과제이구요, 만성적으로 교통 체증에 시달립니다. 이걸 수도권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한데, 또 수원은 공원녹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변에 뭐 광교산, 칠보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있는데 비해서 시내 쪽은 팔달산을 빼고는 공원이 거의 없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도시가 수원입니다. 그런 여건에서 자꾸 자연 생태계가 감소되고, 환경 오염이 축적되고 이런 것이 환경여건의 약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요인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뭐냐하면, 수원시에서는 월드컵 경기 개최를 계기로 해서 수원의 지명도가 아주 세계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의 남쪽에 있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 졌다는 거, 그 다음에 수원 안에는 10여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생산 기능은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대규모 알앤디 단지들이 전부다 수원에 입지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광고 테크노밸리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계획이 되면서 첨단산업, 연구도시로서의 잠재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타운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정업무 기능이 통합이 되고 기능수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수원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회요인으로는 수원시의 시민들의 활동이 다른 어떤 도시들에 비할 수 없이 활발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이 잠재적인 힘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요인들이 다른 위협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위험하나 하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환경, 교통, 주택, 이런 다양한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경기도 안에서도 다른 도시들은 놓고 있는게 아니죠. 성남, 안양, 안산, 시흥까지만 해도 최근에 환경도시로서의, 자적도시로서의 비전을 걸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경쟁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위협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지식 기반의 인프라가 수원 안에서는 부족한게 아닌가. 향후 이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보완될 예정에 있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게 수원의 환경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분석을 통해서 토대로 지역의 환경 보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비전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는 이 지역을 산업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공장이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되는거고, 아니면 이 지역을 생태 환경 도시로 만들어서 쾌적한 삶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세우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면 10년, 20년 뒤에는 쾌적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원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환경도시로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성이라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러울 게 없는 아주 <테이프 바깥> 수원시의 환경 비전이 됐을 때 그게 과연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원시의 환경보전의 요체는 무엇이나 하면 결국은 대규모 추가 개발 계획이나 시설 입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백만 도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느냐, 여기에다 사고의 중심을 두는거죠. 인구를 앞으로 5십만을 더 늘리겠다. 신도시를 몇 개를 개발을 해서 그나마 남아 있는 걸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거창한 개발 계획이 환경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에서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보전을 할 거냐. 그 다음 문제가 되는 지역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거냐. 이런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거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단 적절하게 인구 계획이 되어 됩니다. 앞에서 150만이라고 했는데 150만 그거 택도 없습니다. 사실은, 수원시의 기본적인 물리적인 여건상 150만이 택도 없다는 거죠.

우스개소리로, 모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 도시가 인구가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를 지금 전국에 270몇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가 2억5천만이 된대요. 그런 이상한 개발 위주의 사고방식이 아직 자리에 틀고 있는거죠. 그런 걸 지양을 하고 적절한 인구계획.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잘 관리해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과 함께 녹지 공간 보전, 확보, 저밀도 도시정비, 에너지 저 소비용 도시구조 창출, 이런 것 같은 도시의 기반을 환경친화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산업이니, 주거니 교통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은 최근에 친환경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는게, 최근에 2000년 전후해서 대대적으로 국내에서도 법률이 정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굵직굵직한 환경 관련한 계획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 보전 기본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녹지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천 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수질 환경을 어떻게 할거냐. 뭐 이런 굵직굵직한 실질적인 물리적인 계획들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연차적으로 은밀하게 착착 추진해나갔을 때 지금 훼손된 환경들은 보전이, 회복이 될 수 있는거죠. 그래서 비전과 함께 실질적인 계획을 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 염태영선생님 말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나왔는데, 그 1992년에 나온 얘기에요. 전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 환경 선언이라고 근 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환경문제를 보전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20년 전에 지구 정상들이, 그때 우리 나라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만은 72년에 그때만든 환경구호가 환경은 전 지구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한다. 였습니다. 그 구호는 최근에 와서 별로 회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 문제에 들어오면 여전히 유효한 슬로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되, 지역 주변에서 보전을 위한 노력,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환경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보전도 안 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시민들의 역할입니다. 공무원이 그냥 가만 두면 절대적으로 자기네들이 먼저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짓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민활동이 활발해져서 감시하고, 동력을 불어넣고, 그게 지

역환경 보전에서는 핵심 키입니다. 다행히 수원에서는 그런 활동이 활발하긴 한데 앞으로 좀 더 폭을 넓히고, 더 활발하게 하는 노력은 전부다 경주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병로 :** 질문인 점도 있지만은 내용 보완적인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염대표님께서서는 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재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개발과 문화재 보존이라는 이 양 축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이고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염태영 :** 예. 김동영 박사님. (비행기 소리가 남.) 이게 수원의 환경의 질을 또 하나 나타내 주는게 이 비행기 소리죠. (객석 : 웃음) 언젠가, 저 비행장이 수원에서 옮겨질 수 있을 때 수원의 도시계획적 측면의 완성도는 좀 더 높아 질 텐데, 지금 저 비행장으로 인해서 균형개발에 굉장한 차질이 있어서 이 동수원으로만 뺄어나간게 지금 수원의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동영 박사님 코멘트 해주신거 잘 들었구요. 김동영 박사님이 5년전에 지자체에선 처음으로 수원이 환경 정책 기본법에 들어있는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제가 제일 처음에 수립한게 있었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2기 과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오늘, 이런 맥으로 연결 된게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되서, 이후 10년이 좌우하는 환경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김박사님께서 만들어 주실거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박사님은 수원시 환경 여건을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그렇게 크게 구분해서 짚어주시면서 그에 따라서 비전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그 비전의 하나로 환경문화도시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인구계획이라든지 세부과니 영향, 그리고 지역시민사회의 역할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말들을 해 주셨습니다. 다 충분히 공감하는 바구요. 여기서 하나만 따져보면, 적절한 인구계획이 얼마나. 사실은 이제 90년대 중반에 수원시가 의욕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 150만을 잡은 것을 전임시장때 120만으로 다시 축소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120만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이 도시는 상당히 기형적이

될꺼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가능하겠나. 실제 수원의 도시 계획 현재 있는 거로만 잡아도 수원은 그냥 120만입니다. 지금이제 104만 5만 얘기하는데, 요게 아까 얘기했던 이의동 개발이 들어가면 이것이 맞춰지면 6만이 늘고 나니까 그제 110만이 넘죠. 서수원권의 호매실동에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들어오게 되었는데 2만 세대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한 6만 되요. 그냥 120만입니다. 사이사이 조그만 걸 빼드래두. 근데 120만은 또 요 경계 내에 불과한 5년 안팎에 다 들어 올거고, 보시다시피, 여기 영통아래 쪽으로도 수원경계부지 아니더라도, 다 이거 수원 생활권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경계부지 아니래도 20만 가까이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또 여기 봉담쪽 상현동 성북 이쪽 사람들 다 수원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는 수원 경계내 120만이라고 해도, 150만 이상되는 이상 되는 것의 집적 효과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원은 행정 수부도시다 보니까 수원으로 일보러 오는 사람 많죠? 수원 시내만 10여개 대학이라 그러지만 수원주변에 있는 대학들이 다 여기서 통학을 하게 되요.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통과, 이동 하는 사람들 수는 200만이 넘는 도시예요. 지금.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수원이 환경적 위협이 된다. 강구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세부관리역량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지역 사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되서, 해결되는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수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행정체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개설되어야 될게 지금 수원이 도시 계획을 잡으면 수원시 경계 내에만 잡으니까, 여기다 옥담옥담 산업도시도, 문화도시도, 생태도시도, 교육시설도 다 여기다 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는 단위가 너무 적어서 기형적 발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가기 위해선 수원권에 대한, 용인쪽은 워낙 크게 자랐으니까 놔두드래두, 수원, 화성, 오산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적절한 산업단지 배치와 도시배치, 교육 시설 배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을 키워서 종합적으로 생각 해야만 화성도 살고, 수원도 살고, 오산도 살고, 균형발전의 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것은 광역도시를 만들자

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의 개편을 이런 발전구상이 수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모델로 같이 나와 줘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화성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하면 자 일이분만 더 쓸게요. 화성에 세워지면, 혐오시설들은 다 화성으로 보낼려고 그래서 그런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화성은 혐오시설은 별로 없어요. 수원은 모든 기반시설들이 다 있어요. 수원은 화장장 있죠, 화성 화장장 있습니까? 수원이 쓰레기 소각장 있어요. 지금 남고 있어요. 화성꺼를 받아도 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하수 처리장도 병점 주변에 화성의 하수는 거기에 다 처리하고 있어요. 수원시에서 맨든거예요. 실제로 모든 환경 인프라 기초시설은 수원시는 다 갖춘 반면에 주변도시들은 못 갖췄어요. 사실은 화성이 이렇게 우려할게 아니고, 세금을 내도 화성으로 빠져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화성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강구해야 된다고요. 또하나 큰 축이 경부고속 철도 축이 수원은 안지나는데 화성을 지나가는데, 여기다가 수원의 역사를 연계 되는 것을 놓는 것이 수원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원의 종합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은 반드시 병행해서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환경얘기를 대신 하구요. 제가 수원학을 하는것에 대한 한가지, 오늘은 수원학에 대한, 수원학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오래전부터 꼭 필요한 수원의 현안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수원학을 하는 것을 이제 수원 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시작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이런 수원학의 배경이 되거나 이런 것의 구성요건들은 문화인류학적, 역사적, 경제사학적, 자연 수문학적, 풍수학적 여러 가지가 배경이 되서 그런 수원학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역사문화적 특징과 자연환경적 특징만 들어왔으니까 이후에는 농업사, 경제사, 상업사, 그리고 이를테면 풍수지리적 여건 까지 전부다 바라보고 함께 가는 수원학을 조금더 폭을 넓히면 다음 단계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구요.

그렇게 되면 수원학이 토대가 돼서 수원 사람의 특징, 수원문화에 대한 창출, 여기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그것이 바로 수원 정체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할 일이, 수원의 옛길도 찾고 옛 건축물도 살리고, 옛 유물들도 살리고, 종합적으로 수원은 화성과 어우러진 전체가 역사 박물관이 되는 시대가 반

드시 오도록,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호보완되고 서로 협력하는 수원학, 수원문화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조병로 : 예, 감사합니다. 아마 수원은 화성도시, 이 구시가지를 포함한 화성을 보존한다고 하는 문화재적인 측면이라면, 일본에 교토 오사카처럼 구도, 수원 화성 권역은 그대로 복원을 하고, 새로운 신도시하고 할까요? 백만 내지는 오십만 수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신도시를 오사카, 신 오사카 처럼 할때야 가능한 것이지, 현재와 같은 이런 입지적 조건에서는 어렵지 않나? 공존과 변화는 어떻게 병행할까는 역시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년주제에 언급을 하기로 하구요. 다섯번째 주제는 21세기 각국마다 문화강국을 지향하면서 문화산업을 개발하는데 그 핵심이 문화콘텐츠입니다.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우리 강진갑선생님께서 콘텐츠 내용을 소개하시고, 앞으로 비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이기만 선생님께서 질의를 질문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만 : 방금 소개받은 이기만입니다. 좀전에 강진갑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수원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개발활용 중인 문화콘텐츠의 사례를 주로 해당 지자체(기초, 광역)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소개하며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검토모색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오랜 현장 경험을 토대로 그 현황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발표자와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전제로 밝히며, 발표자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그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는 ‘인터넷 향토지’와 ‘출판물 향토지’는 그 편찬추진체제가 달라야 하는 점을 제시하며 작업의 초기부터 편찬팀과 기술팀이 함께 결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출판물 향토지의 경우도 편찬팀과 기술팀이 초기부터 결합하며 작업이 추진될 때 최종 작업물의 수준과 효용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 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발표자의 이같은 지적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향토지 구축작업 및 다수의 문화콘텐츠 구축작업이 사실상 출판물 시군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출판물 시군지 작업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와 보완작업이 한층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조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현재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작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같은 평가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수원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작업의 활성화를 위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발표자께서는 문화콘텐츠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작업을 추진 중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작업과의 연계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 이같은 작업을 위해 과연 어떠한 작업이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향후 수원시는 수원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소재로 문화원형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성을 비롯하여 효, 24반 무예 등을 문화콘텐츠 개발작업의 주요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이들 외에 수원갈비 등과 같은 아이템도 주요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요.

그리고 지자체나 지자체 부설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콘텐츠 개발작업을 육성하고 그 개발비용의 상당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민간개발 유도형' 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진갑 :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향토지가 아닌 출판지의 경우에서도 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출판물 형태의 향토지만 하는 경우도 여러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역사라든지, 민속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상임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

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제대로 된 경우가 역사나 민속학을 상임위원들로 써 초반기의 작업을 해 나가고 원고지필과 교정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세 계약이 이루어 지는데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초반기부터 북디자인 하고 결합이 되어서 작업을 해내간다면 북 디자인 이란게 단순히 책을 이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추세고 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출판물들이 거의다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책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반기부터라도 출판물을 목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판물을 거쳐서 인터넷으로 가니까, 좀 기술적인 검토, 또 그것까지 결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수원지역이 문화콘텐츠 부분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아닌가, 또는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발표한 바에서도 그 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향토문화 전자대전과의 관련을 이야기 하는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구축할 수 있는 서버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자료들을 모아야 되는데, 서버를 구축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의 수집인데, 얼마전에 작고하신 이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사학자로서 이항기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분이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지금 시흥시에 기증이 되 가지고 시흥시에서 자료 정리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사진 같은 경우 몇만점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자료가 될텐데, 수원시도 다행이 이항기선생의경우가 생활사적인 자료가 수집이 됐다고 한다면은, 얼마전에 작고하신 이종학선생이 남긴 자료는 그야말로 한국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자료들을 남겼고, 그 자료가 이미 수원시에 기탁이 되었고, 수원시에서 그것을 모아서 박물관 만들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으로써 이런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그 외 우리가 책을 만들때 책들을 만들면서 파일을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이걸 아카이브 구축할 때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관심과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은 이런 수원지역이 왜 상대적으로 문화 콘텐츠 부문이 떨어졌는가. 이거는 저는 관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콘텐츠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새롭게 시작된 부분에 대한 이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지역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 소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결국 이제 관심과 이해가 우선 순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수원이 덜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화원형에서 수원갈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간개발 유도형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것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민간개발 유도형 만이 만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구요. 그것이 적절한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점차 민간 개발 유도형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뺐는데, 향토문화 전자대전과의 관련성은 제가 향토문화 전자대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신문화 연구원에서 전국에 있는 232개 시군을 대상으로 향토문화 전자대전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나와 있던 시군지의 내용들을, 시군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기존의 시군지를 그대로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책으로 출판할 때의 향토지의 내용과 인터넷으로 올릴때의 향토지의 내용은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라든지, 분량, 이런 것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발표문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은, 책이 문자와 사진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인터넷에서 문자와 사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 음향을 다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대한 사업을 10개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한 2천억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끝났을 때에는 얼마정도 규모의 예산이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성남시는 시작이 되었고, 금년도에 전국에서 5개지역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행 조사사업을 하고 내년 이후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사업을 하는 방식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일정한 비율 부담을 하고,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로서는 이것인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원시도 이미 수원시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을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아마 수원시라든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수원시 재정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로 : 예, 이상으로 발표자와 비판적, 대안 제시적 질의자의 토론을 마치고 방청객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질의를 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성역화에 사업에 관한 문제, 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제, 시민 교육 및 자원봉사에 관한 문제, 이의동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문화보존 관리 문제, 이하 기타 문화정책 및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대한 시민 참여문제 등등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는 오늘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시면 짧게 질문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뒤에서부터 받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드리세요.

장필기 : 네 저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재직하고 있는 장필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수원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오늘의 대 주제 속에서 수원학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범주, 또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발표자들께서방금 토론자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분에게 질의를 드린다고 보다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수원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까지의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역사,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살아있는 수원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의 발표 속에서도 역사문제라든가 또는 문화예술, 환경문제, 또는 원형 전통, 문화원형의 콘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결국 지역사, 또는 지방사 역사적인 이러한 용어로서는 향촌사회사라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마는 어떤 지역사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고래의 문화전통을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로 정

립해나가는 이러한 과정에 자칫 간과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의 모습,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대전제로 두고서 학문적인 체계로 만들어 나가야만이 비로소 생명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역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대체로 1970년대 80년대 역사학의 종말이라는 그러한 위기를 서구사회에서는 맞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포스터모더니즘이라는 하나의 이론이 정립이 되면서 역사학에 대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한 것이 80년대 이후 우리 학계에도 도의되면서 생화 문화사, 또는 문화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금 각 지역에서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지방사 또는 지역사라는 문화사편찬에 다들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원학도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차재에 수원학 그 자체도 유사한 형태의 지방사가 아니라 그 속에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모습 그걸 제대로 담아줄 수 있는 학적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발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지역사에서의 사료의 발굴이라든가 조사수집 이런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결국 어떤 보존책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 발굴이라든가 조사 수집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앞으로는 더 마멸되거나 소멸 되기전에 어떻게하면 그걸 잘 보존해서 우리 후대에 물려줄 것인가 하는데 대한 고민이 깊이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도 수원학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병로 :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수원학, 삶이 잉태되는 수원학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포함한 하위문화하고 가치체계를 포함한 상위문화가 융합될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보존과학적 차원에서 인재도 양성해야 되고, 수원화성 박물관이나 이런것이 만들어지면 대대적인 인력관리, 지역의 후생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이쪽에서 연구도 하고, 연구한 결과를 지역사회 투입이 돼서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체내의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적인 그런 것이 앞으로 발달 되어야 하지 않는냐하는 좋은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 자기

소개 좀 하시고.

질문자 : 경기대학의 사학과에서 지금 사회를 보시는 조병로 교수님. 90년도부터 수원의 화성에 대해서, 중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구요. 서울이 고향이기 때문에, 애들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96년도에 이곳으로 왔어요. 아까 김미란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이삼년만 있으면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청장을 받고 수원학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여기를 와야 될 것인가? 저는 가정 주부고 사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중단없이 대학을 갔다면 사학을 전공을 했을 거예요. 이쪽에 살다보니까 9년이 되고, 주부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동안 공부를 하면서, 저도 공직에서 말단이지만 16년을 있다 나왔는데, 수원에 와서 느끼는 봄 가을이 되면 답사들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경기문화 재단이라든가 기전문화연구소 여러곳에서 심지어는 문화활동이 동사무소나 초등학교에서도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문화활동이라는 건 문화화성내에서 시작이 되어야지 않을까. 저희도 경기대학에서 전국답사팀에 총무를 맡고 있어요.

오늘 오면서 제가 수원학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세미나하실 때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끝까지 남아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준비가 된 많거든요. 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문화활동을 하실 거면은 저희 주부들도 준비되어 있는 주부들도 많고, 남자회원들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문화를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병로 : 앞으로 수원문화원에서 일반 시민들, 또 실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육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여성분들 관심이 많을텐데, 문화정책이나 문화활동에 대한 비판도 괜찮습니다. 좀 더 생각해주시고,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그냥 끝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종합토론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발표자나 토론자께서 단상에 계신 분들이 1분정도, 보충설명 내지는 대안을 말씀하실게 있으면, 저희들이 메모할 테니까 돌아가면서 아니면 자유롭게 질의 내지는, 질문보다는 대안 제시를

했으면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상일선생님 일본의 고문서들이나 근대사료집들 중에 수원과 관계되는 것이 혹시 있으면 소개해주시고, 그런 방향에 대한 연구주제도 제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본 정도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 한 2년 전인가 일본 시코네라는 도시에, 대학에 불일이 있어서 갔는데, 시코네라는데 가시면 시코네 성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총장이 수원 화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국사편찬 위원회도 방문했을 때 수원 화성과 시코네 성하고 공동연구할 수 있는 길을 놔달라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때 이미 지금 사회를 보시는 조병로 교수님께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작년에도 그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코네성하고 화성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지를 못했는데, 그러한 것이 수원학연구소라든가, 이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한 외국의, 일본이라든가, 아름다운 성을 가진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러한 것이 수원의 상품화를 하는데 좋지 않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병로 : 또 없습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로 수원학연구소에서 진행한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수원지역의 역사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연계하여서 연구하고 보급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구석기나 신석기문화의 중심분야나 백제 한성의 인천이 아니고 수원이라는 새로운 견해가, 백곡리 마을의 고분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아울러 고려시대의 수원 최씨, 김씨들의 토호세력으로써의 성장과정 불교계와의 관계, 아까 그 장필기선생님도 지적했지만 미시사 내지는 생활문화사 측면에서의 수원 지역 역사연구도 더욱 더 가중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근현대사의 자료 수집 보관 및 근대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중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문화도시, 또는 생태도시로써 발전을 위한 측면에 있어서 개발과 그런 문화 내지는 생태환경과의 보존의 조정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지적

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제 확대를 통해서 수원지역의 제반문제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현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저희 수원학연구소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운동, 문화정책 제안 및 참여운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수원학연구소로써 발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모든 학술세미나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발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원학연구소 설치운영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수원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연구소는 수원문화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수원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분석하며 수원지역학 연구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 8조에 명기된 사업
2. 수원지역 문화, 역사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용역
3. 각종 학술회의 및 국, 내외 학술 교류
4. 정기 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발간
5. 기타 필요한 사업

## 제 2 장 기 구

제5조(기구) 본 연구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운영위원회
2. 연구위원회

제6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2. 운영위원 약간 명
3. 연구위원 약간 명
4. 상임연구원
5. 연구보조원 약간 명

제7조(자격 및 임면)

1. 연구소장은 수원문화원 원장이 당연직 소장으로 겸임한다.
2.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면한다.
3. 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소장이 임면한다.
4.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직무)

1.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소장을 보좌하여 본 연구소의 운영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3. 연구위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제9조(임기) 본 연구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면한다.

제11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서면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전송이나 구두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3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의 정관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4 장 연구위원회

제14조(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면한다.

제15조(회의 소집) 연구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결)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 경우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제17조(심의사항)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가결한다.

1. 연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위임된 사항
3. 연구도서 간행, 학술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5 장 재 정

제18조(재정 및 회계)

1. 본 연구소의 재정은 수원시 지원금과 연구용역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연구소의 회계처리는 수원문화원 회계처리를 따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자료 수집비, 활동비, 회의비, 기타 수당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수원문화원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0조(재정보고) 연구소장은 사업 및 회계에 관하여 회계연도 말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준칙)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규정과 문화원 정관에 준하여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후 보

## 수원학연구소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 명단

성명	소속	자택주소	전화	핸드폰	비고
		직장주소		이메일	
유병현	수원문화원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62번지	사)254-5162	011-710-5162	연구소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2-1번지	031-244-2161	president@suwonsarang.com	
최홍규	경기대 사학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 128-701	031-242-6795	011-319-0211	운영위원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031-249-9169	namgokchoi@naver.com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7 건영 113-601	031-702-9413	011-774-9413	운영위원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031-249-9168	pabalo@hanmail.net	
조성을	아주대 사학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대우아파트 109-503	031-222-6091		운영위원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031-219-2850	eul@madang.ajou.ac.kr	
박 환	수원대 사학과	서울시 동작구 사당 3동 대림아파트 5동 103호	02-3477-0731	017-268-3569	운영위원 연구위원
		화성시 봉담면 와우리 산2-2	031-220-2346	hwpark@suwon.ac.kr	
박천우	장안대학교 교양학부	수원시 팔달구 화서2동 한진 현대A 107동 304호	031-258-8856	017-768-8856	운영위원 연구위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중부일보	031-299-3294	pcwjangan@hanmail.net	
김대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백설마을 주공 561-103	031-268-4157	010-4739-4157	운영위원 연구위원
		과천시 중앙동	02-500-8343	kimdk@history.go.kr	

성명	소속	자택주소	전화	핸드폰	비고
		직장주소		이메일	
정일동	수원대사학과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삼성7차아파트 702-801	031-304-1064		연구위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031-220-2349	idchung@suwon.ac.kr	
정형지	오산대교양과			011-9709-3402	연구위원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17번지	031-370-2648 (오산대교양과)	bwhje@hanmail.net	
김현선	경기대국문학과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현대2차 아파트206-1405	02-3272-3970	018-356-9108	연구위원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94-6	031-249-9108	y3k@kyonggi.ac.kr	
장필기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197동남빌라 5-303	031-213-6951	019-9158-5870	연구위원
		과천시 중앙동	02-500-8346	jpk@history.go.kr	
이세형	수원문화원이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씨미트빌A 215동 1501호		011-9732-5136	운영위원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 율곡관 209 수원발전연구센터	사)219-1732 fax)219-1737	lsh3111@hanmail.net	
최홍규	수원미협자문위원			011-744-2392 팩스: 256-5917	운영위원
		수원시 팔달구 교동 56-2	031-256-4917		
김철규	수원문화원이사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보은맨션 806호	243-0053	019-212-4119	운영위원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사)233-3028	nomih@hananet.net	
박희정	수원문화원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롯데아파트 1동 201호	031-247-7005	011-304-7081 팩스: 253-0740	사무국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2-1번지	031-244-2161	ing@suwonsarang.com	
최자운	수원학연구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61-196 2층		016-721-0296	상임연구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2-1번지	031-244-2161	jauni@hanmail.net	

후보

## 수원학연구소 원고 작성 원칙

### 〈 1 〉 제목, 목차, 필자명

1. 게재논문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2. 章 --> 1. 2. 3. / 節 --> 1) 2) 3) / 項 --> (1) (2) (3).
3. 목차에는 章과 節만 표시한다.
4.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

### 〈 2 〉 본문

1. 한글 집필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자가 꼭 필요한 경우는 그대로 쓴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한자로 쓰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 〈 3 〉 인용문

1. 사료(자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2.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 4 〉 각주

1. 서지 사항은 가능한 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밝혀 준다는 대원칙을 지킨다.
2. 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
  - ① 한국사, 「역사의 개념」, 『한국사학보』 1, 고려사학회, 100 101쪽, 1998.
  - ② 한국사, 「역사연구」, 『한국사학보』 1, 1960 ; 「역사의 사회사」, 한국출판사,

재수록, 100쪽, 1998.

③ 한국사,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1997.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 ( )...」와 같이 처리

사료 인용

⑤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高麗史』 권76, 百官1 贊成事(아세아문화사영인본 상책 107쪽 가, 이후 상-107-가로 표시)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원문 이용은 “”로 표시)

『世宗實錄』 권9, 世宗 6년 5월 庚子(국편 영인본 12책 409쪽 가, 이하 12-409-가로 표시)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⑥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 5 > 주의 사항 : 영문 초록, 주제어 첨부

1. 맺음말 뒤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2. 영문초록에는 필자의 영문 이름과 논문의 영문 제목을 반드시 기재한다.
3. 주제어는 5개 이상을 선정하여 맺음말 뒤에 첨부한다.

## 수원학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 조병로(경기대 사학과 교수, 본 연구소 연구위원)  
위 원 : 정일동(수원대 사학과 교수, 본 연구소 연구위원)  
          김대길(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본 연구소 연구위원)  
          김철규(수원문화원 이사, 본 연구소 운영위원)  
간 사 : 최자운(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 水原學研究

## 創刊號

---

인 쇄 2005년 1월 일  
발 행 2005년 1월 일

---

발 행 인 유 병 헌  
편 집 인 조 병 로

발 행 처 수원학연구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산 2-1  
TEL : 031-244-2161~3

제 작 풍광 : 031-211-7784

---

비매품

이 책자는 수원시의 지원에 의해 제작된 것임.